

달이가고 해가가고

클로로



소개글

교통사고후 깨어나 보니...이 소녀가 나라구?

목차

1	짝사랑	4
2	길들이기	13

아스팔트는 하루종일 햇빛에 달궂져서 아지랑이를 뿜어대고 숨이 턱턱 막혔다.

'그래.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숨이 막히는 거야'

은영은 자꾸만 답답해져 오는 가슴을 무더운 더위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집에 누워있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나졌다. 동하가 너무 보고싶었다.

귓가에 동하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어딴데'라고

동하가 유치원가는 시간에 맞춰서 아파트 입구에 숨어서 기다렸다.

근데 동하가 나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은영은 자꾸 불안해졌다

'어디가 아픈거 아닐까.. 혹시 나 찾다가 병이라도 난걸까?'

은영은 3017호 앞에서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다.

"땡동~~ 땡동~~ 땡동~~"

'그래 .. 내 아들 보러 오겠는데 .. '

"누구세요?"

듣기만 해도 순간 가슴이 방말이질을 하고 땀이 비질비질 났다. 동하의 할머니 목소리였다

"저예요.. 동하엄마예요"

"....."

"문 좀 열어 주세요.. 어머니 동하얼굴 한번만 보고 갈게요"

띠리리~~ 문이 덜컥 열리면서 벌써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간 동하할머니가 은영을 쏘아보았다. 주위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니

"일단 드러와라. 동네 뺑파해서 원 쪼쪼..."

은영은 일단 열린 집안으로 드러갔다... 슬쩍 내부를 훑어보니.. 집안이 이사라도 가려는 듯이 여기저기 짐들이 싸여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지가 싫다고 버릴땐 언제고 애 얼굴을 봐? 당장 가거라. 동하 여기 없다. 지 애비가 데리고 갔다. 정말 얼굴도 두껍구 나. 하긴 어디 보고 배우고 자랐어야지 흥.. "

"애비가요? 어디루요 어머니? "

"어머니는 무슨 이제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소름 끼친다. 애비가 어디 있는지는 니가 알 필요도 없고, 동하랑 너랑도 니가 이 집을 나가는 순간 인연이 끝난 거였다. 다신 여긴 얼씬도 하지마라. 애비도 이제 니가 중간에 끼들지만 않았어도 그리 불행히 살지도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재형이 지 짝 만나서 이제 행복히 산다는데 또 끼 들어서 훼방놓은 생각은 하지도 마라."

"하지만 동하는 제 자식이예요 누가 뭐래도 전 제 자식 볼 권리가.."

짜악~ 은영의 얼굴이 희 돌아갔다

"놔두고 나가서는 이혼해달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와서 나쁜년! 어디 동하 찾아가기만 해봐라.. 내가 널 가만히 둘줄 아냐? "

.

.

.

그렇게 쫓겨난 뒤 은영은 휘적휘적 정처없이 걸었다. 동하를 어디로 가면 볼수 있을까? 생각만 머리속에 맴돌았다.

동하 문제로 어제 찾아간 재형의 직장에서는 퇴사했다는 말을 들었다.

안면이 있는 재형의 직장동료인 박과장의 안쓰럽기도 하고 난감해하는 얼굴이 부담이 되긴 했지만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나고 물으니 박과장도 직장을 퇴사한 후론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자기들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였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식은땀도 나고 현기증이 났다

주위에 눈에 드러온 커피숍이 보였다 은영은 일단 앉아서 곰곰히 생각해보기로 했다.

왠지 어색하게 다가온 직원에게 아이스 커피를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은영의 눈에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 약간 부푼 볼, 행한 얼굴표정, 지친 여자가 있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
. .

은영은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릴적부터 운동하는걸 굉장히 좋아했다.

은영에게 아버지는 기억에 없었다.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은영이 3살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쪽 엄마랑 둘이 살았다.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어머니는 반찬가게를 하면서 은영이랑 둘이 살았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할때 은영은 동네 남자애들이랑 축구공을 차고 놀았고, 여자아이들이 피아노 학원다닐때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검도학원, 유도학원을 섭렵했다.

성격도 굉장히 털털하고 좋아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인기가 좋았다.

키는 165정도에 얼굴은 이쁜 편은 아니었지만 활짝 웃을때는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만드는 누구에게든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가 더이상은 운동은 안된다고 단식투쟁까지 벌이는데 은영은 잠깐 잠깐 도장에 가서 몸푸는 정도만 하겠다는 정도로 엄마와 약속을 하고 두손 들고 행복 할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 자기 적성에 맞을까 생각하던 은영은 운동 다음으로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에 올인하기로 작정했다. 이른 바 게임 프로그래머 고등학교 3년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은영은 전산과에 입학할 하였다.

대학 입학 후 게임만들기 동호회에 든 은영은 거기에서 재형을 만났다.

첫눈에 반해버린거였다

하지만 재형은 학교에서 유명한 cc였다.

그에게는 고등학교때부터 사귄 이쁜 여친이 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성에게 반한 은영에게선 쉽사리 재형을 지울수가 없었다.

너무나 이쁘고 사랑하는 여친이 있다는걸 알면서도 은영은 재형에게 향하는 마음이 하루하루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러나 그마음을 아는 사람은 은영의 베프인 정애 밖에 없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었다. 학교에서 조교에게 붙들려 서류정리며 전산정리 다 뭐다 늦은 저녁까지 얻어먹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은영 앞에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익숙한 남자는 재형이었다.

너무 반갑고 설레이는 은영은 얼른 뛰어가 인사하였다

"안녕하세요 선배. 저 최은영입니다. .. 어라~ 술 많이 드셨나 봐요?"

가까이서 본 재형은 더욱 멋있었다 은영은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 훗~~ 이게 누군가? 씩씩하고 깜찍한 후배 은영이네?"

씩씩한은 맘에 안들었지만 깜찍에 맘이 풀린 은영은 베시시 웃음이 나왔다

" 술 많이 드신거 같은데 택시 잡아드려요?"

" 내가 그렇게 취해 보이니?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그러지 말고 우리 술 한잔 더 하러 갈까? 내가 살게."

은영은 좋아하는 재형과 같이 있을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따라나섰다.

그러나 그날 부터였다 은영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것이...

재형은 며칠전 여친인 혜경과 심하게 다투었다. 자존심이 강한 재형이었지만 혜경과 서먹하게 지내는것이 못내 걸렸던 재형은 오늘 혜경의 집에 갔다가 더욱 크게 다투고 화가나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던중엔 은영을 만난 것이었다.

비도 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키가 180이 넘는 재형을 부축하는건 쉽지않은 일이었다.

"선배님 집이 어디세요? 선배님 정신좀 차리세요"

"흐...흠..헤....경이?"

"아휴~ 선배님 저 은영이요.. 집 어디시나요요?"

"으...응.. 집 ? 가야지."

자꾸 비틀거리는 재형을 어찌해야될지...은영이는 난감했다..

"아 진짜.. 어찌지.. "

비틀거리던 은영의 눈에 모텔이 들어왔다..

"에이.. 그냥 선배 술꺄때 까지만 있어야지.. 그냥 술 만 잠깐 깨면 도로 나오면 되지.. 그래 최은영 술만 깨면 나오는 거야"

은영은 재형을 모텔로 들었갔다.

모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방에 눕힌뒤.. 의자에 앉아 어깨를 주물렀다..

"아이고. 대련한거 보다 더 힘드네.."

"참.. 누집 아들인지.. 인물은 끝내 주네.. ㅎㅎㅎ"

이때가 아니면 언제 재형의 얼굴을 자세히 볼까 싶어 은영은 바짝 다가가 요리조리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끔 눈썹을 찌푸리면 잠에서 깨어났나 싶어 깜짝 놀라기도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게 꿈만 같기도 하고 은영은 너무 좋았다.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다보니 은영도 아까 먹은 술기운에 술술 잠이 오기 시작했다. 어디 눈만 잠깐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이든 은영은 어디에서 잘까 생각하다가 재형옆에 슬며시 드러누웠다.. 정말 잠깐만 누워서 재형의 얼굴을 보고싶었다.

재형옆에 누워있으니 기분이 묘했다.

꼭 은영은 재형의 아내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들뜬 기분에 젖어있다가 저도 모르게 은영은 잠이 들었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 은영이 눈을 떴었다.. 집요하게 은영의 가슴을 파고드는 손은 재형의 손이었다.

순간 철렁한 은영은 재형을 보았다.

재형은 아직도 제 정신이 아닌것 같았다.

두근두근두근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다..

재형이 더욱 바짝 다가와서 은영을 꼭 껴안았다

아무래도 재형이 은영을 혜경으로 착각한게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한번이라도 재형의 손길을 느끼고 싶었다. 그것이 다른사람 대신이라도...

" 음... 경아 냄새가 너무좋다.. 사랑해"

은영은 눈물이 났다. 그는 정말로 혜경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것이였다.

그의 손길이 점점 다급해졌다.

은영의 귓가에는 재형의 거친 숨소리와 창밖에 들려오는 빗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대신하듯 울고 있었다.

".....일어나..... 얼른.... 최은영..."

"헉.. 아얏! "

누군가가 은영을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놀란 은영은 몸을 일으키다가 헉 소리가 날 정도로 몸이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이게어떻게 된거야? 니가 왜... 왜 여길?"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재형이 은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쓴웃음이 났다. 마치 못볼것을 본것마냥 질려있는 재형의 얼굴은 은영이 상상했던것 이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듯한 상실감이 몰려왔다

"기억 안나시나요.. 어제 술에 많이 취해서 제가 여기로 데려왔는데.."

" 내가 묻는것은 니가 왜 나랑 같이..아니 아니 내가 혹시 실수를..?"

" 저랑 잔 걸 실수라고 하신다면 선배님은 실수하신것 없어요.. 헛..실수는 제가 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가서 떠벌리고 다니진 않을꺼예요. 선배님 저 웃좀 입게 비켜 주시겠어요?"

주섬 주섬 옷을 입고 있는 은영에게 등돌린 재형은 머리가 복잡했다

숙취때문에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간만에 너무 개운하고 포근한 느낌에 눈을 떴을때 옆에 누워 있는 은영을 보고 너무 놀래서 한동안 꿈인지

헛갈려 했었다.

일어나서 본 방은 생전 처음보는 방이었고 본인과 은영이 아무것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것이 어제밤 꿈이 꿈이아니고 실제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곤하게 자고 있는 은영을 어제 저녁에 만난 것 까지는 기억이 났었다. 술도 마셨지.. 은영은 유쾌하고 기분 좋은 후배였었다. 어제 기분이 너무 더러웠었는데 은영을 만나자 내심 반갑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재형은 어찌해야 될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 대책없는 후배는 자기가 실수 했ندا. 헛.. 학교에서 보는 평상시의 모습도 늘 밝고 분위기 메이커이도 하고 가끔 자신을 선배 선배 하고 잘 따르는 것도 내심 귀엽기도 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었다. 은영에 대한 재형의 느낌은 귀여운 후배란거 말고 관심이 없었다.

"해장하러 가죠.. 선배님 ?"

"....."

"어제 술 많이 드셔서 속 불편하실텐데 해장이나 하러 가시죠?"

"넌 지금... 이 상황에 해장이 문제니?"

"그냥 사고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테니깐요. 이런 일 한번 가지고 남자 붙들고 늘어지는 저 구질구질한 애 아녀요 선배 .. 선배는 해장하실 생각 없으신가 본데 전 먼저 갈게요."

"은영아.."

허둥지둥 가방을 들고 은영은 방을 나갔다. 다리가 마구떨려왔다.. 후덜거리는 다리로 계단을 뛰다시피 내려왔다. 집으로 가야될것 같았다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았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심장이 떨려왔다

방에 홀로 남겨진 재형은 어이가 없었다. 해장을 먹으로 가자더니 허둥지둥 자기할말만 하곤 도망가버리는 은영이 황당했다

일단 재형도 집에가서 생각해봐야 할것 같았다. 옷을 입고 방을 나가려다 침대쪽에 눈길에 갔는데 빨간색 혈흔이 보였다. 재형은 멍하니 그 자국을 바라보았다.

꼭 재형의 마음과 같이 얼룩져 있는 그 자국이 자꾸 자꾸 재형의 마음속에 점점 크게 퍼져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재형도 은영도 서로 모른척 말이 없었다.

그 일이 있은후 한달 쯤 지났을때 은영은 재형과 혜경이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캠퍼스를 누비는 것을 보며 자신의 자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날 하루 종일 울었었다.

그래 그렇게 끝날줄 알았다.

"아~~ 최은영 너 요즘 나 몰래 다이어트 약먹지?"

"뭐?"

"아니면 왜 그렇게 너만 살 빠지냐? 얼릉 얼릉 언니에게 물어라..그 비법 서로 나눠 가지자 이 기집애야.. 아주 라인이 짹짹 나오는데.. "

은영의 단짝 친구 정애가 은영의 허리며 허벅지며 마구 마구 만지며 감탄을 하면서 몰아 세웠다.

"파~ 다이어트는 무슨.. 정애야 우리 매운 떡볶이나 먹으로 가자.. 이 언니가 오늘은 매운 떡볶이가 마구마구 땡긴다. "

"어쭈구리 떡볶이로 그 비법을 감추려고.. 이 나쁜 나 임정에 떡볶이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빨리 비법을 전수하라! 전수하라"

"오냐 할수 없군. 순대도 쏘마"

"흥.. 난 나에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친구. 앞장서게.. 얼릉 가자꾸나."

그러나 은영은 한입도 먹을수 없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순대냄새가 어찌나 역하던지.. 헛 구역질이 얼마나 나오던지.. 얼떨결에 정애도 같이 먹지 못하고 둘이 분식점을 나오고 말았다.

"이게뭐야.. 너 애 가졌냐? 무슨 헛구역질을... 아니 너? 흑시?"

"흑시?"

"너 거식증 아냐? 은영아 너 다이어트 너무해서 거식증 걸린거 아냐? 음식보고 구역질하고 내가보긴 딱 거식증 증세데.."

"지랄.. 요즘 자주 체해서 그래.. 밥을 재때 못먹어서 그런가봐"

"참 나.. 애타 너 땀에 이게 뭐냐. 병원에 가봐 체한거 오래되도 병 된다더라."

은영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다..

4학년인 은영은 취업준비 스트레스인줄 로만 알았었다.

"은영아~~ 은영아~~"

"아 왜?"

"여기 와서 김치 간 좀 보라~"

"엄마 무슨 김치 담았수?"

"응.. 얼굴이 좋길래 얼굴이 김치 좀 담았다"

"음~~ 젓갈 너무 많이 넣은거 아냐? 냄새가 비린데?"

"애는 무슨.. 늘 담듯이 담았는데 먹어봐봐. "

"그럼 한입 먹어 볼까...우웬~ 음 ... 잠만"

은영은 순간 메스꺼움을 참지 못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하기 시작했다

"은영아 괜찮니? 너 왜그래?"

"엄마.. 나 요즘 헛기가 있나봐 조금만 먹어도 구역질 나고 어지럽고 ...왜이러지.. 한동안 운동을 안해서 몸이 허해졌나?"

"..... 또 다른 증상은 없니?"

"다른 증상? 음.. 뭐 다른 증상은 없는데.. 피곤하긴해.. 요즘"

"... 은영아 너 혹시.... 남자친구 있니?"

"남자친구?... 남자친구들이야 많치? 왜 엄마?"

"아... 아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니방 가서 좀 쉬어라.."

은영은 방에 올라가서 누워서 엄마가 남자친구 이야기 한것이 떠올랐다..

재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재형선배.. 재형선배...'

은영은 순간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 보니 몇달동안 생리를 안한것이 생각이 난것이였다

'설마 설마 그럴리.. 없어. 하루밤 자고 애 생길리가 없어..'

방에서 왔다갔다 하던 은영은 불안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엄마가 남자친구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 자꾸 목에 걸리고.. 얼마전 정애가 임신한 것처럼 구역질 한다는 것도 자꾸 생각이 났다

대충 옷을 끼입고 은영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약국까지 가서 임신테스트기를 사왔다

화장실에서 기다리는 몇분간이.. 몇천년이 흐른것 같았다...

조심스레 들어본 테스트기 에 줄이 두줄이였다..

"이럴수가.."

은영은 눈앞이 캄캄했다..

그날 아침 재형선배의 하얗게 질린 얼굴 표정이 떠올랐다.

며칠 뒤 은영은 엄마가 바리바리 사준 반찬을 들고 정애를 만나러 정애집으로 향했다

반가워하는 정애엄마에게 반찬을 건네주고 정애방 2층으로 올라갔다

자꾸만 이마를 긁어대는 은영을 보고 정애가 말했다

"빨랑 빨랑 불어라.. 무슨고민이 있어.. 이 엉덩이 도사에게 왔느냐.. 엉덩이가 바닥에 앉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테니.. 빨랑 빨랑 불어라.. 복채도 들고 올 정도면 고민이 큰가본데?"

그래도 한숨만 쉬는 은영을 보고 정애는 심상치 않는 고민인가보다 생각했다

저 단순 곰탱이 은영이 저 정도 한숨쉴 정도면 보통일은 아닌가 보다란 생각이 든 정애였다

"소주 한잔 하러가자.. 술 먹어야 나올려나보다.. 가자"

"술? 안돼!! 나 술 먹음 안돼!!"

"아 깜짝이야.. 소리를 지르고.. 안먹음 안먹지.. 왜? 너 한약먹니?"

"응? 아니... 그런건 아니고....휴~~"

은영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정애에게 털어놓았다..

물론 애 아빠가 재형이란거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정애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나름 정리를 끝낸 정애가 물었다

"애 아빤 아니? 하긴 하룻밤자고 생긴앤데. 애 아빠가알리가....너 애 낳을꺼야?"

"....."

"지워"

"정애야....."

"애인도 있다며.. 그 남자.. 그 남자 내가 생각하는 그 남자 아니었음 좋겠다만...그냥 지우자.. 내가 병원 따라가 줄게.."

"흑.... 정애야.. 머리속으로는 지워야 한다는거 아는데.. 나 웬지 그러고 싶지 않아...계속 계속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해 봤는데 이세상 살것다고 내 품에 들어온 생명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인데.."

"이런 멍청한 년 너만 사랑하면 뭐하냐.. 그쪽은 아닌데. 원나잇으로 생긴애를 무슨 수로 낳아서 키워...너희 엄마 생각 안하니?"

"....."

엄마 생각에 은영은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길게 끌면 끝수록 너무 휴~~ 그 애도 힘들어질꺼야.. 얼릉 마음먹자..아니면 그 녀한테 가서 너 책임지라고 하던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린다고. 설마 니가 겁탈한 것도 아닌데. 뭐 그놈도 그나마 생각이란걸 하는 놈 같으면 해결책이라도 같이 생각해 보겠지..암튼 길게 끌어서 될 일은 아냐.. 내가 볼땐..... 진짜 속상해서.. "

"그래 고마워 정애야.. 너한테라도 털어놓고 나니 그나마 위로도 되구 힘도 난다.."

"그럼 이 언니한테 털어놓길 잘했지 바보야.. 혼자 끙끙대지말고 결심 서면 말해 . 우리가 누구냐? 면도칼 7공주를 한방에 때려눕힌 공포의 날개없는 천사를 아니냐. 누가 뭐래도 난 니편이니깐. 힘내.. 은영아."

"훗~ 그래.. 고맙다. 수호천사 삼만이천일호"

"별말씀을 수호천사 삼만이천이호"

그러나 문제는 다른데서 터졌다.

"엄마.... 이건... 이건....."

엄마의 손에는 은영이 몰래 숨겨둔 임신테스트기가 들려있었다.

"거짓말 할 생각말고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해"

"흑....."

그날 저녁 은영과 엄마는 부둥켜 안고 한동안 같이 울었다.

은영은 재형을 만났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말했다 재형은 아무말 없었다. 은영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곤 어떻게하길 원하냐고 되물었다 은영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다..

며칠뒤 재형이 은영의 집으로 결혼하겠다고 은영모를 만나러 왔다

그로부터 얼마간은 은영은 자신이 이렇게 까지 핫이슈가 될지 몰랐다

학교내에서는 최대의 스캔들이었다

은영은 최대의 마녀가 되었다..

혜경은 은영을 찾아와 한참을 울다가 갔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뺨이라도 때리라는 은영의 말에, 혜경은 은영의 뺨속에 있는 애가 사랑하는 사람의 애라서 그리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은영은 더욱더 비참해졌었다.

또다른 강적은 재형의 어머니였다

재형과 혜경의 집안은 예전부터 서로 잘 아는 집안이었다.

두집안은 둘이 결혼할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거기에 끼어든 은영이 이빨리가 없었다.

게다가 재형의 어머니는 혜경을 아니 혜경의 집안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었다

혜경의 집안은 꽤큰 중소기업을 알아주는 건축업을 하는 집안이었다.

은영은 믿고싶었다.. 재형이 이런저런 모든 말들에도 묵묵히 자신과에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이 그래도 자신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은영은 결혼 후에 알게된 것이지만 재형에게 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다.

재형에게 그것은 늘 상처였었다.

어릴적 재형의 기억속에 엄마는 늘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늘 집밖으로 돌았다는 것이 은영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들었을때 자신도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될까봐 혜경을 울릴 자신이 없었다.. 그것이 재형이가 은영과의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였었다.

은영은 학교도 자퇴를 하였다

한학기 다니면 졸업인데 관두는것이 가까운 정애가 말렸지만.. 은영은 학교를 계속 다닐 자신도 없었다.

그야말로 폭풍속에 치러진 결혼이었다.

은영은 헌신을 다해서 결혼생활에 임했다

늘 못마땅한 눈길로 은영을 노려보는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고 너무나도 무관심한 재형에게도 아내로써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무관심뿐이었다.

그리고 은영은 아이를 낳았다.. 정말 재형과 꼭 닮은 사내아이였다.

너무 신기하게도 은영이 열달을 품었음에도 어찌하여 은영과 닮은 구석이 없는지.. 길에서 잃어버려도 재형의 아들이라고 데려올 정도로 아 빠만 닮은 아들이었다.

은영은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언젠가는 자신의 분신과 은영에게 재형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은영은 하루하루를 5년을 보내며 살았다.

은영은 요즘 자주 재형에게서 나는 냄새가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다

출장도 찾아지고 요즘 야근도 너무 잦았다..

원래 자신에게 무심했지만 요즘은 얼굴도 잘 쳐다보지도 않고 가끔 서재에서 멍하니 생각에 잠겨 불려도 못듣기가 일수였다.

아들 동하를 유치원에 보내고 시어머니도 모임나가고 간만에 은영은 한가로운 오전 티타임을 하고 있었다.

[내 귀에 사탕~~ 내 귀에 사탕~~]

" 응~~ 정애 오랫동안이야~~ 아침부터 왜일이니 니가 다 전화를 다 하고?"

"응.. 바빠?"

"킁~ 아니 오늘은 이 언니 무지 한가하다 넌 회사 아냐? 쉬는날?"

"응.. 오늘 월차냈으... 동하는 잘 크지?"

"응.. 그럼 얼마나 의젓한지.. 내가 낳았지만 정말 내가 인물 하나 낳은거 같다. 지금 유치원에 갔지.. 왜 우리 아들 보고 싶냐?"

"미친..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냐? 암튼 한가하다니깐 나와라.. 저번에 본 커피숍에서 보자.. 지금 당장 나와.. 할말 있어."

"그래"

은영은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드는걸 접고 약속장소를 부랴 부랴 나갔다.

정애의 얼굴은 아주 굳어있었다..

"너 나 성격알지.. 직선적인거 ..그러니 너 오해말고 또 병신같이 질질 짜지 말고 들어.. 정말.. 넌 어찌 된 애가 갈수록 모질라 지는지...쩍"

정애는 결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나 3일전에 제주도로 출장간거 알지? 그때 너 신랑 봤다.. 호텔에서.. 혜경인가 하는 그 옛날 애인이랑 아주 부둥켜 안고 아주 껌딱지처럼 붙어서.. 나참.. 나두 재수도 읊지.. 그것들은 왜 하필 나한테 걸린다니.. 찼.. 쌍 아주 그 년놈들 그 자리에서 아작을 낼려고 손가락 풀고 있는 데.. 그 혜경인가 하는 그년 배가 남산만 하더라..

머리를 해머로 팡 한대 맞은거 같아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 꼴상봐서는 녀 새끼 뺨 년을 그리 보물단지처럼 안고 다니진 않는거 같구... 에 이 정말 기분 더러워서

....."

은영은 오래전 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감이 이것이었나보다란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ㅋㅋㅋㅋ 깔깔깔"

"야~~ 최은영 너 미쳤냐? 하긴 나도돌겠는데.. 너야 오죽하랴. 암튼 너 정말 그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병신같이 굴어서 내가 복장이 터진다.

이번에도 그냥 설렁 넘길건 아니지? 그 년놈들 때려잡는 거면 나도 불려.. 내가 아주 흐물흐물하게 밟아줄테니깐..그만 쳐웃고 이년아 정신

똑바로 차려 "

" 후후후~ 그래.. 정애야 고맙다. 나 그만 가 봐야 겠다.. 내가 전화할게.. "

"휴~~~~~ 그래 무슨일 있음 바로 전화해"

"응"

은영은 가게에서 나와 엄마가 계신 납골당으로 갔다.

사진숙 엄마는 환하게 은영에게 웃고 있었다.

'다행이다 엄마 이쯤까지는 안보고 엄마 가셔서.. 엄마 있었으면 나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죽었을 꺼야'

은영의 모친은 은영이 결혼하고 얼마 있지않아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이었다.

위암말기여서 수술도 하지 못한채 일년가까이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 은영모는 은영의 걱정을 하였다.

척 보아도 자신의 사위는 은영에게 애정이 없어보였다.

그러나 자식놓고 살면 정도 불이며 살겠지 하는 바램을 가지고 눈 감을때 까지 은영만 걱정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집으로향하는 은영은 오늘따라 자신이 더욱더 고아가 된 거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어딜 싸돌아 다니다 이제 오나는 시어머니의 말도 들은척 만척 은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드러누웠다

모든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이 집 식구들 눈에 들려고 6년간 아등바등 살아온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늦게 재형이 집으로 왔다.

옷을 받아 걸면서 은영은 재형의 옷에서 나는 요근래 계속 맡은 그 향수 냄새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터졌다.

재미나게 웃는 은영을 재형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 냄새 날때부터 어느정도 예감을 했었는데 난 계속 부정하고 있었던거야.. 그래.. 맞아.. 난 알고 있었어.. 근데 무서워서 말하면 입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게 사실이 될까봐 외면 하고 있었던 거야.. 후후후~"

"무슨소리야?"

"장재형씨.. 이제 나 당신 놈 줄게요."

"뭐?"

"놔준다고요.. 이 최은영 그물에 걸린 불쌍한 나비를 놔준다고..고생했어요.. 선배 이제 혜경선배랑 살아봐요 당신이 그렇게 못잇고 사랑하는 그 혜경선배랑 알콩달콩 살아요. "

"너 무슨소리야? "

"혜경선배 임신했다면서요.. 축하는 못해줘서 미안하네요. 축하까지 해줄 정도로 내 마음이 그정도로 넓진 못해요. 하지만.. 혜경선배에게 이 말 꼭 전해줘요 빛 값은 거라고 우리 이젠 섹셈이라고 후후~ "

"....."

"나 집 나갈꺼예요.. 정리는 그쪽에서 해줘요.. 되도록 빨리요"

"동하는?"

".....동하는 동하는"

"동하는 못줘.. 양육권을 내게 주면 만나는 것은 나도 말릴 생각은 없어.. 어쨌든 동하는 당신 자식도 되니깐."

"..일단 그건 생각 더 해 봐야 겠어요. 다른 식구에게도 당신이 말해요.. 난 한시라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미안하다은영아"

이혼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위자료는 받지 않았다.

정애가 미쳤냐고 펄쩍 뛰고 난리 쳤지만 은영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남들은 미쳤다고 할지언정 은영은 그 돈을 받으면 동하에게 당당하지 못할것 같았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집이랑 가게정리한거랑 보험금을 은영에게 남겨두고 간것이 있기에 은영은 그것으로 시작해 보기로 했다.

"미친년.. 남들은 한푼이라도 뜯어낼려고 지랄들이라두만.. 머리에 총 맞은것도 아니고 왜 준다는걸 마다해.. 뭐 먹고 살거냐?"

정애의 말에 은영은 픽 웃었다

"아무렴 굶겠냐? 정 안됨 태권도 도장이라도 차려서 학원이라도 하지뭐"

"한동안 몸 안써서 다 굳었을 텐데.. 도장은 아무나 하나? 사람두고 운영하면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테고.. 하긴.. 예전 실력있으니.. 한동안 운동좀 하면 감 다시 잡을려나.. 은영아. 도장 그거 괜찮은 생각 같다"

"그럴까?"

"그래 간판도 정했다 '2대 태권도' 어떠냐? 너희 아버지도 태권도 도장했다면서 뭐 한의원도 보면 오대한의원 삼대한의원 이러잖니.. 너두 따지고 보면 이대째 아니냐?"

"하하 그러네.. 그거 괜찮은 이름이다"

"그래 그러니깐 이젠 그만 물귀신처럼 방바닥에만 붙어 있지말고 밥도 퍽퍽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다녀.. 이게뭐냐 얼굴 꼬라지가 힘을 내야 동하도 만나고 그럴꺼 야냐?"

"그래 나 정말 내일부터 기운낼꺼야.. 내일 동하아빠도 만나서 동하만나는 것도 다시 의논하고 나 이제 이렇게 늘어져 있는것도 오늘로 끝이야 정애야.. 미안해 그동안 친구라고 있는게 짜질한 모습만 보였네. 나 정말 동하에게 부끄러운 엄마 되진 않을꺼야.."

"그래 이년아 잘 생각했다. 동하생각해서라도 기운 차려야지.. 그래 정말 요근래 최은영 입에서 나온 말중에 제일 영양가 있는 말이다."

근데 은영이 근 석달만에 찾아가 재형의 직장에는 재형이 퇴사하고 없었다.

웬지 불길한 생각이 든 은영은 다음날 아파트로 가서 동하 유치원시간에 맞춰서 기다렸지만 동하 역시도 나오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란 생각이 은영은 자꾸 들었다

양육권만 주면 동하를 언제든지 만나게 해준다는 말에 너무 쉽게 도장을 찍은게 아닐까란 불안감이 자꾸 커져갔다.

아까 아파트 갔을때 웬지 이삿집 사는 분위기가 맘에 걸렸다.

은영은 벌떡일어섰다.. 이려고 있을 일이 아닌것 같았다

가게로 허겁지겁 나온 은영은 다시 되돌아 아파트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가게 점원이 뭐라 뭐라 소리지르는것 같았지만 그것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머리속은 동하를 만날수 없다란 생각만 맴돌았다.

마음이 급한 은영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서 파란불이바뀌는 동안에도 안절부절 하지 못했다.

파란불로 바뀌자 마자 뛰어든 은영에게 미처 속도를 늦추지 못한 승용차가 은영에게 달려들었다.

끼이익~~~~~

사람들의 비명소리.. 몸이 붕 뜨는것을 느낀 은영의 눈에 드러온것은 새파란 하늘에 동하가 유치원가방을 매고 방긋 웃으며 은영에게 달려오는 모습이였다.

머리가 깨질듯이 아픔을 느낀 은영이 정신이 들었다.

"으.....응.... 으...."

"앗, 환자분이 정신이 드시나 보네요"

주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깨질듯이 아픈걸 보니 차에 부딪혀서 떨어질때 머리를 아마도 심하게 다쳤나보다란 생각이 은영은 들었다

정신이 몽롱하고 꿈속을 아직 헤메는 듯한 몸이 너무 무겁고 눈을 뜨고 싶었지만 다시 은영은 잠에 빠져들었다.

은영을 다시 잠에 빠지고 의료진이 여러가지 검사를 하였다.

"환자분이 일단은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가족 주위분들은 환자가 깨어나더라도

도 안정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를 자극하는 말씀과 행동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정신이 든 은영은 눈을 떴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으나 일단 침 보다는 덜 아픈것 같았다.

여전히 힘이 너무 없는것이 맘에 걸렸으나 일단 고개를 옆으로 돌려 주위를 보았다.

'헉! 이거 병실이 완전 호텔급이네.. 날 친 윤전수가 돈 좀 있는 놈인가? 내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암튼 그놈 만나기만

해봐라 '

병실에는 아무도 없는것 같았다.

은영은 또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은영다 다시 깨어나서 눈을뜨자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걸었다.

"어라 정말 깨어났나보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은영은 누군지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젊은 남자였다. 그 남자는 은영을 뵈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묘한 그러나 은영이 어디선가 본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 표정 어디서 봤을까? 날 아는 사람인가? 침 본 사람인데? 누구지?'

그 젊은 남자는 비웃듯이 피식 웃었다

"넌 목숨이 질긴가 보다. 다 너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려고 다시 깨어나서.. 크.. 어쨌든 축하한다.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하던 집

으로 다시 컴백할 하게 생겼으니.."

'뭐? 저놈이 뭐라는 거야? 혹시 나 차에 친 놈인가? 근데 나이도 어려보이는 구만 그러고 보니 저 자식 꼬박 꼬박 나한테 반말이네... "

그 남자는 아주 젊어보였다. 잘 봐야 대학생?

은영은 저 남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였다

있는힘 없는 힘을 다 짜내어서 은영은 물었다

"..누.....그 ..?"

"...!!.....뭐? 다시 말해봐?"

은영은 짜증이 확 났다. 가득이나 없는 힘을 겨우 짜내어서 물었건만..

다시 힘을 짜내 은영은 물었다.

"..으..... 누.....그 ...?"

"헛! 죽다 살더니만 이젠 말도 하네... 내가 누구냐고? 내가 이젠 저승사자로 보이냐? "

은영은 무슨말이냐는 듯이 눈썹을 치켜 떴다

"어쨌든 지옥으로의 귀환을 축하한다. 집에서 보자.. "

은영은 확신을 했다 .

저놈은 미친놈이라고.. 근데 미친놈이라고 하기엔 허우대가 너무 멀쩡했지만,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요즘 소위 말하는 꽃돌이 풍의 외모를 가진 얼굴(남자치곤 작고 가름한 얼굴에 이쁜눈과 오뚝한 코, 입술도 어찌나 이쁜지 색기마저 풍기는 예쁜 입술을 가진 얼굴이었다) 키도 크고, 옷은 뭐... 나 날라리요 하는 포스를 뿜어내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은영은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 들었다.

왜 눈뜨자마자 미친놈이 시비를 걸다니... 이 병실은 걸보기만 화려했지 사람들 출입을 마음대로 시키나 보더라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꽃돌이가 자신을 보고 짓던 묘한표정이 오래 전 은영이 동하를 낳은 후 은영을 보고 짓던 표정과 비슷했다란 생각이 문득 들어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일단 간호사든 의사든 와서 자세한 걸 물어봐야겠다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상태론 말 한마디 하기가 대련한판 뜯것 보다 힘들었다.

영양제라도 한대 맞아야 되나란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는 다시 은영을 좀 쳐다보더니 몸을 획 돌려 병실을 나갔다.

'허우대만 멀쩡하면 뭘해.. 정신이 왔다갔다하나부다. 이 병실은 왜 아무도 없지?'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은영은 또 그 미친놈이 다시 들어오는게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 화들짝 놀라 쳐다 보았다.

이번엔 인상이 좋아보이는 아줌마였다.

"어머나 정말 일어났네.. 아가씨 정신이 들어요?"

허겁지겁 은영 곁으로 다가온 아줌마는 여기저기를 살펴보며 다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전 아가씨 간병인이예요. 어디 불편한게 있으면 음... 아직 말씀하기 힘드시다는데 불편한게 있으면 눈 한번 감빡여

주실래요?... 아 말 할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아직 힘들꺼예요"

한참을 은영의 주위에서 이것저것 간섭을 하는 간병인을 뒤로하고 본인의 몸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보니 움직이는걸로 봐선 마비는 아닌것 같고, 정애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야 했다. 동하를 찾는 게 일단 급선무였다.

힘이 없는 것은 은영이 생각하기엔 본인이 생각보다 오래 혼수상태인것 같았다.

이것은 차차 나아질 것이고 은영은 일단 기운을 차리는게 우선일것 같았다.

은영이 간병인과 반나절을 보내고 저녁이 되었다.

은영은 아까 의사가 한 말을 혼자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음 확실히 좋아진 것 같군 . 다른 곳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본인은 안정이 제일 중요할 때이니, 다른 생각 말고 꼭 쉼다란 생각만 가지고 있어야 하네..'

머리가 희끗한 노 의사는 안쓰러운 듯한 눈초리로 은영의 손을 잠시 잡아주고 나갔다.

다른곳이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안도가 되었다. 이것 저것 묻고 싶었지만 말할 기력이 아직은 없었다. 은영은 기운차리는 데에 주력을 다 하리라 마음을 굳게 먹었다.

잠시후 병실에 누가 들어왔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네. 잠시 자리 좀 비켜 주시죠."

"네. 그럼.."

은영은 방금 드러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은영이 여지껏 살면서 저렇게 나 성깔있소 하며 카리스마 있게 생긴 남자는 처음 보았다. 말하는 투부터 누구에게 명령 내리는

것이 저렇게 자연스러운 사람도 처음 보았다. 저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은영은 매우 궁금했다.

아주머니가 나간 뒤 이남자도 은영을 한참 쳐다보았다.

은영을 쳐다보는 그 남자의 약간 치켜올라간 크지도 작지도 않는 눈에선 경멸과 짜증스러움이 가득했다.

은영은 당황스러웠다. 이 사람은 또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는지 은영은 누구나란 물음을 담아 눈을 약간 치켜떴다.

그 남자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지나갔다. 워낙 빨리 지나가 은영은 몰랐지만.

그 남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흐트럼 없는 정장차림에 버릇인듯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폼다 하고 있었다.

얼굴은 미남이라기 보단 호남형이었다. 우뚝한 콧날과 단정하게 닫힌 입술은 자존심이 자부심이 더욱 강해보였다. 약간 각진 턱은 고집스러워 보이기 까지 했었다.

순간 은영은 깜짝 놀랐다. 이 남자가 은영에게로 몸을 숙이는게 아닌가.

그 남자는 은영에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다음부터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 여러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은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말이 끝난 그 남자는 미련이 없다는 듯이 몸을 획 돌려 방을 나가버렸다.

은영은 그 말이 뜻하는게 뭔지 어리둥절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왜 안죽고 살아났느냐 란 말로 해석이 되었다.

'나쁜놈아냐?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무슨 저런 막말을? 그러고 보니 저놈도 반말이네? 근데 도데체 누구야? 저놈은 또?'

남자가 가 버린 후 간병인 아주머니가 드러오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정말 아무리 봐도 너무 잘생겼네. 아가씨 얼른 기운차려요. 저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른 일어나야지."

은영은 기가 막혔다. 대놓고 왜 살아났냐고 악담을 하고 나간 놈인데 걱정은 무슨..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정상은 아닌것같았다.

그리고 왜 그 운전하는 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느냐 말인지.. 은영은 화가났다.

화를 내서 그런지 은영의 머리가 또다시 지끈 거리고 아팠다.

간병인은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 지자 얼른 손발을 주물렀다.

"안색이 좋지 않아요. 숨을 편하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옴치.. 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피곤하신가봐요. 좀 자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가씨 좀 눈 좀 붙이고 쉬세요. 지금은 많이 자 두는데 좋을꺼 같아요."

은영은 속으로 릴렉스 릴렉스를 외치며 일단 기운을 차리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에 억지로 잠을 청했다.

은영이 잠든 후 중년 남자가 은영의 병실에 드러눕었다.

그 중년 남자는 잠든 은영을 들여다 보고 머리를 한참 매만져 주고 은영의 손을 잡아주곤 병실을 나갔다.

다음날 아침

은영은 간병인의 도움으로 미음을 아침으로 먹었다. 어제보다 본인이 생각해도 몸이 나은 것도 같았다.

정신도 어제보다 확실히 맑아진 것도 같은 기분탓에 은영은 확실히 기분이 좋아졌다. 이상태라면 조간만 기운을 차릴수 있을 것
도 같았다.

회진을 돌던 노의사도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병실은 나갔다.

아침 손님이 방문을 했다. 또 젊은 남자였다.

"하이~~ 좋은 아침? 아~ 아주머니도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간병인 아주머니에게도 밝게 인사하는 그 남자는 은영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마구 흔들었다.

"어머나,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아가씨도 오늘 한결 좋아진거 같네요. 잠시만 여기 계실래요 전 이불이랑 갈아입을 환자복을
가져와야 할거 같은데?"

"네~ 걱정말고 다녀오세요."

은영은 저 남자는 또 누구일까 궁금해 졌다.

그남자 나이는 20대 초 정도, 약간 긴듯한 웨이브진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하얀 얼굴에 눈웃음이 매력적인 예쁜눈에 날렵한 콧날,

남자치곤 유달리 빨간 입술이 눈에 띄는 외모와 편해보이는 하지만 신경쓴 듯한 케주얼한 옷차림의 남자였다.

은영에게 다가와서 씩 웃고 말을 건넸다

"안녕? 얼굴이 좋아보이네?"

'좋아보여? 죽다 살아난지 하루 지난사람에게 좋아 보인다고?'

"음.. 확실히 집에 있을때 보다 얼굴색이 더 좋아보인다. 확실히 집 조명보단 병원 조명이 좋긴 하네.. 역시 여잔 조명빨도 무시 못한다더니..."

'아~~ 정말 저 이상한놈은 또 누구래? 정말 어제 오늘 대체 무슨 일이래?'

더 이상 은영은 참을 수가 없었다.

"누..구세요?"

"응? 나?"

은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상한 남자가 놀란 듯이 다시 되물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누..구신지?"

은영은 지금까지 미처 신경쓰지 못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꽤나 가냘프게 들리는게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듯이 들리는 듯도 하여

괜시리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허 참.. 내가 누군지 정말 몰라?"

은영은 힘도 없는데, 처음보는 남자가 자꾸 놀란듯이 자꾸 캐묻자 혼란스러워지기까지도 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장난끼 어린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은영을 탐색하듯 들여다 보았다. 그 남자도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걸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만 있어봐.. 선생님을 만나봐야 겠다."

은영을 남겨두고 급히 병실을 나간 후 잠시 후 의료진들이 들어 닥쳤다.

한시간이 넘는 촬영과 진료를 마치고 노의사와 은영의 면담이 시작되었다.

아직 기운이 없는 은영을 배려한 듯 종이에 한글 자음. 모음 판을 들고 은영은 해당하는 글자에 눈을 깜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한 면담이었다.

"이름이 뭔지 기억나는가?"

-----()은 은영의 대사입니다.-----

(네)

"이름이?"

(최은영)

".... 나이는?"

(서른)

".... 직업은?"

은영은 잠시 생각했다.

(무직)

여러가지 올해 년도, 대통령이름, 동식물 도감표까지 들고와서 물어보는 등등 꽤 긴 물음이 오고간뒤 의사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곤 은영을 풀어주었다.

어찌 된 건지 몹시 궁금한 은영이었지만, 의사는 은영에게 일단 쉬어야 된다면 병실로 올려보냈다.

병실로 올라온 은영은 몹시도 피곤하였다. 뭔가 복잡하게 일이 꼬여 있는것 같았지만 일단 은영이 몸만 추스린다면 본인이 어떻게 하든 해결이 안될까란 위로아닌 위로를 스스로 되뇌이고 있었다.

저녁 늦게 어제의 나쁜놈이 다시 병실에 방문 하였다.

약간 피로해 보이는 얼굴과는 다르게 한치의 흐트럼 없는 정장차림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그 남자를 보자 은영은 왠지 모르게 긴장은 되었지만, 뭔가를 하나 알아낼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남자의 입만 열리길 기다리며 그 남자의 얼굴을 하늘의 동앗줄인냥 쳐다보았다.

어제보다 더욱 집요한 눈길로 은영의 얼굴과 눈을 들여다보던 그 남자의 얼굴은 전쟁이 일어나도 꿈쩍하지 않을 듯한 카리스마 만땅인 저런 남자도 이런표정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휴~~ 정말 날 못알아 보는 것 같군.."

은영은 떠듬 떠듬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정..말 .. 누..구..신지?"

"뭐 그런건 차차 밝히도록 하고, 일단 네몸부터 추스려. 그게 먼저인거 같다. 쉬어라."

말을 마친 남자는 짧은 한숨과 함께 돌아 병실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은영은 더욱더 불안해졌다.

그 불안감의 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날 간병인 아줌마랑 또 다른 간병인이 은영의 목욕을 시킨다고 은영을 욕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간병인 두명의 도움을 받고 목욕을 마친 은영에게 간병인 아줌마가 아주 이뻐졌다면 보여준 손거울에는 은영의 모습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 거울속에는 핏기하나없는 얼굴은 꽤나 이쁘장하게 생긴 소녀가 있었다.

생김새는 검은 긴 생머리에 많이 마른듯한 창백한 하얀 얼굴엔 짙고 그린듯이 이쁜 눈썹과 쌍꺼풀은 없지만 작지않은 풍성한 속 눈썹이 있는 눈과 보기좋게 생긴 코. 양측맛아 보이는 조그마한 입술을 가진 중학생 쯤 되어보이는 여자 아이였다.

은영은 눈을 의심했다.

거울속의 여자아이는 은영이 입을 벌리자 같이 벌리고 눈을 치켜뜨면 같이 치켜뜨고 있었다. 믿을 수 없어 낮이 나간 은영에게 간병인이 신나서 말을 걸었다.

"그 동안 씻을 수가 없어 물수건으로만 닦을 때도 꽤나 이쁜 아가씨였는데 그렇게 씻겨놓으니 더욱 이쁘네요 아가씨. 호호호 아가씨 본인 눈에도 이쁘 보이니까? 거울을 너무 열심히 들여다 보네 호호호"

은영은 거울속의 소녀를 가리키며 물었다.

"애는 누구예요?"

은영의 꺼질 듯한 목소리와 몸짓에 놀란 간병인은 약간 더듬거리는 말로 대답했다.

" 그..거야 아가씨죠.. 왜요?... 아파서 좀 많이 말라서 놀라셔서 그런가.. 호호;; 이제 죽도 잘 드시니 좀더 몸만 추스리면 더

예뻐 질꺼예요"

은영은 다시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 아무리 봐도 이건 자신이 아니었다.

"제 이름이 뭐죠?"

아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간병인은 은영의 눈치를 보며 대답하였다.

"아가씨 이름이야.. 최 인 형 이죠....근데...왜 요? "

강현은 계속되는 회의와 미팅에 몹시도 피곤하였다.

오늘 따라 유달리 목을 조르고 있는 넥타이를 잡아 당겨 느슨하게 만들고 의자에 몸을 묻고 사무실 창밖을 내려다보며 어제 저녁

가족 주치의인 김박사의 급박한 호출로 병원에 들어서 들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어서 오시게. 이야기가 길어질 듯 하니 여기 편히 앉지."

김박사를 오래 봐온 강현으로써는 김박사의 입에서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벌써부터 피곤함이 몰려왔다.

"인형이 애깁니까? 많이 앓중습니까?"

"음....일단 몸이 앓중냐고 묻는 다면 그거야 늘 그렇듯이 예민한 성격을 조금 컨트롤만 좀 하고 잘먹고 운동도 같이 좀 병행하

면 이야 좋아질 것이고, 지금 내가 자네를 부른건 인형이의 정신적인 문제일세.."

"정신적이에요?"

"그래 ... 인형이는 지금 본인이 최인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네."

"네? 그게 무슨..?"

"말 그대로 본인이 최인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네 본인의 주장으로는 나이가 서른이라더구만, 본인의 이름도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 그애가 지금 정신병자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닐세. 일상생활이나 모든것 들을 이해하는 것은 정상인들과 다르지 않네. 하지만, 본인은 다른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네. 의학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던건 아니네. 일본에서는 한 여성이 5명 이상이나 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네 . 그 여인은 가정주부로써의 인격, 화가라고 생각하는 인격,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아주 거친 성품을 가진 남자가 되기도하고, 아주 어린 아이가 되기도 하지. "

말을 끊은 김박사는 강현의 얼굴을 힐끗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근데 그 여인은 다른 인격체로 변할때 흥내만 내는 것이 아니었네 . 화가가 되었을땐 진짜 화가처럼 수준급의 그림도 그리고, 음악가일때는 작곡도 직접하고, 난폭한 남자가 될땐 술을 마시고 욕설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도 입기기도 하고 아이가 될땐 영락없는 아이가 된다고 하더구만. 다른 쪽에서는 빙의라고도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다중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그럼 지금 인형이가 다중인격이란 말씀이십니까?"

"음.. 인형이가 지금보다 몸이 좀 더 좋아지만 진료를 더 해봐야 되써, 아직 그렇다란 결론을 내리긴 성급하네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때는 인형이는 나이가 서른인 다른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네. "

"...그럼 어떻게야 합니까?"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가족들의 도움이 제일 크네."

강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본 김박사는 강현의 집안을 모른 것도 아니고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인형이는 지금 가족들 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네."

"네? 그건 또 무슨?"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네,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것도 이것 때문이고.."

"갈수록 태산이군요"

".....강현군. 인형이가 지금 본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는 인형이의 무의식속에서 만들어 낸 인물일 수도 있네.. 나

이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형이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고 바랬을 수도 있네. ..."

"....."

"일단 가족들을 인형에게 인식시키는게 제일 중요하네. 집안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될수 있게 매개체를 해줄 인물이 필요한

데.. 음 .. 내가 볼땐 회장님내외분은 어려울 것 같고, 자네랑 리현이는 허허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우현이가 그나마 나을 것도 같지만 대학생이라 늘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자네집안을 잘알고 인형이를 잘 아는 사람하나 물색해서 인형이를 돌봐 주게 하는게 내 생각엔 제일 좋을 거 같다만...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네 알겠습니다. 휴~~ 다른 건요?"

"가족들도 당분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건 아마 인형일쎄세. 워낙에 내성적이고 자기방어가 강한 성격이라, 그동안 가족들도 힘들었겠지만, 절대적으로 인형을 정신병자 취급을 해선 안되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

"허허 별말을..바쁘고 피곤할텐데 그만 가보게 . 궁금한게 있음 전화하시고.."

일어나 목래를 하고 돌아나가던 강현이 갑자기 생각난 듯 돌아서서 물었다.

"근데 인형이가 주장하는 다른인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아직 인형이가 몸이 낫질 않아 더 지켜 봐야 겠지만, 내성적인 성격은 아닌것 같네.. "

"...네.. 그렇군요...그럼 이만가보겠습니다."

강현은 김박사의 방을 나와서 인형의 병실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니 인형이 약을 먹고 자살시도를 하여 병원에 실려간 후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인형을 봤을때 부터 좀 예전과 달랐었다.

인형은 강현을 몹시도 두려워하였다.

강현은 인형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었다. 쳐다본게 없는게 아니라 쳐다볼 수가 없었다란게 바른 표현일지도 몰랐다.

집안에서도 말수가 워낙에 없는 인형은 어쩌다 마주쳐도 늘 주눅든 사람처럼 강현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남들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덜덜 떨며 구석으로 도망가버리기 일쑤였기 때문에 웬지 강현은 인형과 마주칠때 마다 본인도 모르게 어린동생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것 같은 기분에 강현은 인형이 늘 못마땅하고 맘에 들지 않았다.

인형은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다.

인형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집안으로 들어왔다.

밖에서 들어온 형제라 첨엔 맘에 들진 않았지만, 워낙에 나이차이도 많이나고 인형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기에 처음엔 자신을 어려워 하는 줄로만 알았었다.

강현은 자존심이 강하고 냉정한 성격에 말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그리 많이 하지 않는 과묵한 편이었다.

그 꼭 필요한 말도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말투였기 때문에 다른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어려워 하는지 몰랐다. 아니 남들의 시선 따위 그런것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리고 강현은 좋고 싫음이 확실한 사람이었다. 갈수록 강현이 보기에 피해자처럼 구는 혼자서만 곁도는 그늘지다 못해 음침해보이기 까지 하는 인형이 너무 싫어져만 갔었다.

그런 인형이 병실에서 봤을때는 너무 당당히 강현을 바라보는 것이 잠깐 놀라고, 불쾌하기도 하고, 자살시도까지 해가며 집안 망신을 시키는 인형이 너무 싫고 화가나서 심한말까지 하고 병실을 나왔지만 강현의 마음도 좋지않은 않았었다.

근데 그런 인형이 다중인격인지 뭔지 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강현은 마음이 복잡해져 갔다.

강현의 잘생긴 미간이 한참 접혔다 펴졌다.

몸을 일으킨 강현은 아무래도 아버지 최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든 김박사의 말대로 인형을 돌봐줄 사람을 같이 물색해 봐야 할 것 같았다.

오늘 따라 이 집안의 장남이란 굴레가 더욱 무겁게 강현의 어깨를 눌렀다.

은영은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가 닥쳤음을 알았다.

최은영은 어디로 가고 이상한 어린애의 껍데기 안으로 들어온 자신이 믿겨지지 않았다.

몇번의 발악으로 몇번의 신경안정제를 맞았는지 몰랐다.

학습효과가 있는지 은영은 발악이 최선이 아니란걸 깨달았다.

차분히 생각이란 걸 해봐야 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동하할머니를 다시 만나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깨어나보니 어린애 모습을 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보니 돌아가며 염장질을 하던 남자 셋도 이 최인형이라는 아이와 무관하지 않았단 걸 이제서야 알았다.

은영은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까 란 생각을 해봤다.

하나는 교통사고 나서 죽은 후 영혼만 빠져나와 이몸으로 쓰며들었다.

또하나는 교통사고 후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영혼이 이몸으로 들어왔다.

둘다 맘에 들지 않은 가설이었지만, 은영은 그래도 두번째에 희망을 걸기로 맘을 먹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밖을 나가는 게 먼저였다.

나가서 알아봐야 할게 너무 많았다.

동하. 동하. 동하. 동하를 생각하면 못할게 없었다.

그나저나 이놈의 몸뚱아리는 언제쯤 회복이 될까 은영은 심히 걱정이 되었다.

몸이 약해서 입원했다고들 돌려대는 듯 하지만 웬지 그게 다 는 아닐 것 같았다.

이 몸뚱아리 주인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거 같았다.

마음을 정한 은영은 죽이든 밥이든 주는 데로 열심히 먹고 기운을 차릴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간병인 아줌마 말고 30대 중반쯤 되보이는 자신을 고과장이라고 불러달라는 여자도 은영에게 붙어 한시도 시

선을 놓치 않고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저녁즈음에는 회장님이라는 인형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병실에 들렀다 갔었다.

젊었을때 꽤나 호남이었을꺼 같은 인형의 아버지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악담을 하던 그 남자랑 매우 닮아 있었다.

은영이의 몸상태를 묻곤 찐한 눈으로 은영을 한참을 바라보다 나갔는데(은영은 매우 어색하여 잠깐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여겨졌다) 은영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시큰 거렸다.

사진으로 밖에 보지 못한 은영의 아버지가 생각났었다.

회장이란 사람이 나간후 고과장은 결심한 듯 간병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 한 후 인형의 가족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일단 들어본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셋이 있다고 하였다.

은영은 어쩐지 그 세 남자들이 떠올랐다.

그 남자들이 오빠라면 어째 이 인형이라는 아이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정말 가족이라면 그런 살벌한 말들을 내뱉고 가진 않았을텐데 어째 나이차이도 많아 보이고 이 인형이란 아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거 같았다.

하지만 은영은 인형이란 아이도 안됐다란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애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정애라면 몸이 바뀌어도 설명을 하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것도 같고, 방법도 같이 강구해볼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자 조금 기운도 나고 기분도 나아졌다.

.

.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끄는 세명의 남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의 생각에 빠져 (사람들이 힐끔 힐끔쳐다 보는 것도 모른채)있었다.

우현과 리현은 며칠전 큰형이 말한 인형의 상태에 대해서 입을 다물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어쩐지 처음 병원에 들릴때 약간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나마 식구들 중에 인형에게 우호적인 우현은 어쩔수 없는 가책에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솔직히 자살기도까지 할 줄은 몰랐었다.

사실 인형이 힘들어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도 알고 보면 방관자였다.

크면서 나아질 줄 알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태생적인 애가 되어가는 것도 본인의 생활이 바쁘단 이유로 외면을 해버렸었다.

리현은 이 상황이 거짓말 같이 느껴졌다.

음침한 저 계집애가 술수를 쓰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저 계집애가 들어오면서 안그래도 냉랭하던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을 만들어 버렸었다.

큰형이랑은 마음이 맞지 않았지만 인형을 싫어하는 부분만은 일치했었다.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어쩌다 마주치면 얼굴을 획 돌려버리는 것이 영 재수없었다.

자살소동을 벌였을 때도 차라리 죽는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그래서 깨어났던 소식을 듣고 몰래 맨 먼저 만나러 갔을지도 몰랐다.

웬지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꺼림칙 했었다.

그때 리현을 보고 누구냐고 묻더니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나란 생각도 들고 아뭏튼 리현은 이 상황이 맘에 들지 않았다.

리현은 이 소식을 듣고도 표정의 변화가 없던 자신의 엄마가 생겼었다.

박여사는 늘 그렇듯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 없다란 입장만 고수했다

김박사의 가족의 배려가 가장 중요하더라 말도 생각 났다. 리현의 예쁜 입가가 비틀렸다.

'흠~ 가족은 무슨. 이런 사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

병실앞에 도착한 삼형제는 웬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어쨌든 부딪혀야 한번은 부딪혀야 할 상황이었다.

병실로 들어선 세 남자를 바라보는 은영의 눈매가 곱지 않았다.

'어쭈구리. 오늘은 단체전인가? 오늘도 굶기만 해봐라. 나도 오늘은 안당한다. 난 최은영이라구...'

리현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자 눈을 치켜뜨고 자신들을 획 훑어보는 인형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보아하니 놀란 건 비단 자신뿐만

은 아닌 것 같았다.

오죽하면 변죽 좋은 우현형마저 저리 당황할까 싶었다. 아닌게 아니라 우현은 인사조차 못하고 품생품사 우현이 품위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입을 헤 벌리고 인형을 쳐다보고 있었다.

비위장이 상한 리현의 입매가 비틀렸다.

"아! 너 정신병자 됐다매?"

'헉!'

은영은 버르고 있긴 했지만 정신병자란 말에 기겁을 했다.

하지만 최은형이 누구인가? 지난 6년세월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임자있는 남자 넘본 죄로 은형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식으로 재

형의 집에서 꼬봉노릇하느라 성질 다 죽여가며 팔자에도 없는 현모양처 노릇하고 살았지만, 원래 은형의 성격은 다정다감 하고,

단순하고 뒤끝도 없고 의협심과 승부욕도 강한 자칭 무도인이 아니던가.

그런데 은영이 보기엔 어린놈이 저러고 나오니 순간 확 열이 받았다.

"그래? 니가 보기엔 내가 정신병자 같냐? 어째 나랑 첫인상 소감은 같네 나도 너 처음본 소감이 미친놈이었거든."

"..뭐? 너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야?"

"그리고 지금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 몸에 이려고 있지만 나 너보다 한참 나이 많거든? 말까지 마라. 심히 거슬린다."

" !!!!!"

병져 있는 리현을 보던 강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김박사에게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로 본 상황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아무래도 한동안 골 머리가 아플꺼 같은 예감이 들었다.

어느새 은영의 옆에 선 우현이 인사를 했다.

"안녕? 난 강우현이야! 뭐 내 눈에는 최인형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어쩔수야 없지만 그래도 모습은 내 동생인데 존

댓말은 좀 그렇치 않니? 어때?"

듣고 보니 은영도 수궁이 안가는 말도 아니었길래 고개를 약간 끄덕여 주었다.

"하하 고맙다. 근데 몇살이야?"

"지랄"

듣고 있는 리현이 기도안차는지 욕설을 내뱉었다.

은영은 리현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어린놈을 상대해서 뭐하겠나란 생각에 우현에게 고개를 돌리고 대답했다.

"서른살 이름은 최은영."

"아~ 최은영씨 나보다 누나네 하하하하"

듣고 있던 리현이 소리쳤다

"형도 미쳤어? 지금 시트콤 찍어? 큰형 뭐라고 말좀해봐. 지금 이상황이 말이돼?"

상황을 지켜보던 강현은 어느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달라진 인형의 모습에 누구보다 놀란 건 강현이었다.

이대로 가다가 인형의 페이스에 말려들것 같았다. 그건 막아야 했다.

"최. 인. 형."

은영은 카리스마 만땅 저 남자가 무슨말을 할까 내심 긴장되었다.

"최은영인데요"

하지만 잡고 넘어갈건 집어야 했다.(솔직히 강현에게는 반말은 죽어도 나오지 않았다)

"흠.. 하지만 우현의 말대로 넌 누가봐도 최인형이다. 너가 다른사람이라고 우기는 건 상관안하지.. 하지만 왜 다른 사람까지 거

기의 동조해야되지? 그리고 우린 인형의 오빠들이다. 최소한 예의는 지켜되지 않겠나? 본인이 서른살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

나이라면 어떻게 선이고 후인지는 알 나이가 아닌가? 무턱대고 때쓰고 주장하는 것은 영락없는 열일곱살이군."

은영은 찡찡했다. 맞는 말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자신은 최인형이란 아이였다.

아무리 최은영이라고 외쳐봐야 미친년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은영은 의기소침해졌다.

한풀 꺾인 은영을 보자 의기 양양해진 리현이 꺼들었다.

"뭐 볼것도 없네. 그냥 정신병원에 넣어 치료하면 되겠네."

정신병원이란 말에 은영은 충격을 받았다.

헐떡해진 은영의 얼굴에 우현은 리현을 노려보았다.

"말 가려서해라. 최리현."

성까지 붙여가며 이름부를때의 우현에겐 아무리 리현이라도 몸을 사려야했다.

"아씨 말이 그렇다는 거지.. 딱 보아하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최 리 현."

"아 ~~ 알았어.."

은영은 곰곰히 생각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계속 우기고 나선다면 정말 자기를 정신병원에 넣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라면..

처음에 그 기백은 어디로 갔는지 창백해진 얼굴로 뭔가 고민하는 듯한 은영의 얼굴을 쳐다보던 강현은 어느정도 자신의 말이 먹

혔음을 알았다.

그리고 채기를 박았다.

"앞으로 니가 누군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다음에 봤을때는 최인형으로써 식구들을 대해줬으면 좋겠다."

강현은 고과장과 함께 이것 저것 지시를 내리고, 리현은 못마땅한 듯이 이따금 은형을 힐끔 쳐다보았고, 우현은 은형에게 살짝

웃여주며 말을 건넸다.

"뭐 지금 상황이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몸이아파서 일시적인 충격일 수도 있으니깐 너무 걱정하지마.

뭐 부탁하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연락처는 고과장님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꺼야."

세남자가 떠난뒤 은영은 생각보다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다시금 느꼈다.

애초부터 이런말을 하는 은영부터 미친사람이었던 것이었다.

정말로 이러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건 시간문제일것 같았다.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죽도 밥도 안되는 상황이 될것이고, 은영은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

옆에 자신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고과장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을 굳힌 은영은 고과장을 불렀다.

"고과장님. 보다시피 절 아무도 안믿어주는 군요, 하지만 제가 최인형으로 있는 한 최인형에 대해서 알아야 겠죠?"

"....네.."

"그럼 숨김없이 말해주세요. 최인형 어떤 애였나요? 그리고 예전 부터 이상하다고 느낀거지만 저 오빠라는 사람들하곤 같은 형제가 아닌가요?어머니가 있다는데도 한번도 찾아오질 않고...혹시... 이 애 배다른 형제인가요?"

약간 놀란 듯한 고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나가 역시나였구나 라는 씁쓸한 생각에 은영은 이 인형이라는 아이가 안타까웠다. 어찌되어서 이 몸에 들어와 자신이 고생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인형의 주변인물부터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날 저녁 고과장은 은영의 엄청난 질문공세에 혼이 반쯤 나가는 줄 알았다.

그리고나서 혼자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정말 이 어린 소녀가 처음에 주장했듯이 최인형이 아니고 그 서른살 먹었다는 그 최은영인가 하는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고과장은 고개를 설래설래 저었다. 너무 피곤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라고.... 고과장은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다란 말을 실천하러 약국으로 향했다.

같은 서울 땅에서 살면서 은영은 이렇게 으리 으리 한 집도 있었구나 하며 새삼 놀라고있는 중이었다.

은영은 병원을 퇴원하였다.

리현이 던진 정신병원에 넣어버린다란 말에 충격을 받은 은영은 더이상 최은영을 주장하지 않았다.

원래 몸 주인은 최인형의 기억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거야 병원에서도 진단내리길 약물복용 부작용에 의한 기억상실로 일단락지어졌었다.

혹시나 모를 돌발행동을 우려해서인지, 병실안은 고과장과 간병인이, 병실 밖은 경호원까지 지키는 바람에 은영은 꼼짝없이 병실에서만 한달가까이 생활을 했었다.

의사의 퇴원해도 좋다는 진단이 떨어지자 은영은 날아갈 듯 한 기분이었다.

뭐 일단은 최인형인 척 살아야 뒷일을 도모할 수 있을거 같단 판단아래 은영이 더 이상 최은영 우기기를 포기했음에 가능한 퇴원이었다.

결보기에도 으리한 집은 집안에 들어서자 너무 넓고 우아하게 잘꾸며진 실내에 살짝 기가 죽을 것도 같았다.

집안에 들어서자 양평이 고향인 집안 살림을 하시는 사람 좋아 보이는 양평댁과 도우미 아줌마가 나와서 반갑게 은영을 맞아주었다.

반갑게 인사는 아주머니들에게 웃으면서 은영이 인사를 하자 미리 언질을 받긴 했으나 정말 인사를 받아 줄 주는 몰랐던 그들은 좀 놀란 듯 해 보였지만 노련하게 곧 표정을 수습을하곤 인형의 방으로 안내를 해 주었다.

'애는 정말 어떤 애였길래 인사한번에 표정이 저렇게나 변화무쌍해질까? 앞으로 놀랄일들 천지일텐데 이 사람들 심히 걱정이네..'

2층 인형의 방으로 들어온 은영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우와~ 완전 공주방이구나.. 이런 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존재했었구나..'

새하얀 침대와 깔끔하게 정리된 수많은 책들, 방한쪽 가득 음악 시디들과 척 보아도 좋아 보이는 오디오와 스피커 옆에는 옷방이 달려있었고 개인 욕실도 따로 붙어 있는 둘러보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듯 했다.

대충 방구경을 끝낸 후 털썩 침대에 드러누운 은영은 병원에서 세운 계획들을 이젠 하나 하나 실행에 옮길것을 다짐했었다.

일단은 최은영이 최인형이 되는 것이 급했다.

그렇다고 고과장에게 설명들은 바와 여러 상황들에서 비춰볼때 대충 그려지는 최인형처럼 살 순 없었다.

그렇게 주눅들고 바보처럼 사는 최인형의 인생이 지난 6년간 최은영의 삶과 비교했을때 다르게 없었다. 그렇게 사는건 한번으로 족했다.

은영은 진심으로 이 소녀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소녀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배다른 자식이라 할 지라도 어쨌든

핏줄들 아닌가

또한 은영은 잠시 여기에서 머무는 동안이라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 지도 모르는 최인형이란 소녀에게 씩씩하게 살 수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싶었다.

인형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자 아자! 할수 있다. 화이팅!"

**** 이제부터 인형이라고 쓸게요 (인형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깐요)*****

화이팅을 힘차게 외친 인형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안 탐색에 나서기로 했다.

"무슨 옷들이 다 이래? 어떻게 츠리링 한벌이 안보이지?"

수많은 옷들이 걸려있었으나 거의 스커트가 대부분이었다.

겨우 7부 면바지와 블라우스를 (티셔츠는 보이지 않았다)찾아낸 인형은 벽에 걸려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조그만 하얀얼굴에 쌍꺼풀없는 서늘해보이는 눈, 오뚝한 코, 조그만 입술,, 키는 160정도 될까 한 키에 많이 마른듯한 몸매...

"흠.. 예쁘네.. 부럽긴 하네 . 하긴 이집 유전자가 좋은지 이집 아들들도 하나같이 인물들이야 좋았지.. 찼... 근데 너무 마르고

키도 별로 크진 않네.. 이집 아들들은 다 한 키 하던데.. 아직 더 클 수 있는 나이 아닌가? 좀 잘 먹어야 갇군... 부자집이니 먹

는거야 오죽 잘 나오겠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힘이 너무 없어... 당장 내일부터 조깅부터라도 해야겠다."

감상을 끝낸 인형이 어슬렁 어슬렁 일층으로 내려갔다.

일층에 내려가자 우현이 집으로 들어왔다.

"어~ 퇴원한다더니 집에 왔네?"

우현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왔다.

인형은 그나마 호의적인 우현이 반가웠다.

"응~ 인형이 둘째오빠도 집에 일찍왔네? "

"푸하하~~ 뭐라고? 인형이 둘째오빠? 하하 "

우현은 크게 웃으면서 인형 가까이 와서 인형을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우현의 웃음에 순간 머쓱해진 인형은 이내 픽 웃으며 대꾸했다.

"뭐~ 틀린말도 아니고, 인형이 둘째오빠라고 불러주니 훨씬 소속감 느끼지 않나? 하나뿐인 여동생을 이 집 오빠들은 너무 방치하는 거 같아서 당분간 이렇게 부를려고 하는데 어때?인형이 둘째오빠도 콜?"

"뭐? 으하하하하~ 그으..래..소속감이 확 들긴 하네. 하하하. 오케이 콜~~ 근데, 우현이 여동생은 집에 온 소감이 어때?"

"뭐 병실보고 부자인가보단 했어도 인형이 아니.. 우리집이 생각보다 부자여서 좀 놀란거 말고는 ... 아 그래서 지금 집 구경하려고 나오던 참인데 인형이 둘째오빠가 안내좀 해주면 안돼?"

"훗~ 그래 나도 덕분에 우리집 구경한번 해볼까?"

우현은 너무 재미있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저렇게도 변하나 싶을 정도로 딴 사람 같은 인형을 보는게 신기하기도 하였다.

그나마 가족들 중 우현과 잘 지냈다고는 하나 그건 고작 우현을 보곤 피하지 않는 정도라고나 할까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다.

집안을 같이 돌아다니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며, 특히 뒷마당 그네를 보고는 거의 뽕 듯이 좋아하더니 덩석 올라타

더니 우현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할때는 우현은 꿈이라도 꾸는 듯 했었다.

병원에서 말하는 다중인격에 이런 인격이 나온다면 솔직히 우현은 환영하고 싶었다.

집안 구경을 대충 끝낸 두사람은 이층 거실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럼 2층은 인형이 오빠들이랑 인형이랑 쓰는 공간인 거야?"

"응"

"옆방이 세째방, 맞은편이 인형이 둘째오빠방, 그옆방이 이집 장남방이구나"

"하하 세째랑 큰형에게는 왜 오빠소리 안 붙여?"

이말을 듣자 인형의 표정이 꽤나 심란한 듯 고개를 설래 설래 젖더니 우현에게 비밀 이야기 하듯이 한쪽손으로 입을 살짝 가린

후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뭐 이집 아니 우리집 막내아들이랑 장남은 인형이 병원에 있을때 인형이에게 찍혔거든 . 흥~ 내가 그때 생각만하면 오빠 커녕

안면몰수 하고 싶지만 한집에 사는 마당에 성격좋은 내가 참기로 했어."

"뭐? 하하 그래? 혹시 난 실수 한거 없냐? 이거 웬지 겁나는데?"

"응? 뭐 실수한 건 없었고 좀 이상한 사람이란 생각은 했지만 .. 호호.. 그때도 내가 기억이 안날때라.."

"이상한 사람? 이거 나 상처입었다. 음~"

우현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척을 하였다.

인형은 익살스러운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리현은 2층으로 올라오다가 우현의 즐거운 웃음소리에 무슨일인가 하고 궁금해서 올라와 보니 인형이와 둘이 앉아서 아주 즐거운

듯이 수다를 떨고 있는게 아닌가

순간 리현은 인형이가 아닌가 했었다.

리현이 알고 있는 인형이 저렇게 소리내어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

놀라 한참을 멍하니 서서 두사람을 지켜보았다.

인형의 표정이 저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하지만 두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웬지모르게 심술이 났다.

"씨발~ 집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집에 왔으면 가만히 놀 하던데로 방구석에 박혀 있을 일이지.뭐 잘한게 있다고 웃고 지랄이

야?"

우현이 뭐라고 하려고 하던차에 인형의 말이 더 빨랐다.

"어리킨"

우현과 리현은 그게 무슨말인지 이해하는데 몇초가 걸렸다

리현의 얼굴이 분노로 빨게졌다.

"뭐?... 뭐라고 했어 너?"

"어리다고 했어. 인형이 세째오빠씨. 동생이 무사퇴원하면 그냥 퇴원축하한다 라고 말하면 되지 그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보자

마자 성질을 부리는 거잖아? 막내아들 티를 꼭내는 것도 아니고.. 나원. 이제부터 나한테 성질부리면 나한테 관심받길 바라는구

나 라고 생각할꺼야."

"뭔 개소리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지? 행동이 너~~무 , 너~~~무 유치해서 막 귀여워 질려고도 하는데?"

인형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웬지 그 웃음에 리현은 본인도 모르게 찔끔해졌다.

"허 나참 어이가 없어서. 저게 병원에서 간댕이만 켜져나와서 아주 겁대가리가 상실했구만. 아님 아예 돌았거나."

인형은 리현을 오늘로 세번째로 보는 거였지만 정말 예쁘게 생겼다란 생각이 새삼 들었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꽃이 풀풀 날리는

꽃돌이인데, 어찌 저 예쁜 입에서 고약한 소리만 나오는지 인형은 신은 공평하다란 말에 다시 공감했었다.

' 쫘쫘 저 아름다운 얼굴에 걸레를 문 입을 주셨으니..'

인형의 눈에는 리현이 철딱서니 없는 남동생쯤으로 보였다 (리현이 알았다면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겠지만)

"인형이 둘째오빠~ 난 이만 피곤해서 씻고 방에서 좀 쉴게요. "

리현의 발악을 뒤로 한 채 인형은 자기 어깨를 주무르면서 우현에게 말하고는 느긋하게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황당해하는 리현에게 우현이 웃으며 말했다.

"리현아 인형이는 예전의 인형이 아냐 . 뭐 너도 느꼈겠지만"

"흥~ 웃기지 말라 그래 . 재수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

"큭~ 난 지금이 너무 맘에 드는데?"

"헛~ 꺾이나 !"

리현은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인형이 다른사람 같았다.

예전의 인형이었으면 리현이 인상만 찌푸려도 제방으로 내뺄텐데, 어리다니 ...리현에게 막내티를 낸다고 சொ붙을 때는 순간 자신이 유치함을 들킨 것 같아 찔끔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리현은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인형이 여전히 맘에 들지 않아 인형을 방문을 노려보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 갔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우현은 한동안 집안이 재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인형이 제일 무서워하던 강현에게는 어떻게 나올지 또한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하는 강현의 반응이 상당히 기대되었다.

우현은 친구녀석들이 물 좋은 곳으로 물색해놓았다던 오늘저녁 클럽 약속을 취소해야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친구놈들의 네가 빠지면 부강은 어떻하냐며 투덜대는 소리를 뒤로하고 우현은 약속을 취소하고 기분좋게 전화를 끊었다.

최회장의 명령으로 인형의 퇴원기념조로 강현과 갤러리를 운영하는 박여사 모두 일찍 집으로 퇴근해서 저녁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모여 있었다.

'흐미~ 얼마만에 보는 진수성찬인가...역쉬 부자집이라 밥상의 품격이 다르구나..'

"꿀~깹"

인형의 고인 침이 꿀꺽 넘어갔다.

인형은 최회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박여사를 오늘에서야 처음 보았다.

인형이 자리에 앉아있는것을 한번 힐끗 쳐다본 박여사는 관심없다는 듯이 이내 자신의 자리로 우아하게 앉았다.

어딜 보아서 아들 셋을 둔 엄마란 말인가..인형은 고상하고 우아하게 나이먹는 여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박여사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었다. 리현이 예쁘게 생긴 것은 역쉬 유전자의 힘이 강함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아름답긴 했지만 표정이 너무 없었다. 마치 향기없는 꽃이라고 할까? 인형은 남들이 보기엔 모든것을 갖추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박여사를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박회장은 가족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인형에게 잠시 눈길을 주고는 수저를 먼저 들었다.

"잘먹겠습니다~"

박회장을 시작으로 모두 수저를 든것을 본 인형이 얼른 수저를 들고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인형으로 향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인형은 국을 한술 떠서 맛을 음미하였다.

'오~ 국물이 끝내줘야라고 막 외치고 싶은 맛이구나.'

그동안 무미건조한 환자식단에 질려있었던 인형은 오감을 자극하는 진수성찬에 무한애정과 감사를 느끼며 허겁지겁 먹었다.

한동안 먹는것에 집중하던 인형은 왠지 얼굴이 따끔거리는 거 같아 고개를 드니 모든 가족들이 다들 묘한 표정들로 인형을 쳐다보고 있었다.

흐뭇해하는 듯한 최회장, 이내 고개 돌려버리는 박여사, 웃음을 참는 듯한 우현, 인상을 찌푸리는 리현, 미간에 주름을 잡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강현까지 인형은 너무 게걸스럽게 먹은 것 같아 살짝 민망해졌다.

하지만 얼마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인가? 민망한 인형은 아직도 자신을 쳐다보는 강현에게 베시시 웃어 보였다.

강현의 턱이 식탁으로 떨어졌다.

"ㄸㄸㄸ꼭~` ㄸㄸ...꼭~"

우현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식사 시작때부터 인형에게 눈을 떼지못하던 강현의 표정이 변화무쌍했기 때문이었다.

강현이 숟가락을 들자마자 들려오는 인형의 '잘먹겠습니다'라고 우렁차게 외치는 말에 깜짝 놀라 인형을 쳐다보았다.

인형은 국을 한술 떠먹고는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는 듯 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감상하는 표정이랄까? 진지하게 음미하던 은영

은 아주 만족한듯이 고개까지 끄덕이더니 (얼마나 진지 하던지 강현도 같이 고개를 끄덕일뻔 했다) 그야말로 몇일 굶은 사람처럼

이것 저것 반찬을 집어다 먹기 시작했다. 중간 중간에 신음까지 해가며 먹는게 아닌가..

식사때마다 마지못해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깨작이던 인형은 벌써부터 상상이 되질 않았다.

인형은 한참 먹다가 눈길을 의식해서 인지 잠깐 둘러보더니 강현과 눈이 마주쳤다.

당연히 인형이 외면하리라 생각했던 강현은 자신을 쳐다보고 민망한 듯 베시시 웃는 인형을 보고 길을 가다 느닷없이 뒤통수 맞는 것 보다 더 놀랐다.

필시 자신의 이런 상태를 주시하였을 우현의 끄꼭 거리는 웃음 소리를 의식하고 난 뒤 표정을 수습하고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식사를 시작하였으나, 입맛은 벌써 달아나 버렸다.

김박사의 말론 과거를 기억 못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여자라고 우기는게 사라지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성격도 많이 밝아져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보고할때만 해도 그저 그나마 다행이다 란 생각이었었는데 이젠 다시 병원에 데리고 가야하는게 아닐까 란 고민을 하게 되는 강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긴 후 간단한 다과로 입가심을 하는 자리에서 박회장이 인형에게 입을 열었다.

"음.. 인형이가 많이 좋아진 듯 해서 다행이구나. 고등학교 입학할 하고 아파서 잘 나가지도 못해서 학교 적응이 걱정되긴 하다면 어떠냐? 좀 더 몸을 추스리고 학교 갈테냐?"

생각지도 못한 학교에 인형은 머리를 한대 맞을 듯 했다.

'아 맞다. 애 고딩이었지... 어떻게지? 정애도 만나봐야되고, 할일이 태산인데...'

고민하느라 대답을 우물쭈물 하던 인형을 대신해 강현이 말했다.

"한달 정도 더 집안에서 요양을 하고 난 후에 다녀도 될 거 같습니다. 조금 나아진 걸 가지고 괜히 무리하면 더 안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큅! 한달을 더 집에 이럴순 없어~'

다급해진 인형이 손을 내 저으며 강현에게 말했다.

"아녀요~ 인형이 큰오빠~ 저 다 나왔어요. 요양은 무슨 병원에서도 다 나왔다고 했고, 학생이 학교 자꾸 쉬면 그것도 습관되고, 교우관계도 막대한 지장이 있고,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서 안되죠.. 그럼요.. 전 학교에 꼭!! 다니고 싶습니다. "

마치 우정에 무대에서 '뒤에 계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란 말투로 끝을 맺은 인형은 두손을 맞잡고 강현을 간절히 쳐다보았다.

인형은 속으로 만약에 태클을 걸면 평생 괴롭혀주리란 맹세를 하며 허락의 메시지를 강현에게 마구마구 보냈다.

최인형이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던 아이던가? 강현은 인형의 눈빛이 부담스러워져 고개를 돌렸다.

최회장 또한 적극적으로 나오는 인형이 놀랍긴 했지만, 다행이란 생각 또한 안들수가 없었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하기로 했다.

"험!! 인형이가 저렇게 학교 가고 싶어하니 다행이구나.
강현아 인형이 학교측에 연락하고 곧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라"

"네"

그 밖의 사소한 지시를 하고 최회장은 방으로 들어갔다.
박여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채 최회장 따라 들어가 버렸다.

최회장과 박여사가 사라지자 리현이 빈정거리기 시작했다.

"헛~ 교우관계? 따 주제에"

따 란 말에 인형은 깜짝 놀라 손가락으로 본인을 가르키며 리현에게 물었다.

"뭐? 따? 세상에 애 아니 나 따였어?"

"니가 따 란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멍충아. 학교에 뭐 찾아 먹을게 있다고.. 꼭 가고싶습니다?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

가.. 아주 삽질을 해요"

인형은 강현과 우현을 쳐다보았다.

생각에 잠긴 강현과 걱정스러운 표정의 우현을 보자 거짓말은 아닌것 같았다.

인형은 한숨만 나왔다.

"휴~최인형 정말 가지가지 하네.. 산넘어 산이로구만."

"....."

마치 남말하듯 한숨쉬는 인형을 세 형제는 이젠 놀랍지도 않았다. 아니 이젠 무섭기까지도 했다.

그래도 하루가 급한 인형은 학교 핑계를 삼아야만 그나마 이 집 밖을 나갈 수 있을 거 같았다. 학교생활도 만만치 않을꺼 같았지

만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글순 없었다. 구데기는 더럽고 징그러울 뿐이다. 관리만 잘하면 구데기는 안생긴다. 은영의 엄마의 생

활신조가 생각났다.

마음을 굳힌 인형은 강현을 쳐다보았다.

"큰오빠, 그래도 저 학교 갈래요. 학교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강현은 인형의 얼굴을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학교에는 내가 연락하마. 그래도 며칠 집에서 쉬고 가거라. 다음주 부터 학교 가는 걸로 하마."

인형은 한시가 바빴지만 그래도 생각치도 않게 강현의 인형을 배려하는 말투에 고개를 끄덕였다.

리현은 새삼스레 인형을 쳐다보았다.

정말로 우현의 말대로 예전의 인형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니 저렇게 마주 얼굴대고 있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리현은 인형의 얼굴을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조그맣고 하얀 얼굴, 서늘해 보이는 눈. 보기 좋게 자리잡은 코와 조그만 입술.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예쁜 얼굴이었다. 전에는 한 번도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얼굴이었는데....어째 당당하고 용감해 보이는 인형이 리현은 예전만큼 치가 떨리고 밉지 않았다.

할 일이 있다며 먼저 방으로 올라간 강현이 올라가고, 더이상 땀지 걸지 않고 리현 또한 방으로 사라졌다.

인형은 우현과 함께 2층으로 올라왔다.

문득 생각난 인형이 우현에게 물었다.

"아! 혹시 인형이 생모 봤어?"

"뭐?"

우현은 왜 이런 질문을 하지는 의도를 파악하고자 인형의 얼굴을 살폈다.

인형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니 다른 식구들은 모두 키가 큰데. 나만 작아서 혹시 생모가 작은 사람이었나 해서...."

"....."

우현은 고작 키 때문에 생모에 대해서 물은 것인가 싶어 당황스러웠다.

"아니 뭐 그냥 이것 저것 궁금하기도 하고.. 기억이 없으니..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내가 괜히 물어본거면 대답 안해줘도 돼."

".....오래전에 나도 한번 본거라.. 크진 않으셨던거 같다..."

"응...그렇구나"

"오늘 피곤하겠다. 그만 들어가 쉬어~"

은영은 우현의 얼굴을 뺨히 쳐다보았다.

"왜?"

"인형이 둘째오빠~ 고마워 .. 이건 정말 진심이야.. "

"훗~ 짜식..고마우면 앞에 인형이 빼고 둘째오빠라고 불러주면 안될까? "

"하하~ 오케이~ 접수~ 둘째오빠"

이렇게 인형의 집의 첫날이 지나갔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잠을 푹 잔 것 같았다.

일어나 시계를 확인을 해 보니 아침 5시쯤 되었다. 인형은 이부자리를 대충 정리해놓고 씻고 난뒤 어제 잠들기전 옷방을 뒤져 찾

아 놓은 학교 체육복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집안이 더욱 커 보였다.

인형은 정원으로 나와 스트레칭부터 하였다. 이제 가을이 오려는지 아침 저녁으로는 꽤 시원했다.

어제 우현과 집구경하면서 봐둔 운동실로 향했다.

어제도 꽤 감탄하였지만 각종 운동 기구들이 갖춰져 있어 인형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자~ 가볍게 런닝부터 해볼까?"

인형은 런닝머신을 켜고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했다.

이미 예상한 저질 체력이었지만 상상 그 이상이었기에 인형은 보양식이라도 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란 심각한 고민까지 들었다.

강현이 운동실에 들어설 때 인형은 뒤통일으키를 하고 있었다.

운동실에 들어오던 강현이 인형을 보고 멈칫했으나, 강현을 본 인형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아침~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음.. 좋은아침"

얼떨결에 뿔뿔하게 인사를 받아주고 강현도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런 강현을 인형은 속으로 마구 웃었다.

'아주 표정이 죽이는군 ㅋㅋ,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구나 ㅋㅋ'

더욱 기운차게 운동을 하는 인형을 곁눈으로 슬쩍 보면서 인형이 어느정도까지 달라질 것인지 강현은 몹시 궁금해 졌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는 인형의 모습에 삶의 에너지가 느껴져서 강현은 썩 나쁜 아침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어느샌가 운동을 마친 인형이 강현에게 물을 건네주었다.

"물 드세요"

"고맙다"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강현의 몸을 아래 위로 품평하듯 훑어보는 인형의 시선에 강현은 당황스러웠다.

"뭐 할 말 있니?"

"운동 오래 하셨나봐요? 근육이 하루이틀 해서 생긴게 아닌데요? 우와~ 완근(팔뚝)은 정말 키우기 힘든 근육인데..웃입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몸짱이시구나"

이젠 팔뚝까지 만져가며 감탄을 연발하는 인형에 강현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더 이상은 운동을 못 할 거 같은 생각에 강현은 주섬주섬 나갈 준비를 했다.

인형은 운동을 더 하지 않고 나가는 강현의 뒤를 따라나오면서 아침마다 운동하느냐, 예전에 무슨운동했느냐라는 등 재잘재잘 거

리는 인형에게 대답을 하는 등 마는등 제방으로 돌아왔다.

강현은 샤워를 하면서 2층 방에서 헤어질 때 아침식사때 만나자며 귀엽게 손까지 흔들던 인형이 생각나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침은 최회장과 강현, 인형 셋만 먼저 먹었다.

잘먹겠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인형은 오늘 아침도 거하게 먹고, 최회장과 강현의 출근 배웅을 하러 나왔다

"아버지 잘 다녀 오세요.(여기서 인형은 뭉클했다), 큰오빠도 잘 다녀오세요"

최회장은 약간은 멋적은 듯이 헛기침을 두어번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강현의 반응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심한 은영이 양평택 부엌정리를 도와주러 들어가자 양평택은 펄쩍 뛰며 극구 만류하여 옆에서 수다를 떠는 것으로 대신했다.

"아주머니 늘 아침은 회장님이랑 큰오빠 둘이서만 먹나요?"

"네. 다른 분들이야 늦게 일어나시니깐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매번식사때 마다 각자 먹나요?"

"대부분은요. 근데 일요일 저녁은 식구들이 모두 같이 모여 드시는 날이에요"

양평택도 어릴적 부터 봐왔지만 조용하고 그림자 같던 아가씨가 다른사람처럼 수다를 떨면서 친근하게 구는 것이 신기했지만 정

말 다행이다 싶었다.

늘 주눅들고 외로워보이던 아가씨가 과거 기억을 못한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자 한결 마음이 좋았다.

잠시 후 박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란 말에 양평택은 입을 헤 벌리고, 박여사는 인형을 뺀히 쳐다보았다.

인형의 앞으로 다가온 박여사는 인형의 뺨을 내리쳤다.

"니가 이집에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만, 내게 그따위로 아는척, 친한척, 하지마. 그게 니가 이집에서 살아가는 조건이

야. "

박여사는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양평택이 찬 수건을 인형에게 건넸다. 이상하게 인형은 박여사에게 맞은게 크게 억울하지 않았다. 걱정하는 양평택을에게 씩씩하게 웃어보이고 인형은 2층으로 올라갔다.

짜깅빠입은 우현이 부랴부랴 방을 나서고 있었다.

"하이~ 어제 잘 잤어? 아침 강의가 있는데 늦어서 먼저 나간다~"

"응. 잘 잤어 ..근데 아침도 안먹고 나가?"

"응..학교에서 대충 때워야지..저녁에 보자"

"오빠도 다녀와~"

우현이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인형은 한번이 어려웠지 오빠 소리가 술술 나오는 자신이 신기했다.

'진짜 이집 식구가 된거 같네.. 술술 이집 막내아들을 구워 삶아보려 가 볼까?'

인형은 까칠한 고양이 같은 리현이 은근히 귀여웠었다. 잘만 길들이면 앞으로의 인형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꺼도 같았다.

강현은 솔직히 너무 어려웠고, 우현이 제일 인형에게 잘해주긴 했지만 눈치백단 너무 여우같아서 부담스러웠고, 어떻게 보면 술

직하고 단순해 보이기 까지 하는 리현이 제일 만만했다.

인형은 리현의 방문을 노크했다.

"누구야?"

인형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야 인형아~"

씻고 나왔는지 물기가 묻은 리현의 미모(?)가 더욱 빛을 발하는 듯 했다.

인형이 리현의 방에 들어온건 처음이었다.

"뭐야? 누가 방에 들어오래?"

"헛 방에 내가 보면 안되는 거라도 숨겨놔어? 까탈하게 구시긴.. "

"내가 말을 말자.. 용건만 말하고 얼른 나가"

인형은 리현의 방을 둘러보았다.

인형의 방 보다 더 커보이는 방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산더미 같은 음악시디였다.

방안 곳곳에 락그룹 가수처럼 보이는 외국 가수사진들이 붙어져 있었고, 기타와 전자 피아노도 있었다.

리현은 자신의 말을 들은척도 하지 않고 방 구경에 여념이 없는 인형이 어이없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음악좋아하나봐?"

"내가 뭘 좋아하던 그건 니가 상관할 바 아니고 ..할말 없으면 꺼져줄래?"

앉을 데를 찾아보던 인형은 리현의 침대에 털썩 앉았다.

"저 기타랑 피아노 칠줄 알아?"

"너 어딜 앉아? 안 일어나? "

"히야~~ 저거 기타들고 연주하면 오빠 꽤 멋있겠다. 나도 한번 그 모습 봤으면 좋겠네."

"뭐?"

"그냥 옆방 살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들렸어, 너무 나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그러지 마라.. 진짜 상처받는다. 그리고 한국대 다닌

다던데? 내가 한번 오빠 보러 놀러갈께"

"뭐? 어딜 놀러와? 혹시라도 오기만 해 .. 너 죽는다."

리현은 다짜고짜 방에 들어와서 요상한 말만 늘어놓더니 학교까지 찾아오겠다는 인형의 말에 기겁을 했다.

그모습에 인형이 씩 웃으며 리현에게 말했다.

"그럼, 내가 학교 안가는 대신에 뭐해줄건데?"

".....?"

"오늘 저녁에 집에 올때 아이스크림 한통 사다줘.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만약에 안사다주면 학교로 쳐들어가서 얻어먹는다..

오,빠."

할말이 끝난 인형은 리현이 더이상 뭐라 하기 전에 방긋 웃어주며 방을 나가버렸다.

리현은 폭탄을 던지고 사라진 인형의 말을 곰곰히 생각해 봤다.

'아이스크림이라니.. 나보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니.. 것도 초콜릿맛으로...'

리현은 황당하면서 정말로 사올 생각은 없었지만 왠지 불길했다. .. 불안한 리현은 아이스크림을 사와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했다.

결국 그날 저녁에 리현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나서 그냥 집으로 와 버렸다.

일부러 늦게 들어온 리현을 계속 기다린건지. 2층 거실에 앉아있던 인형은 리현의 두 손만 쳐다보았다.

어쩐지.. 머쓱해진 리현은 왠지 부끄러운 두 손을 꼭 쥐며, 인형이 무슨말을 하기전에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듯이 들어가 버렸다.

뒤에서 그 모습을 보던 인형이 배를 잡고 웃는지는 리현은 아마도 꿈에도 몰랐을 것이었다.

어쩐지 인형은 리현이 좋아질 것 같았다.

학교 갈 모든 준비가 끝났다.

막상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매고 있으려니 인형은 살짝 긴장이 되었다.

그러나 최신형 핸드폰을 손에 불끈 쥐고 힘을 내었다.

.
. .
.

어제 저녁 강현이 자신의 서재로 인형을 불렀다.

"학교에는 연락을 해줬다. 내일부터 등교하면 될꺼야. 이걸 네 핸드폰이다. 1번에 고과장 번호 입력시켜 줬다. 등,학교는 당분간

고과장이 시켜 줄 거다."

"굳이 그러지도 않아도 되는데요. 저혼자 등학교정도는 할수 있어요"

"고과장도, 나도 모두 한가한 사람 아니다. 당분간 같이 다니고,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하자"

인형은 더 이상 우길수도 없었다.

당분간 고과장이랑 같이 움직이는것이 맘에 걸렸지만, 그래도 일단 이 집 밖을 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다.

강현이 주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방을 나오려는데, 강현은 인형을 다시 불러세웠다.

"혹시라도 힘들면 전학도 생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말해라"

잠시 뜸을 들이던 강현이 말했다.

생각지도 않은 강현의 말에 인형은 놀랐지만 너무 고마웠었다.

"지금까지 최인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도 대충은 어떤 애였는지는 감이와요. 그 앤 누가 짝어져 준 것도 아닌

십자가를 스스로 매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위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을꺼예요. 누군가 가르쳐 주려해도 본인 스스로 거부

했는지도 모르죠..또 상처입을까봐..버려질까봐요.."

인형은 강현에게 웃어보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살꺼예요.아마도 예전의 최인형도 좋아할꺼라고 생각해요"

강현은 다른사람 이야기 하듯 담담히 이야기 하는 인형의 말에 마음 한 구석이 묵직해졌다. 인형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하나 그 조그만 어깨위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태어날때부터 지닌 몸의 일부분인

듯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도 몰랐다.

강현을 바라보며 웃는 인형의 얼굴이 무척이나 빛나보였다.

어쩌면 저 아이는 그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 날개를 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온 인형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전에 본인이 쓰던 자신(최은영)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란 안내가 나왔다.. 왠지 인형은 가슴이 철렁해졌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정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가는 동안 인형의 심장은 미친듯이 방망이 질을 하였다.

"여보세요?"

인형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애의 음성에 목이 매였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 혹시 최은영이란 사람 아시죠?"

"...누구시죠?"

"제이름은 최인형입니다. 은영언니랑은 동호회에서 만났구요. 은영언니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얼마전 부터 언니랑 연락이

안되서은영언니랑 친한 분이시라해서.. 전화드렸습니다. .. 혹시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나요?"

"아.. 저번에 은영언니랑 만났을때 제 전화로 그쪽분에게 전화건게 있어서..."

"아.. 그렇군요... 동호회에서 만났다고요?"

"네.. 면사랑 요리 동호회에서요.. 은영언니에게 무슨 일 있나요?"

"음.. 전화로 말하기 좀 그런데 .. 혹시 만날 수 있나요?"

인형은 정애가 먼저 만나자란 말에 너무 기뻐다.

"그럼요..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어떠세요?"

"내일은 그렇고 모래저녁쯤은 괜찮은데.."

인형은 이틀후 저녁에 정애랑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
. .
.

고과장과 함께 학교에 거의 다다른 인형은 바깥구경에 여념이 없었다.

등교시간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삼삼오오 등교하는 모습들이 진짜 로고딩이 되었다는게 실감이 나는 인형이었다.

학교 근처에 인형은 차를 세워 내렸다. 걱정스런 고과장의 얼굴에 웃어보이며 다녀오겠다란 말을 남기고, 가방을 고쳐매고 마음

을 다잡고 학교로 향하였다.

인형의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다. 예전에 여고를 나와서인지 남학생들과 같이 등교하는것이 신기한 인형은 두리번거리며, 묻고 물어 자신의 1학년 3반 교실을 찾을수 있었다.

인형이 교실에 도착하자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본인의 자리를 모르는 것이었다.

인형이 들어오자 몇몇이 인형을 힐끗 거렸다.

인형이 아이들을 쪽 훑어보았다. 반이상이 등교를 마친 상황인지 아이들이 꽤 자리에 있었다.

인형을 쳐다보는 눈길들이 곱지 않는 것에 인형은 그래도 설마했던 따 란 말이 생각나며 어찌..진실로 크게 다가오는 듯 했다.

쪽 훑어보던 중 개중에 난 범생이오 라고 착실하게 생긴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인형은 그 남학생에게 다가갔다.

"안녕?"

"어? 어.. 안녕"

"내 자리 어디지 좀 가르쳐 줄래? 간만에 와서 기억이 잘 안나네?"

"그런거없는데?"

"뭐?"

"그냥 마음내키는 대로 앉으면 돼.. 일찍 오는 순서대로.."

"아! 그래? 아주 민주적인 방식이구나.. ㅎㅎ 고맙다."

인형은 빈 자리들을 스캔했다.

역쉬 명당자리는 운동장이 보이는 창가가 칙오아닌가? 그 중에서도 뒷자리가 아니던가. 뒷자리에 자리가 하나 빈 것을 보고 인형은 얼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자리에 앉은 인형은 주위를 둘러둘래 살폈다.

호기심과 약간은 떨떠름까지 해보이는 반 아이들의 시선들이 느껴졌다.

이런 시선들이야 병원에서 부터 쪽 받아왔지 않았던가. 인형은 느긋하게 반 아이들을 둘러보며 씩 웃어줬다.

일순간에 '헉'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내 여자아이들은 삼삼오오 인형을 힐끗 거리며 쑥떡이기 시작했다.

아까 그 범생은 아직도 인형을 쳐다보고 있었다.

'짜식이 이쁜건 알아가지고.. 누나 니 맘 다~ 안다'

인형은 그 범생에게 손한번 살짝 흔들어 주었다.

흠칫 놀란듯한 범생의 귓볼이 빨개지더니 급히 안경을 벗어들고 닦는 척을 하였다.

잠시후에 3명의 남학생들이 우루루 들어왔다.

인형의 옆자리에 가방을 집어던지듯 놓던 남학생이 인형에게 소리 질렀다.

"야! 너 댜데가서 앉아, 그자리 누구 자린지 모르냐?"

인형은 그 남학생을 쳐다보았다.

크가크고 많이 마른 체격에 날카롭게 생긴 얼굴에 여드름이 드문 드문 보였다.

인형과 얼굴이 마주치자 그 남학생은 놀란 듯 했다.

"어? 난 또 누구라고.. 암튼 자리 비켜"

"왜?"

"....?"

"등교순대로 본인이 앉고 싶은 자리 앉는다는데, 난 이자리가 맘에 드는데?"

"허,,, 이게 아팠다더니 정신이 애자되서 돌아왔나? 그냥 잔말말고 비키라면 비켜라"

"나랑 짝하기 싫으면 네가 댜자리 가라"

"누가 너랑 짝한데? 니가 앉은 자리 정우 자리거든"

"그래? 그럼 정우오면 정우랑 이야기 하지 뭐...뭐해? 안앉고?"

"허참. 너 돌았냐?"

"허참 아저씨가 돌았는지 미쳤는지 내가 알 바 아니고, 옆에서 계속 종알 거릴거면 너 딴자리 가라. 아니면 너 내 옆자리 앉기

부끄럽냐? 손볼잡고 공부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만 빼고 앉지 그래?"

" 푸하하.. 킬킬킬.. 깔깔깔.. "

옆에서 지켜보던 남학생 둘이 웃고 난리가 났었다.

"흥기야. 그냥 앉아라. 정우가 오면 알아서 하겠지. ㅋㅋ"

"그으래 .. 부끄러워하지 말고 앉으래잖나 .푸하하"

"후~아. 돌겠네.. 그만 쳐웃어라. 이새끼들아~"

흥기라는 남학생은 후아 후아 몇번 그러더니 진짜로 옆에 앉기가 부끄러웠던지 웃고 있는 남자애들에게 책을 집어던지곤 다른 자

리로 휙 가버렸다.

수근대는 여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재 정말 미친거 아냐? 아팠다더니 완전 딴 사람 같네?'

'원래 저런거 숨기고 살았나부지. 생긴건 완전 놀게 생겼잖아'

'담탱이가 반장 한테 그랬는데,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던데?'

'정우한테 확 맞았으면 좋겠다.'

인형은 다 들리도록 수근거리는 소리에 쓴 웃음이 났다.

'어떻게 된게 호의적인 애는 어찌 한명도 안보인다니...'

아무래도 정우란 아이가 짱인가 보다란 생각이 든 인형이었다.

자리맡아주는 꼬봉까지 있는걸 보면, 귀찮은 일이 생기겠다란 생각에 인형은 자리를 비켜줘 버릴걸 그랬다는 후회도 들었다.

근데, 그랬다간 평생 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거 같아서, 세게 나가긴 했는데 정우란 아이가 여자도 패는 개 망나니는 아니길

인형은 진심으로 빌었다.

인형의 기도를 답이라도 하듯이 문제의 자리주인 정우가 나타났다.

정우의 오늘 아침은 다른 날 보다 더 피곤했다.

일요일은 애기봐주는 베이비시터 아줌마가 오지 않는 날이었다.

태어난지 두달이 좀 넘은 정우의 여동생 하늘이가 밤낮이 뒤바뀐 탓에 어제 밤에도 계속 하늘이에게 시달렸다.

정우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충격과,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정우의 엄마는 아직도 병원에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두들 아버지도 없는데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으려는 정우의 엄마를 걱정하였지만 정우의 엄마는 뱃속의 있는 아이는 정우아버지 대신해서 준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름도 하늘이라고 지었다.

이 조그마한 녀석은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사람을 부려먹는 재주(?)가 있었다.

우유를 먹이는 것도 단지 분유만 타서 우유를 먹이면 끝인줄 알았는데 물 온도를 맞추고 먹이고 트림시키고, 우유병을 소독하고,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 씻겨준 후에 분바르고 옷 갈아입히고, 하여튼 정우는 어제 하루가 어찌 간지도 몰랐다. 여자들이 아이 둘 셋을 기르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정우는 그런 여자들에게 존경심이 우러러 나올 지경이었다.

학교에서 이런 정우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담임선생과 정우의 친한 친구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다른 이들이 이런 상황을 안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불쌍하거나 동정하는 것은 정우의 성격상 절대 사양이었다.

교실로 들어선 정우는 어느듯 지정석이 되어버린 자신의 자리에 딱 하니 앉아있는 여학생을 보고 짜증이 났다.

'흥기 이자식은 아직 등교전인가? 앤 누구지? 침 보는 앤데... 전학생인가?'

"비켜"

정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여학생에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인형은 두주먹을 불끈쥐고 벌떡 일어나 진지하게 물었다.

"니가 정우니? 여기가 니 자리야?"

"....."

정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채 인형을 뺨히 쳐다보았다.

"니가 정우구나..그래. 앉아.. 여기가 니 자리구나"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며 인형이 일어났다.

"이거 완전 웃기는 기집애네. 내가 비키라고 할땐 바락바락 대들더니, 뭐 이렇게 다있어?"

어느샌가 정우곁에 다가온 홍기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인형이 홍기를 쳐다보며 차분히 설명해줬다.

"홍기야~ 넌 자리를 맡아주러 온거였잖니.. 처음부터 이자리 내자리다. 왜 말을 못해 그랬으면 내가 달리 생각을 했을 텐데.."

"뭐? "

인형이 다른 자리로 갈줄 알았는데 정우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홍기는 어이상실..열이 받았다.

"니가 앉은 자리 내자리거든.. 비켜라."

인형은 홍기를 쳐다보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돼. 니가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내가 무슨 철새도 아니고 이리저리 자리 옮기는 건 사양할래..

나랑 짝 하고 싶으면 니가 잘하는 자리 맡아주기 해서 내일 같이 앉자.. 오케이?"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누.. 누가 그래? 니같은 진따랑.. 진짜 웃기는 기집애세.. 정우야 뭐라고 말좀 해 "

정우는 떠는 홍기목소리에 골이 흔들렸다. 보아하니 옆에 여자애도 가만히 물러날 것 같지도 않았다. 몹시 피곤한 정우는 유치

한 자리싸움에 기운빼고 싶지 않았다.

"천홍기. 그만 떠들고 니 자리로 돌아가라."

"뭐? 너 이 기집애랑 진짜 같이 앉을 꺼야?"

이모습을 지켜보던 진규와 수호가 얼른 홍기를 잡아 끌고 갔다.

정우의 사정을 아는 그들로써는 정우가 몹시도 피곤해 보였기때문이었다.

"그만해 암마, 정우가 됐자잖아."

"그래 유치하게 자리싸움이나? 이 엉아가 뽕사줄테니 가자."

투털대는 흥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인형은 예상외로 일이 쉽게 끝난 거 같아서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정우에게 신나게 당하고 쫓겨나가길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반 아이들은 너무 쉽게 상황이 종료된것에 아쉬움과 놀람이 교차했다.

인형이 본 정우의 첫인상은 깨끗하고 차가운 이미지였다.

우선 남자아이치곤 티끌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에 약간 치켜올라가 눈 때문인지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뿐이지 잘생기진

않았지만, 어째 길가다가도 한번쯤 더 쳐다보게하는 마스크였다.

키도 크고 팔,다리도 쪽쪽 뺏은 적당한 근육이 있어보이는 몸매에 싸움패나 할 것같은 호승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가졌었다

.

정우가 싸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타고난 파이터라고 했다.

워낙에 운동신경도 좋았고, 특히나 싸울때 그 깨끗한 얼굴에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을 때릴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주었고 꽤 잔인해 보이기조차 했었다.

하지만 정우는 정작 싸움을 좋아하진 않았다. 어쩌다 상대하다보니 본의아니게 쟁자리를 먹게 되었지만, 본인과 관계되지 않는

일에는 원래 관심을 잘 두지도, 신경도 쓰지 않는 성격이었다.

인형은 쏟아지는 잠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지난 주 달리 할 일이 없던 인형은 체력증진 명목으로 거의 하루 반 이상을 운동을 하였고, 어제 저녁에 정애와 통화 후 잠을 설

친 나머지, 수업시간 선생님의 말소리는 자장가로 들렸다.

그리고 아까 부터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에 근원지는 옆에 앉아 졸고있는 정우에게서 나는 듯 했다.

인형은 이 냄새가 뭘까? 어디서 맡았을까?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인형은 잠깐 꿈을 꾸었다. 인형의 몸으로 들어온 후 한번도 꾸지 않았던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동하의 꿈을 꾸었다.

꿈속의 동하는 아기였었다. 배가 고프지 동하가 계속 울고 있었다. 꿈속에서도 마음이 급해진 인형은 우유를 타고 급히 동하에게

다가가는데 동하는 침대에서 엉금엉금 울면서 기어나오고 있었다. 근데 침대 밑에 수많은 벌레들이 득실대고 있었다. 동하가 침대에서 떨어질것 같았다. 인형은 급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다.

"안돼!! "

자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인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획~ 획 ~획 ~

모두의 시선이 인형에게 집중되었다.

수업중이던 나이 지긋한 남자선생이 인형을 노려보았다.

"흠흠.. 그럼 안돼지. 안돼 수업시간에 자는게 안됐다는건 나도 동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어선 김에 그대로 밖으로 나가 복도에 손들고 서 있도록.."

푸하하하~~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들렸다.

"헤헤~ 죄송합니다."

멋적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꿈이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 인형은 어슬렁 복도로 나가 손을 들고 서있었다.

정우는 자신 못지 않게 졸고 있는 인형을 알고 있었다.

생긴것은 바늘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깡쟁이같이 생긴 여자애 같았는데, 어찌나 해드뱅잉을 하던지.. 정작 정우가 신경이 쓰여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었다.

그러다 깜빡 졸은것 같은 정우는 옆에서 소리지르며 벌떡 일어나는 인형때문에 깜짝 놀라 잠이 깨었다.

옆에 여학생은 졸다못해 꿈까지 곧 모양이었다. 졸면서 잠꼬대까지 하는 건 처음 본 정우는 어이도 없고 웃기기도 했다.

그리고 보기와 달리 녀석도 좋은지.. 교실에서 쫓겨나면서도 인사까지 해가며 베시시 웃으면서 나가는 모양이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했다.

정우는 저런 애를 왜 처음 봤을까 란 생각이 들었다. 저 정도의 캐릭터라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본인이지만 알수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처음 본 여자애였다. 그리고 요근래 우리반에 전학생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하는 정우였다.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에서 정우는 홍기와 친구 다른 아이들과 모두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아~ 그 진짜말야.. 아팠다더니 완전 다른 사람 된거 같지 않냐?"

"아까 진짜 욕기더라. 졸면서 잠꼬대하는데 완전 대박 아니냐?"

"그래도 얼굴은 예쁘지 않냐? 전에는 왜 몰랐지? "

"모를 만도 하지 옛날에는 얼굴 가리고 귀신같이 다녔잖냐"

묵묵히 밥을 먹던 정우는 이제서야 자신의 옆자리 여자에 이야기를 하는 지 알았다.

정우는 밥 먹다 말고 홍기를 쳐다보며 물어봤다.

"개 전학생이야?"

"누구?"

"잠꼬대한 애"

"아~ 너 몰라? 우리반 따였잖아.. 따였다가 한동안 결석했지.. 아팠다던데.. 왜 맨날 머리귀신같이 풀고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던애 있잖아? 기억 안나?"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아~ 커튼친애?"

정우는 생각이 났다 늘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여자애였다. 그애를 가끔 볼때 마다 정우는 속으로 '커튼은 왜 치고 다니지?"

란 생각을 했었다.

"뭔 커튼이야? 암튼 짜증나는 기집애였어. 난 오늘 보고 깜짝 놀랐잖아..아침에 살살 갈구는데 ..에이씨.. 생각하니 또 짜증나네

"

"야야~~ 저기 온다. 왜 이리로 오지?"

혼자서 급식실로 온 인형은 밥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는 사람이라곤 저쪽에 있는 정우랑 홍기 정도였다.

학교 다닐때도 혼자서 밥 먹어본적이 없었던 인형이었다.

'너흰 나의 비밀 언덕이다.'

결심을 한 인형은 식판을 들고 정우네 자리로 걸어갔다.

정우 맞은편 자리에 식판을 놓고 인형은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다들 병진 남자아이들이 인형을 쳐다만 보았다.

어이가 없는 홍기가 인형에게 물어보았다.

"누가 여기서 밥 먹으래?"

불이 미어터지게 밥을 먹던 인형이 홍기를 쳐다보곤 밥을 삼키고 말했다.

"아침부터 넌! 누가여기 앉으래? 누가 먹으래? 자꾸 누가 누가 그러는데 그 누가가 누구야? 그리고, 짹이랑 밥 좀 같이 먹자는

데 뭐 어때? "

"짹?"

이 상황을 모르는 다른반 태진이가 물었다.

"정우 짹이잖아"

진규가 방글 웃으며 대답해줬다.

"엥?"

듣고 있던 홍기가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

"짹은 얼어죽을.. 저게 틀러 붙은거지..그리고 오늘 잠깐 같이 앉아놓고는 무슨.."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게 보통사이겠냐? 같이 잠도 잤는데.."

풋~ 다들 입에 있는 음식이 튀어나오고 심지어 숟가락을 떨어트리는 애들도 있었다.

"교실에서 나란히 같이 졸았거든.. 나랑 정우랑 ~"

인형은 이런 반응이 재밌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정우도 동작이 잠시 멈춰졌었다.

문득 생각난 듯 진규가 물었다.

"근데, 너 아까 무슨 꿈을 꿨길래 잠꼬대를 그리 하나?"

이 말에 인형은 눈썹을 찌푸렸다 펴곤 정우를 쳐다봤다.

"아~ 그 꿈? 그거 정우땀에 끈거잖아"

묵묵히 밥 먹던 정우가 인형을 쳐다보았다.

"....?"

인형이 정우를 보며 싱긋이 웃으며 말했다.

"응. 너땀에. 알 좋은 꿈이긴 해도 덕분에 보고 싶은 사람 , 너 덕분에 꿈에서라도 봐서 고맙다"

"어쭙~ 아주 이게 정우에게 작업질이네"

인형의 모든게 알미워 보이는 흥기는 심술이 났다.

인형은 흥기를 보며 씩 웃었다.

"짜식이 이 누나 관심받아 볼려고 아주 양탈을 부리는 구나.. 나도 니가 맘에 든다. 그래도 니가 침으로 나한테 말걸어 준 친군

데, 니가 날 버리지 않는 한 나도 널 버리지 않으나..밥 먹자꾸나. 친구!"

"앙...탈? .. 누..나?.. 허....미. 첫,구.나."

인형이 검지손가락을 세워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파.쳤.다."

"푸하하하~~ 킁킁킁"

황당한 흥기와 알수없는 표정의 정우를 제외한 남자애들이 와~ 하고 웃었다.

인형과 정우패거리들의 식사가 끝나자 원래 매너가 좋은 수호가 인형의 식판을 들어주었다.

인형이 수호를 쳐다보며 놀란듯이 말했다.

"너! 신사였구나"

"하하 그래? 고맙다"

"고맙긴. 이런 익숙치 않는 대접에 내가 고마울 따름이야"

어느덧 정우와 흥기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던 인형이 양치를 한다고 교실로 돌아가고 모두들 구름과자를 먹으러 학교 뒷뜰로 나갔다.

(학교 뒷뜰은 1학년 전용 아지트였다.
2학년은 체육관 뒷쪽이었고, 3학년은 옥상이었다)

모두들 오늘의 인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선 생각보다 예쁜 얼굴에 놀랐다. 고등학생이라기 보단 아직도 중딩처럼 앳되어 보이는 조그만 얼굴에 새침하게 생긴 오목오목한 이목구비에 놀랐고, 더 놀란것은 새침을 떨것같은 그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털털한 말투며 엉뚱한 행동이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모두 내심 정우에게 놀라고 있었다. 인형이 점심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우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우는 본인이 인정하는 관계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게 신경을 쓰는 편도 아니고 누군가가 자신의 생활에 꺼드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인 것은 모두가 알고있었다. 그런 성격이 차가운것만 제외하곤 자신의 힘을 내세워 약한 애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잘난척 하지도 않았다.

중학교때부터 근교에서 알아주는 싸움꾼인 정우는 차가워 보였지만 깨끗하고, 무심해 보이는 것조차 매력있게 느낀 여자애들에게도 인기가 꽤 있었다.

막상 정우는 어느누구하고도 여지껏 사귀거나 곁에 두는 여자애는 아무도 없었다.

정우에게 접근하는 여자애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애도 없었고, 맘에 없는 여자애들이 곁에서 알짱거리는 것을 용납 할 정우 성격도 아니었다.

이런 정우가 인형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친구녀석들은 정우가 어떤 마음인지 궁금했지만 정작 정우는 인형이 자신의 영역에 한발짝 들어와 휘젓고 있는데도 거부감이 들지 않고 있는 자신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나를 길들여줘...

가령 오후 4시네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거야

...

그러나 만일,

네가 무턱대고 아무때나 찾아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니까..."

(어린왕자 중)

5교시의 수학시간은 수면제였다.

잘까 말까 고민하던 정우의 눈앞에 작고 하얀손이 불쑥 들어왔다.

이내 사라진 손 자리엔 파란색 포스트 잇이 붙어 있었다.

* 수면제가 따로 없구나... 너도 졸리지? 근데...니네 집에 아기키우니?*

정우는 깜짝 놀랐다.

손이 다시 들어왔다 사라졌다.

* 너한테 아기 토 냄새나~~~*

정우는 학교등교 전에 하늘이가 잠투정하길래 안아서 토닥여줄때 교복에 살짝 토했는데 늦어서 그냥 대충 닦고 왔던 것이 냄새가

났나보다란 생각을 했다.

또 손이 들어왔다 사라졌다.

* 아침에 너한테 나는 냄새때문에 꿈꿨잖아. 첨엔 무슨 냄새지 몰랐는데 꿈을 꾸고 나서 알았어...늘 보고 싶었는데 한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더라구.. 근데 오늘 꿔어.. 덕분에 내 분신과도 같은 애를 봐서 너무 기뻐다 ^^ *

'분신 같은 애?'

정우는 보고 싶은 데 보지 못한 분신 같은 애가 누굴까? 생각하다가 혹시 동생이 어릴적 죽었나 란 생각이 들었다.

정우는 인형을 쳐다봤다.

인형은 그새 졸리는지 연신 하품을 하고 눈꼬리에는 눈물이 달려있었다.

정우는 그모습이 꽤나 귀여워 보였다.

인형이 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집중을 하려고 해도 너무 졸립고 분명히 오래전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외계어같이 들리는 것이 인형은 무지 괴로웠다

.

그런 인형의 눈앞에 크고 날렵한 손이 들어왔다 사라졌다.

* 우리집에 애기있는거 다른 애들에겐 말 하지마 *

정우를 쳐다보았다. 정우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인형의 입가에 사악한 웃음이 걸렸다.

'오호~~ 비밀인가? 애기있는게? '

오케이~ 접수..지퍼 채우겠음.. 대신.. 너도 내 부탁 하나 들어주라~

정우와 인형이 얼굴을 마주보았다.

정우의 눈에 무슨 부탁이냐란 물음표가 보이는 듯했다.

인형은 부라부라 쪽지를 적었다.

* 당장은 아니고.. 원래 비밀이라는 게 서로 오가는게 있어야 더 잘 지켜지는 법이거든.. *

정우는 쪽지를 한참 들여다 보며 생각하는 듯하더니, 답장을 했다.

* o k *

보통때의 정우라면 약점을 가지고 하는 이런 딜 자체부터 경멸했을 텐데 웬지 인형에게는 약점잡고 무엇이든 얻어낼려는 그런 악

의은 없어보였고, 웬지 무슨 부탁인지 몰라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인형은 웬지 든든한 보험하나 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고로 사람이란 인간관계를 잘해서 손해보는 게 없다란 생각이 들었다.

웬지 뿌듯한 인형은 잠이 잘 올거 같았다.

다사호마라 했던가.. 인형과 정우의 이런 모습을 매의 눈으로 노려보는 사람도 있었다.

지희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상황이면 정말 대박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교실로 들어서는 인형을 봤을때 이쁜데 누구지?란 생각이 들었다. 참엔 인형인지 못알아본 애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이었다.

늘 풀어헤친 머리를 단정히 하나로 묶어 잘 볼수 없었던 얼굴을 오늘에서야 자세히 봤기 때문이었다.

늘 쭈뼛거리던 애가 판사람 처럼 아주 당당하게 행동을 하더니만, 정우패거리 중에서 성질 더러운 흥기를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겨먹더니, 딱하니 정우옆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뿐 아니었다. 급식실에선 또 어땀했던가? 지희가 보기엔 완전 여왕벌이 따로 없었다. 급식실 사건 이후 일파만파 모두들 인형이 이야기만 떠들고 있었다.

점심시간 이후 계속 인형에게 눈길이 가서 힐끔 훑쳐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졌다.

세상에나 살벌 얼음왕자 이정우가 왕따 최인형이랑 쪽지질을 하다니....그것도 둘의 오고가는 눈빛도 오묘한 것이....

아무래도 둘이 사귀는게 틀림이 없다란 생각이 든 지희는 이 사실을 빛나리에게 알려야 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종례까지 마친 인형은 대답없는 정우, 웬지 호의적으로 나오는 진규, 수호와 인사를 나누고, 뭐가 불만인지 이런 인형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흥기에게도 인사를 했다.

"넌 보자~친구"

"웃기시네. 누가 너 보고싶대?"

"그 누가가 누구인지. 진정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련? 흥기야?"

"줄~"

"반사~"

군사령 거리며 나가는 흥기가 너무 귀여운 인형이었다.

인형의 눈에는 흥기의 행동이 자신이 무척이나 아끼는 물건을 빼앗긴 아이같았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인형은 고과장과 만나기로 한 장소(학교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겨우겨우 설득하여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정했다)로 총총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인형에게 정애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며칠간 회사에 일이 생겨 당분간 못만날거 같다는 것이었다.

인형은 무척이나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필요 이상 이상하게 굴어서 정애마저 인형을 의심하여 등을 돌리면 큰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모두 늦는지 혼자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운 인형은 점점 이집이 익숙해져 가는 것이 신기해졌다.

강현은 여전히 무뎠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인형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짐을 인형은 느꼈다.

우현은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인형이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

어제 저녁에는 한동안 너무 인형에게만 신경을 써서 못 레이디들의 원성이 자자해졌다면서, 당분간 그 레이디의 다친 마음을 어루어만져야 돼서 인형과 놀 시간이 없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한편의 연극같던 우현의 행동이 떠오르자 인형은 동치미 한사발을 들이키고 싶었다.

인형이 척 보기에다 우현은 바람둥이 스타일이었다.

리현은 여전히 까탈스런 고양이 처럼 콧속 뚫었지만 그래도 이젠 인형의 수시로 드나드는 느닷없는 방문에 많이 덤덤해졌었다.

리현이 가끔 기타를 칠때 방문(인형이 일부로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지만)을 할때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화를 벌컥벌컥 냈지만,

꼬떡도 하지 않는 인형에게 반쯤 포기 한것도 있었고, 인형의 감탄어린 눈빛에 내심 우쭐해져서는 본인도 모르게 연주를 더 하는 적도 있었다.

인형은 침대에서 일어나 배란다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인형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쳐다본게 언제인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늘 위에서 한결같이 지키고 있었는데...아니 볼 생각조차 못한 것이 맞는 표현인거 같았다.

문득 인형은 달과 해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보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믿지 않아도 저들은 알고 있

을 것이었다. 지금은 비록 하나씩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은영의 존재를...인형의 존재를...

인형은 하늘로 새끼 손가락을 뻗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준다고 약속해"

인형은 달이 대답이라도 하듯 더욱 빛나는 달을 보자 눈물이 났다.

,
.
.

리현은 동아리 밴드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왔다.

정원을 가로질러 집으로 오다가 배란다에 서 있는 인형을 보았다.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던 인형이 몸을 쪽 빼며 달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으며 뭐라 하는 것 같았다.

왠지 인형의 온 몸이 우는 것 같았다.

리현의 가슴이 옥신거렸다.. 한참을 리현은 움직일 수 없었다.

.
.
.

다음날부터 인형은 정우의 옆자리에 앉았다.

짜깁으로서의 정우는 재미없었지만, 정우패거리들은 재미있었다

홍기와 인형은 여전히 시답잖은 (인형의 입장에)말싸움을 하였다.

빛나리가 정우를 좋아하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정우랑 가까워지기 위해 빛나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빛나리로서는 자존심을 버려가며 처음 정우에게 고백했을때 정우는 단칼에 거절했었다.

먼저 고백은 하였으나 은근히 자신감 있었던 빛나리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였었다.

빛나리를 쳐다보는 정우의 눈빛은 정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빛나리는 이런 무심한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정우의 무관심한 행동은 빛나리로 하여금 다른 남자애들과 달라보이게 했다

가까이에서 본 정우는 빛나리의 상상 이상이었다.

또래보다 키도 크고, 길쭉한 팔,다리로 스타일이 좋았고, 얼굴은 특별히 잘생겼다가 보단 유난히 깨끗한 피부와 서늘해 보이는

눈과 날카로운 콧날, 남자다운 입술은 누구든 한번더 더 쳐다보게 하는 시선을 끄는 외모를 가졌었다.

그렇다고 정우가 다른 여자애들과 사귀는 것도 아니었고, 그 뒤로도 지켜본 결과 다른 여자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없어보였다.

그래서 빛나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빛나리는 며칠전부터 정우옆에서 맴도는 인형이라는 여자애가 무지 신경에 거슬렸다. 처음엔 어느때나 다름없이 정우의 무관심과

냉대에 저절로 떨어져 나갔겠거니 하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정우의 옆에 찰싹 붙어 있는것이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빛나리는 일학년 일진 짱이었다. 자신이 짬해놓은 남자를 따 주제가 가로 채는 꼴은 볼 수 없었다.

더이상 정우곁에 알짱거리지 못하게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했다. 빛나리는 핸드폰을 꺼내 애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종례가 끝난 인형은 마음이 급했다.

어제 저녁 정애와 오늘 만나기로 다시 약속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오후 수업 내내 괜시리 마음이 불안했었다.

정우와 친구들에게 부랴부랴 인사를 하는중 마는 중 인형은 가방을 챙겨들고 부랴부랴 교실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여학생

두명이 인형의 앞을 가로막았다.

"니가 최인형이지?"

처음보는 애들이었는데.. 어찌 짝 꼬이게 줄여입은 교복과 파머와 염색까지 한 좀 불량스런워 보이는 애들이었다.

"응 내가 최인형인데, 무슨 일이야?

"잠깐 우리랑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여기선 그렇고 따라와"

인형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지금은 정애를 만나러 가는게 더 중요했다.

"무슨 이야기 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하면 안될까? 오늘 내가 약속이 있어서 지금 가봐야 되거든.."

"해! 이거 진짜 욕기는 년일세? 누군 약속도 없구 한가해서 너 붙잡고 있는 줄 알어?"

"그러게.. 니년이 여기저기 나대는 바람에 우리도 너 땀에 귀한 시간 내고 있거등.. 그냥 서로 힘빼지 말고 빨랑 가자"

인형은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째 이걸 딱 불량 청소년들에게 잡혀가는 스토리인데? 이러고 붙잡혀 가서 뺑이라도 뜯으려는 건가? 암튼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는데... 쟀장, 어떻게하지?'

인형은 어떻게할지 망설였다.

맘을 굳힌 인형은 몸을 돌려 도망가면서 외쳤다.

"미안하다~도망간다. 우리 널 이야기 하자.오늘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거등"

설마 도망가리라곤 생각 못한 두 여자애들은 당황했다.

"저 .. 저.. 저년이 죽을라고, 어딜 토껴?"

"너 잡히면 죽는다."

학교밖으로까지 한참을 죽자살자 도망간 인형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고는 한숨을 돌렸다.

"헉,, 헉...지독한 것들...여기도 뺨을 뜯는 것들이 있구나..헉..헉.. 아이고 ..있어보이게 생긴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암

튼 피곤하게 생겼네.. 저것들 약이 바짝 올랐을 텐데.에휴~ 모르겠다. 지금 저것들 신경쓸때가 아니지."

인형은 대기하고 있는 고과장의 차를 타고 정애와의 약속장소로 행했다.

약속장소는 커피숍이었다. 아직 이른 시간인지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약속시간 보다 일찍 도착한 인형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교복차림의 인형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인형은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았다.

조금 후 문이 열리고 그렇게나 보고 싶던 정애의 모습이 나타났다.

변함없는 정애의 모습에 인형은 눈물이 날 것만 같은 반가움을 느꼈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정애에게 인형은 손을 들어보였다.

"여기요~"

정애는 깜짝 놀랐다. 설마하니 교복 입은 학생인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가까이온 정애가 인형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혹시.. 최인형씨?"

"네.. 제가 최인형이에요."

"설마 어린 학생인지는 몰랐네...요리동호회에 같이 있다고 해서 ... 어쩐지 목소리가 어려보였어도.. 학생인지는 몰랐네"

"제가 요리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너무 너무 반가워요"

정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을 반가워하는 인형이 당혹스럽기는 했으나, 진심어린 눈빛에 그리고 자신의 오랜 친구인 은영이와 친분이 있었다는 인형이 왠지 가깝게 느껴졌다.

레몬에이드 두잔을 시킨후 두사람은 말이 없었다.

인형이 두손을 그려주고 정애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영...언니. 무슨일 있나요?"

"...사실 인형학생이 전화왔을때 놀랐어.. 그냥 전화로 이야기 할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아직도 은영이를 생각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보고 싶기도하고 .. 인형학생이 정말 고맙기도 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정애는 인형의 나이답지 않게 깊은 눈빛을 바라보며 떨리는 입을 열었다.

"은영이는 두달전에 교통사고로.. 그 사고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인형은 머리가 멍해졌고, 아무런 생각도 실감도 나지 않았다.

한참 후 정애가 인형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인형은 그제서야 자신이 울고 있음을 알았다. 자신의 죽음을 듣는 것은 상상이상의 충격이었다.

인형은 아직도 물어볼 것들이 많았다.. 눈물을 닦고 인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동하나요?"

"동하?"

"네.. 동하는 어딴가요? 은영..언니가 동하랑 연락이 안된다고 무척 걱정했었는데...동하도 아나요?"

"정말, 은영이랑 친하게 지냈나보구나.. 은영이가 그런 이야기 까지 할 정도면... "

"네. 동하걱정 많이 했어요.. 동하아빠도 은영언니 사고 알고 있나요?"

한숨을 내쉬던 정애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휴~ 은영이 사고 나던 날 동하만난다고 나간 모양이었어.. 동하를 이것들이 숨겨놓아서 은영이 그것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

이야.. 동하아빠한테도 연락했지.. 그 개자식이 그나마 양심은 있는지 동하 데리고 왔더라구.. 은영에게는 세상천지 동하밖에 없

었는데, 지 엄마 가는거 당연히 봐야지...나쁜 새끼. 동하만 없었으면 아주 죽여버렸을꺼야..에이. 바보같은 년,..."

"동하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응? 그건 왜?"

"동하 ... 동하엄마가 동하에게 주려던 선물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선물? "

"네.. 선물이요 제가 꼭 동하 만나야 되거든요"

너무 간곡하고 애절하게 말하는 인형의 모습에 정애는 또 가슴이 뭉클해지고 은영이가 누구든 제 자식 사랑 안하는 엄마가 있겠

느냐 마는 은영에게 동하는 어떤 의미인지 아는 정애는 더욱 가슴이 아파왔다.

"동하는 지금 한국에 없어"

"네? 왜요? 동하에게 무슨일 있나요?"

너무 놀라하는 인형의 모습에 정애는 자신도 모르게 다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아냐 동하에게 일이 있는게 아니구, 그것들. 나참 버릇이 되어서 동하 아빠랑. 그여자랑 미국으로 이민갔어. 벌써 계획세워

놓은 거였나보더라구, 은영이 일까지 터지니 아주 급하게 한국땅 떴어..은영이에게는 양육권만 포기하면 애 보여줄 듯이 그래놓

구선 아주 나쁜 것들이야.정말, 그것들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나는게 아주 환병걸릴 지경이다.."

""

인형은 절망스러웠다. 다른 건 그렇더라도 동하를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차 있었는데 한국에 없다니... 인형은 모든것이

믿기지도 믿고 싶지도 않았다.

어쩌면 자신이 죽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 안해본 건 아니었다. 그러나 동하를 만날 수 있다

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없다니.. 인형은 절망스러웠다.

뉘이 빠진듯이 멍청히 앉아있는 인형을 바라보던 정애는 왠지 가슴이 답답해 졌다.

"괜찮니? 그래도 은영이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난 정말 기쁘다.. 너무 고맙고.."

"동하.. 동하 미국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응. LA로 간다더라..뭐 거기서 아는 선배라나 애틀 거기서 동업해서 사업한다더라"

"LA요.... 그렇군요..LA로 갔군요.. 거기가면 동하 만날 수 있구나.."

그런 인형을 정애가 안쓰럽게 쳐다보았다.

"무슨 선물인지 모르지만... 니가 그렇게 책임감 가질 필요는 없어.... 어쨌든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뭐 술한잔이라도 할 생각에 만났는데, 학생이니.. 술 마실 수도 없고, 이것도 인연인데.. 다음에 언니한테 연락해. 내가 맛있는거 사줄게. 최인형이라고 했지.. 처음 봤는데도 넌 남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인형이라고 부를께..그래도 되지?"

"네"

"그래 인형아. 지금 너 얼굴이 너무 하얘져서 내가 너무 걱정되서 그래.. 오늘은 너도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음에 꼭 나한테 연락해.. 내가 너 맛있는거 사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그때 은영이 이야기도 하고.. 우리같이..."

인형이는 정애의 말이 반쯤 들어왔다 나갔다 하였다.

정신이 반쯤 나가있는 인형을 부축해서 일어서자 어느샌가 커피숍 안에 들어와 있는 고과장이 얼른 다가와 인형을 부축했다.

고과장과 정애가 몇마디 나누고 인형도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인형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고과장은 낮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인형을 걱정스레 쳐다보았다.

방으로 들어온 인형은 침대에 누워서 정애의 말을 다시 생각했다.

은영이 죽었다란 말이 자꾸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목도 메이고, 머리도 어질어질 해졌다.

갑자기 욕지기가 밀려온 인형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를 부여잡고 토하기 시작했다.

온몸이 뒤틀리고 아팠다. 인형은 정신을 잃었다.

인형이 정신을 차린것은 꼬박 하루가 지난 후였다.

정신이 든 인형은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의 방이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쯤이었다. 화장실에 가고싶은 인형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다 옆 탁자의 물건들을 죄다 떨어트렸다.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리현이 들어왔다.

비틀거리는 인형을 얼른 부축하고 리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누워있어. 열이 너무나서 어지러울꺼야.."

"열이나서 어지러운거구나... 근데 나 오줌마려"

".....나.. 참.. 무슨 기집애가.. 부축해줄테니 가자"

리현이 세심하게 부축하고 링거병도 화장실까지 옮겨주곤 말했다.

"다 하고 나 불러. 밖에 있을께"

쓰러진 인형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리현이었다.

늦은 저녁을 먹던 리현에게 양평택이 인형이 안색이 좋지않게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도 마다하고 방에만 누워있는게 걱정이라는

말을 듣고 2층으로 올라와 인형의 방문앞에서 서성이다가 노크를 했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던 리현이 방으로 들어가보니 방에는 인형이 없고, 욕실에 쓰러져 있는 인형을 보고 어찌나 놀랐던가. 리

현이 쓰러진 인형을 안아들었을때 인형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곧 주치의가 와서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혹시라도 늦게 아니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의사의 말에 리현은 가슴

을 쓸어내렸다.

인형이 깨어나길 초초하게 기다리던 리현은 왜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까지 인형에게 신경이 쓰이는지 본인도 이해를 할 수가 없

었다.

인형이 여동생이었지만, 리현은 한번도 여동생으로 인형이 예쁘지도 신경쓰이지도 않았다.

그러던 인형이 자살시도 후 달라졌었다. 딴사람처럼 변한 그때부터였던가. 처음에는 황당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시선이 갔었다.

그리고 리현의 방에 들락거리며 귀찮게 달라붙을 때도 속으로는 싫지는 않았다. 기타치는 모습이 멋있으며 호들갑을 떨때도 처음

엔 장난인가 하다가 진심어린 두눈을 보았을 땐 가끔은 꽤 귀엽기도하고, 방문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얼마전 정원에서 인형을 처

다보았을 때는 왠지 인형이 아파하는 듯한 모습에 리현의 마음도 같이 아파지지 않았던가.

리현은 이런 자신이 이제서야 인형이 동생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인가 란 생각을 하고, 그럴 것이라고 자신을 이해시켰다.

욕실안에서 인형은 거울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손을 들어 흔들어도 보고 뺨에 손을 대보기도 했다. 거울속의 소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 한사람은 몸을, 한사람은 영혼을 잃고, 나누어 가진 셈이었다.

인형은 뺨에 대고 있는 자신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따뜻한데... 이렇게 예쁜데....'

인형은 눈물이 나왔다. 누구 때문에 우는지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눈물인지 알수 없었지만,...

한참을 울고나니 속이 시원했었다. 이 소녀의 몸에 들어와 다시 생을 이어가는 것은 아직 이 세상에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인형이 욕실을 나가자 잊고 있었던 리현이 아직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얼른 부축을 해서 침대에 눕어주었다.

리현의 세심한 손길에 새삼 인형은 누군가가 자신을 보살펴주는게 얼마만인가 란 생각을 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았다. 왠지 마음이 쥘해졌다.

인형은 리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잘생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보였다.

늘 까칠한 고양이 같던 귀여운 남동생 같이 느껴지던 리현이 오늘은 자상한 오빠같았다. 형제가 없던 은영으로써는 이런게 가족

인가 란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인형은 이불을 덮어주던 리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오빠.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정말 이제부터 오빠가 더 좋아질것 같네."

느닷없이 손이 잡힌채 생각지도 못한 고백(?)에 리현의 귓볼이 빨개졌다.

"헛소리 하지말고, 얼른 낫기나 해. 사람 신경쓰이게 하지말고"

쑥스러운 리현은 통명스레 말하고 허둥지둥 방 밖으로 나갔다.

며칠이 지나자 인형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다시 생생해졌다.

누워있는 동안 생각을 정리한 인형이었다.

어찌되었든 이 몸에 들어온 이상 최인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 생각이었다.

그것이 이 몸 주인에 대한 예의일것 같았다.

그리고, 동하는 꼭 만나야 했었다. 전해줄 말이 있었다.

동하를 만나는 방법은 차차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럼 인형의 학교일이 남았는데, 학생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할텐데 인형은 그날도 자신에게 뺨을 뜰려

는 여학생들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자신의 이미지를 변신시켜야 겠다는 다짐을 했다.

요즘은 집안에서는 살만했다.

아플때도 몇번이고 들여다 보던 강현은 여전히 무뚝뚝한 카리스마는 여전했지만 확실히 호의적으로 변했고, 우현은 여전히 다정

다감했었고, 제일 달라진 관계는 리현과의 관계였었다.

다른 식구들이 놀랄정도로 인형에게 대했다.

일요일 저녁 다같이 저녁식사 자리에 리현이 인형이 좋아하는 반찬을 인형이 앞에 옮겨 놓아주었을 때는 무표정 무대응 무관심이

던 박여사마저 놀랄 정도였었다.

최회장은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실감이 났다.

집안에서 걸돌던 언제 터질지 몰랐던 폭탄 같던 인형의 존재가 요즘은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가는 것이 몹시도 흐뭇했었다

.
. .
. .

며칠만에 등교한 인형은 정우옆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았다.

인형이 결석하는 동안에도 홍기는 여전히 다른 자리에 앉았다.

수호가 웃으며 왜 이제 정우 옆에 앉지 않냐고 묻자. 흥기는 심통난 듯이 말했다.

"됐다그래.내가 그런 눈치도 없는 놈으로 보이냐? "

결국 인형이 결석하는 내내 정우의 옆자리는 비어있었다.

인형은 여자애들을 훑어보았다. 대부분 눈이 마주친 여자애들은 째려보거나 외면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다.
인형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쉽지 않네..'

잠시후 등교한 정우는 자리에 앉아있는 인형을 보자 왠지 안심이 되었다.

담탱이 인형이가 아파서 며칠 결석할 것이란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형의 얼굴이 밝지 않아 보였다.

"안녕? "

정우가 자리에 앉자 인형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응.... 아팠다던데?"

"아~ 열감기걸렸거든. 지금은 괜찮아."

인형은 정우의 얼굴을 쳐다봤다. 말걸어 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왜 쳐다보나는 듯한 정우의 얼굴에 인형은 씩 웃으며 대답해줬다.

"니가 나한테 뭐 물어본 건 처음이라. 그래도 짝궁밖에 없구나. 내 걱정해주는건"

정우의 얼굴은 늘 표정이 없긴 했지만 인형은 왠지 정우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았다. 정우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잡혀있었다.

"정우야. 너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인형이 손가락으로 정우의 눈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다크서클이 장난아닌데? 피부가 깨끗해서 그런지 팬더같어"

"팬더?"

정우는 인상을 쓰며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사실 피곤하긴 했었다. 그런데 팬더처럼 보일 정도로 다크서클이 생겼다면 말엔 약간 충격이었다. 진짜 팬더같더라도 자신에게

감히 누가 팬더라고 말 할 수 있단 말인가...확실히 남다른 인형이었다.

충격적인 말을 던진 인형은 더 이상 관심없다는 듯이 책을 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수업시간 내내 자고있는 정우가 인형은 궁금해 졌다.

밤에 뭘 하길래 학교에만 오면 정신을 못차리고 저러고 잘까란 생각에 몇개의 가설을 세워보았다.

'첫째. 밤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지만 생간걸로 봐서는 불우하게 생기지 않았는데...그건 알수 없는 것이고,

둘째. 밤마다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예를 들어 유혹업소를 돌아다닌다.

하긴. 생간걸로 봐서 사복입고 다니면 누가 애를 고당으로 볼텐가..

큼큼 냄새 맡아본 결과, 술냄새가 나거나 하진 않는다.. 하지만 술 먹지 않고 놀수도 있지 않는가? 이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셋째. 밤마다 야동을 본다.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때 아닌가 .. 근데 정말 매치가 되지 않긴 한다..

상상이 가지 않는구나.. 저 얼굴에 야동을 보고..즐기고 있는 모습이..오아악..나의 이 풍부한 상상력에게 태클을...'

인형은 본인에게 물어봐야 대답을 해줄 것 같지 않아서 정우 친구들 중에 제일 성격좋아보이는 수호에게 물어보기로 결심을 했다

.

점심을 먹고 난 후 인형은 수호에게만 슬쩍 음악실에서 잠깐 보자란 말을 하였다.

눈치가 빠른 수호는 알았다며 먼저 가 있으라고 했다.

음악실로 느긋히 가고 있는 인형의 앞에 잠깐 잊고 있던 불량여학생 두명이 다시 등장했다.

"이게 누구야? 최인형,, 너 그날 정말 잘 토끼더라"

"그리고 튀고나니 겁은 났나보더라. 며칠 결석도 하시고. 근데 어쩌냐. 겁나면 전학을 가야지...이러고 딱 하니 멀쩡히 나타나

나대면 섭하지"

인형은 어차피 한번쯤은 다시 만나리라 생각했기에 놀라진 않았다.

"난 니들 그날 침 봤는데 도데체 나한테 볼일이 뭐야?"

진심으로 궁금한 진지하게 인형이 물었다.

"어쭙 이게 세게 나오네 믿는 구석이라도 생겼나봐?"

"내가 니 같은 년 잘 알거든. 겉으로는 약한척 하고 뒤로 호박씨 까는 것들 딱 재수없어"

인형은 심드렁 하게 물었다.

"그래서 본론이 뭐야? "

인형이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외의 반응에 두 여자애들은 황당하기도 하고 약이 올랐다.

"이게 아주 죽을려고 삽질을 하는구나?"

"어차피 넌 끝났어. 오늘도 도망가면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아."

"수업 끝나고, 체육관 뒤쪽으로 와"

"혼자서 암전히 오는게 좋을거야. 혹시라도 선생들에게 끈질려도 넌 죽고, 정우랑 다른 애들에게 끈질려도 넌 죽어"

"알았어. 끝나고 갈께. 누구에게든 끈지르는 건 안해. 볼일 다봤으면 가봐"

"하~ 완존 미친논아냐? 언제까지 그러나 두고보자"

어이없어하며 욕을 하면서 두 여자애들이 가버리고 난 뒤 수호가 나타났다.

"혹시 다른 애들이랑 있었어?"

고개를 가웃 거리며 수호가 물었다.

"아니. 왜?"

시침을 때며 인형이 되물었다.

"아니.. 여기로 오다가 누굴 봐서... 아님 다행이고... 근데 이런데 까지 불러내며 나한테 할 말이 뭐야?"

"응.. 다른건 아니고 정우말야"

"정우? 정우가 왜?"

"정우 밤에 혹시 무슨 일 해?"

"밤에 일?"

"응. 학교만 오면 퍼질러 자는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내가 볼때 마다 자거등 뭐.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대답해줄 놈 같지도 않고

...그래도 짝궁인데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너랑은 친하니깐 알고 있을것 같기도 해서"

수호는 인형을 살펴보았다.

인형은 정말 궁금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처음에는 정우이야기를 꺼내길래 인형이 정우를 좋아해서 정우에 대해서 뭔가 알아낼

려고 자신을 부른줄 알고 약간 떨떠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형은 정우를 좋아해서 물어보는 것 치고는 너무 담담하고 솔직하게 대놓고 물어보니 약간 헛갈리기도 했다.

수호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인형은 곤란한 것을 묻은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뭐 곤란한 거라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 너 곤란하게 하고 싶진 않아. 오늘 아침에 보니 다크서클도 생겼더라구.. 난 또 정우

네 집 형편이 앓잖아서 야간 알바라도 하나 해서 물어본 거야.. 정우 보기에든 자존심 강하게 생겼잖니. 내가 물어보면 자존심이

라도 상할까봐.. 하하~ 내가 이말 한거 정우에게 비밀이다. "

"야간에 일하는 건 아니야"

"응? 아~ 그래? "

"응 근데, 말은 못해줘. 정우 그놈은 자기 일 누구에게 떠벌리고 알리는거 딱 질색하는 놈이라.. 집안일 이라고만 알고 있어. 이

것은 나도 너에게 말한 거 비밀이다~"

"아~ 하하 오케이~ 지가 무슨 신비주의라고. 사실은 밤에 유흥업소를 순회하거나, 아니면 밤마다 야동이라도 보는 건 아닐까 란

생각도 했거등 "

"뭐~ 푸하하하~ 야동? 푸하하 대박이다. 너 진짜 웃긴다."

"하하하~내가 생각해도 좀 욕기긴 해. 그나저나 그 집안일. 큰일은 아니었음 좋겠다. 한참 공부하고 클 나이인데..좀 그러네"

"하하하 아주 나이든 사람 같이 말한다. 너도 한참 클 나이거든.. 하하 넌 가만히 보면 진짜 재밌는 애다"

"니가 모르나 본데 원래 같은 나이라도 여자들이 일찍 성숙하는 법이란단.. 쫓쫓 이 누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겠니? 쩌"

"우하하 ~ 누나? 아 정말 눈물난다. 넌 거울도 안보고 사냐? 혹시 사복입고 버스타면 초딩 요금 안받디? "

"내가 짝꿍 발육상태가 앓잖아서 그렇치 그 정도는 아니다. 요즘 대세가 동안이라서 내가 거기에 충실한 거 뿐이거든. "

초딩이란 말에 방방뜨는 인형의 모습을 수호는 새삼스레 보았다.

하긴 정우 정도라면 웬만한 여자애들이 관심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여자애들이 정우에 대해서 알아내고 관심받기

위해서 자신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앞에 있는 인형에게는 그런 관심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한 것 같

지 않고 진심으로 정우가 수업시간에 왜 자는지가 궁금하고 걱정스러워 보이는 인형이 수호는 기분이 좋았다.

'정우자식 그렇게 관심없어 하더니 여자 하나 제대로 골랐네'

인형과 수호는 시시콜콜 수다를 떨면서 교실로 들어왔다.

수업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인형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내심 궁금해 하던 정우는 수호와 다정히(정우눈에는 그렇게 보였다)웃

으며 들어오는 인형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났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수호 옆에 앉아 유난히 수호와 수다를 떨던 것도 눈에 거슬렀던 정우였다.

오후 수업시간 내내 인형은 옆 얼굴이 따끔거릴 지경이었다.

'아니.. 저놈은 차라리 잠이나 쳐잘것이지. 왜 자꾸 꼬나보는거야? 신경쓰이게시리..어린놈이 눈길 한번 사납네..아주 건들였다

간 여럿잡을 기세일세.. 아.. 불편해라'

수업이 모두 끝나고 정우에게 뿔어져 나오는 기세가 어찌나 살벌하던지. 그야말로 교실은 오후수업은 열광 분위기에서 끝이 났다

.

인형은 정우가 괜히 짱이 아니구나 싶었다. 어찌 말 한마디 없이 교실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 정우에게 뒤통수를 한대 갈기고

싶을 지경이었다.

종료를 마치고.인형은 미리 준비해 온 것(?)을 가방에 확인하여 다시 챙겨 들고 여전히 화가 난 듯한 정우에게 미리 준비해둔 인

사를 하고 일어섰다.

"내일 보자 정우야~ 넌은 기분이 좋아지길 바래.. 아주 얼굴이 뚱리는 줄 알았구나. 불만이 있으면 우리 대화로 풀자꾸나. 오늘

너랑 대화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먼저 가볼께 안녕~"

제 할말만 마친 인형이 날듯이 교실밖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책읽는 듯한 우스꽝스러운 인사를 하고 나가버리는 인형을 황당히 바라만 보는 정우였다.

사실 인형은 어린놈에게 쫓다는 게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할말은 해야했었다. 내일도 저런 상태라면 인형은 다른 자리를 찾아 봐야겠다란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다.

.
. .
.

'하나, 둘 셋 넷...일곱 ...완전히 날잡았구나. 저것들이. 오늘 무사히 살아나갈수 있을까나 모르겠네'

나꼼 노는 애거든.. 이란 포스들을 마구마구 뿜어내는 여자애들이 7명 서있었다.

인형은 누가 저 조무래기중 짱일까 가늠해 보았다.

'역쉬 짱은 중앙자리지..와우~ 저게 무슨 여고생이야? 성인 배우가 교복 코스프레 한거같구만, 요즘 애들은 정말 발육이 좋다더니...부럽다'

중앙에 자리잡은 여학생은 정말 예뻐다. 같은 일학년이라는데 가슴도 어찌나 뽕뽕하던지. 전체적으로 눈에 확 띄 정도로 이쁜 얼굴에 키도 크고 몸매는 예술이었다.

본인도 그걸 아는지 거만한 표정에 인형을 깔보듯 노려보고 있었다.

"저게 요즘에 여기 저기 꼬리치며 나대는 년이야?"

"저년 저번에 토끼는거 잡느라고 고생한거 생각하면 .. 우씨 짜증나"

"점심때도 아주 간이 배밖에 나왔더라구. 완존 겁대加里 상실한 논이라니깐?"

"근데 진짜 정우 깔이면 어떻게?"

"며칠 지켜봤는데 정우랑 교실에서 짝만 할 뿐이지 별 다른 건 없다더라"

인형은 여기저기 육하면서 오가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니 정우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시끄러. 조용히 해"

그때까지 아무말 없던 중앙에 있던 여자애가 말했다.

그러자 다들 입을 다물었다. 인형의 앞으로 다가왔다.

"니가 요즘 정우옆에서 알짱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만 해줬으면 하거든. 그 약속만 해주면 그냥 보내 줄게"

"빛나리아~ 저런년은 반쯤 죽여놔야 정신차려. 그냥 보내주면 지가 겁나서 그러는 줄 안단 말야"

"그래, 지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것들은 매가 약이야"

뒤에서 시골 시골 거리자 빛나리는 조용하라는 듯이 한쪽 손을 척하니 들었다.
또 조용히 입들을 다물었다.

'히야~ 카리스마 있는 엘세.. 정애랑 막상 막하인걸?'

인형은 저애들이 왜 저러는 지 대충 감이 왔다. 저 빛나는 외모를 가진 빛나리란 애가 정우를 좋아하는 모양인데 인형이가 요즘

정우랑 친하게 지내는게 맘에 안든 모양이었다.

인형의 속마음은 솔직히 저애 외모에 정우에게 목을 메는게 신기할 정도였다.

'정우녀석이 잘생기긴 했지만..저애도 어딜가도 꿀릴 외모는 아닌데..왜 저러고 목을 메지? 하지만 짝사랑 만큼 힘든 것도 없

지... 찼.'

누구보다 짝사랑에 데인 인형으로선 빛나리란 애가 안되보이기도 했다.

인형이 입을 열었다.

"결론은 정우에게 떨어졌란 말 같은데, 정우랑은 그냥 짝궁이고, 니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정우가 지금 우리반에 유일한 내 친

구라 알짱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라.. 그건 못 들어주겠다. "

"정우친구로 내가 너 인정 못해.. 떨어져. 안그러면 넌 죽어"

빛나리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정우랑 친구하면서 왜 너한테 인정받아야 하지? 니가 정우 좋아하는 맘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빛나리 너한

테 제일 좋지 않는 방법이야"

타이르는 듯한 인형의 말투에 빛나리는 자존심이 확 상하고 기분이 나빠졌다.

저 인형이란 아이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았다. 모르면 알게 해줘야지. 빛나리는 애들에게

눈짓을 했다.

인형은 느릿한 행동으로 등에 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가방을 열어 뭔가를 찾았다.

인형에게 다가오던 애들은 순간적으로 재가 뭐하지?란 생각에 인형이 하는 것을 일단 지켜보았다.

인형이 가방에서 짧은 지휘봉을 하나 꺼내들었다.

"일대 일 대결이면 나도 맨주먹으로 겨누고 싶지만, 칠대 일이니 핸디캡은 줘야겠지?"

인형이 손에 든 지휘봉을 짧게 휘둘렀다.

'팟'하고 지휘봉이 길어졌다. 이걸 구할려고 며칠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얼마나 뒤졌던가. 예전 은영이 학교다닐때부터 늘 지니던 호신용 막대기였다.

일곱명의 여자아이들은 어이없고 놀랍기도 하였다.

인형이 저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미친년 아주 꼴깍을 떠는 구나, 작대기 하나 들고 뭘 어째게"

"갈갈갈 ~ 그거 놓치지 말고 짹 들고 있어라. 떨어뜨리면 그걸로 니가 맞는다."

인형의 표정이 냉담해 졌다. 그리고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어머나? 어디로 도망가니? 무기도 들어겠다. 덤벼~"

인형이 겁이라도 먹고 도망가는 줄 알고 다들 속으로 그러면 그렇치 란 생각을 했다.

인형은 체육관 벽쪽까지 슬금슬금 뒤로 가서는 등뒤에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멈추었다.

한명의 여자아이가 지휘봉을 손으로 잡고 인형을 한대 때릴려고 손을 내밀었다.

"딱"

"아얏"

인형이 지휘봉으로 그 여자아이의 어깨죽지를 내리쳤다.

'뺨속까지 아플것이다. 아그야~이것도 업그레이드 됐드라구'

인형은 속으로 빌었다.

'제발 속전속결로 끝내자. 체력이 딸리기 전에~'

빛나리를 제외한 6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넌 죽었어 이년아"

"딱! 딱! 퍽! 퍽!....."

인형의 지휘봉이 빨라졌다. 한대 때릴때 마다 되도록이면 급소를 노렸다.

다들 인형의 반격에 놀라 뒤집어질 지경이었다.

인형이 지휘봉을 어찌나 잘 휘두르는지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달려들면 한대 맞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죽을꺼 같았다.

더 힘있게 때려야 하는데 확실히 인형은 힘이 딸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감당할 인원수가 너무 많았다.

'퍽'

옆구리를 발로 한대 차였다.

헉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지만, 페이스를 잃으면 복날 개맞듯이 맞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지켜보던 빛나리는 놀람을 감출수가 없었다.

사실 정우가 인형에게 남달리 대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속으로는 솔직히 인형이 정우에게 일러바치거나 해서 도망이라도 갈줄

알았는데 정말 혼자 떡하니 나타났을때는 놀랍기도 했다.

그래서 약간 겁주면서 말만 들으면 끝낼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대차게 나와서 당황스러웠던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타이

르는 듯한 말투에 열 받기도 했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조그맣고 여러여리하게 생긴게 막대기를 하나 들고 휘둘러때는 어이없어 웃음도 나왔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애들을 때리고 제압

하는 인형의 모습에 입이 벌어질 지경이었다.

뒤로 슬금슬금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등뒤를 보호하려는 술수인지 빛나리는 이제서야 알았다.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우는 인형에게 약간 놀라고 한대 맞을때 마다 어찌나 아픈지 겁도 나던 아이들이 추춌했지만 그 중 한명이

뒤에서 돌맹이를 들었다.

돌맹이를 인형에게 던졌다.

"퍽"

인형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깨질듯 아프고 어질어질 했다.

아이들도 잠시 주춌하는 듯 해 보였다.

누군가가 놓치지 않고 인형의 배를 발로 힘껏 찼다.

인형의 몸이 접혔다.

인형은 얼굴이 뜨뜻해 지는 듯 해서 손으로 이마를 만졌다.

손에 피가 묻어나왔다.

돌맹이에 이마를 맞은듯 했다.

이때다 싶은 아이들이 달려드는 것을 막아야 했는데 손 발이 후덜 거렸다.

인형은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맞고만 있었다.

얼마간을 맞았을까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에이 씨발 ~ 누가 꺾질렀나봐. 학주오나보다"

"야 튀자 걸리면 골치아프다"

"저년은?"

"야~ 너 우리가 그랬다고 꺾질르면 너 인생도 끝날줄 알아?"

도망가면서도 인형에게 헐박을 잊지 않고 우르르 도망가버렸다.

아이들이 가고 인형도 몸을 일으켰다. 정말 학주에게 들키면 골치아플 거 같았다.

"에고~ 죽겠네.. 돌던진년 넌 죽었어."

인형은 군시령 욱을 하며 가방을 주섬주섬 들고 학주가 오기전에 열린 숨을 곳을 찾아 두리번 거렸다.

앞에 벤치 뒤 커다란 나무뒤가 좋을 꺼 같았다. 나무뒤로 어기적 어기적 걸어가서 앉으려다 인형은 깜짝 놀랐다.

웬 남학생 한명이 나무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놀라는 인형이 머뭇거리자 그 남자애는 인형의 손을 잡아 열린 앉히고는 "췌" 조용히 하라는 시늉을 했다.

일단 옆에 앉아 숨는게 우선인지라 시키는 대로 하고 바깥의 동정을 살피니 학주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놈들이 어디서 싸움박질이야? 어디로 간거야 이놈의 시키들~"

학주는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소리 질르더니 저쪽으로 애들을 찾으로 뛰어갔다.

한숨돌린 인형은 교복치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일단 이마 피가 나는 것을 막았다.

어찌나 피가 눈으로도 들어갔는지 앞도 흐릿하게 보일 지경이었다.

인형이 가방을 열어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다.

물티슈,비상약품을 넣은 조그마한 가방이었다.

일단 이마지혈이 우선이었다. 지혈제를 뿌리는데 거울을 바닥에 놓으니 잘 보이지 않았다.

인형은 잠깐 잊고 있던 옆에 남학생을 바라보았다.

인형이 거울을 남학생에게 건내주니 남학생이 어찌란 말이나란 듯이 쳐다보았다.

센스가 팡인 놈인가보단란 생각에 인형이 그 남학생 손에 친절히 거울을 들려주고 높이 까지 맞춘 다음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다.

이마를 일단 지혈시키고 반창고까지 바른 후 인형은 물티슈로 대충 얼굴을 닦았다. 거울로 보니 이마랑 입술 옆이 조금 터진거

말고는 얼굴은 멀쩡했다.

하지만 옆구리랑 배가 무지하게 아팠다.

"우싸~ 더럽게 아프네. 온몸이 결리는 구나. 돌 던진 년 년 죽었어."

이제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준비성 하나 끝내주는구나. 약까지 들고 다니는 애는 너 참 봤다"

거울을 들고 있던 남자애가 말을 했다.

인형은 드디어 그 남자애를 자세히 보았다.

'두근 두근 두근'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도 가빠지는 듯했다.

'허걱! 내가 왜이러지? 근데 이놈도 정말 한 인물 하는 구나. 요즘 내주위에 꽃돌이들이 넘쳐나는구나.. 이쁜애들 옆에는 원래

이렇게 꽃돌이들이 모여사는 건가?

인형이 태어나서 본 제일 잘생긴 남자를 꼽으려면 리현이었다. 하긴 리현은 이쁜쪽에 가까웠다. 근데 눈앞에 있는 남정네는 잘생

긴 남자란 이런 거다 라고 외치는 외모를 가진 게다가 강현의 카리스마까지 덤으로 살짝 얹어놓은 듯한 고무잡잡한 피부에 시니

컬해보이는 눈매는 매서워보이기 까지 했고, 예술적으로 생긴 코와 촉촉한 입술은 고등학생답지않게 육감(?)적으로 보이기 까지

했다.

인형이 한참을 그 외모에 홀린듯이 쳐다보니 그 남학생이 피식 웃는 것이 느껴졌다.

"나도 내가 잘 생긴거 알거든. 근데 그렇게 쳐다보면 재수없거든"

"잘생기긴 했네. 내가 본 두번째로 잘생긴 남잘세"

정신을 차린 인형은 그 남재애 말이 재수없었지만 순순히 인정을 했다.

"두번째?"

두번째로 잘생겼다란 말을 처음 듣는 지 웬지 기분나빠보이는 그 남자애를 보자 인형은 한숨이 나왔다.

"휴~ 세상은 넓고, 세상의 반은 남자고, 잘생긴 남자도 생각보다 많더라."

"비상약은 늘 그렇게 챙겨다니냐?"

"아무래도 왕따 생활한지가 좀 오래되다보니.....?..... 그러고 보니 내가 맞는 내내 여기에 있었어?"

"응"

"여기서 뭐했어?"

"구경"

어이가 없는 인형이 입을 헤 벌리고 그 남자애를 쳐다봤다.

"보기보다 꽤 잘 싸우더라. 검도했나봐?"

그 남자애는 별일 아닌 듯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봤다.

인형은 그 남자애를 쪽 훑어보았다. 꽤 키도 커보이고 몸도 꽤 단단해 보이는 것이 근육도 꽤 있어보였다.

"얼굴이랑 덩치가 아깝다. 담부터 누가 맞거든 찌질이 처럼 숨어서 구경하지 말고, 겁이나면 그 긴다리로 누구라도 부르러 가거

나. 다리가 떨어져서 못움직이면 전화로 신고라도 해"

인형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마치고 가방을 챙겨들고 일어서서 나무뒤로 나와 운동장을 향해 걸어 나갔다.

인형의 등 뒤로 그 남학생의 자지러지게 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인형은 기분이 나빠졌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주었다.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인형의 핸드폰에는 부재중 통화가 수십통이 와 있었다

'고과장, 고과장. 고과장.....고. 고. 고 .고. 다~~~ 고과장이네.. 인간관계가 정말 험소하구나,,,'

부랴부랴 인형이 고과장과 접선 장소로 가자 인형을 본 고과장은 기절하기 일보직전이었다.

"하하하~ 별거 아니요.. 학교 계단에 굴렀거든요. 그래서 양호실 들렀다 오느라.. "

믿는 눈치가 아닌 고과장에게 끝까지 잡아떼곤 인형은 같이 병원에 들러 이마를 꺾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놀란 양평댁을 진정시키고, 방으로 들어온 인형은 욕실로 들어가 대충 몸을 닦았다.

배랑 옆구리가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다.

그래도 생각보단 이 몸뚱아리가 버텨준게 고마웠다.

'어디 도장이라도 알아봐야 겠다. 몸도 굳고 꼴로봐선 하루이틀에 끝날 일도 아닐것 같고.. '

저녁에 들어온 리현은 인형의 얼굴을 보곤 눈꼬리가 치켜올라가고 예쁜 입술이 비틀리는 걸 보자 인형은 리현의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것을 알았다.

"하하하~ 계단에서 굴렀다니깐.. 정말이야.. 머리가 무거운지 머리부터 떨어져서 이래.. 정말이라니깐"

"웃기지말고 누가 그랬어? "

"시간이 늦어서 계단에서 뛰다가 굴렀...."

"내가 바본지 알아? 맞은거랑 구른거랑 구별도 못하는? 누구야?"

"..휴~ 뭐 좀 싸웠어.."

"싸워? 니가? 일방적으로 맞았겠지"

"아니거든. 나도 맞은만큼은 때려줬거든 내가 아직까지 기운이 떨어져서 그렇지 몸 상태만 좋아으면 그것들 완전 다 ~~ 죽었어"

"그것들? 휴~도데체 몇명 한테나 맞은거야?"

인형은 자신의 입방정에 속으로 욕을 했다.

"오해가 있었어.. 걱정하지마.. 예전의 최인형 아닌건 알지? 내가 알아서 할꺼야?"

리현은 인형을 걱정스레 쳐다보았다. 물론 인형이 달라진건 안다. 하지만 저리 조그맣고 여리여리한 애가 달려들어 봤자 뭘 어떻게 했겠냐 싶으니 화가 절로 났다.

인형이 화를 내는 리현이 너무 고마웠다.

인형이 리현에게 다가가 꼭 껴안아 줬다.

"나 맞고 왔다고 오빠가 막 걱정도 해주고 화도 내주니 나 너무너무 고마운거 있지. 근데 정말 걱정할 정도는 아냐~ 나도 바보

아니거든. 애들은 싸우면서 큰대잖아 걱정하지마, 다 내가 클려고 이러는 거야~"

갑작스레 인형이 안겨오자 리현은 놀라고 가슴도 두근거렸다. 하지만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흠..흠.. 그래도 감당하기 힘들면 언제라도 이야기 해.. 미련하게 당하고만 있지말고."

"오울~~분위기 좋은데? 이거이거 방심한 사이에 인형이가 리현이놈 한테 넘어갔구나?"

2층에 올라오던 우현이 둘의 모습을 보고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이내 리현을 놀렸다.

"원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당황하는 리현과 달리 장난스레 우현을 쳐다보며 인형이 대답했다.

"헉! 너 얼굴이 왜그래?"

놀란 우현이 인형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호들갑을 떠는 사이 리현은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인형이 걱정은 되었지만 웬지 인형의 말에는 뭔가 알수 없는 의지가 보였다.

그리고 아까 인형이 자신을 안아줄때는 순간적으로 화가 싹 사라지면서 동생이 아니라 누나같은 느낌도 들면서 웬지 계속 안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순간적으로 누나같다란 생각을 한 자신이 어이없어졌지만 리현의 예쁜 눈과 입술은 미소가 그려졌다.

역시나 쉽게 넘어가지 않는 최씨 형제들에게 돌아가며 고문을 당한 인형은 겨우겨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누웠다.

.

강현의 서재에 세형제가 모였다.

"계속 저러고 맞고 다니면 어떻게? 그냥 전학시키는게 낫지 않아?"

우현이 걱정스레 말했다.

"그보다 저렇게 때린 것들 찾아 먼저 똑같이 해줘야지."

흥분한 리현이 말했다.

"일단 더 두고보자. 본인이 우선 괜찮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깐"

강현이 미간을 지푸리며 말했다.

"두고보긴 뭘 두고봐. 그 새끼들 내가 찾을께. 존나 비겁한 것들 여러명이서 한명을."

짜증난다는 듯이 리현이 쏘아붙였다.

"리현. 말 가려서 해. 학교생활은 예전과 달리 잘 적응하고 있다니깐. 일단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을꺼 같다."

강현은 리현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듯 냉담하게 말했다.

"잘 적응하는게 맞고 다니는 거야?"

리현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학교생활 알아보고 있었구나?"

눈치빠른 우현이 강현에게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강현이 말을 이었다.

"음.. 학교생활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더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친구들도 생긴것 같고,, 암튼 이번일은 그냥 넘어가자.

피곤하니깐 그만 나가들 봐"

우현이 할말이 더 있는 듯한 리현을 끌고 나왔다.

"인형이가 해결할 수 있음 본인이 해결하는게 제일 좋긴 하지.. 걱정은 되지만 일단 형 말대로 지켜보자."

우현의 말이 틀리지 않기에 리현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

정우는 인형의 얼굴을 놀란 듯이 쳐다봤다.

이마에는 커다란 반창고에 입술은 터졌는지 딱지가 앉은 것이 꼭 누구에게 맞기라도 한 것일까? 그런데 인형의 표정은 기분이 좋

아 보였다.

"자해도 하나? 아님 어디서 터졌냐?"

"흐흐흐 뭐 어찌 어찌하다 보니...안밖으로 얼굴에 기스가 좀 나니 다들 관심들을 가져주니 이러다가 정말 관심떨어지면 자해라

도 할지 모르지.. 하하"

농담으로 넘겨버리는 인형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애들 시켜서 알아보면 될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2교시가 체육시간이었다.

홍기가 혈레벌떡 정우와 수호 , 진규가 있는 데로 다가왔다.

"야! 대박뉴스다. "

"뭔 대박뉴스?"

진규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어제 저 진짜 최인형이 터졌단다"

"터져? "

수호가 되물었다.

"그래 임마~ 어제 방과후에 최인형이 여러명한테 맞았다던데?"

"어떤 새끼야? "

나른하게 스텐드에 기대 앉아있던 정우가 별떡 일어나 소리쳤다.

마치 홍기가 인형을 때렸다는 듯이 홍기의 멍살을 잡았다.

"켄! 그.. 그건 몰라.. 애들 사이에 소문이 짹 퍼졌더라구 . 어제 체육관 뒤쪽에서 최인형이 맞았다고 그러던데.. 누군지는 몰라

.. "

"이정우! 흥분하지 말고 홍기좀 놔줘라. 저 자식 얼굴이 피 몰린거 봐라"

수호가 급히 정우를 홍기에게 떼어 놓고 물었다.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 씨발~ 소문 짹 났다니깐. "

홍기는 목을 풀면서 화가나서 소리질렀다.

정우는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오는 인형이 보였다. 정우는 성큼성큼 인형에게 다가갔다.

"너 어제 체육관 뒤에서 누구 한테 맞았냐?"

"어? ,,어떻게 알았냐?"

"씨팔~ 어떤 새끼야?"

정우의 얼굴이 싸~해졌다. 표정이 없는 얼굴이 더욱 더 없어진 것이 오싹한 느낌 마저 드는 인형은 당황되었다.

"뭐.. 오해가 있어서. 그냥 좀 다툼인데.. 하하;; 너 이려고 나오니깐 무섭다 정우야"

"그냥 다툼게 그 꼬라지냐? 누가 그랬는지 당장 불러"

인형의 곁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의 수호와 진규 똥한 표정의 흥기도 인형의 곁에서 인형의 대답을 같이 기다리자 인형은 곤란해졌다.

"신경써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이건 내 문제고 내가 알아서 할꺼야~ 다들 고맙다"

인형이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를 뜰려고 하자 정우가 인형의 어깨를 잡고 화가 난 듯이 다시 물었다.

"까불지 말고, 누가 그랬는지 대답해"

인형은 정우를 쳐다보았다. 누구하나 죽일듯이 화가나 있는 정우를 보자 살짝 쭈기도 했다. 평소시의 정우도 냉기가 뚝뚝 흘렀지

만 지금의 정우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이 굳어져 있어 가면을 쓴 것 같았다.

"휴~ 누군지 알면 니가 가서 복수해 주게?"

"최인형! 너 내가 우습냐? 같은말 계속하게 하지말고 넌 내가 묻는말에 대답이나 해"

이를 갈듯 말하는 정우에게 다가선 인형이 정우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네.짜깁. 소문에 내가 터졌다고 났나본데.내가 보기보단 성질이 더럽거든. 나도 맞고는 못사는 성질이라.. 나도 웬만큼 때

렸거든. 니가 이렇게나 날 위해주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고맙다 정우아~더 이상 네가 나서면 정말 내가 바보되는 거거든.. 니

맘은 정말 고마워 "

인형은 정우에게 활짝 웃어보이면서 괜찮다는 듯이 정우의 손까지 두드려 주고는 저쪽으로 쓱 가버렸다.

주위의 반응들은 놀렐 노 자 였다. 반 아이들은 화가난 정우가 무슨 사단이라도 낼듯이 날뛰자 바짝 긴장하였으나 인형은 눈 하

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정우의 손을 잡고 달래는 게 아닌가..

수호를 비롯한 다른이의 눈에는 이 장면이 한마리의 맹수를 조련하는 노련한 조련사같은 인형이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인형이 입으로는 듣기 힘들 것 같다. 내가 알아볼께"

수호가 자신의 손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정우에게 말했다.

"젠장"

정우는 잠깐동안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작고 따뜻한 손이 사라지자 왠지 아쉬움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멀어지는 인형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한쪽 가슴이 두근 거렸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진규가 작은 목소리로 상황정리를 했다.

"정우자식 완전히 낫었네"

체육시간 내내 정우의 따가운 눈초리에 인형은 괴로울 지경이었다.

'진짜 집요한 놈일세, 암만 쳐다봐라 내가 대답해 주나.. 내가 빛나린진. 개나린지 하는 거 한테 맞았다고 말할꺼 같냐? 하긴 고

계집애는 가만있었지.. 그게 더 기분 나쁘단 말야. 내가 조간만 힘을 길러서 그것들 싹 정리한다.'

"빛나리한테 맞았지?"

"아싸~ 그 계집애 가만있었다니깐. 그 꼬봉들이 대신... 헉! "

언제 다가왔는지 수호가 뒤에서 쑥하니 물었다.

얼떨결에 대답한 인형은 놀라 쳐다보니 알뜰게 수호가 웃고있었다.

"너! 너! 비겁하게 기습질문 하다니"

"큭~ 뭐 조금만 머리 굴리면 누가 너 때린지는 다 알겠?"

"암튼 정우한테 말하지 마! 일 커지는 거 귀찮기도 하고 내가 정리할꺼야"

"방안은 있고? 개네들 우리학교 여자 일진들이야"

"일진이 별꺼야? 다리 좀 떠나본데, 나도 왕년에 침 좀 빨았거든.."

"오우~ 침까지.. ㅋㅋ 믿기진 않지만,.... 차리리 정우에게 도움 청하는게 낫지 않을까?"

"헛! 다들 나를 칠순이로 아는구나.. 이거 이거.자존심 상하네.. 찼 하긴 예전 이미지가 있으니.. 찼! 암튼 빠져주라. 부탁할꺼

수호야"

"뭐.. 암튼 몸 조심 해라. 더 이야기 하고 싶지만 정우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이만 가봐야 겠다. "

"응? 그..으래 이왕 가는길에 정우 앞에 서 있으면 안될까? 이거야 원 불편해서..정우 눈 쏘여 주면 더 고맙고.."

"푸학 ~ 내 목숨이 하나라. 나도 내 목숨 귀한 줄 아는 놈이거든 ㅋㅋ"

불편한 오전수업이 끝났다.

점심시간이 되어 인형은 지휘봉을 챙겨들고 씽~하고 화장실로 일단 튀었다.

'이래서 스토킹 당하면 사람이 미치는구나.. 오후에는 양호실에 누워 있을까나 보다'

급식실로 내려간 인형은 식판에 밥을 가득 퍼 담고 쓱 훑어보았다.

저쪽에서 자리잡은 정우 패거리중 수호가 손을 흔들며 주었다.

'수호야 오늘은 내가 거기서 먹을 기분이 아니란다.'

살짝 손을 들어보이며 주위를 두리번 거리던 인형은 목표물을 찾았다.

어슬렁 거리면서 인형은 빛나리와 그 떨거지 들이 앉아있는 식탁한자리에 자리를 잡고 같이 앉았다.

"이년이 돌았나? 누가 여기 쳐 앉으래?"

"니가 어제 덜 맛았구나?"

"오늘은 아주 눈탱이를 밥탱이로 만들어 줄까?"

인형은 이말을 한 여자애를 쳐다보았다.

앞머리를 붉게 물들인 여자아이였다.

"아~ 빨강머리. 니가 어제 돌던졌냐?"

"뭐? 이게 죽을라고"

"넌 나중에 나랑 따로 한번 보자"

인형은 쓱 지휘봉을 쓰다듬으며 빨강머리를 노려봤다.

지휘봉에 움찔하는 빨강머리였다.

"우리가 밥까지 같이 먹을 사인가?"

얼굴을 찌푸린 빛나리가 인형에게 말했다. 빛나리는 천연덕스럽게 여기자리까지 찾아와 앉는 인형의 배짱에도 놀랐지만, 한편 당

황되기도 하였다.

"왜? 우리사이야 언제서? 어제일로 봐선 우린 종종 만나야 할 사이 같던데? 그리고 소문 다 났는데 뭘~ 내가 너희들에게 맞았다

고, 이왕 이렇게 된거 얼굴이나 트고 지내자. 자 뭐해? 얼른 밥 먹자"

정말 배가 고팠던 인형은 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정말 이미지 다르게 밥 먹는 인형을 다들 병져서 쳐다만 보았다.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빛나리가 차갑게 물었다.

"그거야 니가 하기 나름이지"

"헛! 뭐?"

"내가 따졌던건 다 알지? 그런 따한테 맨 처음 친구대접 해 준 사람이 정우야. 그런 정우를 니가 좋아한다는 명목으로 떨어지라

는데 너라면 떨어지겠냐? 그리고 난 정우 그냥 친구로써 좋은 거지 남자로써 좋은 건 아냐. 니가 정우 좋아하는 건 알아. 좋아해

계속~ 하지만 넌 방법이 틀렸어."

빛나리는 화가 났다. 기어도 너무 기어오르는 계집애였다.

벌떡 일어난 빛나리는 인형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다

"건방지게 니가 뭘 알아?"

맞자마자 인형이 벌떡 일어나 빛나리의 뺨을 같이 내리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 잡아다 다짜고짜 다굴 시킨건 너 아냐? "

"이년이 진짜 죽을려고"

옆에 있던 빨강머리가 인형에게 달려들었다.

재빨리 지휘봉을 든 인형이 빨강머리의 머리를 내리쳤다.

"딱"

"으악~"

빨강머리가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엄살떨지마. 어제 일 생각하면 니 머리도 구멍하나 내고 싶지만 , 2차전을 하기엔 보는 눈이 너무 많치? 언제든 또 하자."

인형이 손가락으로 빛나리를 가르켰다.

"너~ 이름값이랑 얼굴값좀 하지? 빛나는 숨씨좀 보자 담에 니가 직접 덤벼라. 개때들 같이 우르르 몰려들지 말고, 여럿이서 하나

잡아놓고도 이기면 즐겁냐?"

빛나리는 인형을 노려보다 몸을 돌려 급식실을 나갔다.

주위에 있던 떨어지들도 군시령 거리면서 빛나리를 따라 나갔다.

인형은 곳곳히 앉아서 밥을 마저 다 먹었다.

정우는 인형이 식판을 들고 자신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인형을 보았다.

설마하니 빛나리가 있는 자리로 가서 앉을 줄은 몰랐다.

수호가 정우에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며 의미심장한 말을 할때부터 정우는 대충 감을 잡았었다.

빛나리가 설치고 다니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상관할 필요도 없었고 한편으론 다른 여자애들이 귀찮게 달라붙지 않아서 편하기도 해서 모른척 묵인하고 있었는

데. 인형이가 끌려가서 맛을 줄은 몰랐다.

여자애들이 린치하는 과정을 예전에 흥기가 말을 해줘서 본적은 없어도 대충 그림은 그려졌는데 그런 꼴을 인형이 당했다고 생각

하니 정우는 당장이라도 빛나리를 반쯤 죽여놓고 싶었다. 그러나 상관말라던 인형의 말이 자꾸 걸려 참고 있었다.

그런 꼴을 당한 인형은 쫓지도 않고 당당히 빛나리패거리들과 밥을 먹다니, 정우 뿐만 아니라 수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애들이

인형과 빛나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근데 인형이 빛나리에게 뺨을 맞는 것을 보자 정우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벌떡 일어서 나갈려는데 인형이 바로 빛나리의 얼굴을 되받아 치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랐다.

거기에서 옆에서 달려드는 계집애를 아까부터 들고다니던 막대로 정확하게 머리를 내리치는게 아닌가? 얼마나 재빠르고 정확히

머리를 내리치는지 정우마저 감탄이 나올지경이었다.

머리를 내리칠때 수호는 휘파람마저 불지 않던가.

"휘우~ 정확하고 깨끗한 내려치기네. 인형이 재 혹시 검토했나?"

아버지가 검토관을 운영하여 어릴적부터 검토를 해온 수호가 감탄을 했다.

인형이 맞고만 있지 않았다고 하는말이 조금은 믿음이 가는 정우였다.

볼때마다 신기한 인형이었다.

인형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정우의 눈길이 갑자기 사나워졌다.

인형이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인형의 맞은 편에 털석 앉았다.

인형은 누군가 하고 쳐다보다 깜짝 놀랐다.

어제 나무 뒤 찌질이었다.

근데 그 찌질을 보니 순간 또 가슴이 사정없이 두근거렸다.

'아무래도 내가 맞는걸 저놈에게 들켜서 너무 쪽팔려서 그런가? 이놈의 심장이 사정없이 뛰네'

어젠 맞아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쳐도, 오늘은 제정신인데도 이 찌질이이 더 잘생겨 보였다.

'아 ~ 정말 잘생겼구나. 어린놈이 색기가 찰찰 흐르는 구나 찹~ 에이 그럼 뭘해.. 어린앤데.. 찹! 아쉽다.. 헉! 아쉽다고? 뭐가?

정말 미쳐가는 구나.. 내가 드려.. 밥이나 목자'

혼자서 오만가지 생각을 하던 인형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마저 먹고 있었다.

"급식실에 간만에 왔는데, 이젠 자주 와야겠다. 재밌는 것도 보고 "

""

인형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어이~ 그래도 우리 아는 사인데. 인사나 좀 하고 살지? 나 여자한테 거울 들어준건 정말 처음이다"

인형은 물까지 꿀꺽 마시고는 그 남자애를 쳐다봤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난 식으로 인형이 쳐다봤다.

"뭐? 우하하~ 너 나 몰라?"

"알아. 어제 그 찌질이잖아"

"뭐? 찌질이? 푸하하~ 화 많이 났나보네 하하~ 내가 굳이 안 나서도 잘 싸우더만 뭘"

"못싸웠으면 나설려고 했어?"

"아니"

단 일초도 생각지 않고 대답하는 말에 이번엔 인형이 어이가 없었다.

"정말 나 모르냐? 너 혹시 전학생이냐?"

남자애가 재밌다는 듯이 물었다.

"넌 나 아냐? 그리고 난 너 알고 싶지도 않거든. "

인형은 식판을 들고 일어났다.

"담에 또보자~ 꼬맹아"

꼬맹이란 말에 인형이 울컥해서 획 노려보다가 인형의 반응이 재밌는지 실실 웃는 그 놈을 보자 인형은 그냥 돌아서서 급식실을 나왔다.

급식실을 나오자 열린 수호가 인형에게 따라붙었다.

"너 지훈선배랑 아는 사이였어?"

놀랐다는 듯이 말하는 수호가 물었다.

"지훈선배? 그사람이 누군데?"

"에? 방금 급식실에서 너랑 말한 사람말야. 그 선배가 지훈선배야."

"아~ 그래? 잘 모르는데? 그냥 어쩌다가....얼굴 한번 본 사이야"

"뭐? 그래...무슨얘기 했어?"

"별 얘기 안했는데.. 왜?"

"....."

웬만한 일에는 호들갑스럽지 않는 수호가 꼬치꼬치 캐묻는게 이상한 인형이 되물었다. 수호는 잠깐 혼자 생각하는 듯 하더니, 교

실에서 보자란 말을 남기고 저쪽으로 가버렸다.

'그러고보니 선배랬지..웁해서 반말 계속 했는데..쩍~ 하긴 뭐 이마에 나 선배요 라고 써붙인 것도 아니고, 암튼 쫌 찻찻하네'

점심시간이 끝날때 쫌 자리에 돌아온 정우는 할 말이 있는듯 인형을 쳐다봤다.

"왜? 나한테 할말 있어?"

"너... 아니다. 담에 이야기 할께"

정우의 할말이 뭘까 궁금한 인형이었지만 굳게 닫힌 정우의 입을 보자 이내 포기했다.

오후 내내 졸지도 않고 딴생각에 잠긴 정우가 수상쩍은 인형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이었다. 내일은 놀토라 인형은 간만에 정애에게 연락하여 한번 만나봐야 겠다는 계획을 짰다.

쉬는시간에 수호와 홍기.진규는 쑥떡이더니 정우자리로 다가왔다.

"정우야 오늘 저녁 모집떨어졌다. 선배들이 오늘은 너 꼭 참석하래"

수호가 정우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 왜?"

정우는 짜증이 났다.

"몰라, 암튼 너 오늘은 빠지지 말고 꼭 데리고 오란다. 근데 너 오늘 갈 수 있겠냐?"

걱정스런 수호가 정우의 눈치를 살폈다.

"못가"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는 듯한 정우의 대답이었다.

"안돼~ 너 이번에도 빠지면 정말 찍힌다 말야. 내가 하늘이 볼께. 넌 요즘 너무 빠졌단 말야."

홍기가 다급하게 외쳤다.

정우는 홍기를 쳐다보며 인상을 확 썼다

옆에서 귀를 기울이던 인형은 아마도 일진들 모임이라도 있나 란 생각을 하다 홍기의 말을 듣고 하늘이가 누구지?란 생각을 하였다.

"니가 뭘 할 줄 안다고? 아님 우리집으로 데려갈까? 정우야?"

진규가 홍기를 쳐다보며 통박을 주곤 정우에게 방안을 내놓았다.

듣고 있던 인형은 순간적으로 정우에게 가끔씩 나는 아기냄새가 떠올랐다.

'정우네 집에 아기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하늘이가 그 아기 이름인가? 이걸 또 뭘 사연이래? 저녁에 아기 볼 사람이 없나?'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인형은 인상을 쓰고 있는 정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야 내가 봐줄까?"

뭔 소리냐란 듯이 정우가 인형을 쳐다봤다.

주위를 살피던 인형이 입모양으로 '아기'라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본 수호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인형이 정우 동생까지 알고 있을까 란 생각과 정우녀석도 별로 놀라지 않는 걸로 봐선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인거 같아 정우녀석의 성격을 아는 수호로써는 두 사람이 더욱 수상해 졌다.

"걱정하지마. 내가 무지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잘보거든, 어떻게 보면 경험자지.."

목소리를 낮춘 인형이 정우에게 말했다.

홍기도 인형이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해결책이 보인단 생각에 얼른 찬성하기로 했다.

정우가 요즘 몸을 사리는 건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학교에 찍혀 일찍 귀가라도 못한다면 하늘이를 볼 사람이 없고, 또 어머니 병원에도 가끔 가봐야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요즘은 범생모드로 산다는 것을..그러나, 이런사실을 모르는 선배들은 정우가 모임에도 자꾸 빠지는 것을 버르고 있었다.

"그래 정우야, 오늘만 부탁 좀 하자. 정말 오늘은 가야 된다니깐"

잠시 생각하던 정우가 인형을 쳐다봤다.

"그럼 부탁좀 할께."

"친구좋다는게 이런거지. 오케이~"

인형은 활짝 웃으면서 대답해줬다.

방과 후 인형은 아무래도 걱정스러워하는 정우에게 자신만만하게 웃어보여줬다.

"걱정하지 말고 일찍 집에나 와라. 나도 너무 늦게 집에 들어가면 고문당한다"

수호와 홍기, 진규도 걱정 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남자보단 여자가 낫지 않을까란 생각에 정우를 끌고 가버렸다.

고과장과 접선한 인형은 정우에게 받은 주소를 건네주었다.

"제 친구집이에요. 오늘 저녁 친구집에서 공부하고 갈꺼예요"

고과장은 인형이 친구집에 가는 것 부터가 너무 놀라웠다.

"하지만 이사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큰오빠 한텐 제가 전화할께요"

인형은 강현과 통화를 하였다.

강현은 친구집에 공부하고 놀다가 집에 간다는 인형의 말에 잠깐 놀란듯 했지만, 너무 늦지말란 말과 귀가 전에 꼭 전화를 하란

말을 남기고 허락을 해 주었다.

정우가 사는 아파트에 다다른 인형은 고과장과 헤어지고 정우의 집앞에 서서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미리 연락을 받은 베이비시터는 인형에게 아이를 넘겨주곤 이내 퇴근을 하였다.

하늘이라는 아이는 하얀 얼굴에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였다.

자고있는 하늘이가 너무 예뻐서 어쩔줄 모르는 인형은 아기가 누워있는 이부자리와 베게가 꼬질꼬질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단 자는 아기를 눕두고 아파트를 이리저리 둘러보니, 정말 이집 베이비 시터는 아기만 달랑 보다가 퇴근을 하는 듯 했다.
너무 성의 없는 베이비시터에게 분노를 느끼며 쪽 훑어본 아파트는 그럭저럭 정리는 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먼지가 여기저기
쌓여있었다.

"아.. 정말. 간만에 주부의 피가 끓어오르는 구나..아기 있는 집이 너무 더럽네."

인형은 일단 교복을 갈아입어야 할것 같았다.

둘레둘레 보니 베란다에 빨래건조대에 정우것으로 보이는 면티와 츄리링 바지가 보였다.

일단 그 옷으로 갈아입었다.

"진짜 기럭지 차이가 나는구나.. 아빠웃입은 꼬마같네.."

면티는 박스티를 벗어나 엉덩이 까지 내려왔고, 츄리링은 다섯번정도 접었다.

대충 티를 그러모아 한쪽으로 묶고 인형은 아기를 한쪽방으로 옮겨 문을 꼭 닫고 일단 아기 요와 이불들 여러빨래들을 빨고 삶기
로 했다.

빨래를 삶는 중에 욕실을 대충 청소하고, 거실부터 시작하여 부엌 싱크대청소와 아기 우유병도 다시 삶고 나니 거의 두시간 이
더 걸리는 듯 했다.

오랜만에 하는 집안일인지라 인형은 허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다.

그 와중에 하늘이는 일어나 배가고픈지 울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인 후 인형은 하늘이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일단 인형이 눈앞에다 놓아두고 굶주린 배를 채울 음식
들을 찾아 뒤지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어본 인형은 입이 떡 벌어졌다.

없다 없다 해도 이렇게 먹을게 없는 냉장고는 처음 보았다.

어릴적 부터 음식 잘하고, 먹는 것 하나 만큼은 살뜰히 챙겨주던 엄마 밑에서 자란 인형은 저렇게 텅 빈 냉장고를 보는 순간 정
우가 너무 불쌍해졌다.

아기보는 것도 얼마나 체력이 딸리는 건데... 저러니 맨날 학교에서 제정신을 못차리고 자는 구나란 생각에 인형은 콧등이 시큰거릴 지경이었다.

한쪽 수납장에 수북히 쌓여있는 종류별 라면이 왜이리 가슴이 아픈지 인형은 심란한 마음으로 라면을 끓여서 먹었다. 그나마 계란이 있는게 옹했다.

설것이 까지 끝내고 인형은 하늘이 목욕도 시켜주었다.

씻겨주고 분도 바르고 옷도 갈아입히니 인물이 너무 예쁜것이 인형이는 너무 흐뭇한것이 동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아기방에 가서 마저 청소를 하고 먼지를 닦아주었다.

하늘이는 낮을 가리지 않았다. 아마도 여러사람이 봐서 그런 듯 했다.

그러나 인형이가 자기를 이빠하는 것을 아는지 떨어 지려고 하지 않아 애를 좀 먹었지만 그것마저 가슴아픈 인형이었다.

"그나저나 넌 누구니? 하늘아? 설마.. 정우 이자식 사고쳐서 낳은 건 아니겠지? 근데 넌 정우랑 정말 많이 닮았구나.... 동생이라기엔 너무 어리고... 아뿔튼 예쁘네 우리 하늘아~"

거실에는 가족사진인 듯 엄마, 아빠, 정우가 같이 찍은 사진이 걸려있었다.

"이아~ 정우가 아빠 많이 닮았구나. 그지 하늘아? 근데 아빠는 인상이 좋은데 정우 저놈은 사진 찍을때도 무표정일세 ㅋㅋㅋㅋ"

인형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전화번호였다.

"네 여보세요"

"너 어디야?"

다짜고짜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인형은 다시 물었다.

"누구세요? 누구 찾으세요?"

"누구긴 넌 내목소리도 모르냐. 나야"

가만히 들어보니 리현의 목소리였다.

"아~ 난 또 누구라고. 리현오빠구나. 웬일이셔? 난 침 보는 전화번호라, 누군지 했네"

"흠흠.. 암튼 너 어딘데 아직 집에 안들어와?"

"친구집이야. 시험이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조금 이따 갈꺼야. 걱정하지마"

"친구집 주소 불러"

"왜? 데릴러 올려고?"

"웃기시네.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줄 알아? 암튼 불러"

"데릴러 오지도 않을꺼면서 주소는 왜 묻는데. 나참."

그때 전화만 하는 인형이 못마땅한지 하늘이가 앵 하고 울었다.

"이게 무슨소리야? 아기 우는 소리 같은데?"

"하하하~ 친구집에 늦동이가 있어서 아기 구경하고 있었거든. 하하;; 주소 불러달라고 했지 잠시만"

부랴부랴 주소를 불러주고 인형은 리현과 전화를 끊었다.

시간은 9시를 넘어갔다.

"집에 많이 늦게가면. 가만히들 앉있을텐데.. "

.

.

.

오랜만에 나간 모임장소는 조그마한 호프집을 빌린 모양이었다.

선배들의 눈길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개의치 않고 정우는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한쪽자리에 자리잡고 앉았다.

말이 정기모임이지 사실 술마시고 노는 거였다.

쓸데없는 잡담들을 한쪽귀로 흘러 들으며 정우는 인형이와 하늘이가 걱정이 되었다.

자신만만해 보이는 인형이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아봤자 얼마나 낫겠는가? 이 시간이 지루한 정우였다

옆에 있던 수호가 정우에게 몸을 기울였다.

"정우야. 지훈선배가 계속 너 쳐다보는데.. 뭘 일 있는건 아니지?"

정우가 지훈선배쪽을 쓱 쳐다봤다.

남자가봐도 매력적으로 생긴 지훈은 정우와 눈이 마주치자 술잔을 쓱 들면서 싱긋이 웃었다.

고개를 살짝 숙여보인 정우는 점심때 지훈이 인형과 이야기 하던 장면이 생각나자 본인도 모르게 화가 나 외면해 버렸다.

학교내에서 한지훈을 모르면 간첩이었다.

첫째 잘생긴 얼굴로 유명하고, 둘째 개같은 성질로도 유명했고, 셋째 재력이 뽕뽕한 집 아들로써도 유명했다.

그리고 오는여자 막지않고, 가지 않으려는 여자도 갖은 모욕과 모멸을 줘가며 버리기도 유명했었다.

어쩌면 이 근방의 실세였었다.

아무리 사고를 쳐도 막아주는 집안이 있었기에 더 가능한 일인지도 몰랐다.

이런 모임을 하거나 할때 장소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거의 지훈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일 것이었다.

지훈이 먼저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건 본 적이 없는 정우로써는 왠지 지훈이 인형에게 접근한것이 맘에 걸리고 왠지 불안해지기가 지도 했다.

정우는 자신이 인형에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생각해 봤다.

좋아하는 걸까? 눈앞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다른놈이랑 있으면 기분 나빠진다. 안보면 보고싶어진다. 아무래도 정우는 인형이 좋아진 것 같았다.

어느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다들 조금씩 취기가 올라갈때 정우는 슬며시 화장실 가는척 하며 호프집을 빠져나왔다.

눈치 챈 수호와, 흥기도 밖으로 나왔다.

텅텅한 안을 벗어나니 살것 같은 정우였다.

셋이서 몸을 돌려 걸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정우를 불렀다.

"이정우"

돌아보니 한지훈이었다.

수호와 홍기가 깍듯이 인사를 했다.

둘은 본척만척 지훈은 빙글 웃으며 정우만 쳐다봤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가려고?"

"네. ."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정우가 짧게 대답했다.

픽하고 지훈이 웃었다.

"그래. 우리 종종 보자"

이말을 하곤 지훈은 다시 호프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호와 홍기는 뭔가 찝찝했다. 지훈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라. 모임내내 정우를 쳐다보는 것도 맘에 걸렸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말이 없는 정우때문에 덩달아 말을 못하고 정우의 아파트로 들어오던 홍기가 짧게 탄성을 했다.

"이야~ 저 차 죽인다"

홍기가 감탄하는 쪽으로 쳐다보니. 보기에도 좋아보이는 외제 스포츠카였다.

그때 스포츠카에서 차 주인이 내렸는데 그 외모에도 감탄이 다 나올 지경으로 잘생긴 남자였다.

키도 후리후리 하게 크고 잘생긴 남자는 차에서 내려 연신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며 아파트 쪽을 연신 힐끗 거렸다.

그 남자를 지나쳐 엘리베이터까지 오자 홍기가 말했다.

"여친이 이 아파트에 사나보네? 정말 차 죽이네.."

인형이 걱정이 된 정우는 집앞으로 급히 걸어갔다.

비번을 누르려다 정우는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밝은 인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본인의 집에서 인형의 목소리가 들리자 왠지 정우는 기분이 이상했다.

"인형아~우리야. 나야 수호"

대답하지 않는 정우대신 수호가 대신 대답했다.

인형이 열린 문을 열어주었다.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왔네?"

인형의 옷차림은 과상했다.

정우는 그 옷이 자신의 옷인걸 알자 우뚝 멈춰서 옷을 뺀히 쳐다봤다.

인형은 정우가 자신의 옷을 쳐다보다 베시시 웃었다.

"그래 맞다 맞아, 정우 니웃이다..교복입고 일 할 수가 없어서.. 저기 건조대에 걸려있길래 좀 빌려입었다. 그런다고 그렇게 찌려보냐? 무안하게시리.."

"이아~ 집이 왠지 깨끗해 진 거 같다. 인형아 너 집 청소도 했어?"

수호가 놀랐다는 듯이 말을 건넸다.

그리고 보니 집안이 왠지 깨끗해진 느낌이 들었다.

"어. 아기도 있는데 먼지가 좀 있어서.. 간만에 몸 좀 풀었다..."

하늘이가 앙 ~ 하고 우는 소리가 나자 정우가 미쳐 가기도 전에 씹하고 인형이 바람같이 뛰어가 하늘이에게 뛰어갔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 왜울까? 기저귀가 젖었나? 아님 배가 또 고프신가?"

능숙하게 하늘이를 살피며 인형이 아기를 달랬다.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서있는 세 남자에게 명령을 했다.

"뭘 그러고 서 있어? 다들 욕실가서 깨끗이 손도 닦고, 얼굴도 닦고, 발도 닦고 나와. 아기 있는 집엔 청결이 젤로 중요한거 알지? 얼른 씻어 지금 당장"

욕실로 쫓겨난 흥기가 말했다.

"설마했는데. 재정말 애 잘 보나봐.?"

"그러게. 애엄마 같다"

수호도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다.

정우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웬지 어수선 했던 집안이 정리된 느낌과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손을 씻고 나오니 거실 소파에 앉아 인형이 하늘이를 능숙하게 안고 우유를 먹고 있었다.

나오는 세 남자를 쳐다보며 인형이 간간하게 물었다.

"깨끗이 비누칠 해서 씻었어?"

"응"

"그럼"

"보여줘?"

정우, 수호, 흥기가 대답했다.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이 정우를 쳐다보며 물었다.

"하늘이. 혹시 니가 사고쳐서 낳았냐?"

"헉!"

수호와 흥기가 입을 떡 벌렸다. 한번씩 직선적인 인형이 가끔 감당이 안되었다.

"내동생이야"

"늦둥이긴 하지. 엄마는 몸도 앓으신데다 나이도 많으신데 낳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순순히 정우가 설명해 줬다.

"아~ 그렇구나. 정우 니가 걱정이 많겠구나."

인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다른 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하는 거는 웬지 자존심이 상했는데 인형의 말에 정우는 도리어 고마웠다.

"정우야? 널도 베이비시터 아줌마 오는 날이야?"

"응. 토요일은 조금 일찍 오후에 가셔"

"그으래?"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인형이 이번에 수호와 흥기를 쳐다봤다.

"너희 둘 내일 약속있어?"

"아니.. 별다른건 없는데? 왜?"

"나도 아직은 없어"

"그럼 내일 너희 둘도 정우집에 와. 내일 나도 다시 올테니깐"

결정했다는 듯이 인형이 말했다.

"우리집엔 왜?"

정우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아뭇튼 의논을 해봐야지. 이럴 일이 아냐.. 그리고 베이비시터도 맘에 안들어. 너무 성의없이 애를 보는 거 같아. 위생개념도

철저하지 않고...하늘이를 더 봐주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늦어서 나도 집에 가 봐야돼. 내일 와서 의논하자. 수호랑 흥기도 널

나 도와줄 일도 있고."

우유를 다 먹인 인형이 능숙하게 하늘이의 트럼을 시키기 위해서 등을 스다듬었다.

"자~ 트름합시다.. 꼬옥~ 하고 트름합시다. 소화되게.. 아이 착하지.."

아이를 돌보는 인형의 모습을 보니 웬지 인형의 말이 법처럼 느껴진 세 사람은 내일 다시 모이기로 하고, 인형은 정우를 붙잡고

하늘이에게 대한 주의사항을 한참을 교육을 시키고는 미덥지 않은 얼굴로 일어섰다.

웬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지만, 정말 인형의 말이 맞다는 생각에 세사람은 열의를 가지고 인형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시계를 쳐다보던 인형은 이만 가봐야 겠다고 일어섰다.

하늘이랑 헤어지는게 몹시도 아쉬운 인형은 계속 하늘이의 얼굴을 부비고 뽀뽀를 열렬히 하였다.

그모습이 몹시도 예뻐보여 늘 툭툭거리던 홍기마저 났을 잃고 인형을 쳐다봤다.

잠깐 교복으로 갈아입는다고 욕실로 들어간 인형을 보곤 수호가 머리를 흔들었다.

"뭔가에 홀린 것 같다. 우와~ 정말 인형이 대단하지 않나?젠 정말 정체가 뭘까?"

"내가 볼땐 외계인"

홍기가 심각하게 대답했다.

집을 나서는 인형을 바라다 주기위해 정우가 일어섰다.

"바래다 줄께"

"아냐. 택시타고 가면 돼"

"됐어. 늦어서 위험해."

잠깐 하늘이를 수호랑 홍기에게 맡기고 정우는 인형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형과 단둘이 있자 정우는 기분이 묘하고, 인형이 더 예쁘게 느껴졌다. 인형이 갑자기 정우를 쳐다봤다. 흠

칫 놀란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우야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흠흠. 음식?"

"응 먹고 싶은 거라든지. 좋아하는 거라든지 암튼 뭐 좋아해?"

"뭐.. 해산물이 들어간 건 다 좋아하는 편이야. 왜?"

"그래? 나도 해산물 들어가는 거 무지 좋아하는데. 알았어"

"....?"

일층에 도착한 인형이 강충거리며 내렸다. 피식 웃으며 따라오던 정우는 앞서가던 인형이 갑자기 돌아서 정우의 가슴에 안기더니

정우의 몸을 획 돌렸다.

인형이 갑자기 자신을 껴안고 자신의 몸을 획 돌리자 정우는 당황스러웠다.

"왜...왜 그래?"

"쉿! 조용히 해.. 지금 들리면 난 죽어.."

정우에게 몸을 숨긴채 인형은 빼꼼히 눈만 꺼내 쳐다봤다.

리현이 아파트 앞에 서성이고 있었다.

'주소 물어 볼때 부터 수상하다 했어.. 이런 신발끈 같은 경우가 다 있나.. 내가 못살아'

여전히 몸을 숨긴채 인형이 정우에게 속삭였다.

" 정우야~ 내 뒤 딱 붙어서 나 가려줘야 한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자"

뭔가 있다는 것을 느낀 정우는 일단 인형의 말 대로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도데체 무슨일이야?"

"아까 오빠가 전화와서 여기 주소 묻더니.. 결국 여기 와서 기다리잖아. 아마 여자친구집인줄 알텐데. 너랑 딱 하니 나가다 들키

면 이젠 외출은 끝일거 같거든.. 암튼 여기서 찢어지자. 널 만나자 정우야~"

이말을 마친 인형은 손을 흔들며 보이며, 뛰어나갔다.

사라지는 인형을 쳐다보면서 정우는 허전함과 아쉬움을 느꼈다.

잠깐이지만 인형이 자신의 품에 들어왔을때의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두근거렸다.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 빨

리 뛸 수 있다는게 정우는 신기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술냄새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양주병들, 깨진 유리컵과 어지러이 널려있는 물건들었다.

일주일정도 잠잠하더니 또 시작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지훈은 벌써부터 목을 조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문이 반쯤 열린 안방에선 히스테릭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아버지가 들렀다 갔나보다란 생각이 들었다.

안방쪽을 한번 쳐다보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버렸다.

피곤하였지만 잠은 오지 않은 지훈은 천정만 멍하니 쳐다봤다.

거의 집에 들르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가끔 왔다가면 정해진 수순처럼 두 사람은 싸우고, 아버지는 다시 나가고 어머니 술을 마시고, 물건들을 던지고, 마지막은 히스테릭한 울음을 터트렸다.

지훈의 아버지는 외국에도 호텔사업을 확장할 정도로 큰 호텔사업을 하고 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훈의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외동딸인 지훈모와 결혼하면서 지훈의 아버지가 물려받은 것이었다.

사업수완이 좋은 지훈의 아버지는 호텔을 더욱 크게 키운 것이었다.

지훈모는 늦은나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기에 어릴때부터 받들고 키워온 탓인지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성격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지훈아버지와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지훈모는 처음부터 결혼생활이 삐걱거렸다.

삐걱거리는 결혼생활은 지훈아버지의 외도를 시작으로 지훈모는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지훈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와이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늘 아랫사람 대하듯 자신을 대하는 그녀로부터 본인도 자존심에 상처가 컸기에 외면해버렸다.

지훈의 어릴적 기억의 부모는 늘 싸우기가 일수였었고, 아버지는 늘 바깥에서 돌아왔다.

어느샌가 엄마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술에 취한 그녀는 아버지를 닮은 지훈을 원망했다.

어린 지훈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싶었다. 공부도 잘했고, 모든것에 뛰어났지만 한번도 엄마는 자신에게 칭찬한번 해 주지 않았다.

아니 지훈엄마는 본인이 생각하기엔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

그녀가 불행한 결혼생활을 끝내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자신의 집안을 터전으로 일궈놓은 것에 다른이가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

지훈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내키는 대로 행동했다.

사고를 쳐도 넘쳐나는 돈으로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남달리 키도 크고 또래보다 성숙해 보이고 잘생긴 얼굴과 씩씩이 덕분에 주위에는 여자들도 꺾이지 않았다.

여자들은 모두 똑 같았다. 지훈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였고, 주지 않으면 지훈을 원망하는게 엄마와 다를게 없었다.

지훈은 쉽게 만나고 실증이 나면 버렸다. 간혹 떨어지려 하지 않는 여자들에게는 갖은 모욕을 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가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도 그만큼 지훈에게서 물질적으로 얻어가지 않았는가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누워있는 지훈에게 인형을 처음 만났을때가 생각났다.

오후수업을 재끼고 체육관 뒤 벤치에 누워 시간을 때우던 지훈의 귀에 여자아이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귀찮은 생각이 들은 지훈은 벤치에 일어나 나무뒤에 앉아 아이들이 가버리길 기다렸다.

자기네들 끼리 오고가는 이야기를 흘려들다보니 이정우란 이름이 자주 나왔다.

들어본 이름이라 생각해 보니 다소 건방져 보이는 일학년 짱 이정우인것 같았다.

약간 궁금해진 지훈은 여자아이들을 살펴보니 이쁘장해서 인기가 많은 빛나리가 보였다 같은 일진이라 안면이 있는 애였다.

아마 빛나리가 이정우를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아이가 정우곁에서 알짱거리는걸 혼내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 듯 했다.

대충 상황파악이 되자 흥미가 떨어진 지훈은 자리에 일어나 가버릴려고 마음을 먹었을때였다.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타박타박 걸어왔다.

꽤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였다. 허나 꽤나 이쁘다고 하는 여자애들을 질리도록 본 지훈은 여러여리하게 생긴 저 여자애가 어느

정도 버틸까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강단이 있는지 쫄지도 않고 당당히 서 있는 여자아이가 조금은 감탄스러웠다.

겁을 주는 말에도 그 애는 전혀 쫄지도 않고 딱박딱박 대꾸를 하는게 대견하긴 했으나 조건만 쥐어터질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애들이 달려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까지도 느긋하게 가방을 내리더니 가방을 뒤적여 단단해 보이는 쇠막대를

꺼내들었다.

일대 칠이라 핸디캡은 줘야되지 않냐면서 막대를 휘두르자 막대가 길어졌다.

오호~ 지훈은 흥미가 생겼다.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 등뒤쪽을 보호하더니 달려드는 여자아이들에게 얼마나 재빠르고 정확히 급소를 노려 내리치는지 지훈은 감탄이 나왔다.

놀라기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인 듯 했다. 우왕좌왕하더니만 그래도 쪽수가 있는지 비등해지는 듯했다. 뒤쪽에서 한 계집애가 돌을 집어다 던졌다.

이마에 맞고 피가 흐르고 그 애가 휘청거리자 잠시 주춤하더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르르 몰려들어 밟기 시작했다.

맞는 그 와중에도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몸을 보호하는 모습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버틸지 궁금한 지훈이었다.

누가 싸우는걸 보고 학주에게 일렀는지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욕을 하며 때리던 여자아이들이 도망을 가고, 학주올때 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그여자애 허겁지겁 물건을 챙겨들고 엉기적 거리며 지훈이 있는 나무뒤로 왔다.

지훈을 발견한 애는 놀라는 듯 보였다. 학주가 다가오자 지훈은 얼른 그애를 잡아가 끌고 조용히 시켰다.

학주가 가고나자 그애는 투덜대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바닥에 놓는걸 보는 순간 지훈은 어이가 없었다.

거울과 비상약품을 꺼내든 애는 바닥에 거울을 놓고 이마가 터진부위에 피가 나오는걸 지혈하려는 듯했으나 고개를 숙이고 하자니 불편해 보였다.

그러다 생각난 듯이 지훈쪽을 쳐다보더니 거울을 지훈에게 건넸다.

뭘하란 말인지 어리둥절해 있는 지훈에게 한심하고 짜증난다는 듯이 지훈의 손에 거울을 쥐어주고는 높이까지 맞추고는 치료를 하였다.

얼떨결에 거울을 들어주었지만 지훈은 어이가 없고 황당했다.

능숙하게 대충 치료를 끝낸 아이는 비로소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입까지 벌리고 뺨을 잃고 지훈을 쳐다보자 지훈은 별수없는 여자애란 생각이 들어 일부러 재수없으니 그만 보라고 통박을 쳤다.

그말에 정신을 차린듯 했으나 전혀 개의치 않는 듯이 자기가 본 남자중 두번째로 잘생긴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놓고 두번째란 말에 웬지 기분이 나빠지는 지훈이었다.

두번째라고 되묻는 말에 그애 한심하다는 듯이 세상은 넓고 잘생긴 사람도 많다며 위로의 말을 해 주었다.

괜히 머쓱해진 지훈이 비상약은 늘 챙겨들고 다니냐고 물으니 그 대답또한 가관이었다. 오랜 따생활의 노하우라며 당당히 말하던

그애는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며 쪽 여기서 있었냐고 물어봤다.

그렇다고 대답하니, 그애는 지훈의 몸을 쓱 훑어보고는 한심하다는 듯이 친절히 말해주었다.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을 불러오거나 신고라도 하라는 말이었다.

이말을 끝으로 가방을 메고 일어서 가버리는 그애의 모습에 지훈은 그말뜻을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졸지에 겁이나 숨어있는 겁쟁이로 되어있었다.

재밌어도 너무 재밌는 아이였다.

지훈은 너무 웃겨서 큰소리로 웃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기분 나쁜듯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그애를 보자 지훈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고나자 지훈은 태어나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였다.

그러고 나니 그 여자애의 이름이라도 알아둘꺼란 생각이 들면서 웬지 아쉬웠다.

그 아쉬움은 다음날 원래는 잘 가지도 않는 급식실에서 다시 그애를 발견했다.

이마에 반창고를 크게 붙여 눈에 더 띄었다.

식판을 들고 둘레둘레 살펴보던 애가 가서 앉는 자리는 어제 싸우던 그 여자애들 틈이었다.

그 속에 배짱 좋게 앉아 밥을 먹는 모습에 지훈은 슬며시 웃음이 지어졌다.

그애 빛나리와 몇마디 말을 주고 받더니 빛나리에게 뺨을 맞았다. 그 모습을 보자 지훈은 웬지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맞고 있을

애가 아니었다. 바로 되받아 뺨을 내리치자 지훈은 그럼 그렇치란 생각이 들었다.

웁션으로 옆에서 달려드는 여자아이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 나가버린 뒤에도 혼자서 곳곳이 밥을 먹고 있었다.

지훈은 그애와 가까워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싶었다.

지훈이 맞은편에 앉자 그애 자신을 쳐다보더니 관심없다는 듯이 밥을 다시 먹었다.

명찰을 보니 이름이 최인형이었다. 최.인.형.이란 이름이 크게 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어제 만난 자신을 잊어먹은 것일까? 나를 존재감에 자신있었던 지훈은 자신에게 무관심하게 고개 돌려버리는 인형에게 말문이 잠시 막혔다.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어젠 맞아서 제정신이 아닐수도 있겠다란 생각에 자신을 모르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알지 않냐란 얼굴로 나무뿔 찌질이 아니냐며 대답했다.

지훈은 너무 재밌었다. 저 조그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상을 초월했다.

자꾸 말을 걸고 싶었다. 정말 자신을 모르는 걸까? 전학생일까? 갖은 궁금증도 생겨났다.

밥을 다 먹은 인형이 식판을 들고 미련없이 일어나자, 도리어 지훈이 다급해졌다.

꼬맹이라며 도발을 했지만 잠깐 울컥하는 것 같더니 이내 자리를 떠버렸다.

사라지는 뒷모습을 아쉽게 쳐다보다 눈을 돌렸는데 이정우란 눈이 마주쳤다.

처음봤을때부터 무척이나 냉정하게 생기고 어쩐지 눈길을 잡아끄는 듯한 외모를 가진 놈이었다.

지훈을 노려보는 정우의 눈길이 사나웠다. 아마도 정우란 놈도 인형에게 마음이 있는 듯 했다. 아니면 저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볼 일이 없었다.

다른때 같았으면 저런 눈길로 쳐다보는 놈을 그냥 돌리가 없는 지훈이었지만, 왠지 인형과 관계 있는 인물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내 먼저 눈길을 거두었다.

지훈이 누군가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본 사람은 그것도 여자로는 인형이 처음이었다.

지훈은 일단 정우란 놈 부터 알아봐야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오후 모집을 내리고 꼭 이정우도 참석시키라고 했던 것이었다.

지훈은 정우를 주위깊게 살펴 보았다. 술마시는 내내 정우란 놈은 딴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다.

말수도 별로 없는 모양인데도 묘하게 눈길을 끄는 놈이었다.

지훈이 알아 본 바론 좀 까칠한 면은 있는 듯 했지만, 대체로 평판이 좋았다.

여자관계는 병적으로 깔끔한 놈이었다.

빛나리가 일년 넘게 목을 메고 있는데도 눈길한번 주지 않는 놈이었다.

저런놈이 마음주면 무섭게 주는 법이었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지훈은 앞으로 종종 마주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술잔을 들어보였다.

화장실을 가는 듯 해서 이야기나 해 볼까 해서 지훈도 같이 일어섰지만, 정우는 가게를 나서는 듯 했다.

괜히 정우의 신경을 긁고 싶었다.

굳이 따라나가서 종종 보자란 말을 해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수호와 홍기는 정우가 사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

옆으로 어제 본 스포츠카가 지나갔다.

"어? 어제 그 차다~ 이야~ 낮에 보니 더 멋있네.."

홍기가 감탄을 하였다

수호도 속으로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나저나, 난 최인형 개가 무서워 지려고 한다..갈수록 이상해..근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찌따같이 굴었지?"

홍기가 머리를 가웃거리며 말했다.

"뭐. 이유가 있었겠지. 암튼 정우앞에서는 말 조심해."

수호는 홍기가 인형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걸 알기에 충고해줬다.

"니가 보기에도 정우녀석 완전 인형이 한테 훌쩍 빠진거 같지? 뭐 침에는 재수없었는데. 어제보니깐 좀 괜찮은 구석도 있더라.

암튼..정우녀석이 드디어 이성애 눈을 뜨는 걸까? 으하하~ 드디어 우리한테도 봄바람이 부는 구나 ~ 앗싸"

정우가 여자애들이랑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걸 알기에 늘 시커먼 남자놈들만 어울려 다니는게 불만이었던 홍기는 금새 신이 났다

.

그런 홍기를 보자 수호도 웃음이 나왔다.

"어! 재 인형이 아냐? 재가 왜 저차에서 내리지?"

홍기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쪽을 쳐다봤다.

수호도 그쪽을 쳐다보니 인형이 어제 본 스포츠카에서 내리고 있었다.

운전석 쪽 남자도 내려서 물건을 인형에게 건내주고 있었다.

어제 저녁에 볼때도 잘생긴 남자 같았지만, 낮에 본 그 남자는 놀랄만큼 잘생긴 남자였다.

인형에게 뭔가 투덜대는거 같았지만, 인형에게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다정했다.

웃고있는 인형이와 몇마디 더 주고 받은 후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곤 다시 횡하니 가버렸다.

사라지는 차를 보며 인형은 열심히 손을 흔들며 주고 있었다.

"저 남잔 누구지? 최인형 저거 양다리 아냐?"

홍기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인형이를 노려보았다.

고개를 설래설래 저으며 수호는 인형을 불렀다.

수호의 목소리를 들은 인형은 반갑게 웃으며 폴짝 뛰어왔다.

"얘 방금 같이 차 타고 온 남잔 누구냐?"

홍기는 인형이 오자마자 불만스럽게 물었다

"어? 봤어? 우리집 막내아들"

"막내아들? 오빠야?"

수호가 물었다.

"응. 잘만났다. 홍기야 넌 이거 들고 먼저 정우집으로 올라가. 수호랑 나랑은 시장좀 봐서 들어갈께"

"이아~ 너 오빠도 있었냐? 혹시 언니나 여동생은 없냐?"

홍기는 오빠란 말에 금새 풀어져서는 급 관심을 보였다.

"왜?"

"아니 니네 오빠 닮은 언니나 동생 있으면 정말 이쁘겠더라"

"사람보는 눈은 다 같구나... 쩌.. 아쉽지만 남자형제만 있다. 홍기야 만약에 있다하더라도 이 교제 난 반델세"

"뭐? 우씨 내가 어때서?"

"흥~ 내가 원래 꿈한 스타일은 아닌데. 니가 나를 여지껏 갈구던걸 생각하렴, 이거 들고 얼른 올라가. 수호야 얼른 가자"

인형은 들고있던 쇼핑백을 홍기의 가슴에 안기고 수호를 잡아당겼다.

"이건 뭔데?"

불만스럽게 물어보는 홍기에게 인형은 하늘이 선물이라며 수호와 가버렸다.

수호와 마트에 들른 인형은 어제 저녁 집에서 적어온 메모지를 살피며 꼼꼼히 장을 보기 시작했다.

인형의 뒤를 따르던 수호는 똑 소리나게 장을 보는 인형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어찌나 이것 저것 많이 사던지 수호는 걱정도 되기도 했다.

"뭘 하려고 이렇게 많이 사?"

"응. 어제 하늘이 보면서 배가고파서 밥을 먹으려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더라. 애보는거 힘들텐데 먹는거라도 잘 먹어야 할텐

데.. 암튼. 밑반찬도 해주고, 두고 먹을 수 있는것도 해 놓을려고"

"반찬 할 줄 알아?"

"왜? 못할꺼 같아? 걱정마, 이런일은 어릴적 부터 이골이 났으니깐"

자신만만해 보이는 인형이었지만 수호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해산물코너에 와서 꼼꼼히 살피며 이것 저것을 사고 , 정육점 코너에 들어서 갈비까지 사자 수호는 불안해 지지까지 했다.

그리고 이 많은 것을 어찌 들고 간단 말인가.. 수호는 그만 말려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수호의 어두워지는 얼굴을 보니 인형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걱정하지마 수호야, 물건 당장 필요한 것만 우리가 들고 가고, 나머지는 배달시키면 돼~ 하하하 저녁에 맛있는거 해 줄테니깐

감동이나 하지 마셔~"

재빠르게 장보기를 끝낸 인형이 계산을 했다.

"너 그렇게 많은 돈 써도 돼? 내가 얼마 낼게"

금액이 많이 나오자 왠지 미안한 수호가 말했다.

"하하~ 걱정안해도 돼, 큰 오빠가 돈을 잘 벌기 땀에 용돈은 풍부하거든. 나중에 정우녀석한테 다른거라도 다 받아 널테니 걱정

마셔"

인형은 속이 깊은 수호가 기특했다.

하긴 인형의 오빠가 타고오던 차를 생각하자 수호는 고개가 꺾여졌다.

장보기를 끝낸 인형은 일단 필요한 것들만 들고 수호와 택시를 타고 정우의 집에 도착했다.

정우는 아마 밤에 아기를 보고 아직도 자는 듯 했고, 베이비 시터는 아기를 보고 있었다.

이젠 베이비시터 차례였다. 인형은 하늘이가 자는 것을 보고 거실로 베이비시터를 불러 어제부터 베풀던 이야기를 했다.

"아니? 학생이 뭔데 나보고 관두라고 그래?"

"저요? 전 정우 사촌인데요"

"아무리 사촌이라도 그렇치 정우학생도 가만히 있는데 왜 학생이 나서? 나참 기가막혀서"

"아주머니, 저도 아주머니만 아기 잘 보셔도 이런말 안해요. 하지만 아주머니 하늘이 베게랑 이불이랑 때가 꼬질꼬질한데도 제때

갈아주셨나요? 그리고 우윳병 소독도 마찬가지로요. 우윳병에 분유덩어리가 묻어있더군요. 잘 씻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암튼

오늘까지 수고하셨구요. 미리 받으신거 계산 정확하게 해서 남은 기간꺼는 돌려주셨으면 해요"

"아니 트집잡는걸로 부족해서 돈을 돌려달라니?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딴어?"

"트집이라니요. 이러실까봐 저 어제 사진으로 다 증거 남겨뒀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주머니가 잘못하셔서 관두는 건데 당연히 돈은 돌려주셔야지요"

"아니.. 뭐? 암튼 관두라고 먼저 말한건 그쪽이니깐 난 돈 못돌려줘 그리고 돈은 회사로 들어가는 거지 난 월급받는 사람이야"

"아~그래요? 그럼 회사에 연락하는 수 밖에는요. 제가 찍은 사진들 모두 그 회사 홈페이지에 올릴꺼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사에도 제보할꺼예요. 알았으니 이만 가보세요. 전 회사랑 이야기 하죠"

얼떨결에 부엌식탁으로 쫓겨나 이상황을 지켜보던 수호와 홍기는 혀를 돌렸다.

인형이 남다른 건 알았지만 사진까지 찍어놓고 아줌마를 협박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지는 몰랐다.

회사이야기를 하며 발뺌하려는 아줌마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인형은 말을 하고 일어서니 도리어 아줌마가 당황을 하였다.

결국은 아줌마가 돈을 돌려주고 회사에는 말을 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보고 그 베이비시터는 투덜대며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인형이 썰기를 박았다.

"월요일 오후 4시까지 돈 넣으셔야 되요. 일본이라도 늦으면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 회사랑 이야기 할꺼예요"

움찔한 베이비시터는 알았다면서 집을 나갔다.

아줌마가 나가자 얼른 인형의 곁으로 다가온 수호와 홍기는 정말 대단하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거만하게 코웃음을 치며 인형이 브이를 해 보여줬다.

"근데, 그럼 이젠 하늘이는 누가봐?"

수호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헉! 그러네. 아~ 너 이제부터 하늘이 어쩔려고 그래?"

미처 생각하지 못한 홍기가 펄쩍 뛰며 말했다.

"설마하니 대안도 없이 내가 그랬을려구? 조금 이따 베이비시터 면접오기로 했어"

"응? 언제 그걸 다 했대?"

수호는 다시금 놀라서 인형에게 물었다.

"어제 집에가서 사이트 뒤지고, 뭐 아는 사람한테도 좀 물어보고(만능 엔터테이너인 고과장이 사실 고생을 했다) 믿을만 한데서

했으니깐. 일단 봐야지 뭐"

다음엔 음식을 준비할 차례였다.

인형은 수호와 흥기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켰다.

"우씨. 우리보고 할 일 있다더니 식순이 시킬려고 불렀구나. 남자가 가오떨어지게시리.."

양파를 까면서 흥기가 투덜댔다.

"왜? 남자가 부엌일 하면 고추떨어진다고 너도 교육받았니?"

인형이 가소롭다는 듯이 물었다.

직설적인 인형의 말에 흥기는 양파를 툭 떨어뜨렸다.

"아~ 넌 무슨 기집애가. 무슨 말을... 고..에이씨. 말을 말자 말을.."

흥기는 얼굴을 붉히면서 군시렁 거렸고, 수호는 배를 잡고 웃었다.

하지만 둘은 인형이 일하는 거에 비하면 완전 초보수준이었다.

한꺼번에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프로주부를 보는 듯 했다.

똑딱 똑딱 하면 멀치볶음에, 콩자반에 , 우영졸임.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툭툭히 흥기와 수호를 살피면서 악착같이 부려먹었다.

그리고는 원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젠 뭐 만들려고?"

궁금한 수호가 물었다.

"만두"

"엥? 만두도 만들줄 알아?"

흥기가 입을 떡 벌렸다.

"만두가 두고 먹기엔 좋지, 손은 좀 가긴 해도..재료를 다 만들고 치대야 되는데 그건 너희들이 좀 해줘야 된다. "

"근데 너 이런거 다 어디서 배웠어? 혹시 너 집에서 니가 살림하냐? "

홍기는 너무 궁금했다. 하루이틀해본 솜씨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나를 귀하게 살고 있거든. 깊게 알려고 하지마. 다쳐"

인형은 피식 웃으며 갈비찜을 들여다 보러 갔다.

"내말 맞지? 쯤 외계인이 확실해"

홍기가 수호에게 확신있게 말했다.

홍기와 수호는 정말 음식하는 게 쉬운게 아니란것을 몸으로 확실히 느꼈다.

얼마나 독하게 부려먹는지. 인형은 잠시도 자신들이 쉬는 꼴을 못봤다.

하지만 음식이 하나하나 완성될때마다 맛을 보여줬는데, 환상이었다.

정말 음식을 이정도로 할줄을 몰랐던 홍기와 수호였다.

셋이서 신문을 깔고 만두를 빚고 있을 때 정우가 일어나 방을 나왔다.

진동하는 음식냄새에 바닥에 셋이 앉아 만두를 빚고있는 것을 보니 정우는 어리둥절 해졌다.

"뭐해?"

"정우야~ 인형이 진짜 음식 잘한다. 지금 갈비찜도 해냈다. 완전 대박이야 완전대박"

홍기가 정우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었다.

"일어났어? 배고프지 않아? "

인형이 정우를 쳐다보며 말을 건넸다.

"아직은 별로... 근데 이게 다 뭐야?"

"만두란다"

수호는 만두 빚는것이 영 고역이었다.

"수호야, 넌 만두빚는데는 소질이 없나보다. 흥기봐봐, 얼마나 잘 만드나?"

인형이 수호의 만두를 보고 한숨을 쉬곤 흥기를 칭찬해줬다.

생각외로 흥기가 손재주가 있는지 처음한다더니 곧잘 만들었다.

인형에게 칭찬을 받자 흥기는 한껏 우쭐해 졌다.

"그지그지? 이야~ 니들이 봐도 정말 예술적으로 만들지 않냐?"

"그래그래, 너의 숨겨진 재능을 오늘에야 찾는구나. 축하한다. 흥기야"

인형이 맞장구를 쳐줬다.

정우는 마치 소꿉놀이이라도 하는 듯 했다.

인형이 정우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음식을 하는 아내같다란 생각이 들자 기분이 붕뜨고 좋아졌다.

잠에 깨어났는지, 하늘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 초인종이 울렸다.

인형이는 손을 닦고 정우에게 하늘이 좀 보라며 문쪽으로 조르르 달려갔다.

베이비시터가 면접을 보러 온 모양이었다.

인형은 일단 거실로 안내하고 아기방으로 들어가 정우에게 대충 설명을 하였다.

"내 멋대로 결정해서 정말 미안해. 어제 저녁에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지. 그냥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을꺼 같

아서, 내가 일단 일을 저질렀어. 내가 너무 괜한짓 한거야?"

인형이 정우의 눈치를 살폈다.

"아냐, 나로써 고맙지 뭘. 암튼 신경써 줘서 고맙다"

정우는 자신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세심히 살핀 인형이 고마웠고, 자신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인 인형이 가슴 설레이기도

했다.

베이비시터는 인상이 좋은 40대 후반의 아줌마였다.

인형이가 어찌나 꼼꼼히 물어보는지 베이비시터는 진땀이 날 지경이었다.

"아휴~ 꼬마 학생이 엄마줄 알겠네. 호호 "

정우와 수호와 홍기도 마침 그 생각을 하던 차라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 아무래도 사촌동생이라 신경이 쓰여쎄요 그리고, 우리 하늘이 밤낮이 바뀌어서 사실 여기있는 정우가 하늘이 오빠데요.

저녁에는 정우가 하늘이를 봐야하는데 잠을 못자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하늘이 낮에 너무 재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라도

밤낮을 원래대로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정우는 인형의 세심함과 관찰력에 또 한번 놀라고 조그마한 인형이가 왠지 든든해 보이고 의지가 되었다.

베이비 시터를 보내고 난후 인형은 저녁준비를 해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고, 홍기와 수호는 그 많은 만두를 다 빻었다. 사실

절반넘게 인형이가 거의 다 했지만....

인형이 주방으로 들어간 후 수호와 홍기는 정우에게 할 말이 무지 많았다.

전 베이비시터와 한판 한것이 무척 감명깊었던 홍기는 정우에게 낱알이 고해바쳤다.

인형의 저녁메뉴는 해물탕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남자는 눈이 휘둥그레 해졌다.

인형이 국자를 들고 엄숙히 말했다.

"자. 먹자"

정우는 그럴듯은 해 보이지만 반신반의 하면서 한술 떠먹은 해물탕의 맛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시원하고 맛있었다.

인형이 정우의 표정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다.

"맛있지? 내가 잘 하는 메뉴 중 하나야. 많이 먹어. 맨날 라면만 먹지말고, 밀반찬 해놨으니깐. 앞으로 귀찮더라도 국만 끓여서

꼭 밥먹어"

"어? 어..."

허겁지겁 다들 먹는데 열중을 했다.

정우는 얼마만에 먹는 제대로된 집밥인지 몰랐다.

먼저 먹고 일어난 인형이 종이를 한장 들고 다들 먹기를 기다렸다.

음식하는 거 돕느라 배가 몹시도 고팠던 수호와 홍기도 모두 식사를 끝냈다.

"자~ 다들 먹었으니. 사다리 타자. 설겅이 할 사람 뽑자"

"뭐? 여지껏 일해줬는데 설겅이까지 해야돼? 난 한번도 설겅이 해본 적 없단 말야"

홍기가 제일먼저 질책을 했다.

인형은 한숨을 내쉬며 홍기를 쳐다봤다.

"홍기야.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남자는 설겅이 해도 고추 떨어지지 않거든. 커서 결혼하면 아마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지름길이란다."

"쿨럭"

이말을 듣고 물을 마시던 정우가 기침을 했다.

한번 들어본 수호와 홍기는 처음보단 충격이 덜했다.

"그러니 빨랑 번호찍어라"

결국 사다리를 타서 당첨된 홍기는 이건 모함이라며 발악을 했지만, 결국은 어쩔수 없이 설겅이를 했다.

인형이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못내 억울한 홍기였다.

하늘이는 우유를 먹고 또 자는지 조용했다.

"걱정이네 진짜. 밤낮 바뀐게 빨리 돌아와야 할텐데... 암튼 정우야 이거 받아"

인형이 정우에게 조그만 수첩을 건내주었다.

"이게 뭐야?"

"레시피"

"뭐? 그게 뭔데?"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국 위주로 몇개 적어놔어.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깐 꼭 국끓여서 밥 먹어야 한다"

"너 가만히 보면 은근히 밥에 집착한다"

옆에서 흥기가 꺼들었다.

"교육받기를 삼시 세끼 밥은 꼭 잘 챙겨먹고 다녀야 한다는 교육을 이십년 넘게받아봐라. 이렇게 안되나"

"뭐 이십년 넘게? 누가? 니가? 어디서 뽕을 치고 있어. 웃기고 있네"

흥기가 코웃음을 쳤다.

아차싶던 인형은 그냥 머리만 굴적였다.

정우는 수첩을 들여다 보고 있으려니 인형에 대한 고마움과 인형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감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지만 왠지 그 마음이 너무 담백하게 느껴져서 정우는 인형의 마음을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인형의 핸드폰이 울리고 인형은 전화통화를 끝내고는 집으로 가야겠다며 일어났다.

괜찮다는 인형을 정우는 아래까지 내려다 준다며 같이 일어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형은 계속 정우에게 밥을 꼭 챙겨먹어야 된다며 종알종알 잔소리를 했다. 정우의 눈에는 말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우의 눈에는 인형의 입술만 자꾸 보였다. 저 입술에 입을 맞추면 어떤 기분일까란 생각이 자꾸 들어 정우는 인형의 입술에 눈을 땔수가 없었다.

한참을 말하던 인형은 대답이 없는 정우의 얼굴을 쳐다봤다.

멍하니 자신을 쳐다보며 탄생각에 잠긴듯 약간은 붉어진듯한 얼굴에 인형은 정우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내말 듣고 있는거야? 내가 입아프도록 이야기 하는데 넌 딴 생각하는 거야?"

순간 정우의 입술이 인형의 입술에 내려앉았다.

인형은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일층에 서고 문이 열리자 정우는 입술을 떼며 말했다.

"너무 시끄러워. 한번만 말해도 난 다 알아 듣거든"

정우가 싱긋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정우는 인형이 얼굴이 가까이 오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말하는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막아버렸다.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인형의 입술에는 오렌지 냄새가 났다.

입술을 갖다 대기만 했을 뿐인데도 정우는 가슴이 벅차 올랐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다. 일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정우는 아쉬웠지만 입술을 떼었다. 인형은 너무 놀랐는지 정지화면처럼 굳어져 있었다.

웬지 그 모습을 보자 정우는 인형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첫키스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입술에는 미소가 걸렸다.

정우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형의 손을 잡아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렸다.

인형은 생각지도 못한 정우의 키스에 반쯤 정신이 나간 듯 했다.

정우를 쳐다보니 정우는 인형을 보고 싱긋 웃고 있었다. 정우의 웃는모습은 인형으로서는 처음이었다.

얼굴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을 정도로 정우의 얼굴은 미소하나로 냉기가 뚝뚝 흐르던 눈가에는 다정함이 흐르고 갑작스레 변한 얼굴에 인형은 정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인형은 정우에게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무슨 뜻이야? "

"나 너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 너 좋아해"

정우는 인형의 눈을 쳐다보며 고백을 했다.

정우의 고백에 인형은 더욱 더 당황했다.

"오~ 정우야 난 .니가 날.. 너무 갑작스럽고,,,"

"지금 당장 대답해 달라는 거 아냐. 일단 늦었으니 집에 가고 빠른 시일 내 대답해줬음 좋겠다."

인형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겪은 나머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허둥지둥 정우와 헤어져 리현이 기다리고 있는 차에 올라탔

다.

리현은 차에 타서부터 한마디도 없이 생각에 잠겨있는 인형이 수상했다.

친구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아침부터 친구 늦둥이 동생 선물 줄꺼라며 리현을 백화점에 같이 가자며 조르고, 물건을 골라 친구집까지 데려다 줄때만 해도 기분이 좋아 보이던 인형이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각해 보이는 인형이 리현은 걱정스러웠다.

"친구집에서 무슨일 있었어?"

리현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 뭐라했어?"

인형은 못들었는지 다시 되물었다.

"오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더니만 지금은 아주 땅을 파서 들어가니깐 묻는거야. 무슨일 있지?"

"아냐.. 일은 무슨. 그냥 생각할게 좀 있어서 그래"

의심스러워 하는 리현에게 웃어보이며 인형은 돌려댔다.

리현의 유도심문에도 넘어가지 않고 인형은 피곤하다면서 얼른 방으로 들어왔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털썩 누운 인형은 정우의 고백을 다시 생각했다.

인형은 정우가 좋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친구로써 좋은 것이지 다른 감정은 없었다. 그러나 정우가 키스를 할때는 사실 입만 대고 있었던 거지만, 인형은 놀라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했다.

정우의 입술은 생김것 같지 않게 따뜻하고 맞대고 있는 입술이 살짝 떨릴정도로 정우의 긴장이 다 전해져 왔었다. 덕분에 인형도 같이 긴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닌것은 아니것이였다. 인형은 정우에게 확실히 거절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근사하게 웃던 정우의 웃는 표정이 떠오르자 인형은 가슴이 답답해져왔다.

'안그래도 복잡한 인생에 왜 멋진 연하놈까지 날 힘들게 하는 걸까...지금 내가 연애할 팔잔가.. 난 미국갈 방법을 생각해야돼..

그래. 잊지말자 미국. 동하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되지. 그래.....정우야 넌 멋진 놈이니 나 아니더라도 너 좋다는 여자

많이 생길꺼다.. 그나저나 도데체 나의 어디가 좋은거지? 나도 매력이 있긴 있나보네.'

혼자서 침대를 덩굴며 끙끙대던 인형은 일단 자는 게 남는거란 생각에 씻고 자기로 마음을 먹었다.

월요일 무거운 마음을 안고 등교를 한 인형은 아직 오지 않은 정우의 자리를 보자 한숨부터 나왔다.

정우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은 인형을 찾고있었다.

인형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안녕? 좋은아침"

인형은 머리위에서 들리는 정우의 다정한 목소리에 벌써부터 긴장이 되었다.

"아... 그래.. 좋은 아침.."

정우의 얼굴을 쳐다보니 정우가 싱긋 웃었다.

'헉! 저놈이 뭘 잘못먹었나.. 차라리 인상을 써라.. 사람 적응안되기시리.. 아 정말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는 진리가 또 여기

서 증명이 되는구나'

꽃을 풀풀 날리는 정우의 얼굴을 보자 인형의 부담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수호를 비롯한 반 아이들도 정우의 행동에 헉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천하의 얼음왕자 이정우가 저렇게 웃으며 인형에게 사근 거리는 것은 그야말로 대박뉴스 중에도 대박뉴스였다.

이 와중에도 정우는 시선들이 자신들에게 몰리는 건 알았는지 아이들에게 인상을 확 쓰는 센스를 보여 줬다.

한결 아이들 시선에 자유로워진 인형은 이 난관을 어찌 헤쳐나갈지.. 걱정이 되었다.

누가봐도 이정우가 최인형에게 꽃힌거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삼시간에 이정우와 최인형의 핑크빛 연애설은 널리널리 퍼져나갔다.

정우의 태도로 인형은 당연히 정우의 여친이 되어있었다.

수호는 생각해 보니 어쩐지 그날 저녁 인형을 바래다 주고 온 다음부터 정우가 왠지 기분이 좋아보였다.

정우는 들떠있는거 같은데 인형의 표정은 세상근심을 다 짊어진 표정이 맘에 걸렸다.

웬지 예감이 좋지 않는 수호는 정우를 걱정스레 쳐다봤다.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인형을 힘들게 하는 일이 점심시간때 또 생겼다.

요 근래들어 입맛이 제일 없는 인형은 앞쪽에 앉은 정우의 뜨거운 눈길을 받으며 밥을 깨작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인형의 옆에
앉아있는 수호를 톡 쳤다.

수호가 돌아보니 지훈이었다.

"내가 그 자리에 좀 앉았으면 하는데"

수호는 정우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비켜줬다.

지훈은 인형의 옆에 앉아 인형을 쳐다봤다.

인형은 지훈을 쳐다봤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다.

"안녕? 난 한지훈이야. 너보다 한해 선배고"

인형은 지훈의 등장이 별로 반갑지 않았지만 인사를 하면 받아주는게 예의였다.

"네. 안녕하세요. 전 최인형입니다. "

"풋, 이젠 반말 안하네? 난 반말도 맘에 들었는데"

인형은 감을 잡았다.

'이런 쪼잔한 놈 반말한거 땀에 이려고 쫓아다니다니..내가 더러워서 한다 해 '

인형은 지훈을 쳐다보며 생긋 웃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그땐 선배님인줄 모르고 반말을 했습니다.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인형은 인사까지 했다.

"하하하 내가 그렇게 쪼잔한 놈으로 보였나? 반말한거 따지려 온거 아닌데"

인형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지훈을 쳐다봤다.

"?"

"나 너한테 관심있거든"

'엥? 이젠 또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래? '

짱하고 앞에서 정우가 벌떡 일어났다.

"선배님 인형이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헉. 인형은 양쪽에서 폭탄을 마구 터트리니 정신이 없었다.

정우의 말에 지훈은 인상이 확 변했다.

"정말이야?"

지훈은 인형을 쳐다보며 물었다.

인형은 바람난 여편네잡듯 배신감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지훈이 얼떨떨했다.

"뭐 친구죠. 내가 여자니 여자친구도 맞고,..."

얼버무리듯 말하는 인형이 맘에 안든 정우는 이번에는 인형을 노려봤다.

이번엔 정우의 상처받은 눈을 보자 인형은 또 어찌해야 할지 당황이 되었다.

상황을 보던 지훈은 아직 정우 혼자의 맘인 것 같아 다소 마음이 놓여 한결 느긋해졌다.

"인형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한데. 혼자 너무 성급한거 아냐?"

정우를 쳐다보며 지훈은 피식 웃었다.

"나중에 나한테도 시간 좀 내주라. 기다릴께"

지훈은 인형에게 속삭이듯 말하며 인형에게 웃어보이며 자리에 일어났다.

인형은 이상하게 지훈의 얼굴을 쳐다보면 가슴이 후덜덜 거렸다.

급식실을 나가는 지훈의 뒷모습을 멍하니 보는 인형의 손을 정우가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얼떨결에 정신없이 끌려나간 인형을 끌고 운동장 뒷편 소각장으로 정우는 데리고 갔다.

몇몇 남학생들이 있었다.

"다들 꺼져"

정우가 살벌하게 소리치자 다들 눈치를 보며 사라졌다.

"한지훈 좋아해? 그런거야? "

정우가 인형에게 소리쳤다.

"좋아하긴 무슨.. 이제 세번 얼굴 봤구만. 그리고 니가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럼 대답해. 내가 싫어?"

인형은 한숨을 쉬었다.

"싫은건 아니야. 정우야. 나 너 좋아해. 근데 정말 그건 친구로써 좋아한거였어"

"그럼 왜 나한테 잘해주고 신경써준거야? 내가 불쌍해 보여?"

화가 난 정우가 인형에게 소리쳤다.

"어딜봐서 니가 불쌍해 보이니. 그런거 아니야 . 누구든 내 친구가 그런 상황이면 난 똑같이 했을꺼야. 친구니깐"

"젠장. "

정우는 절망스러워 졌다. 인형이 설마 거절할 줄은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이 거절한 수많은 여자아이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지만 자신은 한번도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던 여자애들에게 오해할 만

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정우는 자신을 이렇게나 흔들여 놓은 인형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인형의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절대 놓칠 수 없다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엔 자신의 마음이 어느샌가 너무 인형에게 가버렸다.

이젠 인형을 바라만 보아도 주체할수 없을 만큼의 소유욕이 생겼다.

지훈이 인형의 곁에 올때부터 정우는 어느정도 예감했었다.

지훈이 인형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형에게 관심이 있다고 지훈이 고백을 하자 정우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지훈앞에서 여자친구라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남자가 봐도 매력적이고, 모든 조건을 갖춘 지훈에게 인형이 가버릴봐 정우는 질투가 났다.

그러나 인형은 머뭇거렸다. 다시 자신만만해진 지훈이 인형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사라지고 인형또한 지훈을 났을 잃고 쳐다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우는 화가나 견딜수가 없었다.

인형이 머뭇대더니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정우야 지금은 난 누구와도 사귄 수 없어. 내겐 꼭 만날 사람이 있거든. 그 애를 만나서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비록 그 애는 날 못 알아볼지 몰라도. 그래도 난 그애를 꼭 만나야 돼, 미안해 정우야. 너의 마음 못 받아줘서. 하지만 정말 친구로써는 널 잃고 싶지 않아. "

정우가 인형을 쳐다보니 인형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었다.

인형의 눈물을 보니 정우의 가슴이 찢해졌다.

"그애가 누구야?"

"내 분신 "

정우는 예전에 인형이 말하던 꿈에서 만나서 고맙다고 하던 그 애가 생각났다.

"혹시 남자야?"

"응 남자"

"좋아하는 남자야?"

"아니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상처를 줬어. 난 버리게 아닌데 아마 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꺼야.. 난 그애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돼,"

애절한 표정으로 말하는 인형의 표정에 정우는 압담해 졌다.

"어떤 사이였어?"

"훗~ 아마 말하면 내가 미친사람될걸, 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그앤 이제 6살이야. "

경직된 얼굴이 한결풀린 정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그 애 만나고 나면 나 받아줄 순 있는거야?"

인형은 애절하게 쳐다보는 정우의 눈을 보자 안된다란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다.

혼자하는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인형이 아닌가.. 인형은 정우를 차차 설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건 그때 가 봐서 생각할꺼야. 너 하는거 봐서"

약간은 장난스런 말투로 인형은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너 좋아하는 마음 변하지 않을꺼야 난, 잘해줄께 인형아"

그러나 진지한 태도로 서약이라도 하듯 정우가 대답했다.

저런 닭살스런 말을 술술 꺼내는 정우를 보자 인형은 사람이란 정말 꺾어봐야 안다는 말이 절실히 다가왔다.

냉기 뚝뚝흐르며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던 정우 입에서 저런 멘트가 나오다니. 인형은 정말 정우가 걱정되었다.
만약에 자신으로 인해서 정우의 마음이 다칠까봐..

인형은 혼자서 터덜터덜 교실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정우는 기다릴수 있다며 그때까지 인형이와는 친구로 지내기로 약속을 하였다.

정우는 좀 더 있다 가겠다고 인형을 먼저 보냈다.

그러나 인형이는 이 방법이 정말로 최선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인형의 앞을 막았다.

빛나리였다. 인형은 한숨이 나왔다.

'아~ 정말 오늘 날 잡았구나,, 아주 줄줄이 폭탄 투하를 하는구나'

"잠깐 이야기 좀 해"

인형은 빛나리와 함께 음악실로 향했다.

둘은 음악실 창문가 책상에 걸터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정우랑 정말 사귀는거야?"

인형은 빛나리를 쳐다보았다. 빛나리의 그 거만하고 당당한 모습은 없었다.

"정우 처음 본 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어.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졌어. 왜 좋은지 이유는 나도 몰라. 웬지 몰라 그냥 그

날 부터 정우만 보였어. 따라도 다녀보고, 자존심 버려가며 먼저 고백도 했어 근데 정말 꿈적도 안하더라. 근데 그나마 위안이

됐던거는 다른 여자애들한테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언젠가는 나 봐주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최인형 . 정말 부탁할게.

나 정말 정우 좋아해. 정우 놔주면 안돼?"

빛나리는 간절한 표정으로 인형을 쳐다보았다.

인형은 빛나리의 마음을 이해했다.

인형은 빛나리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빛나리야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좋아지는 건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그리고 이제부터 마음 접어야지

한다고 또 마음대로 접어지는 것도 아니지.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아닌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보게 되거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기 때문인가봐. 나도 그랬거든...."

빛나리는 인형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었다.

"정우가 고백한건 맞지만, 아직 사귀는 건 아니야. 나도 정우 좋아해 물론 친구로써. 막무가내로 밀어내는 것도 방법이겠지. 하

지만 매일매일 얼굴보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써는 서로에서 너무 큰 상처를 줄 뿐이야. 그래서 정우를 내 칠 수 없었어. 차차 알

게해줄꺼야. 내가 친구로써 더 매력있다는걸. 하하하"

"결국은 정우랑 계속 붙어다니는 거야?"

빛나리는 침울한 표정으로 물었다.

"응.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차라리 너랑 나랑 친구 먹는건 어때?"

"뭐?"

"나랑 친구하면 너두 자연적으로 정우랑 친해질꺼고, 그리고 너도 가까이서 정우를 보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질지. 아니면 정우녀

석이 너의 미모에 훌쩍 넘어갈지도 모르지. "

"하지만, 너 나 싫어하잖아"

"넌 나 좋아해? 애들이 왜 싸우면서 크는줄 알아? 애들은 어른들과 달리 감정에 충실하거든, 그러다보니 싸우게 되는거고 그러면

서 서로 서로 장단점도 알고 조율해 나가는 거지. 싫어?."

"좋아. 그런데 넌 생긴것과 달리 어째 말하는게 꼭 꼰대같다."

잠깐 생각해 보던 빛나리가 대답했다.

"하하 그런말 좀 많이 들어.. "

"근데 너도 짝사랑해본 적 있어?"

"어.. "

"어떻게 됐어?"

인형은 빛나리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이 이야기를 할려면 멘정신으로 절대 못해...나중에 한잔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자"

"너 술도 마실줄 알아?"

예상외라는 듯한 빛나리의 반응을 보자 인형은 웃음이 나왔다.

"글쎄 요근래는 안마셔봐서 모르겠는데. 그만 나가자. 점심시간 끝나겠다. "

빛나리는 요근래란 말에 도대체 알수없는 인형이란 생각이 들자 머리가 설레설레 저어졌다.

빛나리는 인형을 몇번 만나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솔직하고 털털하고 엉뚱한 성격이 밍지 않았다. 아니 친구로 지내면 재미있을

것도 같았다.

인형이와 빛나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각자 교실로 향했다.

인형은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다.

교실에는 아직 정우와 다른 아이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끝날무렵 정우와 수호를 비롯한 아이들이 들어왔다.

정우의 얼굴은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흥기조차 조용한 것으로 보아 정우가 일단 정리를 해 준 것 같았다.

인형은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젠 마지막 문제인 한지훈이란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급식실에서 수호나 다른 아이들이 각듯이 대하는 것으로 봐서는 인형이 생각한것과는 달리 꽤나 한가닥 하는 인물인 것 같았다.

암튼 너무 정보가 없었다. 인형의 머리속에 전등이 켜졌다.

'그렇치, 친구좋다는게 뭔가. 역쉬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젤로 중요해.'

인형은 재빨리 빛나리에게 문자를 날렸다.

빛나리에게 답장이 이내 왔다.

수업이 끝나고 인형이 가방을 메고 일어서는데 정우가 말을 건넸다.

"집으로 가는거야?"

"아니 약속있어. 왜?"

정우의 머릿속에는 지훈이 떠올랐다.

"누구?"

정우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자 인형은 재빨리 대답했다.

"빛나리 만나기로 했어"

"뭐? 또 너한테 무슨 짓 할려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

"아냐아냐. 빛나리랑은 친구하기로 했어. 걱정안해도 돼. 친구된 기념으로 떡볶이나 먹으러 갈꺼야"

"뭐? 진짜야? 히야 ~ 이건 또 뭔 소래래? 며칠전만 해도 둘이 싸우더니"

옆에서 흥기가 끼들었다.

"언제 친구하기로 했어?"

수호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오늘부터, 그럼 나 먼저 간다. 정우야 널보자. 모두 널 보자"

인형이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정우가 인형의 뒤를 따라나왔다.

"인형아 잠시만"

정우가 인형이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니번호 찍어줘"

인형이 정우핸드폰을 받아 번호를 찍고 돌려주었다.

정우가 번호를 누르자 이내 인형의 핸드폰이 울렸다.

"내 번호야. 무슨일 있음 전화해"

정우가 인형의 얼굴을 쳐다보다 씩 웃었다.

확실히 정우의 웃음은 백만불짜리 다리보다 나왔다.

인형은 흥미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빛나리를 만나러 부랴부랴 약속장소로 향했다.

인형의 눈에는 빛나리와 빨강머리 둘이 분식점에서 인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형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빛나리가 어떻게 말했는지 그래도 어느정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 통성명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빨강머리의 이름은 은주였다. 쿨한 성격의 인형은 은주에게는 더 특별히 손까지 꼭 잡아주었다.아주 꼭~~

"한지훈? 진짜야? 소문은 들었지만...설마했는데. 정말 대박이네"

빛나리가 이맛살을 지푸리며 말했다.

"헛! 너 정말 바빴겠다. 여기저기 꼬리치느라"

은주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은주가 어찌나 툭툭거리는지 어째 은주에겐 흥기의 냄새가 났다. 속으로 인형은 웃음이 나왔다.

"그러게. 안그래도 복잡한 인생사에 요즘 도화살이 켜는지 아주 주위에 꽃돌이들이 넘쳐난다."

인형이 떡볶이를 한입에 구겨넣으며 탄식을 했다.

"지훈오빠 멀리서 보면 딱 좋은 스타일이잖아"

빛나리가 입을 열었다.

"멀리서?"

"인물좋지, 돈많지, 싸움잘하잖아"

은주가 대답했다.

"와우~페펙트네. 가까이서 보면?"

인형이 물었다.

"여자관계 복잡하고, 성질더럽고, 사고처도 돈으로 해결하지"

"안하무인이야"

은주가 대답하고, 빛나리가 정리해 줬다.

"브라보~ 그런놈이 뭐가 아쉬워 나한테 작업질이래?"

잠시도 쉬지않고 우물거리며 먹으면서 의아한 듯이 인형이 물었다.

"나도 그게 정말 궁금해. 지훈오빠. 먼저 작업하진 않거든. 오는 여자 안막고, 흥미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데. 뭔 일 있었어?

둘이?"

빛나리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은주도 같은 눈초리로 은형을 쳐다봤다.

"뭐 그날 처음 본날 좀 막말을 하긴 했지"

"그날?"

"니들한테 터진날. 니들 가고, 학주 피해 나무 뒤로 나도 숨었는데, 그 지훈인가 하는 놈이 나무 뒤에서 숨어서 쪽 구경만 했나

보드라구, 그래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몇마디 해줬지. 반말로. 선뎌줄 알았나? 암튼 그게 쏹해서 저런건가?"

인형은 다시 생각해도 성질이 났다.

"너 안맞았냐?"

은주가 입을 딱 벌리고 놀랍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 그냥 웃던데. 그래서 이렇게 해줬어. "

인형은 가운데 손가락 까지 들어보여줬다.

"헉"

둘은 얼굴이 노랗게졌다.

"너 찍힌거야. 빛나리아, 난 재량 친구하는거 다시 생각할래. 이러다가 우리까지 찍히면 어떻게. 난 절대 사양이야. 그만 가자"

은주가 가방을 주섬 주섬 챙기며 빛나리의 팔을 잡아당겼다.

빛나리도 어째 동요하는 눈치였다.

"동작그만! 늦었어. 아까 학교에 니들하고 친구먹었다고 소문 짝 내고 왔어. 벌써"

인형이 담담히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그러니깐. 그냥 대책을 같이 강구하는게 어떨까? 친구들아~~"

인형은 사랑살랑 애교를 폈다.

가방을 툭 떨어트린 은주가 소리질렀다.

"내가 그랬지. 처음부터 재 이상한 애라고~"

집으로 돌아온 인형은 빛나리와의 대화를 다시 생각했다.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훈오빠라 일단 그냥 지켜보자. 암튼 넌 생긴것과 달리 무지하게 사건사고 몰고 다니는구나."

빛나리의 말대로 요즘들어 사건사고가 줄줄이 붙어 나는것 같은 인형이었다.

지훈을 어떻게 해야될지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하던 인형은 해결책은 하나 밖에 없다란 생각이 들었다.

두주먹을 불끈 쥐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처럼 인형은 외쳤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는거야. 내일의 해는 내일 뜨는 거야~"

한결 개운해진 인형은 양평택이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했는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아랫층으로 내려갔다.

생각외로 며칠을 지훈은 잠잠했다.

학년도 다르거니와 빛나리의 말로는 며칠 결석이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인형은 원래 뛰어난 친화력을 발휘하여 빛나리와 그 패거리 친하게 지냈다.

또한 정우의 변화도 놀라울 정도였다.

정말 인형에게 잘해준다는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인형에게는 말랑말랑한 솜방망이요. 하늘하늘 깃털같이 나긋하고, 다정히 대 해주었다.

그러나 인형을 제외한 다른이들에게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냉기가 뚝뚝흐르는 지라 더욱 티가 나는 정우였다. 이런 정우가 인형은 처음에는 흠칫 놀랄 지경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빛나리는 인형의 반에 가끔 들락거렸지만(사실 인형보단 정우를 보러 오는 것 같았다) 정우는 빛나리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아 빛나리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아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빛나리였다.

빛나리와 인형이 친구였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게되었기 때문에 반 아이들은(특히 여자아이들) 인형을 무시하던 눈길은 사라졌다. 대신에 약간 인형을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정우의 변화에 인형에게 부러움과 시샘어린 시선을 보냈다. 이런 반응은 인형으로 하여금 한숨이 나왔지만, 더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

체육시간을 앞두고 인형은 매점에서 빛나리와 은주를 만났다.

사이좋게 빵을 나눠먹던 이들 앞에 키가 크고, 성깔있게 생긴 특히 가슴이 어찌나 발달하였는지(인형은 자신의 가슴을 한번 내려다 보고, 약간의 부러움을 느꼈다) 여자 아이가 나타났다.

명찰색깔을 보니 삼학년 선배였다. 빛나리와 은주는 그 여자애를 잘 아는지 뽀뽀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숨기곤 깍듯이 인사를 했다.

어쨌든 선배가 아닌가. 인형도 살짝 고개 숙여 보였다.

그 여자아이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인형을 한참 노려보더니 이내 몸을 돌려 가버렸다.

웬지 그 눈길이 찻잔인 인형이었다.

"아 씨발. 재수없어"

뺨을 내던지며 은주가 내뱉듯이 말했다.

"젠 누구야? 어째 날 꼬나보고 가는 것 같지 않든?"

인형이 빛나리와 은주를 쳐다보며 물었다.

"노가은 이라는 삼학년 선배데, 한지훈 열렬한 추종자야. 지훈오빠랑 사귀다는 말도 있긴 한데, 우리가 보기엔 본인이 그냥 떠돌고 다니는 것 같아"

약간 머쓱한 표정의 빛나리가 말했다.

"저년 얼마나 재수없는데. 재네 집안이 명성식품 이잖아."

은주가 밥맛 떨어진다는 듯이 말했다

"명성식품? 탕탕라면의 명성식품?"

놀란 인형이 물었다.

"그래. 그 집안 딸이잖아 얼마나 잘난척 하는데, 우리를 완전 지 하녀 취급한다. 그러면서 지훈오빠 앞에서는 완전 사랑거리며

아양떠는데 완전 밥맛이야. 하여튼간에 돈 있는 것들은 꼭 티를 내요. 재수없어. 아 짜증나.."

은주가 방방뛰며 투덜댔다.

"아무래도 지훈오빠가 너 한테 관심가지니, 너가 누군지 얼굴 보러 온 거 같은데?"

빛나리의 얼굴도 찻잔하다는 듯이 그리고 얼마전의 자신의 일을 보는 것 같아 약간 씁쓸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개나리, 학교 끝나고 우리 간만에 고급스럽게 햄버거나 하나씩 땡길까? 오늘은 내가 쏘마~"

인형은 이런 빛나리의 기분을 눈치채고, 활기차게 말을 돌렸다.

"아~ 너 자꾸 개나리, 개나리 그럴래? 이게 죽을라고"

인형과 빛나리가 장난을 치는 사이에 수업시작 종이 울렸다.

"으헉. 큰일 났다. 체육관 까지 가야 되는데. 수업 끝나고 보자~"

종소리를 들은 인형이 허겁지겁 체육관 쪽으로 뛰어갔다.

"푸하하~ 저거 오늘 죽었다. 체육이 얼마나 성질 더러운데 ㅋㅋㅋㅋ~"

뒤에서 은주와 빛나리가 마구 웃었다.

체육관에 나타난 지훈을 보자 지훈을 여지간 해서 가까이 보기 힘든 일학년 여학생들은 연신 훑쳐보고 속닥거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한 반응에 익숙하고 관심도 없는 지훈은 체육관에서 일학년 중 인형을 찾았다.

인형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정우의 싸늘한 눈초리와 몇번 마주쳤다.

오늘 갑자기 영어선생이 수업시간을 바꾸면서 체육으로 대신했다. 그냥 재깁까 고민하던 지훈에게 어릴적부터 친구인 명진이 녀

석이 빙글 거리며 수업에 참여하는게 좋을 거란말을 들었다.

인형의 반과 같이 체육을 한다는 명진의 말에 지훈은 일찍부터 체육관에 와서 인형을 찾고 있었는데, 어찌 된것이 수업이 시작

되어도 아직 체육관에 인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정우놈을 보니 정우도 문쪽을 연신 힐끗 거리는 걸로봐선 결석은 아닌 듯 싶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두반이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다. 출석확인 부터 하자. 결석한 놈 있나? "

체육선생이 두반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때 헐레벌떡 인형이 체육관으로 들어왔다. 후다닥 체육선생앞에 선 인형을 체육선생은 못마땅한 듯이 노려봤다.

"감히 내 수업시간에 지각을 해? 베포가 큰 녀석이구나, 늦었으니 벌을 받아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인형이 연신 굵실거리며 용서를 빌었다.

"오나~ 여기 체육관 한바퀴만 오리걸음으로 걷는다. 그럼 용서해 주마. 실사~"

인형은 체육관을 둘러보았다.

'헉. 여길 오리걸음으로 한바퀴라고? 저 선생 미친거 아냐? '

체육선생의 단호한 얼굴을 보자 인형은 다급히 말했다.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리걸음 대신에 다른 걸로 하면 안될까요?"

"다른거? "

"네. 노래한곡 부르겠습니다"

체육선생이 안된다고 할까봐 인형은 급히 말을 이었다

"노래? 헛! 이자식이. 넌 노래가 별이라고 생각하냐? 넌 노래가 뭐라고 생각하냐?"

재밋다는 듯이 체육선생이 인형에게 물었다.

인형이 심각하고 심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제 생각에 노래는 뽕짝입니다."

푸하하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뭐? 뽕짝? 왜 노래가 뽕짝이냐?"

체육선생도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노래가 뽕짝이라는 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손가락 세개를 펼쳐보이며 인형이 단호히 말했다.

"세가지? 이거 욕기는 놈일세. 이유나 들어보자, 첫째는 뭐냐?"

체육선생은 생긴것 같지 않게 변죽이 좋은 인형이 재밌어 졌다.

"네. 첫째는 뽕짝은 제일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노래입니다."

"음. 두번째는?"

생각을 해보니 고개가 끄덕여 지는 체육선생이 물었다.

"두번째는 분위기 띄우는 데는 뽕짝이 최고입니다."

엄지를 치켜들며 인형이 대답했다.

"하긴.. 그럼 세번째는?"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체육선생이 물었다.

"세번째는 제가 제일 잘부르는 장르입니다. "

"그래? 나도 뽕짝을 좋아한다만은....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럼"

체육선생은 인형의 대답이 약간 어이없었지만 어쩐지 노래를 들어보고 싶었다.

"네. 감사합니다. 흠흠~~"

목을 가다듬는 인형은 걱정이 되었다. 사실 예전에 학교다닐때 부터 뽕짝에는 일가견이 있는 은영이었다. 어찌나 뽕필이 충만한

지 오락시간에 은영의 뽕짝은 필수였었다. 그러나 인형의 몸으로는 한번도 노래를 불러 본적이 없었기에 걱정은 되었지만 저 넓

은 체육관을 오리걸음 할 순 없었다. 그러기엔 난 소중한니깐..... 인형은 목소리릴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심수봉선생님의 '사랑밖에 난 몰라' 입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땀에

내일은 행복 할꺼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 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 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 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 밖엔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 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 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 만큼 안아 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 지면 다시
보고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

"우와아~ 짹짹~ 휘이익~~"

아이들에게서 박수와 휘파람이 터져나왔다. 익숙하지 않는 뽕짝이었지만, 어찌나 인형의 목소리와 잘 어우러 지면서 잘 부르던지

왠지 뽕짝이 매력적인 장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실 제일 놀란건 인형이었다. 약간 가는 듯한 목소리라 그런지 더욱 간들어지고 착착 감기는 목소리로 나와서 정작 신이 난건

인형이었다.

"앵쿨~ 앵쿨~ 앵쿨~"

체육선생을 쳐다보니 앵쿨을 연호하는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앵쿨을 요구하는 눈초리였다.

'듣는 귀들은 있어가지고. 좋아~ 한곡 더 쏜다'

인형은 앵쿨에 응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흠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입입어 한곡 더 띄워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제가 사랑하는 그녀에게 바칩니다. 다른 아기들은 슈베르트 자장가를 듣고 잠이 들때 전 이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뽕필을 물려주신 그녀에게 바치는 이노래 제목은 '짚레꽃' 입니다."

은영의 엄마는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불렀다. 어쩌면 노래실력은 엄마에게 물려받은 건지도 몰랐다. 엄마 생각에 순간 울컥한 인형이 목을 가다듬고 노래를 시작했다.

"짚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고향
언덕위에 초가삼간 그림습니다.
자주 고름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 주던 못맛을 사람아

달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동창생
천리객창 복두성이 서럽습니다.
작년 봄에 모여 앉아 찍은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니 그리운 시절아"

" 짹짹~~ 우와아~~ "

더 큰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다. 감동받은 얼굴의 체육선생이 인형의 손까지 잡고 흔들 정도였다.

인형이 그런 체육선생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사인은 수업 끝나고 해 드릴게요"

.

.

"물건은 물건이네.. 재도 정상인은 아닌 것 같다. "

인형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지훈을 쳐다보니 어이없는 웃음이 나와 명진이 지훈에게 말을 건넸다.

늦게 수업에 들어온 인형에게 오리걸음으로 체육관 한바퀴를 돌라고 시키자 사색이된 인형의 얼굴을 보자 체육선생에게 울컥해

한바탕 뒤집을까 생각이 든 지훈이었다.

그러나, 인형은 오리걸음 대신 자진해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오길래 역시나 재밌는 애라는 생각이 든 지훈이었다.

게다가 뽕짝이라니..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노래를 듣고나니 보통 실력은 아니었다. 어찌나 간드러지게 잘 부르던지 노래

가 끝나자 아쉬울 지경이었다. 그리고 가사가 어찌 지훈의 마음과 같단 생각도 들었다.

다른이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는지 앵콜을 외쳤고, 그 반응이 꽤나 만족스러운지. 인형은 선뜻 앵콜에 응했다

정말 내숭이 없는 인형이란 생각이 들었다.

두번째 곡은 사랑하는 그녀에게 바친다던 인형의 표정에는 약간 슬퍼보이기도 했다.

인형은 감정에 몰입한 듯이 노래 부르는 내내 애절하고 그리움이 가득 묻어나 보였다.

그런 인형을 보자 지훈은 가슴이 저릿해 졌다. 그리고 인형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자신도 인형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란 생각이 들었다.

인형이란 아이와 있으면 모든 것이 심드렁한 자신에게도 활력소가 생길 것 같았다. 며칠전 어머니가 자살소동을 벌여 힘들고 짜

증스럽고 화가나는 일들 마저도 저아이와 있으면 위로 받을 것 같았다.

지훈은 인형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시선을 떼지 못했다.

노래를 부른 인형은 주위를 둘러봤다. 어쩐지 사람이 많아졌다 했더니 처음 보는 아이들이 있었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는 인형은 살펴보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잡아삼킬듯 자신을 쳐다보는 지훈의 눈길에 붙잡혀 마주쳐다 보던 인형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긴장감을 느

꼈다.

그 잠깐 동안이 아주 긴 시간을 보낸 듯했다.

'헉 놀래라. 누가 저앨 보고 고딩이래.. 무슨 고딩남자에 눈길이 저래? 아주 다리가 후덜 거리네'

인형은 끝까지 달라붙는 지훈의 눈길을 겨우 무시하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 앉으려다 정우의 뜨거운 눈길과도 마주쳤다.

뒤통수가 따가운 인형이었다.

"자자~ 오늘은 간만에 피구 한판 어떨까? 일,이학년 모두 남자 열명, 여자 열명해서 각반 스무명씩 뽑도록~ "

"와아~~"

2학년은 즐겁다는 듯이 환호성을 질렀다. 간만에 스트레스나 풀어야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우우~~ "

1학년은 선배들 한테 어떻게 대등하게 공을 던질 것인가. 오늘 아마 총알 받이가 되겠다란 생각에 야유를 보냈다.

"다들 이렇게 좋아들 하니 내 맘이 다 즐겁구나. 어서어서 뽑아서 나와"

아이들의 반응이 만족스러운 체육선생이 말했다.

재밌겠다 싶은 인형은 손을 들고 적극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정우의 제지로 참석을 하지 못했다.

정우는 인형이 공에 맞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었다. 대신 정우가 선수로 나갔다.

꼼짝없이 앉아서 구경을 하게된 인형은 아쉬웠지만, 응원으로 아쉬움을 대신 하기로 했다.

인형의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았다. 인형은 누군지 보지 않아도 지훈을 느꼈다.

지훈은 선수로 나갈려다가 인형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명진이 놈을 대신 내보내고 인형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정우는 이를 갈았지만, 빨리 이 게임을 끝내고 나가는 수 밖에 없었다.

지훈에게는 묘한 압박감을 느끼는 인형이었다. 인형은 지훈을 힐끗 쳐다보았다.

인형의 눈에 맨먼저 들어 온 것은 긴 속눈썹이 인상적인 지훈의 빨려들듯한 짙은 눈동자였다.

"노래 잘들었다"

"네... 근데 여긴 1학년 응원석 인데요?"

"....."

더이상 말이 없는 지훈은 게임에 집중한 듯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인형은 신경이 쓰였지만, 같이 게임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정우의 활약은 대단했었다.

마치 이 게임에 목숨이라도 건 듯이 한방에 한명씩 보내고 있었다. 동물적인 몸놀림과 정확성에 인형은 혀를 돌렸다.

"아주 몸이 달았군. ㅋㅋ~ "

지훈은 뭐가 재밌는지 쿡쿡 거리며 웃었다.

"2학년이 지고 있는데도 아주 즐거우신 가봐요?"

인형은 웃는 지훈을 보며 물었다.

"풋~ 방과 후에 체육관 뒤 우리 처음만났던 나무뒤로 나와"

지훈은 인형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인형은 지훈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흠칫 놀랐다. 그리고 귓속말에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듯 했다.

"..... 나무앞에서 보면 안돼나요?"

잠시 생각해보던 인형이 말했다.

어차피 한번쯤은 만나야 되었다.

"푸핫, 기다릴께"

미소띤 지훈은 인형의 얼굴을 한번 더 쳐다보곤 일어났다.

"쭈 같이 앉아 있고 싶지만, (정우쪽을 힐끗보곤) 살인이라도 날 기세라.."

말을 마친 지훈은 느긋하게 자신의 반 자리로 돌아갔다.

늘씬하게 긴 몸에 우아하게 긴 팔 다리. 뒷태도 간지가 찰찰 흘러 보이는데 인형은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업이 끝난 뒤 인형은 다소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지훈을 만나기위해서 체육관 뒤쪽으로 향했다.

나무 뒤에 있던 지훈은 벤치에 고개 숙여 앉아 생각에 잠긴듯 인형이 가까이 올때까지도 알아 채지 못한 듯 했다.

인형은 지훈의 앞에 섰다. 지훈이 인형은 바라보았다.

지훈의 검고 짙은 눈동자는 꿈을 꾸 듯 왠지 몽롱해 보이기 까지 했다. 인형은 그 눈을 바라보자 왠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며 현기증이 난 것처럼 아득함을 느꼈다.

인형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면서 지훈의 눈이 살짝 가늘어 졌다.

"하실 말씀 있다면서요. 얼른 해 주세요"

인형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며 도리어 투명하게 말을 건넸다.

"옆에 앉아. 앉아서 이야기 해"

지훈은 교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옆자리에 깔아주며 말했다.

인형은 그 모습을 보며, 약간 머뭇대곤 옆에 걸터 앉았다.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고 그랬지? 그거 그냥 한 말 아니다. 정말 너랑 잘 해 보고 싶다. 나랑 사귀지 않을래?"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인형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먼저 사귀자고 한건 니가 정말 처음이야. 어떤 여자에게도 먼저 관심가진 것도 니가 첨이야, 나랑 사귀자"

지훈은 생각외로 자신이 떨고 있음을 느꼈다. 이런 생소한 느낌에 지훈은 당황도 되었지만, 한편으론 짜릿했다.

자신이 이런 기분을 느낄수 있는 사람이란게 신기했다.

인형은 지훈을 탐색하듯 쳐다봤다. 사귀자는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고백은 생각외로 너무 진지했고, 지훈의 얼굴에선 자신을 놀린다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말과 표정이 아니란

걸 인형은 깨달았다.

인형은 진지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훈이 자신의 어느 부분에 끌려서 이러는 지도 궁금하긴 했지만, 소문과 달

리 무엇보다 이렇게나 진지하게 고백을 하는 지훈에게 최소한 상처를 많이 주고 싶진 않았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제가 어디가 좋아요?"

"난 좋다고 하진 않았는데?"

지훈은 인형을 쳐다보며 놀리 듯 말했다.

'뭐야? 좋지도 않으면서 왜 사귀자는 거야? 이자식 진짜로 나 놀리려고 이러나?'

뜻밖의 대답에 인형은 멀뚱히 지훈을 쳐다봤다.

"너랑 있으면 재밌을거 같아. 사는데 너무 재미없거든"

'헛! 내가 개그맨인줄 아냐? 이 자식 나랑 사귀면서 맨날 개콘 스토리라도 짜오라고 시킬려는거 아냐? 뭐 이런 개나리 같은 경우
가....'

인형은 울컥했다.

"우선 결론먼저 이야기 하자면. 노 입니다. "

"왜? 너 설마 이정우랑 사귀는 거야?"

날카롭게 지훈이 물었다.

"아뇨. 정우랑 사귀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랑도 아직 사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

"그건 제 맘이죠"

"나랑 사귀다보면 생각이 달라질텐데?"

자신만만한 지훈의 대답을 듣자 인형은 지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말 잘생긴 얼굴이란 생각이 들었다. 인형을 쳐다보며 살짝 미소띤 얼굴은 자신만만해 보였고, 소년이라 하기엔 성숙해 보이는

외모이고, 남자라 하기엔 덜자란 듯한.. 그러나 어중간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묘한 매력을 풍기는 지훈이었다.

아마 저 매력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감상 다 했어? 어딜 가도 끌리는 외모는 아니라 같이 다녀도 쪽팔리진 않을꺼야."

인형이 자신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자 지훈이 말했다. 사실 지금까지 자신의 외모에 혹해서 매달리는 여자애들은 경멸했었지만,

지금은 인형이 자신의 외모에라도 반해서 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인형은 지훈의 말을 듣자 속으로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어른인척 해봐야 으스대는 게 꼭 고딩수준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잘생기긴 했네요. 처음에도 그런 생각했지만.. 근데 전 외모보단 인격을 보는 편이라.. 애틀 선배는 내 스타일 아녀요. 죄송해요.

그리고 본인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귀자고 덤벼드는 어린애 같은 성향에 같이 맞춰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인형은 딱 잘라 대답했다.

"뭐? 어린애 같은 성향?"

지훈은 인형이 딱 잘라 거절할 줄은 몰랐다. 여자아이들의 자존심상 어느정도 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인형이 자신의 얼굴을 낮을 잃고 쳐다볼 땐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던가. 하지만 거절하는 인형의 말투는 확 고했고, 표정 또한 단호해 보였다.

그 중에서 제일 충격은 지훈에게 어린애 같다란 말에 충격을 입었다.

'이런. 너무 몰아세웠나? 충격받았나 보네. 그래도 재밌어질려고 여자에게 사귀자는 게 정상이냐.. 쫓쫓. 아직 애는 앵가보다.'

인형은 거절할 줄 몰랐다는 듯이 충격받은 듯한 지훈의 얼굴을 보니 너무 심했나란 생각도 들면서, 덩치만 컸지 어린애 같은 지훈에게 차라리 딱 잘라 거절하는게 나을 것 같았다.

"남녀가 사귀는 이유는 셀수 없이 많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은 베이스로 깔려 있죠. 우린 두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선배랑 사귄수 없는 두번째 이유예요. 어느 누구도 재미있을 거 같아 사귀는 건 없어요"

"어린애 같은 건 너야! 좋아하지 않아도 사귀는 건 허다하거든. 좋아해서 사귀고 ,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발상이야말로 어린아이들의 꿈이지. 너야말로 유아적인 생각에 젖어있는 거지."

지훈은 시니컬하게 소리지르 듯 말했다.

인형은 지훈의 상처받은 듯한 표정과 대답에서 어쩌면 지훈도 어떤 상처가 있는게 아닐까 란 생각이 들었다.

"그건 만나는 거죠. 사랑과 신뢰없이 사귀고 결혼하는건 그냥 만남이죠. 마음은 없고, 얼굴 맞대었다가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결국은 서로 상처받고 상처주는 ... 차라리 두 사람만 상처를 받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인간관계란 원래 거미줄 같이 이어져 있는 거라.. 주위의 사람들도 상처를 주게 되죠. 본의 아니게."

인형은 지훈이 아니라 자신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었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 혼자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제일 아프다고 생각에 사로잡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 자신이 안타까웠었다.

지훈은 인형이 자신을 들여다 보는 듯이 말하는게 자존심이 상했다. 아무도 건들이지 않던 성역을 건드리고 헤집는 인형에게서 화가 치밀었다.

"하이트 기집애들이란. 볼거라곤 하나 없는 주제에 그나마 하는 짓이 좀 재밌길래, 잘해줬더니 막 기어오르는 구나. 얼마나 텅기는지 보자. 하긴 너무 호락호락 넘어와도 재미없지. "

지훈의 얼굴은 싸해졌다. 지훈의 화난 얼굴을 처음본 인형은 흠칫했다. 차갑게 변한 눈매에는 불이라도 뿜어낼 듯이 사나와 보였고, 두 주먹은 움켜지고 일어나서 부르르 떨고있는 인형에게 바짝 다가왔다.

웬만해선 겁을 먹지 않는 인형이었지만, 살벌히 다가오는 지훈은 겁이 났다. 괜히 학교짱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지훈이 가까이 오자 위험신호가 머리속에 울렸다. 인형은 일어나 몸을 뒤로 뺐다.

지훈의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짜증나 보이기도 한 듯한 얼굴이 인형의 눈에 들어온 건 순간이었다.

지훈이 인형의 어깨를 움켜쥐고 인형의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인형은 지훈이 자신의 어깨를 잡자 자신에게 키스를 할려는 것을 느꼈다.

인형의 무릎이 공중으로 떴다.

"음~"

극심한 고통에 지훈이 몸을 구부렸다.

"아주 까불고 있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어디서 수작이야. 싫다는 여자한테 억지로 몸을 비벼대는 것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 성추행이야 . 성. 추. 행! 이게 선배라고 꼬박꼬박 존댓말 해줬더니. 겁도 없이 어딜 들이대? 아주 죽을라고.

내가 이빠서 막 들이대고 싶어 하는 심정은 알겠지만, 이런 짓도 자주하면 습관된다. 아직 나이도 어리니 충분히 고칠수 있을 거

다. 그리고 넌 내 취향 아니라고 했지. 그만 관심꺼라. 너 아니라도 충분히 복잡한 인생이거든."

말은 이렇게 해도 언제 다시 달려들지 몰라 인형은 급히 가방을 둘레매고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몸을 구부리고 부르르 떨고 있는 지훈을 보자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인형은 저만치 가다가 몸을 돌려 한마디 하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얼음찜질이 좋다더라~"

"푸하하하하하~"

지훈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몹시도 아팠지만, 그 와중에 성추행이란 말을 듣자 웃음이 나왔다. 습관되지 않게 조심하란 말에도

기분 나쁘다기 보단 어이없었다. 자기가 어딜봐서 여자들에게 덤벼들게 보인단 말인가? 아프기도 하고 웃음이 터져나와 웃고 있

었는데. 쫓지않고 자기 할 말만 후다닥 하고 사라지다가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얼음찜질하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사라지는 인형

에게는 벌써 화가 풀렸다.

"아무래도 넌 내꺼 해야겠다"

지훈은 바닥에 그냥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정우는 체육시간에 지훈이 인형에게 붙어있는 걸 보는 순간 재빨리 이 게임을 빨리 끝내야 겠다란 생각에 최고의 집중력을 보이

며 닥치는 대로 공을 날렸다.

그러나, 지훈은 생각보다 일찍 인형의 곁에 떨어졌지만, 못내 찝찝한 정우였다.

도데체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한것일까 궁금한 정우는 슬며시 인형에게 물어봤으나

인형은 노래 잘 들었던 말 뿐이었다라고 말을 얼버무리는 것 같았지만, 정우는 뭔가 더 있을 거 같단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리고 지훈이 자꾸 인형의 주위에 맴도는게 맘에 안드는 정우였지만, 인형의 친구란 명목으로써는 막는건 한계가 있었다.

수업을 마친 후 인형이와 같이 하교할려했지만, 인형은 빛나리와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가버렸다.

그 뒷모습을 못내 아쉽게 쳐다보는 정우였다.

정우는 집으로 가는 중에 빛나리와 다른 여자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인형이 있나 살펴보는데 인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우가 갑자기 멈춰서 한곳을 쳐다보자 수호와 흥기도 멈춰서서 그곳을 바라봤다.

"어. 빛나리네.. 왜 그래? 정우야?"

수호의 말을 들은 척도 안하고 정우는 빛나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인형이랑 만나기로 했다는데 인형이는 어딴어?"

정우는 빛나리에게 말을 건넸다.

"어?..어. 인형이는 누구 잠깐 만나고 온다고.. 우리도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얼굴이 붉어진 빛나리가 더듬 대답했다.

뭔가 찝찝한게 이것이었나란 생각에 정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정우가 몸을 돌려 학교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야~야. 너 어디가? 이정우~"

수호와 흥기가 뒤에서 소리쳐 부르는 것을 한귀로 흘리고 정우는 인형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고 얼마 있다 인형이 전화를 받았다.

"너 어디야? 지금 어딴어?"

정우는 다급히 물었다.

"나? 학교 앞. 지금 빛나리 만나러 가는 중인데? 왜?"

"알았어. 나도 지금 학교쪽으로 가고 있으니. 잠깐 나 좀 봐"

인형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는지 금방 정우와 만났다.

정우는 흥기와 수호에게 잠깐만 있으라고 한뒤 인형을 한쪽으로 끌고 갔다.

"나 지금 나리 만나야 되는데? 왜그래? 정우야?"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는 거야?"

이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에 비밀이 없음을. 다시한번 느끼곤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

"한지훈 만나고 오는 길이야"

"왜? 뭘때문에?"

"관심있다고 저번부터 그랬잖아, 어찌됐냐. 한번은 만나야. 결판을 짓지.."

"사귀자고 그래? 그래서 넌 뭐했어? "

"관심있다고 그랬어. 누구 사귄 마음 없다고 확실히 말하고 왔으니깐. 너도 너무 예민하게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우야. "

인형은 정우의 반응이 약간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었다.

인형의 곤란한 표정을 보자 정우는 마음 한 구석이 싸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한지훈에게 확실히 거절했다는 말에 위안이 되면서

안심도 되었다.

적어도 인형은 솔직한 성격이었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휴~ 미안해. 부담줄려는 건 아닌데. 지훈 선배 욕할려는 건 아니지만. 여자관계 별로 좋지 못해.. 걱정되서 그래"

막상 정우의 약간 풀죽은 모습이 미안해진 인형이었다.

"알아~ 다들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거 같은데.. 정말 섭하다. 나 그렇게 칠순이 아니거등~ 하늘이 땀에 오늘도 일찍 집에 가야

되지?"

"어.. 그래도 이번 아주머니는 저번 아주머니 보다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많이 편해졌어"

"그래? 다행이다. 정우야. 나도 하늘이 너무 보고싶는데...오늘은 나리랑 약속이 되어서 안돼고,,, 음.. 내가 주말에 한번 놀러

갈께"

"훗~ 그래. "

인형이가 주말에 정우네 집에 온다는 말에 금새 기분이 좋아진 정우는 얼굴에 미소가 걸렸다.

어제부터 인형은 고과장의 차를 타고 등.하교를 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많이 편해진 강현에게 조르다시피 해서 얻어낸 결과였다.

학창시절만큼은 친구들과 어울려 분식점도 다니고, 남들과 똑같이 누리며 다니고 싶다며 간곡히 말하는 인형을 당해내지 못한 강현은 한편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길래 겨우 허락해 주었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인지 교실은 평상시와 달리 면학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예전의 인형은 상위권이었다라는데. 인형은 시험이 닥치자 막상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인형도 간만에 책을 펴서 공부하려 했으나, 예전에 배운건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수업시간에도 거의 듣는듯 마는듯 한지라 막막한 기분만 들었다.

옆자리의 정우는 확실히 컨디션은 좋아보였다. 요즘에는 졸긴 해도 여전만큼은 자지않아 인형은 정우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수호에게 정우의 성적을 물어보니 예상외로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곧잘 하는 듯 했다.

"정우야, 너 혹시 족보같은거 있어?"

정우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인형이 정우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족보?"

뜬금없는 족보타령에 정우가 되물었다.

"응.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온다. 이런 비법서 같은거 말이야"

".....그런건 없는데...."

"아휴~ 난 죽었다. 책을 펼치니 하얀건 종이요. 까만건 글씨요..이것만 알겠는거 있지. "

한숨을 내쉬며 한탄을 하는 인형을 쳐다보던 정우가 무슨 걱정이나란 듯이 말했다.

"평상시 실력으로 보면 되지 않나? 너 공부 잘한다던데?"

"그러게. 하다못해 이것도 다 태클이니.. 쉬운게 하나 없다. 달라도 어찌나 다른지.. 왜 또 공부는 잘했다니"

알지못하는 소리를 늘어놓는 인형이 정우는 그냥 귀엽게만 보였다.

"수호랑 홍기랑 진규 다른 애들은 공부 잘하니?"

"수호는 나보단 잘하지. 근데 다른 놈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

냉정하게 대답을 해주는 정우였다.

"수호가 공부잘해? 오오~~ 이런 경사가 있나. 으흐흐"

한결 얼굴이 퍼진 인형은 먹음직스러운 표정으로 수호를 쳐다봤다.
왠지 한기를 느끼는 수호였다.

"뭐어? 스터디? 내가 왜?"

수호가 펄쩍 뛰며 말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도 줍고, 꿩 먹고 알 먹고, 서로서로 윈윈 전략이지. 친구 좋다는게 뭐냐? 수호야 정말 내가 막막해

서 그러는 거야. 시험에 나올 만한 걸로 요약 좀 해서 나한테 좀 보여주라. 응? 응?"

인형이 수호옆에 딱 붙어 설득을 하였다.

"아니 그러니깐. 내가 왜.? 네가 공부 더 잘하잖아?"

수호는 황당하는 듯이 되물었다.

"그게...내가 아팠다는 거 알지? 그 뒤로 어찌된게 공부한게 기억들이 잘 안나서 그래.. 사람도 가물가물하고 내가 기억 잘 못했

잖아. 아무래도 그 휴유증 같아. "

이마를 긁적이며 인형이 난처한 듯이 말했다.

"헛! 아픈건 니 사정이지. 수호가 무슨 죄냐? 암튼 지 생각만 해요."

한동안 잠잠하던 홍기가 꺼들었다.

"내가 그렇게 철면피는 아니다. 수호야 ! 시험 끝나면 내가 확실하게 쏘마~"

"어떻게 확실히 쏴대?"

홍기가 대신 물었다.

"맛있는 거 사줄께"

인형이 홍기를 패려보며 대답했다.

"맛있는 걸로 때우긴 리스크가 너무 큰데?"

이번엔 수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인형은 한숨을 쉬었다. 잠시 생각하던 인형이 씩 웃으며 말했다.

"오케이~ 그럼 내가 화끈하게 쏘마. 나이트까지 풀코스로 책임질게"

"와우~ 콜~!"

놀라던 홍기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냉큼 대답했다.

"그럼 대답한거다. 토요일 정우네 집에서 보자~정리한거 그날 가져와~"

인형이 날을 정했다.

"왜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정하는 거야?"

수호가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다.

"만약 이 조건을 거절하면, 수호야 니가 홍기의 등쌀을 과연 견딜 수 있겠니?"

인형이 벌써 신이 나 있는 홍기를 쳐다보며 수호에게 대답했다.

홍기를 한번 쳐다본 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수호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자훈은 요즘 꼬박꼬박 급식실에서 밥을 먹었다.

그나마 거기서 제일 인형을 가까이서 보는 시간이었다.

인형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웃고, 밥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재미 없는 학교생활에서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신을 깨끗이 거절하고, 언제 그런일이 있었나란 듯이 지훈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는 인형에게 한번도 이런 대

접을 받아 본적 없는 지훈은 자존심이 상했고, 몇번이고 마음을 접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쉽지 않았다.

어느샌가 인형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고있는 자신에게 여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의 끝은 인형이었다.

지훈은 창밖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저쪽 운동장 벤치에서 인형과 빛나리와 다른 여자아이들이 모여 앉아 수다 떠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다.

"뽕짝 보고 있냐?"

명진이 지훈의 곁에 다가와 지훈의 시선을 두는 쪽으로 같이 고개를 돌렸다.

"원래 달라붙으면 여자애들은 더 텅기게 되어 있거든. 니가 목메달고 있는거 알고 저러는거 아냐?"

"....."

"하긴 니가 오는 여자만 만나봤지. 니가 직접 대쉬한 건 처음이지? 재도 대단하긴 하네 천하의 한지훈을 안달복달하게 하고.푸핫

. 흠흠..."

지훈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은 명진은 웃음을 거두고 헛기침을 하며 슬며시 외면했다.

"차라리 고전적인 방법을 쓰는게 어떠냐?"

"고전적인 방법?"

여전히 인형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지훈이 물었다.

어지간히 몸이 달았는지 금방 솔깃해서 물어보는 지훈이 놀랍고 웃기기도 했지만, 하루이틀 지훈은 꺾은게 아닌 명진은 표정관리

에 들어갔다.

"그래. 저 뽕짝이 설마하니 너 한테 관심이 없겠냐? 그냥 텅기는 거라니깐. 원래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고, 자기손에 들렸을 때

는 몰랐다가 남에 손에 들어가면 갑자기 커보이고 좋아 보이게 되어있거든."

말을 잠시 멈춘 명진이 지훈의 얼굴을 살폈다. 지훈이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보자 명진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른바 질투작전이지. 저 뽕짝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랑 다니는 거야. 반응 온다니깐. "

명진이 확고한 말투로 말을 끝내고 지훈을 쳐다봤다.

여전히 인형을 보고 있는 지훈의 표정은 알 수가 없었지만 명진은 자신의 말이 반쯤 먹혀들었다는 걸 알았다.

지훈의 맘에 들지 않는 말이었으면 저 녀석이 저러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녀석이었기 때문이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인형이었지만, 가끔 주위에서 맴도는 지훈을 보곤 속으로 흠칫 놀란적이 한 두번이 아닌 인형이었다.

그날 지훈의 상처받은 눈빛이 가끔 생각이 날땐 사귀는 건 아니더라도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고 싶었지만, 지훈이 원하는 것을

아는 인형은 지훈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니 인형은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의 눈길을 느낄때 인형은 가슴이 따끔

거림을 애써 모른척 하고 있었다.

확실히 이런 일에 민감한 빛나리가 인형에게 지훈의 마음이 혹시라도 진심이 아닐까 란 말을 건넸지만, 인형은 그냥 웃어 넘겼다

.

빛나리는 사귀어보니 생각보다 더 의리도 있었고, 카리스마도 있었다. 근데 이런 빛나리가 순한 양처럼 굴때는 정우앞에서 뿐이

었다. 정우가 빛나리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면 인형은 두 사람을 밀어주고 싶었지만, 정우의 태도는 초지일관이

었다. 한결같이 냉정한 모습에 인형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인형이

아니던가. 이래저래 저 두 사람을 보면 심란한 인형이었다.

토요일 인형은 바리바리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섰다.

최희장의 기사가 오늘은 인형을 바래다 주기로 했다. 며칠전부터 양평택에게 부탁하여 사골을 고우고, 밑반찬도 잔뜩 담아 정우

집으로 향하는 인형은 흥얼 흥얼 콧노래 까지 불렀다.

수호가 중간 중간 요약해서 건내준 것은 생각보다 더 꼼꼼하고 정리가 잘 되 있어서 인형은 그나마 안심이었다.

김기사가 엘리베이터 까지 짐을 들어다 주고 간 뒤 인형은 정우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으로 나와 달라고 했다.

바리바리 사들고온 인형을 보자 정우는 그 양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짐을 같이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정우는 엘리베이터에 타자 그때 인형에게 키스한 기억이 났다. 잠시 잊고 있었던 인형도 생각나긴 마찬가지였다.

순식간에 어색해진 엘리베이터 안이었다. 어색함에 인형이 밥은 잘 먹고 있냐며 정우에게 이것 저것을 물었다.

그때도 인형이 밥이 어찌고 저찌고 한 것 같았는데.정우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하"

갑자기 웃는 정우의 목소리에 놀라 인형이 정우를 쳐다봤다.

인형은 정우가 이렇게 소리내고 크게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

정우의 웃는 모습은 정말 근사했다. 웃음기가 조금 사그라진 눈꼬리는 맵시있게 휘어졌고, 입가에는 장난스러운 기운마저 맴도는 듯 했다.

"정우야~ 너 정말 웃는 모습은 정말 멋있구나. 난 네가 잘 안 웃는 이유를 이제야 알거 같애"

인형은 감탄어린 시선으로 정우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유?"

"응. 그렇게 잘 웃었으면 넌 도둑놈이 되었을꺼야"

"도둑?"

"응. 여자들 마음을 훔치는 도둑"

"....."

".....후후후~ 썰렁하구나.. 얼른 집에 가자. 하늘이 보고싶다."

반응이 없는 정우를 보자 머쓱해진 인형이 엘리베이터가 서자 얼른 내려 집쪽으로 먼저 걸어갔다.

"내가 훔치고 싶은 마음은 하나 밖에 없는데.."

뒤에서 정우의 혼잣말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인형은 못들은 척하고 그냥 걸어갔다. 인형의 가슴은 묵직해 졌다.

집에는 수호와 홍기가 먼저 와 있었다.

오랫만에 보는 하늘이는 더 예뻐진 것 같았다.

확실히 뽕송뽕송해 보이고 깨끗해진 아기방이었다.

그러나 여기저기 부엌과 거실이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는 인형이었다.

끓어오르는 주부의 피를 참지 못하고 인형은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을 치기 시작했다.

"아주 눈에서 빛이 난다. 물만난 고기같다?"

인형이 이리저리 들쭉시고 다니자 고개를 저으며 홍기가 말했다.

"그러게. 아무래도 이 몸엔 무수리의 피가 흐르나봐. 내가 보긴 홍기야 너도 양반은 못될거 같다. 놀지 말고 여기 걸레로 바닥

좀 훑쳐"

"넌 왜 맨날 나만 시키냐? 내가 만만해?"

"응. 만만해. 그리고 수호는 요약정리 중이니 못하고, 정우는 공부해야지. 아기 땀에 스텐바이 해야지. 그런데 넌 놀잖니? 그게

싫으면 공부 하던가.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책이라도 한자 읽지 그래?"

"아주 잔소리가 끈대수준이야. 에이씨. 나도 공부한다 공부해"

걸레질 하기 싫은 홍기가 얼른 책을 폈다.

빛의 속도로 집안 정리를 하고 인형은 수호에게 받은 요약정리로 간만에 열공을 하였다.

한참 후 홍기가 소리를 질렀다.

"으아악~ 정말 이 면학 분위기.. 가출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저녁은 인형이 스파게티를 해주었다.

정우와 수호, 홍기는 인형의 요리솜씨에 감탄에 마지 않았다.

갑자기 생각난 듯 홍기가 물었다.

"정말 나이트까지 쏘는 거야?"

"뭔 나이트?"

정우가 무슨 소리냐는 듯이 물었다.

"아 맞다. 넌 모르지? 인형이가 이번 시험 끝나면 나이트까지 쏜다고 했거든"

정우가 정말이냐란 듯이 인형을 쳐다봤다.

"응. 한입으로 두말 안해. 걱정마셔. "

"너도 가게?"

정우가 인형을 쳐다보며 물었다.

"나? 내가 쓰는데 내가 가야지. 안가?"

정우는 인형을 쓱 훑어봤다.

"입구에서 너 받아줄까?"

정우는 인형의 외모가 어려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니가 뭘 모르는구나? 여자의 변신은 무죄란 말이 괜히 나온지 아냐? 걱정마, 여잔 꾸미기 나름이란다~"

피식 웃으며 인형이 자신만만히 말했다.

"정우야 넌 갈수 있겠냐? 하늘이 땀에?"

홍기가 정우에게 물었다.

"엄마 내일 퇴원하셔"

정우가 씩 웃으며 말했다.

"우와~ 잘됐다. 정우야. 어머니 이젠 괜찮으신거야?"

인형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응. 병원에서 이젠 퇴원해도 된대. 많이 좋아지셨어"

대답하는 정우의 얼굴은 한결 편해 보였다.

"아 그럼. 미역국 끓여 놔야겠네"

인형이 손바닥을 치며 생각난 듯이 말했다

"미역국은 왜?"

흥기가 물었다.

"아기 낳은 여자들은 미역국을 먹는거야~ 미역국이 피를 맑게 해주거든. 미역이 있던가? 이집에?"

인형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 모습을 정우는 흐뭇하게 쳐다보았다.

지켜보던 수호는 한숨이 나왔다. 인형의 저런 행동이 정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형은 전혀 모르는게 문제인거 같았다.

'인형이가 저러니 정우놈이 이려고 호물호물해지지..도데체 눈이 얼마나 높길래 정우놈이 저러고 살랑거리는데도 꼬떡도 안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재도 연구대상이야'

틈틈히 인형은 하늘이와 놀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했다.

공부(?)를 마치고 수호와 흥기, 인형은 각자 집으로 가기위해 집을 나섰다.

흥기가 먼저 버스를 타고 수호는 인형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우 어떻게 생각해?"

인형은 수호의 질문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정우 친구로 좋아해. 정말 미안하지만, 난 그래"

"정우랑 중학교때부터 알고 지내왔지만 저렇게 맘주는 건 처음 봤어. 워낙 쌀쌀맞고 무심한 녀석이라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때

보다 더 걱정돼. 그 이유는 너도 알지?"

"응. 처음엔 무작정 밀어낼까도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내가 친구로 정우를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랑 익숙

해 지면 괜찮아 지지 않을까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모르겠다. 솔직히"

인형은 이마를 긁으며 한숨을 쉬었다.

"난 너도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 정우녀석 정도면 남자가 봐도 멋진 놈인데. 도대체 눈이 얼마나 높은거냐?"

"나 눈 안높아. 정우 멋있는 것도 알아. 너한테 일일이 말할 상황이 아니라 자세하는 말 못하지만, 난 누구를 남자로 생각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런 마음도 없고.... 정우보면 한편으론 마음이 나도 편친 않아"

"휴~ 정우가 우리들한테 그러더라. 너도 소중한 친구라고 , 자길 대하듯 너한테도 그렇게 대해주길 바란다고. 어찌나 진지하게

말하던지..암튼 정우한테 상처 안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부탁하자"

"...응... 그..래. "

정우의 마음이 고마웠고, 수호의 마음이 무거운 인형이었다.

수호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온 인형은 왠지 기운이 빠져 2층 거실에 누어져 앉아 있었다. 이런 저런 생각에 얼마나 그러고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요즘 뭘 하는지 밤 늦게 다니는 리현이 그나마 조금 일찍 들어왔다.

거실에 인형이 널부러져 앉아 있는걸 보자 리현은 인형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뭘 일 있냐? 또 땅파고 들어 갈 일있냐?"

"일은 무슨.. 근데 요즘 뭐하느라 늦게 다녀? 아주 얼굴 보기도 힘든데, 설마 야간 알바하는건 아닐꺼고. 혹시 우현오빠처럼 여
자만나고 다녀?"

"뭐? 내가 우현형처럼 비웃장이 좋은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왜 야간 알바를 못한다고 생각해?"

"푸하하. 누가 오빠같이 성질 더러운 사람 쓰겠냐? 상전을 모시는게 낫지. 푸하하"

"쳇! 나도 맘만 먹으면 귀막고 입다문다. 힘들긴 하지만.."

틀린말이 아닌지라. 리현은 군시렁 거렸다.

"맥주 한잔 할까? 오빠?"

인형이 리현에게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뭐? 너 맥주도 마셔봤어?"

"아니. 뭐 맥주가 별건가. 외국에서는 물처럼 마신다더라. 오빠도 있는데 무슨 문제야. 나랑 맥주 한잔 하자"

"갈수록 너의 정체가 궁금해 진다. 일단 나 좀 씻고 나올게. 그러고 나서 한잔 해보자"

피식 웃으며 리현이 방으로 들어갔다.

두주먹을 불끈 쥐고 인형이 앓싸 외치며 인형도 웃을 갈아입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음~~ 맛있다"

오랫만에 먹는 맥주맛은 끝내줬다. 인형은 맥주맛을 음미하면서 행복해졌다.

"정말 처음 맥주 먹는거 맞아? 무지하게 맛있게 먹는다.?"

인형의 맥주 먹는 모습을 보던 리현이 피식 웃으며 리현도 맥주 한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런가.. 헤헤. 뭐 어때. 맛있으면 그걸로 된거지"

너무 맛있게 먹는게 찔린 인형은 그냥 웃었다.

리현과 인형은 사소한 잡담을 하면서 주머니 받거나 맥주를 마셨다.

생각보다 인형의 몸이 술을 꽤 잘 받자 인형은 약간 놀랐다. 술에 약한 체질은 아닌 듯 했다. 워낙에 허약해서 한잔에 흑 갈까봐

사실은 약간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긴 그 동안 인형이 얼마나 나름 관리를 해 왔던가. 그 결실의 열매를 일부

본 듯 하여 인형은 내심 뿌듯했다.

"자. 이제 털어나 보시지?"

어느정도 술을 마시던 리현이 인형에게 말했다.

"뭘?"

"고민거리 말이야. 축 쳐져 있는게 뭔가 있는 거 같은데, 거짓말 할 생각 말고 털어놔"

"살면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가 누구에게 상처주는 꼴이 되어버릴까봐 무섭고 정말 괴로워"

캔맥주를 빙글빙글 돌리던 인형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또 방에 쳐박혀 있을거야?"

리현이 비웃듯이 말했다.

"뭐?"

"그렇게 겁나면 인간관계 때려쳐야지.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는 인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미리 말해 두겠는데. 전처럼 또

방에 쳐박혀서 짜질대면 그땐 나한테 매맛을 줄 알아. 그리고 진심도 못 알아봐주고 상처받았다고 짜질거리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차라리 상종안하는게 나야"

인형은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별 기대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그냥 내뱉은 말인데 다소 시니컬한 리현의 말은

인형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이제보니 우리막내오빠~ 무지 터프하고 멋있었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잔 더 할까?"

"니가 이제서야 본거지. 멋진건 원래 타고난 거거든."

인형과 리현이 죽이 척척 맞아 또 다시 맥주를 훌쩍 거렸다.

얼마나 마셨을까? 우현이 언제 왔는지. 우현까지 가세하고 셋은 다정히 맥주 파티를 즐겼다.

강현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어이가 없었다.

늦은 밤인데 어째 2층이 시끌벅적하던 생각은 들었지만, 여기저기 맥주캔들이 텅굴고 있었고, 우현과 리현이 집에서 저렇게 술먹

고 떠드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인형마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다소 풀린 눈으로 헤실헤실 웃어가며 그 사이에 끼 있었다.

"지금 뭇들 하는거야?"

강현이 인상을 지푸리며 다가가며 다소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에~? 우와~ 칼있으마 오빠 오셨네? 저바~저바~ 또 인상써. 아이고~~ 무서버라~~ 칼만있어서 저런거야..칼은 칼집에 넣어두어야

되는데."

강현을 발견한 인형이 손가락으로 강현을 가리키며 횡설 수설 하였다.

옆에서 킁킁대며 웃는 우현과, 어쩔거냐란 듯이 강현을 쳐다보는 리현을 보고 그냥 강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야 했다고 다

음날 후회했었다.

.

.

다음날 인형은 눈을 뜨니 머리가 아팠다. 아무래도 어제 술을 좀 과하게 마신 듯 했다.

뭔가가 계속 찝찝한 기분이었다.

뭔가? 뭔가? 머리도 아픈데다가 속도 편치 않았다. 그런데다 생각까지 할려니 머리가 더욱 어지러웠다.

어제 리현과 술을 마시다. 우현이 와서 같이 마시고... 마시고... 그러다가... 강현이 왔는데..강현! 강현!

인형은 벌떡 일어났다.

생각이 났다. 어제 강현을 붙들고 여지껏 맺힌것을 다 풀어내며 진상을 떨던 자신이 한 짓이 생각이 났다.

왜 인상만 쓰고 다니냐면서 강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붙잡고. 웃어보라며 떼를 쓰던 거 하며, 첫인상이 나쁜놈 같았다고, 근데

알고보니 영 나쁜놈은 아닌것 같다고 했던거. 또 무슨 진상을 떨었는지.... 더 이상 생각하기도 무서운 인형이었다.

인형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자학을 하였다.

"술이 웬수다. 웬수, 어떻게 ... 미초. 정말.. 어떻게지? 그냥 기억안난다며 딱 잡아떨까?"

왔다갔다 하며 고민에 빠진 인형의 방문을 누가 노크했다.

인형은 화들짝 놀랐다.

우현이었다. 꿀물을 직접 들고 들어온 우현은 인형을 보고 싱긋 웃었다.

"괜찮아? 술 잘마시더라. 여자가 너무 술 못해도 매력 없지. 훗. 어제 너무 재밌었다."

"응? 콜록~ 어제 뭐?"

꿀물을 마시던 인형이 찢끔해서 사례가 들렸다.

"기억 안나? 어제 니가 큰형에게 한 짓이?"

"그게... 하하.... 약간 기억이 나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하하...나 어제 완전 진상이었지? 큰오빠 화 많이 났어?"

"푸하하~ 어제 큰형 얼굴을 모든 사람들이 봐야 했는데. 나하고 리현이 둘이서만 보기에 너무 아까웠는데. ㅋㅋㅋㅋ. "

우현은 뭐가 재밌는지 연신 웃고 난리도 아니었다.

"휴~ 난 이제 죽었다. 요즘은 그나마 말랑해졌는데. 또 찬바람 불게 생겼네."

인형은 침대에 털썩 앉으며 아픈 머리를 부여잡았다.

"큰형이 냉정하긴 해도 공한 성격은 아니야. ㅋㅋ . 걱정안해도 돼. 암튼 어제 제일 히트는 큰형 얼굴을 조물딱 거린 거였다. 누

가 감히 최강현 볼을 손으로 눌렀다 줄였다 하겠냐? 암튼 최인형 대단해~ "

우현은 인형에게 엄지를 치켜올리며 칭찬을 해 줬다.

"내가 대단한게 아니고, 알콜의 힘이 위대한거야"

인형은 겸손을 떨었다.

그러나 강현은 우현의 말대로 평상시와 다른 없이 인형을 대했다. 그날의 일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사실은 강현이 더 그 이야기

를 하기 싫었다. 하지만 인형이 술을 먹고 강현에게 때를 쓰고 주정을 부린 것이 생각보다 기분 나쁘진 않았다. 얼마쯤은 귀여운

면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볼을 잡고 놀이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창피했다. 옆에서 자지러지게 웃던 우현과 리현에게 체면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었다.

.

.

중간고사는 무사히 끝났다. 인형은 시험을 잘봤다. 말대로 그냥 시험지만 잘 봤다. 시험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일단 시험을 치

고나니 인형은 한결 살것 같았다.

인형 만큼이나 기뻐한 것은 흥기였다. 요 근래 들어 인형에게 친한 척 하는 흥기였다.

인형은 빛나리와 은주에게도 같이 나이트 놀러가자고 말을 건넸다.

"사람은 결만 봐선 모른다더니.. 너 나이트도 다녀?"

은주가 놀랍다는 듯이 인형을 다시 쳐다봤다.

"훗!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다쳐~ 시험도 끝났겠다 오늘 저녁에 보자~"

"우리 셋이서 가자고?"

빛나리가 물었다.

"정우, 수호, 홍기도 갈꺼야. 이번 시험때 수호가 많이 도와 줬거든. 그래서 내가 한 톱 소기로 했거든. 뭐 어자피 서로 얼굴들

다 아는 사이들인데. 어때? 괜찮치?"

"나야 콜이지만, 빛나리 넌 어때?"

은주가 빛나리의 눈치를 봤다.

"나도 괜찮아. 몇시에 어디서 만나?"

"정해서 내가 문자할께. 그럼 다 같이 가는 거다~"

인형은 간만에 편하게 놀아볼 작정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 늘 긴장속에서 살아온 자신에게 한번쯤은 해방을 주고 싶었다.

호프집에서 정우와 수호, 홍기. 빛나리, 은주는 먼저와서 인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형이 없으니 약간은 서먹한 5명이었다.

미리 같이 간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우는 왠지 불편했다.

말없이 앉아있는 정우, 무슨 말이든 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홍기, 가끔 맞장구 쳐주는 수호, 갑자기 요조숙녀가 된 빛나리,

나대는 홍기가 맘에 안드는 은주였다.

호프집에 확실히 튀는 옷차림을 한 여자가 들어왔다.

밀리터리룩 이긴 하지만 약간 독특한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고, 비슷한 디자인의 크로스 백을 매고, 머리는 바짝 묶어서 여러갈래

땋았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썬그라스, 발목위를 약간 올라오는 세련된 디자인 검은색 부추를 신고 정우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

가올때 까지 아무도 인형인지 몰랐다.

"내가 좀 늦었네"

인형이 은주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와~ 완전 변신을 했구나?"

홍기가 인형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나 보네?"

은주도 얼떨떨하게 인형을 쳐다보며 말했다. 인형이 어려보이는 외모라 걱정을 했던 은주였었다. 걱정말라던 인형의 말에도 크게

신뢰는 안갔지만, 저렇게 튀게 입고 올줄은 몰랐다.

성숙해 보이는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눈길을 끄는 옷차림에 경쾌해 보였다. 바탕이 이뻐서 그런지 독특한 디자인인데도

씩 잘어울렸다.

이 옷은 리현과 백화점에 갔을때 리현이 인형에게 사준 옷이었다. 사줄때는 인형도 많이 망설이게 하는 디자인이었지만, 입어보

니 맘에 드는 옷이었다.

반응을 보니 그리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 인형이었다.

"근데 썬그라스는 뭐냐? 밤에 무슨 썬그라스야?"

수호가 얼굴의 반을 가린 썬그라스를 보고 물었다.

인형은 이말을 듣자 썬그라스를 벗었다.

"벗으면 안될까 같아서 썼다."

확실히 썬그라스를 벗으니 얼굴이 앳해보였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만장일치로 다시 썬그라스를 쓰는 인형이었다.

"자~ 너무 시간이 이르니. 여기서 한잔 하고 나이트 가자. 이왕 노는거 재밌게 놀자"

시원시원하게 인형이 말하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웬지 기분이 업되어 있는 듯한 인형이었지만, 다들 유쾌해 보이는 인형의 분위기에 전염이 되어서인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

위기였다.

정우는 인형을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저렇게 차려입은 인형은 또 색달라 보였다.

인형이 호프집에서 1차하고, 나이트로 2차 가자고 말할때만 해도, 웬지 인형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 같았는데, 유쾌히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인형은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빛나리도 긴장이 많이 풀렸다. 개인적으로 정우와 같이 이런 자리에 있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기도 했지만, 인형

이 잘 이끌어 주어서 빛나리도 그냥 즐기기로 했다.

정우의 눈길이 자꾸 인형만 바라보는게 씁쓸하긴 했지만, 어느샌가 인형도 빛나리의 친구로 자리를 잡았다.

인형은 내숭도 없었고, 솔직했고, 편했다. 가끔 언니처럼 빛나리를 챙겨주기도 했었다.

어느정도 친해진 6명이었다. 웬만큼 술도 한지라 약간은 취기도 올랐지만, 워낙 유쾌하게 떠들어서인지. 분위기는 무척 좋았다.

계산을 하려던 인형은 미리 계산된 걸 보고 깜짝 놀랐지만, 정우가 인형에게 씩 웃어보였다.

"나도 너한테 신세진거 많은데. 그냥 내가 계산했어."

"와우~ 센스가 대박인데?"

인형도 마주보며 웃어주었다.

이 기세를 몰아 6명은 나이트로 향했다.

입구에서 약간의 저지가 있었다. 아무리 꾸며도 약간 어려워 보이는 인형이라서 그런지 바로 들여다 보내지 않았던 것이었다.

속으로 다들 망했다 란 생각이 들었을때였다.

"아우~ 오빠~ 왜이래? 아마추어같이. 우리 애들 좀 봐봐(정우와 빛나리를 가르키며) 애들이 한번 스테이지 밟아주면 그냥 물이

일급수로 올라갈텐데, 장사 하루이틀해? 정말 가오떨어지게 여기서 이러면 우리 다른데 간다?"

인형이 짜증난다는 듯이 말하며 몸을 돌리려는 재스처어를 보였다.

"아이~언니. 왜이러시나. 요즘 하두 단속이 심해서 그래요~ 어서 들어가세요~"

이때 잠깐 밖으로 나온 웨이터가 아닌게 아니라 같이 온 남녀들의 외모가 끝내주는 것을 본 웨이터의 반응이 싹 달라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너 정말 보통 아니다?"

은주가 인형에게 속삭였다.

나이트에서도 인형은 거의 휩쓸듯이 놀았다.

위쪽 룸에서 자리잡고 있던 명진의 눈에 인형이 띄었다.

명진은 급히 지훈에게 전화를 했다.

"아~너 어디야? 잔말 말고 여기로 와라... .여기 뽕짝 와 있다니깐..... 알았어 룸하나 잡아 놀테니 얼른 와라 "

지훈에게 위치를 말해주고 명진은 인형의 패거리들이 노는 것을 구경했다.

정말 끝내주게 잘 노는 패거리들이었다.

인형은 춤은 잘 추진 못했지만, 분위기를 굉장히 잘 탔다. 작정을 하고 아무생각없이 오늘 하루 즐기기로 맘 먹은 인형은 간만에

맘껏 웃고 춤추고, 마셨다.

덩달아 정우도 처음으로 신나게 놀았다. 지훈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훈은 짜증이 나있었다.

노가은이라는 여자애가 쪽 자신의 곁에서 맴도는 건 알았다. 하지만 특별히 달라붙는 것도 아니라 그냥 무시했지만, 요 근래 자

꾸 들러붙는게 영 짜증스럽게 느껴졌다.

예전같으면 적당히 놀다가 실증이 나면 차버리면 되는데, 요즘은 그것도 귀찮아졌다.

오늘은 아는 형이 운영하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찌 알고 왔는지 옆에서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릴까 생각중이었는데, 명진에게 전화가 왔다.

인형이 나이트에 떠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귀를 의심하였으나, 명진이 놈이 거짓말을 하진 않을 것이었다.

벌떡 일어나 나이트로 가려다 명진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질투작전... 지훈은 옆에 있는 노가은을 데리고 나이트로 향했다.

가은은 지훈이 자신에게 장소를 옮기자란 말에 자신에게 관심이 생긴듯 해서 너무 기뻐했다.

지훈이 데려간 곳은 나이트였다. 룸에 들어가자 지훈과 어울려 다니는 명진이 있었다.

지훈은 2층에서 인형을 내려다 보았다.

"뽕짝 재 정말 잘놀더라~ 완전 여기 분위기 뽕짝이랑 같이 온 애들이 이끌고 있다는거 아니냐.. 나도 나이트 출입경력 꽤 된다만
, 내가 본 애들 중에 젤로 잘놀더라"

명진이 감탄어린 어조로 말했다.

아닌게 아니라 인형은 정말 즐거워 보였고, 잘 놀았다. 옆에는 정우놈도 보였다.

지훈은 기분이 나빠졌다. 늘 저렇게 같이 붙어다니는게 못마땅했는데 나이트까지 같이 놀러다니는게 영 맘에 안들었다.

부르스 타임이 되자 정우는 인형의 손을 끌어잡고 인형과 부르스를 추었다.

약간 멈칫 하던 인형은 이내 정우와 다정히 스텝을 맞춰주었다.

"재밋어?"

정우가 인형에게 물었다.

"응. 재밋어. 스트레스가 짹 풀리는 느낌이야. 고맙다. 같이 와줘서"

인형이 웃으며 대답해 줬다.

"나도 좋았어. 제일 재밋게 논거 같아."

정우가 쿡쿡 웃으며 인형과 시선을 맞추었다.

지훈은 부르스를 추는 둘을 보자 화가났다. 웨이터에게 두둑히 팁을 찔러준 지훈은 인형의 일행들을 룸으로 안내해 달라고 말하
곤 그들을 기다렸다.

가은은 왠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요즘 지훈이 관심이진하던 인형을 여기에서 만난 것 부터 뭔가 찝찝했는데, 지훈은 벌써 같이 온 자신은 잊은 듯 보였다.

층을 추고 나서 자리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고, 떨떠름한 표정의 수호만 있었다.

"다들 어디갔어?"

인형이 주위를 살피며 물었다.

"저기 룸에"

수호가 2층을 가르키며 대답했다.

"거긴 왜?"

뭔가 이상한 정우가 물었다.

"지훈선배가 우릴 그리로 초대했어"

수호가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표정이 싸해진 정우는 아무말 없이 인형의 손을 잡았다.

"2층 어디야?"

룸으로 올라온 정우와 인형은 다들 미묘한 표정들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쭉 훑어보니. 예전에 한번 본 적 있는 노가은이란 여자 선배도 보였고, 지훈이랑 주로 같이 다니던 명진도 보였다.

살짝 고개 숙여보인 정우와 인형은 자리에 앉았다.

룸안 분위기는 싸했다.

다들 정우와 지훈의 눈치를 보았고, 가은은 인형을 노려보았다.

명진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일단 인형에게 말을 걸었다.

"다른 애들이랑은 다 아는 사이니 통성명 할 필요 없고. 나랑 이렇게 보긴 처음이지? 유명진이야. 저번에 너 뽕짝 잘부르더라?"

"하하 네. 최인형입니다."

인형은 더 이상 놀긴 틀렸다란 생각이 들었다.

"보기와 달리 잘 놀더라. 이런데 자주 다니나봐? 하긴 안 그렇게 생긴 것들이 호박씨 까긴 하지."

가은이 인형에게 비아냥 거렸다.

"그런말 많이 들어요."

인형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오랜만이다. 이리 와서 술 한잔 따라봐"

말없이 인형만 쳐다보던 지훈이 인형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정우가 대신 따르려 먼저 일어났다.

"왜 시키지도 않은 니가 해?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지. 뭐해? 안 따르고?"

웁한 정우가 한마디 할려고 하는 것을 인형이 정우의 팔을 잡아 당기고 일어났다. 그리고 수호에게 슬며시 눈치를 쬔다.

"하긴. 여성이 따라줘야 맛이 나죠. 나도 남자가 따라주면 술이 더 맛나긴 하드라구요"

인형이 일어나 지훈의 곁으로 다가갔다.

"양주?, 맥주?, 폭탄주? 어떤걸로 드릴까요?"

인형이 양주와 맥주를 양손으로 잡고 바텐더 같이 물었다.

"폭탄주도 탈줄 알아?"

명진이 재밌다는 듯이 물었다.

"주종목이죠."

인형이 냉큼 대답했다.

"폭탄주"

지훈이 말했다.

"오케이~ 폭탄주 마시고 싶은신 분들 지금 신청하세요~ 흥기야 너도 한잔 말아줘? 나리아? 은주야? 너희들은?"

인형은 이런 상황이 맘에 들지 않았지만, 이왕에 이렇게 된거 갈 때까지 가보자란 생각에 그냥 편하게 나가기로 마음 먹었다.

웁지 심술이 난 듯한 지훈이 자신을 도발시키려는 장단에 맞춰주고 싶진 않았다.

"나 한잔 줘봐 그럼"

어느덧 정우옆에 앉은 눈치 빠른 수호가 대답했다.

"그럼 나도~"

빛나리도 말했다. 이어서 은주와 흥기도 한잔씩 마신다고 했다.

"오케이~ 다섯잔. 잠깐만 기다려"

예전 실력이 나올려는지 몰랐지만, 예전에 대학때 무지하게 제조했던 인형이었다.

인형은 양주 한잔을 맥주잔에 넣고 맥주를 붓고 냅킨으로 위를 막고 손목스냅으로 돌리는 이른바 회오리주. 일단 한잔을 만든 후

냅킨은 벽에다 던져 척하니 붙이더니 지훈에게 척하니 한잔 건넸다.

이런 식으로 다섯잔을 만들어 척척 돌리는 인형이었다.

"많이 해봤나봐. 어디 술집에서 알바라도 하니?"

가은이 또 시비를 걸었다.

"원래 공부빠곤 잘 배우는 편이라서요. 영화보고 몇번 연습한 건데, 솜씨가 그정도로 좋아 보였다니 고맙습니다."

인형이 싱긋 웃으며 가은에게 대답했다.

빛나리와 은주는 슬며시 마주보며 웃었다.

가은은 인형에게 적수가 되지 못했다.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고딩 여자애들 쯤이야 노련하게 넘기는 인형이었다.

지훈은 인형이 정우와 같이 있는게 눈에 거슬려서 핫김에 술한잔 따르라고 시켰지만 곧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뻔한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정우가 일어나서 대신 따르려하자 차라리 잘 됐다란 생각이 들었다.

정우가 덤비면 그 핑계로 혼을 내줄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인형이 잽싸게 일어나 기분좋게 분위기를 리드해 나가니 조금은

허탈한 생각이 들었다.

자꾸 자신이 인형의 앞에서만은 조금해 지는 모습이 싫었고 짜증이 났다.

명진이눔은 벌써 인형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

명진은 인형을 가까이서 보니 지훈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듯도 했다.

보통 여자애들이랑 많이 달랐다. 외모와는 달리 성격이 털털했고, 리더쉽도 있었다. 자칫하면 싸해질수 있는 분위기도 노련하게 풀어나가고, 생각보다 매력있는 인형이었다.

룸에 있는 노래방 기계에 관심을 가지는 빛나리와 은주, 인형이었다.

명진의 권유로 인형이 먼저 노래를 한국 불렀다. 인형의 노래를 처음 듣는 빛나리와 은주는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다.

어느샌가 지훈, 정우, 가은 셋만 조용히 술만 마시고, 나머지는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수호가 조용한 발라드를 선곡하여 노래를 부를려고 했을 때였다.

지훈은 가은의 손을 잡고 나가더니 가은과 부르스를 추었다.

말이 부르스지 너무 끈적하고 애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노래를 부르려던 수호는 영 어색했는지 이내 자리에 앉아버렸다.

인형은 한편으론 놀란 면도 없잖아 있었다. 저렇게 끈적이며 둘이 부둥켜 안고 있는데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보였다.

이젠 가은이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춤을 추었다.

'이것들이 피 끓는 청춘들 앞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아주 접촉제로 발랐구만.. 무슨 고딩들이 저런 분위기를 연출한데? 암튼 요즘애들은 너무 발랑까졌어.'

인형은 본인이 여지껏 호프집이며 나이트며 섭렵하고 다닌 생각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앞에 두 사람에게 어쩐지 심술이 나서 속으로 욕을 하였다. 한편으론 무슨 상관이나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리 기분이 썩 좋지 않아지는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심리에 인형은 심란해 졌다.

"완전 대박이지 않냐? 지훈오빠 여자킬러라는데 평상시 저러고 노나봐"

놀랍다는 듯이 은주가 인형과 빛나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짧은 한숨을 쉬며 인형은 어깨를 으쓱하며 나리와 은주에게 맥주를 한잔씩 따워주며 그냥 맥주를 한잔씩 했다.

맥주를 한모금 마시던 은주가 헉하고 맥주를 내뿜었다.

지훈과 가은은 키스를 하고 있었다. 다들 놀란듯이 입을 벌리고 두사람을 쳐다봤다.

가은의 몸은 뒤로 젖혀져 있었고, 지훈은 가은의 허리를 단단히 붙들고 어찌나 선정적인 자세로 키스를 하는지 웬만한 일을 겪고

알건 다 아는 인형이라도 얼굴이 붉혀질 정도였다.

어느새 음악은 끝나고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도 둘의 키스는 끝이 날 줄 몰랐다.

"후와~ 끝내준다"

홍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조용한 가운데라 모두 그말을 들었다.

인형은 그 말을 듣자 머리속에 불이 켜졌다.

정우를 쳐다보니 정우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늘 짓던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었고, 수호는 저 두사람을 놀란듯이 호기

심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홍기는 아예 눈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다.

인형이 탁자를 '탁' 짚으며 홍기를 쳐다보며 일어났다.

"끝내준다니 뭐가? 홍기야?"

느닷없는 인형의 소리에 모든 시선이 인형과 홍기에게 쏠렸다.

홍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소리라 처음엔 인형의 말을 이해를 못했다.

인형이 앞에 놓여있는 맥주를 일어선 채로 원샷을 하고, 컵을 탁자에 탁하니 놓고는 홍기를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홍기야~ 키스와 섹스는 테크닉이 전부가 아니란다"

"뭐..뭐? 내가 뭘?"

당황한 홍기가 더듬거렸다.

주위의 반응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남자들은 테크닉이 뛰어나면 여자들이 뽕 간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남자들의 착각이야"

"그럼 뭐가 전부야?"

뒤에서 흥미진진하게 분위기를 살피던 명진은 느닷없이 성교육을 하는 인형이 재밌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물었다.

"교감이죠~ 키스와 섹스를 통해서 서로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교감. 테크닉은 옵션이죠."

인형은 결론을 짓듯 대답했다.

"그런 키스와 섹스를 해봤나봐. 궁금하네 어떤 느낌인지?"

어느새 자리로 앉는 지훈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란 듯이 본래의 얼굴로 돌아와 인형에게 물었다.

"망치로 머리를 맞아봐야 아픈걸 아나요? 안 맞아도 아프겠다란 걸 아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미 맞아봤는지도 모르지."

가은이 비아냥거렸다.

인형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내 냉정히 입술을 떼버리고 가은을 버리고 자리로 돌아가는 지훈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저 인형이란

아이가 더 미웠다.

"오우~ 하긴 너무 잘 아는 것이 의심스럽기도 해"

명진이 빙글거리며 맞장구를 쳐줬다.

인형은 씩웃었다.

"왜 남자만 성적 호기심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자도 성적 호기심 있거든요? 다만 호기심 관점이 다른거죠"

"관점?"

명진이 물었다.

"남자는 행위에 관심이 있다면, 여자들은 교감에 관심을 가지죠."

인형은 이말을 하고 난 뒤 흥기를 쳐다봤다. 흥기는 인형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오자 왠지 불안해졌다.

"그래서 포르노를 너무 보지 말란 말이야.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 때니 볼 순 있어. 하지만, 호기심으로 한두번 보는건 괜찮지만,

너무 거기에 몰입하면 잘못된 성상식이 생긴다 말이야, 알겠니?"

늘 자기만 가지고 그런다며 군시렁거리는 흥기였지만, 대놓고 말하기엔 인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더 나올지 몰라 몸을 사리는 흥

기였다.

성교육을 끝낸 인형이 핸드폰을 꺼내들고 시계를 봤다.

"이만 가야 될까 같은데. 너무 늦었다. 이만 가봐야 될까 같은데요 선배님?"

인형이 지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빛나리와 은주도 주섬주섬 일어났다.

지훈은 말이 없이 인형을 쳐다보며 술만 마셨다.

"그래~ 재밌었다. 다음에 기회되면 또 보자"

명진이 대신 얼른 대답을 하였다. 인형은 지훈을 한번 더 쳐다보곤 일어나 빛나리와 은주와 같이 먼저 나갔다.

정우는 일어나서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전 인형이 좋아합니다. 인형이 선배님이 데리고 놀다 버리던 그런 여자애들과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엔 저도 안참습니다."

"안 참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누가 데리고 논데? 나도 관심있다고 말했을텐데? 나도 그 교감이란거. 저애랑 한번 해보고 싶거든. 너랑 상관없잖아? 건방떨지 말고 나가"

지훈이 픽 웃으며 대답했다.

정우는 표정이 굳어져 지훈을 노려보다 몸을 돌려 나갔다. 조마조마해 하던 수호와 흥기도 얼른 뒤따라 나갔다.

인형의 일행이 다 나가자 가은은 지훈을 노려보았다.

"지금 이게 뭐하자는 거야?"

"뭐?"

지훈이 귀찮다는 듯이 되물었다.

"나랑 장난해? 뭐 저 기집애랑 교감해보고 싶다고? 그럼 나랑 키스한건 뭐야?"

"푸핫. 키스가 키스지 뭐야. 니가 바라던 거 아냐? 너도 즐겼잖아? 그럼 된 거 아냐? 뭘 더해주길 바래? 근데 이젠 내가 흥미 떨어졌거든. 그러니깐 너도 그만 꺼져. 짜증나게 구질구질하게 굴지말고"

"너..너..나한테 감히. 그딴 기집애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내가 가만있을 줄 알아?"

짜증난 목소리로 더 이상 이야기 하기도 싫다는 듯이 말하는 지훈의 대답에 가은은 분노로 몸이 덜덜 떨렸다.

"가만 안있겠다는 것들이 오늘 왜이리 많아? 뒷감당 할 자신 있어? 있으면 맘대로 해봐. 명성식품? 웃기고 있네. 그집 딸년이 이

놈저놈이랑 어울려 몸팔고 다니는거 너희 아버지도 알아? 더 이상 재수없이 굴지 말고 꺼져"

정색을 하는 잘생긴 지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잔인하고, 냉정하고 위협적이었다.

얼굴이 창백해진 가은은 지훈을 노려보더니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지켜보던 명진은 고개를 설래 설래 저었다. 지훈이 여자애들 때놓을때는 가차없다는 걸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 가은이 안되보일

지경이었다.

"정말, 적응안된다. 아무리 봐도 니가 여자 때는 모습은... 그나저나 뽕짝은 어떻게꺼냐? 보통내기 아니던데..너만큼이나 어디로

튕지 모르는 성격 같던데.. 어찌자고 그런 애 한테 꽃혀가지고..."

명진이 군시렁 거렸다.

지훈은 인형에게 자극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가은을 끌고나가 춤을 추면서도 신경은 모두 인형에게 가 있었다.

인형은 처음엔 놀란듯 보였지만, 이내 맥주를 마시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걸 보자, 어디 두고보자란 총동적인 생각으로 가은에게

키스를 했다.

인형의 자극하고 싶었다. 명진의 예전의 말이 크게 작용한 탓도 있었고, 인형의 어린애같다란 말도 지훈의 자존심에 상처가 있었

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한쪽 마음속에는 인형이 완전 자신에게 관심이 없지는 않으리란 자신감도 있었다. 나중에는

가은이 매달려 짜증은 낫지만, 인형이 자신에게 외면하는 건 더 못 참을 것 같았다.

흥기란 놈이 부러운지 감탄하는 소리를 지훈은 들었다. 그소리에 인형은 벌떡 일어나더니 진지하게 성교육을 시작하는게 아닌가.

허탈해진 지훈은 달라붙는 가은을 떼어내었다.

허탈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인형이 말하던 교감이란 말이 귀에 들어왔다.

예전 아주 처음에는 약간의 호기심도 있었지만,. 늘 주위에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기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습관처럼 재미로 달라

붙는 여자들처럼 어울려 다녔다. 의미같은건 없었다. 그냥 욕구를 풀면 그걸로 끝인거였지. 하지만 인형이라면 다를것 같았다.

인형과는 그 교감이란 걸 해보고 싶었다. 의미없는 삶에 인형이 자신에게 의미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는 인형이 손에 잡히지 않아 조금해지고 화가나는 지훈이었다. 게다가 정

우란 놈이 거슬렸다. 인형의 태도로는 정우에게 친구처럼 대하는 것 같았지만,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훈은 태어나서 두번째로 자신이 너무 원하는 것 마저도 자신을 끝까지 외면할까봐 겁이났다.

"뽕짝 실제로 보니 엉뚱하지 않냐? 나 살다살다 나이트에서 성교육 받아보긴 처음이다. 그나저나 정우저놈이랑 너무 어울려 다니

는데 둘이 사귀는거 아냐? 하긴 정우놈도 잘나긴 했지. 둘이 만약 사귀는 거라면 어땠하냐?"

"훗! 어땠하긴. 뺏으면 되지."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순 없었다.

명진은 입을 떡 벌여졌다. 천하의 한지훈이 여자를 뺏는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형은 요즘 지훈때문에 죽을 맛이였다.

지훈은 아예 작정을 했는지 이젠 적극적으로 인형에게 대쉬를 하였다.

학교내에서 이젠 인형은 유명인사였다. 지훈의 그녀로..... 인형은 인기 연예인들의 고충을 어느정도 알 것 같았다.

어딜가도 수근거리는 소리. 호기심어린 시선들.다른 여자아이들의 질투어린 시선들, 인형은 미칠지경이었다.

지훈은 인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났다. 점심시간때 지훈은 아예 인형의 옆자리에 찰싹 붙어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 무반응

도 다소 신경질 적인 반응도 소용없었다.

쉬는시간에는 간식거리를 들고 인형의 반에 찾아왔다. 하교길에도 인형과 함께 했다.

"자존심 지존 한지훈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다.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은주가 지훈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감탄스런 어조로 말했다.

방금까지 지훈이 인형의 뒤를 쫓아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은주가 말했다.

"어쩔꺼야? 아주 작정을 한 거 같은데.. 정말 지훈오빠가 저러고 나올 줄은 몰랐다."

빛나리도 걱정스럽다는 듯이 인형을 쳐다봤다.

"저러다 언제 돌변할지 난 그게 더 무섭다."

은주도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인형은 한숨만 나왔다. 자존심 강해보이는 실제로도 강했지만, 지훈이 저렇게 까지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붙들고 어느 누구하고 사귀고 싶지 않다고 사정도 해봤다. 지훈은 정우와는 또 달랐다.

"누구랑 사귀다는 것 보단 다행이네. 사귀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거니깐. 신경쓰지마. 이러다가 너한테 관심 떨어

지면 언제 그랬냐란 듯이 떨어져 나갈테니깐"

지훈은 진지하고 담담하게 단호히 말했다. 인형은 당황이되었다. 살면서 자기를 이렇게 좋다고 매달리는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어

찌할 바를 몰랐다. 일단 저러다 말았으면 하는게 제일 큰 바람이었다. 되도록 빨리.

정우는 며칠전 지훈과 만났던 일을 생각했다.

"인형이랑 사귀는 사이 아니란 거 알고 있다. 물론 니가 인형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지.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내가 인형이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나도 이젠 행동을 달리 해 볼려고 해. 그러니 태클걸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건 내 경고야. "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고, 정우에 대한 경계심도 보였다.

"저 또한 인형이 포기 안합니다. 만약 인형이에게 함부로 하거나 상처주는 행동을 하시면 그땐 가만히 앉았을 겁니다. "

정우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조로 대답했다.

피식 웃으며 지훈은 일어나 가버렸다.

지훈은 그 말을 지키려는 듯이 적극적으로 인형에게 대쉬를 했다. 인형은 다소 당황은 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지훈에게 맘은

없는 듯 보였지만, 정우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훈은 체육관 뒷 벤치에 누워있었다. 요즘 마음이 좋지 않으면 지훈의 발걸음은 그쪽으로 향했다.

인형을 처음 만나고, 고백을 했던 곳이라 그런지.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어느정도 진정이 되는 듯 했다.

하루하루 갈수록 절망감을 느꼈다. 인형에 대한 마음은 하루하루 갈수록 커지는데, 인형에게는 빈틈이 보이지않았다.

지훈의 얼굴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주 요즘 여기에 동지를 틀었구나, 니땀에 요즘 애들이 여기에 오질 못한다. 무슨 개인정원도 아니고. ..."

명진이 투덜대며 지훈을 내려다 봤다.

"뭐야?"

"뭐긴. 내가 너땀에 아주 미치겠다. 무슨 첩보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뽕짝하고 니 사이에 끼서 이게 무슨 짓이냐. "

지훈은 몸을 일으켰다.

"무슨일이야?"

뽕짝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커지는 지훈을 보니 명진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수도 있구나란 생각에 신기하

기도 했다.

"오늘 저녁 뽕짝이랑, 정우애들이랑 '까를로'에서 저녁먹는 다더라. "

"까를로?"

"어. 이태리음식점. 알지? 우리도 몇번 가본적 있잖아"

"알아. 몇시래?"

지훈의 눈이 빛이났다.

"진짜 가려고? "

명진이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다.

"응. 넌 가기 싫으면 말든가"

"됐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어디 한번 지켜보자. 간다 가~"

지훈의 시큰둥한 대답에 명진은 얼른 따라가리라 맘을 먹었다. 이런 구경거리를 놓칠순 없었다.

인형은 흥기의 등쌀에 결국 저녁을 쓰기로 했다.

저번 나이트에 지훈이 돈을 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형은 쓴게 아니란 흥기의 이론이었다.

그래서 그때 그 멤버 그대로 인형이 저녁을 쓰기로 하고, 장소는 예전에 우현과 함께 가본적이 있는 이태리 음식점으로 정했다.

그집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고, 실내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인형은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인형은 방과 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약속장소로 향했다.

거기에서 나이트 멤버 모두를 만나리라곤 인형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인형이 도착했을때는 인형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난감한 표정의 빛나리와 은주 , 느긋한 표정의 지훈과, 명진이 같이 있는 모습이 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한 인형이 눈으로 빛나리를 쳐다봤다.

"아.아니..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여기 앉았는데. 지훈오빠랑, 명진오빠가 마침 여기서 저녁먹으로 왔다면서.. 같이 합석하자고 해서.. "

빛나리가 인형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설명하였다.

뭔가 수상쩍은 생각이 든 인형이었지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쫓아낼 순 없는 일이었다.

결국은 정우일행이 도착하고 8명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인형의 옆자리에 자리잡고 앉은 지훈은 매너 좋게 식사 내내 인형의 시종을 들어주었으나, 이것마저 불편한 인형이었다.

정우의 표정도 좋아 보이지 않고, 인형은 이 저녁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아이고~ 인기 좋은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젊었을때는 한명도 대쉬하는 놈이 없더니만, 필요없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몰려와서 날 힘들게 하네.. '

인형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활달하고, 은근 매력있던 은영이었지만. 그땐 재형에게 훌쩍 빠져서 다른 남자들에게 관심을 두지않

아서 미처 몰랐던 것 뿐이었다.

인형은 식사를 거의 끝내고 후식을 기다리면서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다.

빛나리와 은주도 인형과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

"진짜. 대박이지 않냐? 여기서 어떻게 딱 만난다니? 이거 뭔가 운명 같지 않냐?"

은주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운명은 무슨. 내가보기엔 지훈오빠가 무슨 수라도 쓴거 같구만"

빛나리가 코웃음을 쳤다.

"무슨수?"

인형이 빛나리에게 물었다.

"여기서 무슨 남자 둘이서 밥을 먹겠다고 들어오겠니? 우기니깐 넘어가 준거지. 암튼 지훈오빠 작정을 한 모양인데. 너도 이리저

리 휘돌리지 말고 확실하게 하는게 나을꺼 같다."

빛나리가 인형에게 충고를 했다.

뭔가 수상쩍다 했더니만, 인형은 머리가 아팠다. 두고 볼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셋이 손을 씻고 나간뒤, 화장실에서 가은이 나왔다.

여기 이태리 음식점은 가은도 즐겨 오는 곳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인형일행을 만날 줄은 몰랐다. 게다가 지훈도 여기에 와있다면

말을 듣자 가은의 입매가 잔인하게 위로 올라갔다.

후식으로 여자들은 아이스크림으로 남자들은 음료수를 시켜서 먹고 있었다.

"어머나, 여기에서 다 보네. 저녁먹으로 왔나봐"

가은이 놀랍다는 듯이 인형의 일행의 자리로 와서 인사를 건넸다.

지훈의 잘생긴 눈매가 찌푸려졌다.

가은은 지훈의 이런 반응에 더욱 화가 났다. 그리곤 인형은 쳐다보며 말을 건넸다.

"넌 보면 볼수록 놀랍다. 소문이 짜하게 났더라. 남자들 후리는데 타고 났다고? 역시 핏줄은 못속이나봐"

"씨팔. 뭘 개소리야. 재수없이 굴지말고 꺼져라"

지훈이 무섭게 인상을 쓰며 가은을 찌렷다.

가은은 약하게 코웃음을 치며 들은 척도 안하고 인형에게 말을 건넸다.

"너희 아버지가 태인그룹 최무영회장님이라매?"

가은의 말에 다들 귀를 의심했다. 태인그룹이면 국내에서 5위안에 드는 굴지의 그룹이 아닌가. 다들 가은과 인형을 번갈아 보았다.

이런 반응에 가은은 흡족한 듯이 입을 열었다.

"나도 깜짝 놀랐다. 태인그룹 딸이 우리학교 다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같은 사람들 모임에도 왜 너를 한번도 못봤을까 하고 말이야. "

"태인그룹? 내가 아는 그 태인그룹 말이야?"

흥기가 놀랐다는 듯이 인형을 쳐다보며 물었다.

인형은 알수 없는 표정에 아무말 없이 가은만 쳐다봤다.

"하긴 모임에 나올수 없었겠지. (약간 땀을 흘리며 가은은 씩 웃었다) 너 그집 사생아라며?"

모두들 그 소리에 놀라 입을 다물수가 없었다. 여러차례 터지는 폭탄에 정신이 없는 듯 했다.

"그래서?"

인형은 가은의 유치한 행동에 약간의 분노가 생겼다. 어디 한번 해보자란 생각에,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인형이 놀라고 당황해 하리란 생각이었던 가은은 예상외의 반응에 놀랐지만, 이 반응에 더욱 약이 올랐다.

"친구들도 다들 몰랐나봐. 하긴 나라도 숨기겠지. 너 낳아준 여자 아주 유명한 마담이라며? 웬만한 그룹 인사들은 다 거치고 지나갔다고 하던데. 너 낳았을때 최무영회장님이 하필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

인형은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지라 너무 놀랐다. 인형의 친모가 가끔 궁금하긴 했지만, 굳이 알고 싶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상상은 미처 하지도 못한 일이었다.

인형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자 가은은 분이 약간은 풀리고 쾌감을 느꼈다.

지훈은 가은의 입에서 태인그룹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라 약간 얼떨떨하게 계속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인형의 출생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 지훈이 인형의 얼굴을 보니 인형의 얼굴이 창백하고 굳어져 있는걸 보자

자신도 모르게 가은에게 살인적인 분노가 생겼다.

가은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지훈이 몸을 일으키려 했을때 인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앉아. 여기 앉아서 이야기해"

인형이 가은을 뺨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야기 할꺼 많은 모양인데. 앉아서 이야기해. 고개 들고 들으려니 목아파"

인형은 표정을 수습하고 가은에게 인형의 앞자리를 가르켰다.

만만치 않는 인형의 대응에 가은은 당황도 되었지만, 여기에서 물러날 순 없었다.

자리에 앉는 가은을 보자 인형이 물었다.

"그리고 또 뭐 있어? 나에 대한 이야기?"

"뻔뻔한건 엄마 닮았나보다. 하긴 집에서 인정못받고, 사람취급도 안하는데서 곳곳이 살려면 뻔뻔해야 되겠지."

인형이 씩 웃었다.

"나한테 관심 많나봐. 조사 많이 했네. 돈좀 더 주더라도 좋은 데서 의뢰하지 그랬어. 그런 엉터리 정보는 어디서 얻는 거야? 적

어도 내가 하루에 화장실은 몇번 가는거까지도 알아야지. "

"헛!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야? 니가 그집 사생아란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 반은 맞아, 사생아란 건 맞아. 하지만 그 반은 확인해 봐야겠지?"

"갈갈갈. 아주 웃기는 구나. 그래 그 반 확인해봐. 그럼. 난 이만"

가은은 인형이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웃으며 자리에 일어났다. 어째든 만족은 아니더라도 소정의 목적은 달

성했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다.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의 표정은 놀람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속이 얼마

간 후련했다.

"노가리. 앉아."

인형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뭐? 노가리? 이게 ..뭐 이렇게 다있어?"

"앉으라고 했다. 말을 꺼냈으니 확인해야지. 난 성미가 급해서 지금 당장 확인해야 겠거든. 그러니 닥치고 앉아라. "

인형은 핸드폰을 꺼내들고 가은을 노려보며 살벌한 표정으로 위협했다.

인형의 표정에 움찔한 가은은 도로 주저 앉았다. 가은은 왠지 조금 불안해졌다.

인형은 고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과장님? 저예요. 지금 큰 오빠 어디 있나요?"

"아 그래요? 아무리 중요한 미팅자리라도 저한테 지금 당장 전화달라고 해주세요"

인형은 전화를 끊고 가은을 쳐다봤다.

"뭐.뭐하자는 거야?"

가은은 자꾸 불안해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먼저 시작한거 너잖아.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지. 명성식품 딸의 말이 맞는지. 태인그룹 사생아말이 맞는

지 확인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가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인형의 전화가 울렸다. 인형은 전화기를 스피커 폰으로 하고 받았다.

"어. 나야 오빠. 명성식품이라고 알아?"

명성식품? 갑자기 명성식품은 왜?

"우리학교에 명성식품 딸이 다니는데. 나한테 관심이 많나보드라구 , 나도 모르는 나의 출생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줄줄 읊어주더

라구."

뭐?.... 명성식품이라고 그랬냐?

"응.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명성식품 딸이면, 관심가져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별볼일 없는 집안 같으면....음... 어떻게 할까?"

*....구멍가게 집 딸이 겁이 없나보군. 니가 하고 싶은 데로 해 *

여기까지 말하곤 인형은 스피커 폰을 켰다.

"응. 알았어.....자세한 건 집에가서 이야기 할께. 집에서 봐"

인형은 전화를 끊고 가은을 쳐다봤다.

가은의 표정은 당혹스러움, 불안함. 두려움까지 겹쳐 엉망이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가은은 죽은 목숨이었다. 분명히 이야기 듣기로는 인형은 집안에서 인정 못받고 방치된 상태의 딸이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가은은 느끼고 안절부절해졌다.

"가봐~"

인형이 가은에게 말했다.

"어? 어..."

가은은 설마 그냥 보낼줄 몰랐던 지라 얼떨떨하게 일어나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아~ 오빠가 그러는데. 너희집 가정교육 좀 잘 시키라고 너희 아버지한테는 따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 생각난 듯이 인형이 가은의 뒷통수에 대고 이야기 했다.

잠시 우뚝 서서 움직이지 못하던 가은이 비틀대며 가게를 나갔다.

인형은 가은의 모습이 사라지자 기운이 쭉 빠졌다.

늘 주눅들어 구석으로 숨으려고만 하는 인형이,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약간은 못마땅했었다. 하지만 어릴적부터 주위에서 수근대는 이런 소리들을 듣고 자라온 인형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자신의 존재가 싫었을까. 이런 짐을 짊어지고 움츠려들던 어린 인형이 눈 앞에 보이는 듯 했다.

이것은 인형의 잘못이 아니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른들의 죄를 조그마한 아이에게 짊어지게 한 것이었다.

인형의 눈앞에 손수건이 불쑥 나타났다. 인형은 자신이 울고 있음을 알았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지훈이 인형의 눈물을 닦아주며 인형의 어깨를 안았다.

웬지 모를 억울함에 눈물이 났고, 웬지 모를 따스함에 눈물이 또 났다.

모두들 아무말들이 없었다. 인형에게 그러한 아픔이 있는지, 인형의 소리없는 울음이 가슴이 저려와서 그냥 묵묵히 침묵만 감돌 뿐이었다.

인형은 겨우 감정을 추스리고나니 약간 멧쩍어졌다.

"휴~ 정말 주책이다. 미안하다. 이런꼴까지 보여줘서.."

"흥~ 정말 너무한다. 최인형"

빛나리가 인형을 때려보며 화를 냈다.

"...미안한데, 뭐 속이려한건 아니고"

"그렇게 부자면서 쪼잔하게 파스타를 사주다니..적어도 랍스타정도는 사줘야지. 나 정말 재벌딸 친구맞아?"

빛나리는 인형의 말을 자르며 투덜댔다.

"그러게. 이런 부잔줄 알았으면, 덜 미안해도 되는 건데. 돈 낼때 약간 미안한 감이있었는데.. "

수호가 맞장구를 쳤다.

"니가 많이 이상한 애긴 하지만, 니가 재벌딸이란 걸 안 이상, 계속 친구할꺼야. 넌 딱 걸렸어"

은주가 인형을 쳐다보며 각오하란 듯이 말을 건넸다.

"나두 나두, 정말 대박이다. 난 정말 재벌딸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

눈치가 썩 빠른 편은 아니지만, 홍기는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했다.

뜻밖의 친구들의 말에 인형은 말문이 막혔다. 인형이 어색하지 않게 배려해주는 그 마음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인형은 미

소를 지었다.

"울다가 웃으면 몸이 변한다던데"

가은이 폭탄을 터트릴때부터 약간 놀란 듯은 했지만 시종일관 아무말 없이 인형을 바라만 보던 정우가 진지하게 말을 던졌다.

"풋, ㅋㅋㅋㅋ. 하하하"

이말에 다들 웃음을 터트렸다.

땀엔 분위기를 변하게 하려고 던진 정우였지만, 너무나 무표정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농담을 건네자 도리어 예상보다 큰 웃음을 자아냈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 영광으로 알아. 이것들아."

인형은 생각보다 멋진 친구들을 두었다란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나저나, 노가은이 떠들고 다니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명진이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을 꺼냈다.

이말에 다들 입을 다물었다.

"걱정하지마, 그런일은 없을꺼야."

아무말 없던 지훈이 단호히 말을 했다.

"그리고, 네가 아까 한 말이 먹혔을꺼야. 잘했어"

지훈은 인형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져서 인형은 조금 전에 안겨서 울던 생각이 나서 얼굴이 약간 붉어짐을 느꼈다. 인형을 안아주던 지훈에게선 편안함과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인형은 지훈과의 사이에 알수없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두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정우는 아릿한 아픔이 느껴졌다.

.
.

약간은 힘이 없어보이는 인형은 바래다 주겠다는 정우와 지훈을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다.

집안으로 들어오다가 거실에서 인형은 박여사와 마주쳤다.

어느때와 다름없이 인형을 한번 힐끗 쳐다본후 외면을 하고 돌아서는 박여사의 뒷모습을 보자 인형은 울컥하고 다시 감정이 났다

.

"저라면 최회장님께 화풀이 하겠어요"

인형의 말에 박여사는 멈칫하며 인형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

박여사는 처음에는 다소 놀랐지만, 이내 눈꼬리가 올라갔다.

"잊어버렸니? 니가 이집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넌 네 이름처럼 인형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너란 아이 그 자체가

잘못이야."

"아뇨. 전 그냥 최인형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존재란 없어요. 잘못된 존재, 축복받은 존재그딴걸 누가 정하죠? 품위있으

신 박여사님이 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하. 애당초 그 품위, 우아함따윈 버리셔야 했어요. 가면따윈 벗어버리세요. 그냥

회장님을 잡고 화풀이 하세요. 꼬집고, 물어뜯으시라고요. 힘없는 어린애에게 화풀이를 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비겁하고.."

'짜악' 박여사는 인형에게 다가와 뺨을 후려쳤다.

"감히.. 니따위가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어디에서 배워먹은 짓이야? 출신은 못 속인다더니. 요즘 강현이와 리현이까지 구워삼더

니 아주 기고만장하구나?"

박여사는 인형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노여움에 몸이 떨렸다.

애초에 인형이란 존재를 비천하고 없었어야 할 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박여사와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형을 바라보고

수근거렸을 존재들을 생각하니, 인형은 허탈함과 비참함에 가슴이 아프고, 이 집안이 싫어졌다.

"정말 끔찍했을꺼예요. 나라도 죽고 싶었을꺼예요..."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던 인형은 몸을 돌려 집을 나왔다.

정원에서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우현과 마주쳤다.

"어? 인형아..어디나가?.. 너 왜그래? 무슨일이야?"

우현이 인형의 얼굴을 보고 놀라 다급히 인형을 붙잡았다.

그때 집안에서 와장창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우현은 집안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이에 인형은 휘적휘적 집을 나섰다.

인형은 집을 나와 얼마나 걸었는지 몰랐다.

한참을 걷다보니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갈 곳도 마땅히 없었다. 인형은 멈추어서 우두커니 서있었다.

길 잃은 미아가 된 것 같았다. 아니, 고아가 된 것 같았다.

생각이 난 듯 인형은 다시 발걸음을 떼었다.

인형이 택시에서 내린 곳은 정애집 근처였다.

막상 보고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인형은 어찌해야 될지 망설여졌다.

인형은 정애집 골목 어귀에 쭈구리고 앉았다. 다리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해졌다.

가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인형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 혹시 최인형? 어머니, 맞네. 어디서 본 듯 해서 가려다 다시 왔는데, 인형이 맞구나. 나 누군지 알지?"

익숙한 목소리에 인형은 고개를 들자 정애가 놀란듯 하지만 이내 반가운지 웃음띤 얼굴로 인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흑흑흑~~"

인형은 정애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나왔다.

갑자기 정애를 보자 눈물을 흘리는 인형이 당황되긴 했지만 정애는 그냥 인형의 손을 잡아주었다.

"여긴 왜일이야? 어쨌든 일단 어디 들어가자. 누가보면 내가 어린여자애 뺑이라도 뜯는 줄 알겠다."

정애가 인형을 데리고 들어간 곳은 정애의 집이었다.

인형은 정애의 집앞에 서자 가슴이 먹먹해 졌다. 일주일에 두번정도는 정애집에 들락거리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리움이 몰려왔다.

"우리집인데.. 늦은 저녁이라, 너랑 들어갈 만 한데가 없어서... 그냥 편하게 들어가자. 우리집 식구들 좀 억세긴 해도 너 잡아 먹진 않을꺼야"

인형이 멈칫하자 정애는 인형이 집에 들어가기가 불편해 하는 줄 알고 농담조로 가볍게 말하며 인형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인형이 들어가자 방에서 나오던 정애의 엄마가 인형을 보자 깜짝 놀라워했다.

"아니 이 학생은 누구야? 학생 혹시 우리 딸에게 맞았수? 이노무 기집애. 이젠 어린 학생도 패고 다녀? 이리 당장 안와?"

정애모는 인형을 훑어보다가 인형의 뺨이 부은 것을 보고, 정애를 노려보며 소리질렀다.

"엄만 미쳤수? 누가 보면 내가 양아친줄 알겠네. 내가 왜 엘 때려? 알지도 못하면서.. 창피하게시리.. "

정애와 정애모가 투닥거리는 걸 보자 인형은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 근데 왜 저 학생이 울어? 볼도 툇팅 부었구만"

정애모가 인형에게 다가와 얼굴을 만지며 들여다보았다.

"으아앙~"

인형은 정애모가 얼굴을 만지자 그만 정애엄마에게 안겨 엉엉 울음을 터트렸다.

정애엄마는 갑자기 안겨드는 인형에게 놀랐지만, 너무 서럽게 우는 인형을 꼭 안아주며 토닥여줬다. 정애엄마에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엄마냄새가 났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정애엄마가 늘 친정엄마처럼 챙겨주던 일이 생각이 났다.

한동안을 펄펄 울던 인형을 정애도 걱정스럽고 안쓰럽게 쳐다보았다.

웬지 처음 볼 때부터 정이 가던 인형이었다. 은연을 생각해서 더욱 그랬지만, 웬지 처음보는 사람같지 않고, 그때도 충격받은 듯

이 비틀대던 인형이 못내 안쓰러웠었다.

한동안 울던 인형을 진정시키고 정애엄마는 따뜻한 차를 한잔 타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인형을 데리고 정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인형은 정애의 방을 둘러보았다. 별로 변한것이 없는 정애의 방이었다. 화장대 위에 은영이랑 찍은 사진이 여전히 놓여있는 걸

보자 인형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진을 뺀히 쳐다보는 인형을 보자 정애는 힘겹게 웃었다.

"고등학교때 찍은 사진이야.. 그때 우리 잘 나갔었는데.. 그때가 젤로 행복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불행은 닥치면 금

방 느끼는데 행복은 지나고 나서야 알수 있는 거 같아..."

인형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젠 털어놓자. 왜 그러고 다니는지.. 얼굴은 왜 그렇게 됐는지도 털어나봐."

인형은 망설여졌다.

"우리집 근처에서 볼 줄은 정말 몰랐어, 인형아. 너희집도 여기 근처야?"

정애는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아..뇨, 그냥 걷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 정말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보다, 그리고 다행이다. 나랑 만나게 되서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여학생이 혼자 다니긴 위

험하지. 근데, 집에선 걱정하지 않을까?"

집이야기가 나오자 인형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인형의 어두워지는 표정을 보자 정애는 더욱 걱정이 되었다.

"휴~ 원일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식구들 걱정시키는 건 안돼. 뭐 나도 이 나이먹어도 그게 잘 안되긴 하지만....그래도

가출은 안돼."

인형은 정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갈등에 사로잡혔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정애는 믿어줄 것 같았다.

인형의 걱정을 하는 정애의 얼굴을. 눈을 쳐다봤다. 정애의 눈엔 최인형이 보였다.

인형은 마음을 접었다. 더 이상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 했을 정애를 또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망설이는 듯한 인형을 보자 정애가 기운차게 말했다.

"너무 곤란한 이야기가 아니면, 그냥 털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속에 담아 두면 병된다. 또 알아? 내가 도움이될지?"

인형은 정애에게 담담히 이야기를 하였다. 인형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은 후 정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지금은 과거의 최인형이 아니잖아? 왜 다시 잊었던 과거를 다른 누군가 들먹인다고 해서 왜 다시 상처를 받으려고 해? 그런 모습이 싫어 예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럼 뒤를 보지 말고 가. 너와 관련된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한가한 것들은 지네들 끼리 놀라고 해."

인형은 묵묵히 듣고 모습을 본 정애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여사의 그런 태도, 그런 삶 또한 박여사의 삶이야. 박여사도 상처받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아예 눈을 감아버리자 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난 도리어 사사건건 간섭하고 구박하는 계모도 많았는데, 그것보단 낫다고 생각해."

정애의 말이 끝나자 인형은 정애의 말을 다시 곰곰히 생각해 봤다.

정애의 말대로 인형이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것을 알게되어 그것에 또다시 상처받으면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과거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박여사도 마찬가지였다, 박여사도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크게 받았을 것이었다.

아름답고 우아한 박여사의 표정없고 생기없는 모습을 보고 인형도 처음에 매우 안타까웠었다.

그리고 박여사와 최희장 사이에서 세 아들들 또한 피해자였다.

인형은 그 집 식구 모두가 누가 크고, 작다라고 비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인형이 마음을 열자 박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고 인형을 받아주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도 인형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지 않던가.. 생각을 어느정도 정리하자 인형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흔들렸던 자신을 다잡았다.

인형은 정애를 쳐다봤다. 인형을 쭉 지켜보던 정애의 얼굴에도 미소가 어렸다.

인형이 되어서도 정애에게 도움만 받는게 미안해졌다. 그리고 고마웠다.

인형도 정애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집에 전화해봐...걱정할꺼야"

정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난 냉장고에 맥주가 있나 보러 가야겠다."

자리를 피해주려는 듯 정애가 방을 나갔다.

인형은 택시안에서 꺼버리고 가방에 넣어둔 핸드폰을 찾아 전원을 켰다.

켜자마자 메시지가 쉴새없이 들어왔다.

강현,우현,리현의 전화번호가 돌아가며 찍혀있었다. 특히 리현은 걱정을 많이 한듯 했다.

인형은 강현에게 우선 전화를 했다.

신호가 가기 무섭게 강현이 전화를 받았다.

"그래 나다. 어디야?"

"죄송해요. 친구집이에요."

"휴~ 친구집 주소 불러라. 지금 갈테니.."

"그냥 택시타고 갈게요."

"너무 늦었다. 고집피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주소불러라"

인형은 정애집 위치를 가르쳐 주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기 무섭게 전화가 올랐다.

리현이었다.

"너 어디야? 왜 전할 꺼냐. 어디야?"

받자마자 리현이 소리쳤다.

"미안해.. 큰오빠랑 방금 통화했어. 데리러 온대... 걱정했어?"

"그걸 말이라고 해? 다 큰 기집애가 집을 나갔는데, 암튼 알았어. 내가 갈테니 거기서 꼼짝말고 있어."

말을 마친 리현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인형이 다시 리현에게 전화를 거니 통화중이었다.

"휴~ 정말 성미급하건 알아줘야 한다니깐.....주소도 모를텐데.."

일단 강현이 온다고 했으니 인형은 정애와 정애식구들에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거실로 나가려다 정애의 방을 한번 더 둘러보았다.

그러다 인형의 눈에 정애 방 달력에 동그라미가 쳐진 것이 눈에 띄었다.

인형이 들여다보니.. 은영엄마의 기일표시였다.

인형은 정애가 엄마의 기일까지도 챙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 정애의 마음씀씀이에 인형은 너무 고마웠다. 인형이 거실로 나가자

정애는 거실소파에 앉아있다가 인형을 보자 씩 웃으며 일어났다.

인형은 정애에게 다가가 포옹을 했다. 정애 또한 인형을 다정히 안아주었다.

"너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란 말로는 부족한거 같아요.."

인형의 물기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냐.. 웬지 너 보면 남같지 않아.. 처음 볼때부터 그랬거든.. 언제라도 힘들면 전화하거나, 나 찾아와. 언제든 환영이야."

정애는 인형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인형은 정애의 얼굴을 쳐다보며 진심으로 하고 싶던 말을 꺼냈다.

"인생에서 고통받을때 마다 나란히 어깨를 하고 같이 걸어준 친구였대요. 그런 친구를 댜서 자긴 너무 행운아였다고.... 은영언

니가 말했어요."

느닷없는 말에 정애는 약간 멍했다가 이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투. 라고 대답할래.. 은영이도 내겐 그랬으니깐."

인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정애의 엄마가 거실로 나왔다. 거실에 나와있는 인형을 보자 정애엄마는 다시 인형을 붙들고 물었다.

"정말 우리딸에게 맞은 거 아니지? "

"엄마~~"

정애가 소리쳤다.

한참을 두 사람이 투닥거리고 인형의 핸드폰이 울렸다. 리현이었다.

"다 온거 같은데 나와"

"강현오빠가 오기로 했는데?"

"내가 간다고 했어. 얼른 나와"

인형은 전화를 끊고 정애식구들과 인사를 하고 정애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골목 끝쪽에 리현의 차가 보였다. 인형은 다시 정애와 포옹한 후 인사를 하고 리현의 차로 걸음을 옮겼다.

운전하는 리현은 아무말이 없었다.

무거운 분위기에 인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어머니 괜찮으셔? 아깐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나봐..."

"됐어, 덕분에 박여사께서 간만에 사람다워 졌으니깐. 도리어 고맙다고 해야 돼나.."

알수없는 소리를 리현이 했다.

"하지만, 다신 집 나가는 짓 하지마."

리현은 인형의 얼굴을 힐끗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응..... 갈때도 없더라.."

약간 침울한 목소리로 인형이 대답했다.

"붕신. 갈때가 왜 없어?"

"...?"

"나한테 전화하면 되지. 그런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 호텔이라도 잡아줄테니깐."

인형은 리현을 쳐다봤다. 운전하는 리현의 옆모습은 너무 예뻐다. 인형의 시선을 느꼈는지 머쓱한 리현의 잘생긴 눈썹이 지푸려졌다.

인형은 리현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정말 자신의 오빠가 된 듯한 리현이 너무 든든하고 좋았다.

"응. 담엔 꼭! 올 막내오빠한테 전화할께."

"당연하지. 그리고, 누가 또 너한테 헛소리 지껄이면 나한테 먼저 말해"

"오빠?"

오늘따라 더욱 든든해 보이는 리현을 인형은 다정히 불렀다.

"응?"

"사랑해"

느닷없는 인형의 말에 리현은 멍칫해 보였다. 인형은 다시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말 꼭 해주고 싶어. 내편이 있다는게 이렇게 좋은건 줄 정말 몰랐어. 정말 정말 사랑해 오빠"

리현의 콧볼이 붉어졌지만, 리현의 예쁜 입술은 곡선을 그렸다.

겨우 겨우 방으로 들어온 인형은 침대에 털썩 누웠다. 힘든 하루였다.

박여사는 집에 없었다. 별장으로 내려갔다고 하였다.

먼저 인형은 최희장에게 불려갔다. 최희장의 표정은 어두워보여 인형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강현이에게 이야기는 들었다만...학교생활은 힘들지 않고?"

평상시 필요한 말 이외에 잘 하지 않는 하지만 필요한 말에서는 힘이 있는 최희장이었지만, 어쩐지 피곤해 보이는 최희장의 말투였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끼쳐드려 죄송해요. "

"아니다. 내가 더 신경을 써야하는데..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조금만 이해해라."

인형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최회장이 미안한 듯 말했다.

"네.. 아깐 저도 모르게 그만 .. 진짜로 어머니 미워하거나 원망하진 않아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더 신경써주세요. 주제넘지

만, 제가 보기엔 저보단 아버지한테 더 상처를 크게 받으신거 같으세요. "

최회장은 확실히 예전과 달라져 어른스러워진 인형을 쳐다봤다. 박여사가 저렇게 까지 되어버린 것은 인형의 말대로 최회장에 대

한 무언의 시위란 걸 알고 있었지만, 건드려서 더 크게 번질까 봐 못본척 하고 있는 지도 몰랐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인형이와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박여사 사이에서 최회장은 방관자였었다.

인형이가 자살시도를 했을때 최회장은 얼마나 후회를 했던가.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인형이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표정도 좋아졌고, 자신의 아들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아 한시름을 놓고 있었다. 박여사가 맘에 걸렸지만, 찬바람이 돌며 최회장

을 남처럼 대하는 박여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생각에 잠긴 듯한 최회장의 얼굴은 늙어보여서 인형의 마음이 찼해졌다.

"기운내세요.. 화를 내는 것도 감정이 남아 있기때문에 낼 수 있다고 하드라구요..아버지가 잘못하신거 맞잖아요. 금방 풀리실

것 같진 않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잘못했다고 비세요. "

인형의 말에 최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내 생전에 자식한테서 훈계받을 줄은 몰랐다. 고맙고 미안하구나. 피곤할텐데 방으로 가 쉬어라."

인형도 최회장을 쳐다보며 미소지었다. 인사를 하고 서재에서 나와 2층으로 올라가니 우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현이 인형의 얼굴을 살피며 입을 열려고 하자 인형이 먼저 두 손을 모으며 선수쳤다.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해~ 잘못했어."

"헛! 선수를 빼졌다... 처음이니깐 더이상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핸드폰 다신 꺼놓치 않겠다고 약속해라. 다들 걱정 얼마나

했는줄 알아?"

"응.. 이젠 알아..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 같아."

"...알면 됐다..형이 기다려. 형 서재로 가봐."

우현은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우현오빠?"

"응?"

"오빠도 무지 사랑해"

"고맙다. 나도 사랑해. 근데.. 오빠만 이라고 이야기 해주면 더 감동받을 꺼 같은데?"

"피~ 그건 불공정거래야. 수많은 레이디들은 어쩔꺼야?"

"레이디랑, 시스터랑은 다르지."

"욕심도 많으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일단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정신을 차려야돼.."

인형은 서재문을 쳐다보며 걱정스레 말했다.

"형도 걱정 많이 했어..화난거 아니니깐. 걱정말고 들어갔다 와"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은 서재로 들어갔다.

위압감은 타고난 것 같았다. 이상하게 강현의 앞에서만 서면 인형은 무서운 상사에게 결재받으러 온 부하직원이 된 것 같은 느낌

이 들었다.

"아버지 뵈고 올라온거냐?"

"네.."

"어머니는... 강원도 별장에 가셨다. 며칠 쉬다 오실꺼야. 너 때문이란 말 아니니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다."

"...그래도.."

"언제든 한번은 터져야 할 일이었다. 그건 됐고, 명성식품 딸은 어떻게 된거야?"

"제가 그렇게 유명인사인 줄 저도 몰랐어요. 암튼 잘 이야기 했으니 알아들었을꺼예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남의 이야기는 더 부풀리고, 과장되기 마련이다."

"상관없어요. 신경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 일로 이러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죄송해요. 느닷없이 알게 된 일이라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 할 수가 없었어요. "

강현은 인형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전처럼 변하는 건 아닐까란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담담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인형을 보자 내심 감탄이 나왔다.

사실, 인형의 전화를 받고 언제 터질지 몰랐던 폭탄이 드디어 터졌다란 생각이 들며, 겁도 없이 떠돌고 다니는 괴섬한 명성식품 딸을 잡아다 죽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언제나 자신에게는 각듯이 존대를 하던 인형이 늘 그랬다는 듯이 반말을 하며 (아마 그 명성식품 딸에게 보이기 위해서리란 짐작은 했다) 인형은 차분히 대처하는 듯 보여 어느 정도 안심은 되었다.

그러나 우현의 전화를 받고 또 다시 놀랐다. 인형이 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집을 나갔다란 말을 듣고 집으로 왔을 땐. 그때까지도 어머니의 상태는 꽤 흥분상태였었다.

늘 무관심, 무표정으로 일관된 어머니의 모습만 본 지가 꽤 된터라, 저렇게 흥분한 어머니의 모습은 차라리 안심이 되었다.

아무도 끌어내지 못한 어머니의 감정을 끌어내 준 인형이 도리어 고마울 지경이었다.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어머니는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곧바로 강원도로 떠나버렸다.

"알고 싶으니? 널 낳아주신 분에 대해서?"

강현은 인형이 궁금해하면 자신이 아는 데 까지 차라리 말해주고 싶었다. 남들을 통해서 듣느니 차라리 자신이 말하는게 나을 것 같았다.

"솔직히 반반이에요. 궁금하기도 하고, 아는게 겁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듣지 않을래요. 지금 마인드 컨트롤 중이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네. 난 당당하다. 난 귀한존재다. 난 소중한다. 이런거요. "

"....."

"내 자신에 자신감이 생겼을때, 정말 알아야겠다란 생각이 들때면, 그때 오빠에게 물어볼게요."

강현은 인형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니 생각이 그렇다면, 훗~ 생각보다 강하게 대처해줘서 기특하다. 그런 날파리들이 꼬이면 가차없이 날려버려, 내가 책임질테니"

강현은 씩 웃으며 인형에게 말했다.

강현의 진심어린 웃음에 인형도 같이 미소가 지어졌다.

"그만 가서 쉬어라. 피곤하겠다."

인형은 강현의 말이 힘이되었다. 강현도 자꾸 좋아졌다. 하지만 리현이나, 우현에게 처럼 절대로 좋아한다란 말을 꺼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기엔 강현의 위압감과 카리스마가 너무 컸다. 그냥 인형은 살짝 웃어보이며 밖으로 나오자 우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형은 우현과 마주보고 앉았다.

"근데. 리현오빠 어디갔어? 또 나간거야?"

"응. 그런가 본데"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 너무 밤늦게 다니는거 아냐?"

"안그래도 뒤를 한번 캐볼려고.. 생각중이야"

인형은 리현이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기도하고 약간 걱정도 되었다.

"그건 그렇고, 인형아. 학교에서 너 괴롭히는 애는 또 없어?"

"또? 없어!진짜루! 이젠 친구도 많이 생기고 잘 지내고 있어. 그 노가리는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치.. 정말 요즘 학교생활 편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

인형은 지훈이 생각이나 약간 찢끔했지만, 사실 노가리의 일도 원인은 지훈때문에 생긴일이었다.

"노가리?"

"어? ㅋㅋ 명성식품 딸 이름이 노가은이거든 "

"뭐? 푸핫~ 암튼, 또 그런일 없으리란 보장은 못하니, 무슨일 생기면 형이나, 나한테 꼭 연락해"

인형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구가 많으니 장점도 많지만 이런점은 단점이란 생각이 들었다. 똑같은 말은 여러번 듣는것..

다음날 인형이 등교하기 위해 어느때와 다름없이 일찍 집앞을 나섰다.

집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모두들 처음에는 인형이 걸어다니는 걸 못마땅해 하였지만, 꾸준히 운동삼아 즐겁게 걸아가는 인형을 이젠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인형이 버스정류장에 다다랐을때 인형은 깜짝 놀랐다. 거기엔 지훈이 서 있었다.

"진짜 부지런하네. 설마했는데.. 정말로 버스타고 다니는구나?"

놀란 인형의 얼굴을 보며 지훈은 반갑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지훈의 얼굴은 상쾌해 보였다. 늘 어딘지 모르게 꼬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지훈의 표정은 굉장히 밝아보였다.

"스토커하세요?"

왠지 다른 분위기의 지훈도 적응이 안되었지만, 버스정류장에서 지훈을 만난건 너무 뜻밖이라 인형은 살짝 불안해졌다.

"풋~ 비슷해.. "

지훈은 픽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 내 뒤에 사람붙였어요?"

비슷하단 말에 인형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하하하~ 아직은 그 정도는 아냐 하하하~ 사실 우리집도 여기 근처야.. 한번도 이 근처에서 널 못본게 이상하다. 여기 살면서 태

인그룹 집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 없을껄? 니가 버스로 통학한단 말 듣고 여기서 혹시나 해서 기다렸는데, 진짜로 만날 줄은 몰랐다."

인형의 반응이 재밌는지 지훈은 웃으며 대답해줬다.

"아직은 이란 말이 심하게 거슬리네요..설마 선배도 버스타고 등교했어요??"

"바이크 타고 다녀."

지훈이 바이크타고 다니는 건 아마 전교생이 다 아는 이야기 일텐데 인형의 질문에 약간 허탈해진 지훈이었다.

"오토바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데..혹시 폭주도 뛰고 그래요?"

갑자기 엄하고 깐깐한 표정으로 인형이 물었다.

"아니. 폭주는 안해"

자기도 모르게 뜨끔해진 지훈이 얼른 대답했다. 예전에는 폭주도 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시들해져 지금은 안한지 꽤 되었다.

못믿는듯한 표정의 인형이 지훈을 쳐다보자 지훈은 슬쩍 외면을 하였다.

"버스왔어요. 얼른 타요"

인형이 지훈의 팔을 툭 치며 말했다.

버스가 서자 인형이 능숙하게 교통카드를 찍고 버스안으로 들어갔다.

지훈도 얼떨결에 탔지만, 처음타는 버스라 약간 당황되었다.

"얼마예요?"

지갑을 꺼내들고 지훈이 기사아저씨에게 물었다.

앞서 들어가던 인형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되돌아와서 대신 카드를 찍었다.

"제가 대신 낼게요. 아저씨. 수고하세요"

인형은 어정쩡하게 서있는 지훈의 팔을 잡아 버스 뒤쪽으로 끌고 들어갔다.

인형이 자리에 앉자 얼른 옆자리를 차지하고 지훈이 앉았다. 역시 키가 커서인지 자리가 꽉차는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어정쩡한 지훈을 보자 인형은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버스 처음 타봤죠?"

".....이렇게 일찍 학교 가는 것도 처음이다."

인형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쳐다보았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바깥을 보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 중의 하나였다. 예전엔 등교할 땐 졸린 눈을 비비느라 몰랐지만

, 지금의 아침풍경은 인형에게 활력을 주었다. 등교하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모두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 인형은 아침이 좋았다.

지훈은 인형의 옆모습을 뵈히 쳐다보았다.

어제 울던 인형이 자꾸 생각이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일찍부터 버스정류장에 나와서 인형을 기다렸었다.

인형의 집과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것도 어제 알았다. 정말 이상하게 인형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예전의 인형이 집밖 아니 방 안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지훈으로서는 신기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지훈은 자신의 집 가까이에 인형이 산다는 것 부터 기분이 좋았다.

어제 가은의 폭로로 인형의 어두운 과거를 본 것 같아 지훈은 못내 가슴이 아팠다.

자신만 상처받은 어린시절을 보낸 줄 알았는데, 인형도 만만치 않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묘한 공감대가 생기는 듯했다.

인형이 가은에게 당차게 대처를 하여 지훈은 나서지 않았지만, 지훈은 가은의 목이라도 조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가은을 보내고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는 인형은 보자 지훈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지훈이 손수건을 건넬때 까지도 인형은 자신이 울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는 걸 보자 지훈은 자신도 모르 게 인형을 품에 안았다. 위로해 주고 싶었다. 아픔을 나누고 싶었다. 아니 인형의 아픔을 지훈이 대신 하고 싶었다.

지훈의 품에서 어느정도 진정이 되자 인형은 품에서 벗어나 멍쩍은 듯이 눈물과 콧물을 닦아내었다. 지훈은 인형이 자신의 품에서 사라지자 허전함을 느꼈다.

그러나, 울어서 눈과 코가 빨게져서 베시시 웃는 인형의 얼굴은 무척 예뻐보여 지훈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가슴이 떨렸었다.

인형을 위로해주는 정우와 빛나리, 인형의 친구들은 꽤 멋진 놈들 같아 지훈은 마음이 한결 놓였다.

인형도 한결 기분이 나아졌는지 바래다 준다는 자신들을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갔지만, 지훈은 걱정이 되었었다.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고 보니 지훈은 인형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다.

어제 저녁 곰곰히 생각한 끝에 인형이 버스를 타고 통학한다는 것이 기억이 난 지훈은 인형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서 인형을 아침일찍 부터 쪽 기다리고 있었다.

인형의 눈앞에 핸드폰이 불쑥 나타났다.

"번호찍어줘"

지훈은 인형의 눈앞에 핸드폰을 들이대며 말했다.

인형은 고민이 되었지만, 핸드폰번호 안가르쳐 준다고 해결될 지훈이 아니란 생각에 핸드폰을 받아들고 번호를 찍어줬다.

8806 9.25 146 91

전화번호 알려고야 하면 알 수도 있었지만, 지훈은 직접 알아내고 싶었다.

인형이 순순히 전화번호를 주자 지훈은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다.

인형의 눈앞에 다시 손이 보였다. 인형이 손을 따라 지훈에게 시선을 주었다.

"니 핸드폰 줘"

인형은 순순히 핸드폰을 주었다.

잠시 인형의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던 지훈은 인형에게 다시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순순히 말을 들어줘서 좋긴한데, 약간 무섭기도 하다?"

지훈은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저도 그래요.. 재밌어보이는 저랑 사귀자고 대쉬해줘서 한편으론 좋기도 한데, 싫다고 하는 여자에게 매달릴 것 같지 않는 선배가 이렇게 쫓아다니니 무섭기도해요"

인형도 지훈에게 솔직히 대답했다.

"좋으면 사귀면 되지 않아? 그리고 지금은 재밌어서만은 아니야.. 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니가 무지 신경쓰여. 그리고 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지금은 뭐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가 정우놈이랑 같이 다니면 짜증이 나고..."

인형은 어이가 없었다. 그건 좋아하는 증세가 아닌가? 지훈의 표정은 정말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훈은 지금까지 아마도 누구 좋아해 본 적이 없는걸까. 인형은 지훈의 성장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자신에게 처음 느낀 지훈에게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괴로웠다.

인형은 지훈에게서 시선을 떼고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지훈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인형은 고민에 빠졌다. 지훈이 싫지 않았다. 아니 가끔 깜짝 놀랄 정도로 인형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었다.

가끔 상처받아 보이고, 비뚤어진 감정을 내보이기도 하고, 막무가네 떴쓰는 어린애같아 보이기도 할 때는 신경이 쓰였고, 어떨 땐 나이답지 않게 조숙해 보이는 눈길과 행동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더욱 인형의 곁에서 멍도는 지훈을 외면하려 했다.

지훈의 집요한 눈길에 결국은 인형은 입을 열었다.

"정말로 텅기는 거 아니구, 난 누구랑도 사귄 생각 없어요."

"좋다면서?"

"누구든 자신에게 좋은 감정으로 관심가져주면 좋아하거든요. 이제 내려야 되요. 다왔어요."

인형은 벨을 누르고, 지훈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다.

워낙 일찍 등교하는 거라 아이들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지훈과 나란히 등교하는 인형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인형의 교실까지 따라오는 지훈을 인형은 왜 따라오냐란 듯이 쳐다봤다.

"데려다 주고 가려고, 너무 일찍와서 교실에 가도 할 일이 없거든.."

인형은 한숨을 내쉬며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지훈은 인형의 옆자리에 턱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교실에 몇명이 있었는데 다들 지훈을 보자 눈이 동그래졌다.

지훈은 책상에 엮드린 채로 인형을 쳐다봤다.

"이제 그만 가시죠? 조금 있으면 애들 다 올텐데. 이런저런 시선들 귀찮거든요"

"1학년이었음 좋겠다. 한번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면 네가 2학년이거나.."

인형의 말은 가볍게 무시하고 지훈은 아쉬운 듯이 말했다.

인형은 어쩔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가?"

인형을 따라 몸을 일으키며 지훈이 물었다.

"쉬~ ! 하러요"

인형은 인상을 쓰며 말했다.

병찐 지훈의 표정을 보자 어느정도 만족스러운 인형은 교실을 나가 화장실로 향했다.

열에 아홉번은 정상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 인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훈은 피식 웃음을 지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인형이 펼쳐 놓은 책을 뒤적거렸다.

교실에 들어오던 아이들은 지훈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다. 처음엔 정우인 줄 알았다가 지훈이 정우자리에 딱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일이 터질것 같은 예감이 든 아이들은 호기심이 생겼다.

인형은 화장실에 한참을 앉아서 지훈이 자신의 교실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이시여. 제발 저 인간 아니아니, 저 길잃은 어린양을 자신의 교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린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저도 생각이란 걸 해 볼 시간을 주세요. 아멘. 나무아미타불, 알라'

인형의 기도가 전혀 안먹혔다는 것은 교실 창문에 다른 반 아이들이 기웃거리는 것을 보는 순간 인형은 알았다.

인형은 정우가 오기전에 저 길잃은 어린양의 목에 개줄이라도 매어서 자신의 교실로 인도하리라 맘을 먹고 교실로 들어갔다.

인형을 보자 지훈은 반갑게 일어났다.

"왜 이렇게 늦게와? 빨리가자"

지훈은 인형의 손을 잡고 교실밖으로 끌고 나갔다.

얼떨결에 끌려나오긴 했지만, 자기발로 순순히 교실을 나와서 대행이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어디가요? 왜 난 끌고 나와요?"

"매점"

인형은 지훈의 손을 겨우 떼어놓았다.

"전 매점 안가요. 혼자 가세요"

"아침 일찍 나오느라, 물 한잔 먹은게 다야. 배고파. 혼자 먹긴 불쌍해 보이잖아? 같이 먹자."

지훈이 배고픈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사정했다.

"휴~ 얼른 가요"

정말 배가 고파 보이는 지훈을 보자 유달리 먹는 것에 민감한 인형은 그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기도가 반만 먹혀든 것 같았다.

사실 그리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인형이랑 더 있고 싶은 마음에 매점으로 끌고 왔었다.

아침을 먹고 와서 배가 안고프다는 인형에게 혼자 먹으면 맛없다며 억지로 컵라면 2개를 놓고 인형과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지훈은 흐뭇했다. 평상시 라면을 잘 먹지 않는 지훈이었지만, 오늘은 맛있을 것만 같았다.

'무지하게 배가 고팠나보다. 라면보고 무지 좋아라 하네'

연신 웃음 띤 얼굴로 라면과 인형을 번갈아 보는 지훈을 보니 인형도 피식 웃음이 나왔다.

정말 맛있게 먹는 지훈이었다. 너무 맛있게 먹는 지훈이 신기하여 인형은 먹는둥 마는둥 지훈을 구경했다.

인형의 옆자리에 누군가 털석 앉았다. 인형이 쳐다보자 정우였다.

"쿨룩, 쿨룩, 쿨룩, "

정우를 보자 죄지는 것도 없는데 괜시리 놀란 인형은 사례가 들렸다.

정우가 등을 두들겨 주었다.

"괜찮아?"

"쿨룩..응.. 쿨룩.. 여긴 왜일이야?"

"라면먹으러.."

지훈은 기분이 급 저조해졌다. 정우가 등장하자 갑자기 입맛이 싹 달아났다.

"아침 안먹었어? 저기.. 그럼 이거 먹을래? ..찹찹한가.. 하하.. 잠깐만 내가 하나 사가지고 올께"

인형이 허둥지둥 라면을 사러 일어났다.

"됐어. 이거 먹지 뭐"

정우는 인형의 라면을 쓱 가져와 먹기 시작했다.

지훈은 젓가락을 탁 놓았다. 인형이 먹던 것을 정우가 먹자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비위가 좋은가 보다?"

지훈이 비꼬았다.

"키스하면서 남의 침도 먹는 사람도 있는데요 뭘."

정우가 피식 웃으며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지훈은 나이트에서 가운과의 일을 비꼬는 정우의 말에 찔끔하여 나지막히 짹막하게 욕을 뱉었다.

"젠장"

"푸하하하~~"

인형이 마구 웃었다. 정우의 한방에 꼬리를 내리는 지훈의 표정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의 표정은 더욱 비참해 졌다.

"토요일날 우리집에 올 수 있어?"

정우가 인형에게 물었다.

"토요일?"

"응.. 엄마가 너 한번 초대하라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너희 엄마가?"

"응.. 하늘이도 그렇고, 이것저것 고맙다고."

"너! 저자식 집에도 들락거렸어?"

무슨 이야기인지 귀를 기울이던 지훈은 화가나서 인형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토요일 오후에 어디 갈때가 있어. 이번주는 곤란할꺼 같아.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지훈의 말을 간단히 무시하고 인형은 정우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생각하는 것 하고는...어쩌나 수준이 높으신지...따라가기가 힘이 드네요. 자~자~ 다 먹었으면 각자 교실로 돌아갑시다."

인형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라면먹은 것을 치우며 매점을 나섰다.

지훈은 인형의 나무라는 듯한 눈길에 주춤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쁜 것은 나쁜 것이었다.

정우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인형에게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말을 꺼낸 의도도 기분이 나빴지만, 인형이 정우의 집까지 들락거리

고, 이야기가 오가는 걸로 봐선 정우녀석집 가족들도 본다는 것인데.. 지훈은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떠올리니 마음이 착잡해졌다

.

지훈은 정우와 인형이 같이 교실로 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착잡한 마음으로 체육관 뒤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우는 교실에 들어서면서 자동적으로 인형의 자리를 먼저 쳐다봤다. 인형의 가방은 있는데, 인형이 자리에 없어서 잠깐 나갔나

보단란 생각을 했었다.

교실 분위기가 평상시와 달리 유달리 술렁술렁거리며, 정우를 힐끔 힐끔 쳐다보는 것이 약간 거슬렸지만, 정우는 자리에 앉았다.

그때 누가 뛰어들어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야~~ 한지훈이 최인형 데리고 매점으로 갔대~"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리지른 여자아이는 다른 아이들의 눈총을 따갑게 받았다.

정우는 찬바람을 땀 일으키며 교실을 나섰다.

"매점으로 구경가야 되는거 아냐?..."

정우가 나가자 누군가가 말했다.

"대표로 나가 가든가..그만한 주접이 되면.."

한지훈과 이정우를 찾아가며 구경할 만한 배짱은 없었던 그애는 호기심을 억누르며 자리에 도로 앉았다.

파란만장한 어제일의 여파로 인형은 오전 내내 졸았다.

인형은 점심시간에 빛나리와 은주에게 음악실로 끌려갔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인형의 눈앞에 빵과 우유를 흔들자 인형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음악실로 끌려갔다.

"왜? 무슨일인데?"

인형은 몹시도 피곤했다.

"한지훈이랑 같이 등교했대매? 그리고 매점에서 무슨일 있었어?"

은주는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집이 우리집 근처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구. 그리고 매점에선 별일 없었어. 그냥 라면만 먹었어."

"노가은 오늘 결석한거 알아?"

빛나리가 말했다.

"몰라. 뭔 일 있나부지"

인형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너랑 다니면 심심할 일은 없겠다. 한지훈은 어쩔거야?"

빛나리가 물었다.

"아휴~ 모르겠다. 요즘 같아선 그냥 어디 산속 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인형은 책상에 철푸덕 엎드리며 말했다.

"정말 한지훈 별루야? 그렇게 잘생긴 놈이 알랑방귀를 끼고 살랑거리는데 어쩔 눈하나 깜짝 안할 수 있냐? 참엔 널 괴롭힐려고

그런줄 알았는데, 쪽 지켜보니 진심같던데.."

은주는 인형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참에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폭탄이라고 조심하라던 사람들이 누구더라?"

"뭐 그거야 사실이지만, 그래도 요즘에 너한테 대하는거 보니깐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한거 같아서..그리고 좀 불쌍해보이기도 하더라"

은주는 은근히 인형이 너무 텅기는 것 같아 지훈에게 연민을 느꼈다.

"지랄, 불쌍한게 다 얼어죽었나보다. 여지껏 지가 다른여자들에게 한 짓이 있는데, 한지훈은 당해도 싸"

빛나리가 은주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도 정말 싫으면 확실하게 말해, 질질 끌지 말고."

이번엔 인형을 쳐다보며 말했다.

인형은 정말로 지훈이 싫지 않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

빛나리는 고민스러운 표정의 인형을 보며 걱정스러웠다. 빛나리가 보기엔 인형은 정우보다 지훈에게 더 마음이 있어보였다.

정우와 있을때는 정말 편해보이는 인형이었지만, 지훈과 있을때의 인형은 은근히 지훈을 신경쓰는 것이 보였다.

자신은 누구랑도 사귄수 없다란 인형의 말이 솔직히 완전히 이해가 되지도 않았다.

알면 알수록 인형은 솔직하고 어떤면에선 단순하기까지도 했었는데, 한편으론 비밀이 많아 보이는 인형이었다.

"오늘 미용실이나 가자. 같이 갈래?"

갑자기 인형이 빛나리와 은주를 보며 말했다.

수업을 마치고 인형은 빛나리와 은주와 같이 미용실로 가면서 뭔가 자꾸 허전한 생각이 들었다.

'아. 뭔가 허전해...뭘 빠트리곤 온거 같애.. 학교에 뭘 놓고 왔나?'

"무슨 생각을 하길래 불러도 대답을 안해?"

똥생각에 잠긴 인형을 보며, 빛나리가 인형의 팔을 톡하니 쳤다.

"어? 아니 뭔가 허전해서.. 뭘 놓고 온거 같아서.."

인형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대답했다.

"핸드폰 놓고 온거 아냐?"

은주가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아냐.. 핸드폰은 있어"

"그래? 그럼 뭘 놓고 온거야? 난 오늘 지훈오빠가 널 안따라오는게 더 궁금하다. 오늘 무슨 일있나?"

은주의 지나가는 듯한 말에 인형은 멍칫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갑자기 허전함의 정체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인형은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세게 친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빛나리와 은주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와 있는 걸 느낀 인형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멍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말이 없어진 인형을 보고 둘은 걱정스레 시선을 교환했다.

미용실에 간 인형은 단발로 짧게 잘라달라고 말했다.

빛나리는 말리려고 했으나, 인형의 얼굴을 보곤 그냥 입을 다물었다.

머리를 자른 후 거울을 보니 약간 어색은 했지만, 깔끔해 보였다.

미용실을 나와 빛나리가 인형을 끌고 악세사리 점으로 데리고 갔다.

빛나리와 은주가 각각 하나씩 예쁜 뺨을 하나씩 인형에게 선물로 주었다.

"우와~ 고맙다....너무 예쁘다. 그리고 미안해..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하하~ 오늘은 이만 찢어지자. 피곤해서 그런지 이려고

다니면 너희들에게도 민폐인거 같아. 어제 잠을 좀 설쳤거든. 미안하다."

뺨을 들여다 보며 감격한 인형이 미안한 듯이 말을 마쳤다.

"그래.. 안그래도 집에 일찍 들여보낼려고 했어. 오늘은 일찍 가서 쉬어. "

인형은 빛나리와 은주랑 헤어지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정말이지 너무 피곤이 몰려왔다.

인형의 머리를 보고 놀라는 양평덕에게 잠을 잘테니 깨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인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자

마자 침대로 직행해 잠을 잤다.

죽은듯이 잠이 들었던 인형은 갈증을 느끼며 눈을 떴다.

자신이 언제 일어나 스텐드를 켜는지 약간 은은한 불빛에 인형은 몸을 일으키다 깜짝 놀랐다.

누군가가 책상의자에 앉아 인형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현이었다. 리현은 꼼짝하지 않고 인형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아휴~ 깜짝이야. 왜 거기 그러고 앉아있어? 간떨어질뻔 했네..지금 몇시야?"

"....."

대답도 하지 않은채 리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인형은 리현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였다.

"우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정말 기절하듯이 잤나보네.. 근데 무슨 일있어? 무섭게 왜 그러고 있어?"

인형은 리현의 곁에 다가가려다 방에 불을 켜러 몸을 돌렸다.

"불켜지마"

약간 잠긴듯한 목소리의 리현이 말했다.

인형은 다시 리현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 봤다.

"무슨일 있어?"

인형이 다가오자 리현은 몸을 일으켰다.

리현은 인형의 짧아진 머리에 시선을 주었다.

인형은 살피듯이 리현의 얼굴을 쳐다봤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리현의 얼굴은 복잡미묘해 보였다.

리현이 손을 뻗어 인형의 짧아진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왜 잘랐어?"

"그냥.. 긴머리가 귀찮기도 하고,, 변화를 주고 싶기도 하고..이상해?"

".....예뻐.."

"에이, 대답이 빨리 안나오는 것 보니, 별루구나?"

"더이상 안 예뻐졌음 좋겠다."

중얼거리듯 이말을 마친 리현은 몸을 돌려 방을 나가버렸다.

어리둥절해진 인형은 한동안 멍뚱히 서있었다.

9513 13.47

다음날 아침 인형은 버스정류장에서 지훈을 다시 만났다.

멀리서 지훈을 발견했을 때 인형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다.

인형은 뒤돌아서서 집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말 돌아서서 가버릴까 생각중이던 인형을 발견했는지 지훈이 인형을 바라보

았다. 인형은 제발 자신이 진정되길 간절히 바라며 정류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정작 지훈의 시선은 인형의 짧아진 머리를 놀란 듯이 쳐다봤다.

"너 머리..잘랐어?"

"네.."

인형은 자신의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뭐 심경의 변화 이런거냐?"

"..?.."

"왜 여자들은 심경의 변화가 생길때 머리 자른다면"

"그냥 긴머리 지겨워서요.. 그냥 기분전환으로.. "

인형은 지훈의 시선을 슬며시 외면했다. 이상하게 오늘 아침엔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지훈은 인형을 요리조리 살폈다. 처음엔 갑자기 짧아진 머리가 조금 놀랐지만, 인형의 가름한 얼굴과 서늘한 눈매와 묘하게 잘

어울렸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말 없이 입을 다물고 있을때는 약간 차가워보이기도 했다.

"예뻐. 잘 어울려."

지훈의 말에 인형은 얼굴이 붉어짐을 느껴지자 고개를 돌려 버스가 오는지 보는 척을 했다.

늘 표정이 풍부하던 인형의 얼굴이 오늘은 약간 경직되어 있는 듯해 보여 지훈은 또다른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스레 인형을 쳐다봤다.

오늘 따라 지훈의 시선이 자주 신경이 쓰여 인형은 미칠 것 같았다. 마침 저기 오는 버스가 인형을 구원해 주었다.. 잠깐동안

지훈은 오늘따라 지훈을 더욱 외면하는 인형에게서 어제에 이어 더욱 상처를 받았다.

지훈과 인형은 아무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학교에 도착했다. 지훈은 인형의 교실까지 바래다 주었다.

인형이 교실앞에 서서 잠깐 지훈을 쳐다보자 지훈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도 돼. 오늘은 그냥 갈꺼야. 수고해라."

돌아서 가는 지훈의 뒷모습이 버림받은 아이마냥 너무 쓸쓸해 보여 인형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훈의 뒷모습을 인형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정우는 단발머리로 변한 인형을 보고 약간 놀랐지만, 정우의 눈엔 인형이 뭘해도 이뻐보였다.

하지만, 인형의 기분이 저조한 것 같아. 정우도 인형이 걱정이 되었다.

인형은 그날 하루종일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매점, 급식실, 복도, 하루에 몇번이고 인형의 주위에서 맴돌던 지훈이었는데 지훈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쉬는시간 멍하니 있는 인형에게 빛나리가 찾아왔다.

요즘은 빛나리도 정우를 처음처럼 많이 어려워 하지 않았다.

정우는 교실 뒤에서 수호와 함께 흥기의 수다를 듣고 있었다.

"내일 약속없으면, 우리집 가자"

정우를 한번 힐끗 본 후 빛나리가 인형에게 말을 건넸다.

"내일?"

"응. 왜? 약속있어?"

내일은 토요일이었다. 인형은 미안한 듯 빛나리를 쳐다봤다.

"이런.. 토요일 오후에 나 어디 갈때가 있는데... 집엔 갑자기 왜? 혹시 생일?"

"내가 노인네나 생일을 집에서 하게? 내일 엄마, 아빠 여행간대. 그래서 집에 혼자 있기 뭣하고 그래서..어디 가야 되면 어쩔수 없지.."

"은주는? 은주도 약속있대?"

"어. 은주는 내일 엄마랑 쇼핑약속 있대"

"그래?..... "

처음으로 빛나리가 집에 초대했는데 가지못해 미안한 인형이 머뭇거렸다.

"됐어. 신경쓰지마. 잠이나 실컷자지 뭘.."

빛나리가 인형의 등을 툭 치며 웃었다.

"그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갈래?"

인형이 빛나리에게 물었다.

"어디 가는데?"

"그건 가보면 알아"

"에~엑? 뭐야? 가기전 알면 안되는 장소야? 나도 가도 되는 데야? 누구랑 가는데?"

"이상한 데는 아니니 걱정마셔. 나 혼자 가려고 했지. 같이 가도 상관없어. 근데 저녁이나 되어서 돌아올 텐데 괜찮겠어?"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래. 그럼 수업 마치고 바로 갈꺼야?"

"응."

"오케이. 어딘지 몰라도 같이 갔다 오지 뭐."

빛나리는 시원스럽게 대답하고 자기 교실로 돌아갔다.

흥기의 이야기는 한귀로 흘러면서 정우의 신경은 빛나리와 인형에게 가 있었다.

인형이 내일 어디로 가긴 갈 모양인데.. 인형의 기분이 저조한 것도 그것과 관련된 게 아닌지 정우는 신경이 쓰였다.

오늘따라 일찍 집에 들어온 강현과 우현이었다. 왠지 우현의 표정도 어두웠다.

모처럼 평일날 강현과 우현과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도 어두웠다.

분위기가 이상한지라 인형은 우현에게 살짝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다.

"리현이 때문에 형이 열받았거든"

우현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대답을 해줬다.

"리현오빠가 왜? 요즘 늦게 다니는 것 땀에 그런거야?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냈어?"

"그것도 그렇긴 한데.. 리현이 놈이 좀 고분고분하게 나오면 큰 일은 아닌데, 그놈이 좀 유별나야지... 휴~"

"뭐하고 다닌대? "

인형은 도데체 무슨일을 하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할까 해서 걱정이 되었다.

"밴드.."

우현이 짹막하게 대답했다.

"밴드? 음악하는 밴드? ..그게 어때서? 리현오빠 방에 도배된게 밴드사진이구만.. 난 또 뭐라고.."

인형은 리현이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냥 취미로 하면이야 문제가 없는데... 목숨을 걸고 하니 문제지. 집에서 음악하게 냅두겠냐?"

이렇게 말하는 우현의 표정도 어두웠다.

인형은 이게 말로만 듣던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나 물질적으로는 맘껏 누리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길로만

가야만 하는 그 이면의 어둠을 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아니나 다를까, 강현과 리현은 한바탕 하였다.

밖에서 잘 들리진 않지만 흥분한 리현의 목소리는 인형을 더욱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자리에 일어나 왔다갔다 안절부절 못하는 인형과 달리 우현은 어두운 표정과 달리 느긋히 앉아 있었다.

잠시후 리현이 문을 박차고 나왔다.

인형과 눈이 마주친 리현은 인형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리현아, 형이랑 이야기 좀 해"

우현이 부드럽게 리현에게 말을 건넸다.

"됐어. 똑같은 이야기라면 안들어. 도와줄꺼 아니면 상관하지마."

인형에게서 시선을 떼고 리현은 냉정하게 대답하고 몸을 돌렸다.

"넌 왜 꼭 직선으로만 달리려고해? 돌아서 가는 길도 있다"

우현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돌아서 가면 끝이 달라져?"

리현은 우현을 돌아보며 비웃듯이 말하곤 내려가 버렸다.

인형은 재빨리 리현의 뒤를 쫓아 나갔다.

"어디가? 잠깐 나랑 이야기해"

인형은 성큼성큼 나가는 리현의 옷자락을 겨우 잡아 붙들었다.

"놔. 약속있어."

"오래 안붙들어. 잠깐 저기 벤치에 앉았다가 가"

인형은 정원벤치를 가르키며 말했다.

리현은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인형이 잡아끌자 벤치에 가서 앉았다.

인형은 리현을 쳐다봤다. 화가난 듯한 리현의 눈썹은 지푸려져 있었고, 예쁜 입술도 비틀려 있었다.

"빨리 말해"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리현이 말했다.

"밴드에서 뭐해? 보컬? 기타?"

".....기타"

"와우~ 멋있겠다. 나도 한번 봤음 좋겠다. 나도 노래 잘하는데.."

"....."

"사람이 직업을 구할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된대, 좋아하는게 아니라, 잘하는걸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지, 하지만,

좋아하고 잘하기까지 하는걸 직업으로 삼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어?"

"....."

"정말 오빠가 좋아하고 잘하는거고, 또 거기에 확신있는 길이면 난 오빠편이야."

인형은 손가락을 뺨에 리현의 미간을 찼다.

"그러니 인상쓰지 말고, 오빠편도 있으니깐. 너무 밖에서만 돌지말고, 집에 되도록 일찍일찍 다니란 말이야.."

리현은 인형을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꼬맹이 많이 컸네. 위로할 줄도 알고"

"어라? 위로 아닌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 난 오빠편이야. 뭐..힘이 크게 되진 않겠지만, 정 그러면 술한번 더 먹고 큰오

빠한테 꼬장한번 더 부리지 뭐"

리현은 콧~ 하고 웃었다. 리현은 몸을 일으켰다. 따라서 인형도 일어났다.

리현은 고개를 숙여 인형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 보며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완전 큰힘 받았다. 정말 내편이야?"

"그럼, 완전 오빠편이지."

인형이 냉큼 대답했다.

리현이 인형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예쁜짓 해서 상주는 거야. 약속있어서 정말 가봐야겠다. 들어가, 날이 쌀쌀하다."

인형이 깜짝 놀라자 리현은 인형에게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말하곤 집을 나갔다.

"잘생긴 사람이 해서 그런가 기분은 좋네"

인형은 리현의 입술이 닿았던 볼을 만지며 미소지었다.

거실에 있던 걱정스런 표정의 우현과 잠시 이야기를 하고 인형은 방으로 돌아왔다.

인형이 침대에 털썩 누워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을때 인형의 핸드폰이 울렸다.

"늦은 시간에 누구지?"

발신자를 보니 '서방님' 이었다.

"서방님?"

가웃거리던 인형은 얼마전 지훈이 자신의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하던 것이 떠올랐다.

"여보세요"

인형은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

상대방은 말이 없었다. 인형은 잠시동안 그 침묵을 듣고 있었다.

"지금 잠깐 나올 수 있어?"

약간 갈라진 듯한 나지막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

어떻해야 될지 망설이는 바람에 인형은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넌 나 싫어하지....미안하다.."

전화가 뚝 하니 끊어져 버렸다.

인형은 왠지 끊어진 전화처럼 자신의 심장도 똑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전화를 다시 걸면 안된다란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울렸지만, 인형의 손은 '서방님'이라고 써있는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신호가 가고 얼마있지 않아 믿기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지훈이 전화를 받았다.

"어..왜 전화했어?"

"그건 내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늦은 밤에 다짜고짜 나오라하면 누가 냉큼 예~~하고 대답하나요? 성미는 급해서.. 어디예요?"

"진..짜 나오게?"

"술집은 안돼요. 너무 멀어도 곤란해요."

"아냐.아냐. 너희집 근처야"

인형은 지훈과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미쳤어, 미쳤어,,,,, 내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게야.."

인형은 자학을 하면서 옷을 껴입는 자신을 보자 어이가 없었다.

"그래..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어, 끝을 내던, 시작을 하던 어차피 한번은 진지하게 이야기 해야 되는거였어"

인형은 열심히 자신을 납득시켰다. 자신이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른채..

9850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지훈을 보자 자동적으로 인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훈은 아무렇게나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긴듯 했

다. 인형은 지훈의 앞에 섰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인형을 바라봤다.

"진짜 왔네...앉아.. 아니 다른데 들어갈까? "

믿기지 않은 듯 지훈은 인형을 쳐다보다 몸을 일으켰다.

"아니, 됐어요. 여기도 좋은데요 뭘"

인형은 그냥 지훈의 옆에 털썩 앉았다. 지훈과 만나기로 한 곳은 인형이 버스를 타는 정류장이었다.

지훈도 머뭇거리더니 도로 앉았다. 지훈이 움직일때 마다 약간의 술냄새가 났다.

잠시동안 둘은 아무말이 없었다. 밤공기는 약간 쌀쌀했지만, 그 쌀쌀함이 인형은 도리어 시원하고 약간 진정이 되었다.

"술마셨어요? "

"조금...지금은 거의 다 깬어....집에 들어가기 싫어.. "

""

"집에 들어가면 누가 내 목을 조르는것 같은데도, 집이 싫다고 나올수도 없어...빌어먹을.."

지훈은 억눌린 목소리로 절규하듯 말했다.

인형은 어렴풋이 지훈을 보며 뭔가 상처가 있겠거니 생각은 했었지만, 지훈의 괴로운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파왔다.

"누구나 그래요..싫다고 집을 나올수는 없어요...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속에 담아두면 병

된대요... 말해봐요.들어줄께요."

인형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인형의 타이르고 위로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에 모든것을 말하고 싶었다. 위로받고 싶었다.

지훈은 느릿느릿 두서없이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상처뿐인 어릴적 이야기를 꺼냈다.

"..집이 지긋지긋해.. 얼마전엔 독립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약을 먹었어...젠장.. 날 미워하면서 날 보면 괴로워하면서,

내가 나간다니깐 모두 자신을 버린다니면서.. 날보고 어떻게하라는 거야..진짜 버림받은게 누군데.."

지훈은 어느덧 떨리는 목소리로 괴로운 듯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내뿔었다.

인형이 들은 지훈의 어린시절은 충격이었다. 은영의 어릴적은 아버지는 없어도 어릴적 엄마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자랐고, 또한 동

하를 낳고 키우면서 느꼈던 그 절절한 모정을 아는 인형으로서는 몸만 커버린 상처받은 아이같은 지훈을 보자 마음이 너무 아프

고, 늘 엄마와 아버지에게 상처만 받았을 어린 지훈의 모습이 떠오르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머리를 감싸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인형의 눈에는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였다.

인형은 가만히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흠칫한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인형은 지훈의 머리를 끌어당겨 다정히 안아주었다.

지훈은 얼떨결에 인형에게 안겼을때는 몸이 굳은것 처럼 경직되었지만, 인형의 다정한 손길로 등을 쓰다듬어주자 마음이 편안해

지면서 지훈도 인형의 몸에 손을 돌려 편하게 안겼다.

조그마한 몸에 어디서 그런 푸근함이 나오는지 지훈은 처음엔 그 따뜻함에 위로받은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은 인형의 몸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와 나긋한 인형의 몸이 느껴지자 기분이 야릇해졌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인형은 입을 열었다.

"진짜 버림받은 아이들은 고아원에 많이 있거든요..정말 그런 생각들면 고아원에 봉사활동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그리고, 선배는 부모로 부터 받은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땐 많거든요."

인형은 여기까지 이야기 하고 계속 안겨있는 지훈을 살짝 밀었다.

인형이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듯하자 지훈은 너무 아쉬워 떨어지기가 싫었지만, 인형의 다정한 마음이 자신의 욕심때문에 다시 멀

어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겨우 지훈은 마음을 다잡고 몸을 일으켰다.

"잘생긴 얼굴"

인형은 멀어지는 지훈의 얼굴을 두손으로 덥석 잡았다 놓았다.

".....?....."

"뽕뽕한 재력"

인형은 엄지와 검지를 모아 둥글게 만들며 말했다.

".....?...."

"타고난 파이터"

인형은 지훈의 눈앞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

"우월한 기력지"

인형은 지훈의 몸을 훑어보며 말했다.

"...?.."

"이거 다~~ 부모님한테 받은거잖아요."

인형은 씩 웃으며 무슨말인지 어리둥절해 있는 지훈에게 말했다.

"그러니깐 너무 억울해하지도 슬퍼하지도 말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는 100점짜리 부모님을 둔 사람은 얼마 없을

꺼예요..자식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뽕점짜리 부모라 해도 뽕점짜리 자식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모, 자식이예요. 거기에 같

이 자신도 뽕점하지 말고, 자신은 좀 더 나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본인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대신 인생 살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말 없이 듣고만 있는 지훈을 보며 인형은 또 다시 씩 웃었다.

"왜요? 끈대같은 말투라..너무 식상하나? 자꾸 과거에 연연하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죽거든요. 결론은 과거는 오지 않아요. 우리

에게 오는 미래에 잘난 한지훈을 투자하라는 거죠"

"....."

지훈은 아무말 없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넌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날 수 있어?"

지훈은 인형에게 물었다.

"아니.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 내 일부분인데..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내 인생을 주눅들고, 비참하게 살고 싶지않아."

인형은 격하게 소리치듯 말했다. 인형은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를 꽂꽂혀 놓는 게 한가지 있긴 하죠.. 내 눈으로 확인하고, 풀어야 해요. 그걸 풀지 않고서는 내가 완전히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이야.."

인형은 다른 고리는 다 끊어낼순 있어도 동하만큼은 절대로 끊어낼 순 없었다.

지훈은 인형을 묶어둔 한가지가 뭘까? 궁금해졌다. 지훈이 보기엔 인형은 심적으로 강해보였다. 가은의 충격적인 폭로에도 지훈

이 아닌 누구라도 쉽게 이겨내지 못할 일이었을텐데도 곳곳히 견뎌내 보이는 인형이었다. 그런 인형이 저렇게 연연해 하는 것이 무얼까란 생각이 들었다.

인형이 이야기하던 지금은 누구도 사귄수 없다란 이유와 왠지 상관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이유가 뭐든지 물러설 수 없었다. 지훈에겐 인형이 필요했다. 그나마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인형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면 지훈은 못견딜 것 같았다.

"널 힘들게 하는거 내가 도와줄께. 그러니, 제발 나 버리지마. 네 말대로 내가 가진거 내 노력없이 처음부터 가진거야.. 하지만, 내가 원하던 것은 전부다 널 외면했어, 이제 겨우 내가 바라는데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너데..너 마저 나 버리면 나 정말 미칠꺼 같아. 인형아. 나 버리지마"

지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애원하듯 인형을 쳐다보는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듯 보였다.

지훈의 파르르 떨리는 까만 눈에 담긴 진심어린 애절함을 본 순간 인형의 심장은 몹시도 아팠다.

"난..난..지금은 모르겠어."

인형은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나 밀어내지 않는다고 약속해줘. 내가 도와줄테니 제발 널 멀리하지 말고, 나에게서 고개돌리지 마, 니가 나에게서 고개돌릴며 외면할 때마다 내 심장은 순간순간 멈추는 것 같아."

지훈은 손을 내밀었다.

인형은 그 손을 멍하니 쳐다봤다.

"하지만, 마음을 온전히 줄순 없어... 온전히 줄수 있는 날이 꽤 오래 걸릴지도 몰라."

"상관없어."

지훈은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할것 같았다.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밀어내지만 않는 것으로도... 그건 너무 힘든일이었다.

인형은 내밀고 있는 지훈의 손을 맞잡았다.

뜨거운 지훈의 손이 지훈의 마음같아 인형은 약간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훈을 거절할 순 없었다.

그러기엔 인형의 심장이 정직하게 말해주었다. 인형의 심장도 뜨겁게 뛰었다.

인형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자, 지훈은 가슴이 벅차 올랐다.

지훈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인형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인형은 지훈의 진심어린 기쁜 미소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인형의

입꼬리도 위로 슬며시 올라갔다.

"더 같이 있고 싶지만, 너무 늦었고, 날이 쌀쌀해. 감기 걸리겠다. 집에 바래다 줄께. 가자 "

지훈이 인형의 손을 잡아 끌었다. 손을 잡은채로 지훈과 인형은 집으로 향했다.

인형의 집 앞까지 온 지훈은 아쉬운 듯이 인형을 쳐다봤다.

"내일 아침에 보자"

"응"

"근데..기분 나쁜건 아니지만, 왜 아까부터 반말이야?"

지훈은 싱긋 웃으며 물었다.

'아무 상관없을 때야 꼬박꼬박 존대해 줬지만, 이젠 아니지..'

인형은 속으로 생각했다.

"싫음 노인네 취급해주고.."

인형은 뉘그러게 대답했다.

"풋~ 됐어. 더 친근감 있고 좋네 뭘. 아 정말 헤어지기 싫다"

지훈은 인형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정말 아쉬워했다.

"그만 가시죠.. 몇시간 지나면 또 볼텐데.."

지훈의 다정한 시선과 말투에 인형은 부끄러워져 도리어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지훈은 웃음이 나왔다.

"그래 .. 잘자~"

지훈은 인형의 손을 한번 더 꼭 쥐었다 놓고 말했다.

"집으로 바로가~ 그리고 잘자"

인형은 얼른 말을 마치고 집으로 얼른 들어갔다.

인형의 등뒤로 지훈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인형은 방으로 몰래 들어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한 일이 잘한 짓일까? 걱정은 되었지만, 후회가 되진 않았다.

인형은 한참을 뒤적이다 잠이 들었다.

평상시 보다 늦게 일어난 인형은 부랴부랴 준비하고 집을 나섰다. 일찍 일어나 꼭 아침밥을 챙겨먹던 인형이라 오늘따라 유달리

늦은 인형이 걱정이 되었는지, 양평택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은 것을 손에 들려주었다.

샌드위치에 완전 감동받은 인형은 포옹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자 놀라는 양평택을 뒤로하고, 인형은 날듯이 정류장으로 허겁

지겁 뛰듯이 달려갔다.

지훈은 일찍 와서 인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간 늦는 인형이 걱정이 될 무렵 허겁지겁 뛰어오는 인형을 발견했다.

"헉헉! 늦잠을 자서 헉..아이고. 힘들어."

"늦은것도 아닌데 뭐하러 뛰어와? 힘들게시리."

뛰어오느라 얼굴이 붉어진 인형의 얼굴은 예뻐보였지만, 힘들어 하는 모습이 안되어 보인 지훈이 나무라듯 말했다.

"헉헉.. 왜긴? 기다릴까봐 그러지"

"오~ 나 걱정할까봐 그런거야?"

인형의 톡 쏘는 말에 지훈은 감동을 받았다.

"걱정은 무슨.. 내가 원래 약속은 칼같은 사람이라 그런거지.."

뜨끔한 인형이 주절주절 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지훈의 인형을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봤다.

버스에 나란히 앉은 지훈은 아까부터 인형의 손에 소중히 들려 있는 가방이 신경쓰였다.

"그 가방은 뭐야?"

"아! 선배 아침먹고 나온거야?"

"아니.. 근데 호칭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선배가 뭐야 선배가"

"선배를 선배라 부르지 뭐라 부르나?"

"오빠란 좋은 말이 있는데.."

"에~엑? 팔뚝에 소름 돋은거 봐,, 됐거든요"

"오빠 맞잖아.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오빠라 불러"

지훈은 강력하게 오빠라 부를 것을 주장했다.

인형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손에든 가방을 살짝 흔들어보였다.

"이거 샌드위치.. 학교가서 같이 먹자 . 선.배."

지훈은 아무말 없이 인형의 손을 짹 잡았다.

"뭐..뭐하는 거야?"

손을 빼려하면 할수록 더 짹 잡고 놓치 않는 지훈이 당황스러웠다.

"오빠라고 불러라.. 할때까지 이려고 다닐꺼다..같이 수업들어도 난 상관없거든"

"....무슨 그런 억지가.."

"하긴. 상관없긴 하겠다. 이려고 다녀도 좋을것도 같네"

즐겁게 웃으며 지훈은 버스에 내려 학교앞까지 인형의 손을 놓치 않았다.

"손놔요.. "

당황한 인형이 지훈에게 속삭이듯 부탁했다.

"오..빠"

한결같은 지훈이었다.

"손봐줘.... 오...빠"

인형은 굴복했다.

"앞으로도 오빠라 불러라. 안그러면 손 잡고 싶다란 의미로 받아들일 테니.. 물론 그것도 환영하지만"

싱긋 웃으며 손을 놔주며 지훈이 말했다.

"매점으로 올꺼지. 교실에 가방 놓고 매점으로 얼른 와~ 그 가방은 내가 들고 갈께"

웬일로 교실까지 따라오지 않고, 지훈이 인형의 손에서 가방을 뺏어들고 먼저 가버렸다.

그 뒷모습이 신난 개구장이 같아보여 인형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10907 156 109

매점으로 들어서는 인형을 보자 지훈은 손을 흔들었다. 지훈은 음료수를 사다놓고 인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형이 다가오자 지훈은 도시락을 펼쳐서 인형이 먹기 좋게 세팅을 했다.

"우와~ 맛있겠다. 배고팠는데.."

급하게 매점으로 왔는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생긋 웃고 자리에 앉는 인형의 얼굴은 너무 예뻐보여 지훈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가끔씩 인형과 마주칠때면 가끔 머릿속도 하얘지며 한없이 바라볼때도 있었다.

정말 바라만 봐도 아깝고 사랑스러운 그녀였다. 지훈은 인형이 샌드위치를 냅킨으로 싸서 지훈의 눈앞에 내밀때 까지 멍하니 인

형만 쳐다보고 있었다.

"먹어봐, 우리 아주머니 솜씨는 정말 좋거든."

지훈은 인형이 건내준 샌드위치를 먹었다. 정말 맛은 좋았다.

지훈이 맛있게 먹는 걸 보자 웬지 뿌듯한 인형이도 같이 먹기 시작했다.

"오후에 영화나 보러 갈까?"

지훈은 인형에게 말을 건넸다.

"나 오늘 어디 갈때 있는데.."

"어디?.. 아 맞다. 혹시 정우네집에 가는거 아니지?"

지훈은 저번에 정우와 인형의 대화가 생각이 나자 인상이 지푸려졌다.

"정우네집은 아니고, 암튼 어디 갈때 있어"

"그럼? 어딜 누구랑 가?"

"..빛나리랑 수업마치고 바로 갈꺼야"

인형은 어디 가는지 굳이 숨기고 싶진 않았지만,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말하는 인형의 표정이 조금 착잡해 보여 지훈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궁금하긴 했다.

매점에서 지훈과 같이 샌드위치를 먹고 인형은 교실로 돌아왔다.

오전 수업뿐이라 시간은 금방 갔다. 정우는 오늘따라 가끔 멍해져 딴생각에 골똘히 잠겨있는 인형이 신경이 쓰였다.

수업을 마치고 인형은 빛나리와 같이 하교를 하였다.

"근데, 어디가는 지 모르겠지만, 교복입고, 가방메고 가도 되는 데야?"

빛나리의 말에 인형은 잠깐 생각했다.

".....교복입고 갈려니 좀 그렇네... 나리아, 우리 옷하나 사입고 가자. 니옷은 내가 하나 사줄께.."

"내가 됐다 그럴줄 알았지? 앗싸~ 얼릉가자, 옷사러~"

빛나리가 신이나서 인형의 손을 잡아 끌자, 인형은 피식 웃으며 끌려갔다.

.
.

이시각 지훈과 정우는 인형의 뒤를 밟고 있었다.

처음엔 지훈이 인형의 뒤를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모습이 정우에게 딱 걸린 것이었다.

"이젠 스토커도 하시나 봅니다."

지훈은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정우였다.

스토커 소리에 약간은 찔끔한, 솔직히 인형 뒤를 밟으며, 지훈도 그런 생각을 안한것은 아니었지만, 정우의 입에서 스토커란 말이 나오자 울컥한 지훈이었다.

"그러는 넌! 날 스토커 하나? 신경끄고 너 갈길이나 가라. 건방떨지말고"

"이러다가 놓치겠는데요? 저쪽으로 갔는데요?"

정우는 손가락으로 인형과 빛나리가 사라진 쪽을 가르켰다.

"미친새끼. 너땀에 놓칠뻔 했잖아. 넌 그만 따라와라"

지훈은 욕을 하며 허겁지겁 인형이 사라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정우가 계속 따라오자 지훈은 인상을 쓰며 정우를 썰려했다.

"언제까지 따라올꺼냐?"

"저도 인형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옷집엔 왜 들어가지?"

"뭐? 옷집?"

옷집이란 말에 지훈도 얼른 고개를 돌렸다.

인형과 빛나리가 들어간 곳은 대형 보세매장이었다.

결국 지훈과 정우 두 사람은 같이 행동을 하기로 암묵적 동의하에 멀찍이 떨어져서 옷을 고르는 척하며 인형과 빛나리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

.

인형은 깔끔해 보이는 검정색 원피스를 골랐다.

"정말 깡다.. 명품관은 아니더라도..적어도 알만한 매장..이런데 같줄 알았더니.. 너 보기보다 정말 알뜰하구나.."

빛나리가 툭툭거렸다.

"너무 좋은 거 입고 가면 나 못알아 볼까봐 "

인형은 툭툭 거리는 빛나리를 보며, 약간은 우울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근데 정말 그 옷 입을려고?"

인형의 표정이 우울해 보이자 눈치빠른 빛나리는 인형이 고른 옷에 눈길을 돌리며 물었다.

"응.. 이게 제일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네..너도 얼른 골라. 바쁘니깐. 점심은 대충 먹고 대신 저녁은 맛있는걸로 사줄게"

"오케이.. 워낙 몸매가 명품이라, 어떤 옷이든 내게로 오면 다 명품이 된단다."

빛나리는 목소리를 밝게 하며 우스갯 소리를 해주었다.

둘이 옷을 고르고 하는 사이에 지훈도 재빨리 바지와 티 하나를 골랐다.

"옷사시게요?"

이와중에 옷을 고르는 지훈이 어이없다는 듯이 정우가 물었다.

지훈은 바지와 티를 하나 더 골라 정우에게 던져 주었다.

"너도 이걸로 해"

지훈이 던진 옷을 얼떨결에 받아들었지만 영문을 모르는 정우를 답답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지훈이었다.

"왜 뜬금없이 재들이 옷을 사겠냐? 교복차림으로 못가는 뭤 가는게 아니겠냐? 고로 우리도 교복차림은 안된다는 거지."

큰 깨닭음을 얻은 정우는 더이상 토달지 않고 옷을 받아들었다.

미행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인형과 빛나리가 새로 쓴 옷으로 갈아입고, 돈을 지불할때까지 지훈과 정우는 워낙 매장 구석에 쭈그

리고 앉아있었다. 손엔 바지와 티를 각각 하나씩 들고.. 매장 여직원이 반짝이는 눈을 하고 두사람 곁에 오자 지훈과 정우는 동

시에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며 인상을 썼다.

얼마나 살벌히 인상을 쓰는지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을 쳤다.

인형과 빛나리가 나가자 지훈은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하고 거스름마져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직원을 뒤로하

고 황하니 나갔다.

생각보다 의리가 있는 정우녀석이 지훈을 중간에서 기다려 주었다.

인형과 빛나리는 테이크아웃에서 햄버거와 음료를 먹었다.

둘이 먹을 동안 약간의 여유가 생긴 지훈과 정우는 옆에 있는 빵집으로 들어가 교대로 사들고 온 옷으로 갈아입고 빵을 하나씩

입에 물고서도 계속 바깥을 주시하였다.

"진짜 어딜가려는 거지?"

지훈이 혼잣말 처럼 내뱉었다. 정우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였다. 옷까지 사입고 가려는 곳이 어딜까 너무 궁금한 두사람은 각자의

추리에 빠졌다.

인형과 빛나리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다.

지하철역에서 두사람은 가방과 교복이 든 가방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자, 지훈과 정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다시 지하철역에서 나온 인형이 들른 곳은 꽃집이었다. 꽃집에서 하얀 백합을 사들고 나온 인형과 빛나리는 택시를 탔다.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타고 지훈과 정우는 인형의 뒤를 쫓았다.

예상치도 못하게 인형이 내린곳은 분당의 납골당이였다.

아무말없이 인형은 익숙한 듯이 걸어들어갔다. 걷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곤 인형이 빛나리를 쳐다봤다.

"나리아. 미안한데..잠깐만 여기에서 기다릴래?"

꽃을 사들때부터 약간 이상했지만, 납골당에 올지 몰랐던 빛나리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슬퍼보이는 인형의 표정에 아무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인형은 빛나리에게 살짝 웃어주곤 다시 걸어갔다.

인형은 엄마의 납골묘에 도착하여 꽃을 놓고 절을 하였다. 그러곤 엄마의 묘 앞에 앉았다.

"엄마~ 나야~ 엄만 내가 누군지 알지? 엄만 알고 있지... 미안해..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나도 적응하

는데 꽤 걸렸거든.....나 보고있지..엄마..보고싶어"

인형은 그동안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나 엄마앞에서 훌쩍 울기 시작한것이 나중에는 엉엉 목을 놓아 울었다.

한동안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 인형은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는 알고 있으리란 생각에 투정을 부리듯 모든 것을 쏟아냈다.

얼마간 진정이 되자 인형은 일어나 엄마의 묘를 쓰다듬었다.

"엄마. 나 예쁘고 어려졌지? 완전 팽잡았잖아. 죽지않고 살아난 것도 다행인데 말이야.. 내가 여기서 아직 할 일이 있나봐.. 그

래서 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려고.. 엄마도 찬성이지? 알아.. 엄마는 무조건 찬성하리란 걸....근데..엄마가 혹시 하느님한

테 뺀꺼 아냐? 후훗..거기에서도 한자리 하는거야?"

인형은 주절주절 이야기 하면서, 엄마의 묘주위를 깨끗이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정리를 했다.

빛나리는 인형이 묘지위로 올라간 뒤 몸을 돌려 지훈과 정우를 찾아 나섰다.

아까 옷가게에서 부터 빛나리는 지훈과 정우가 쫓아오는 걸 알고 있었다.

처음엔 잘못본지 알았다. 하지만 지훈과 정우란 사실을 알자 어이없다가 허둥지둥 숨기도하는 모습을 보자 나중엔 헛웃음이 나왔다.

커다란 두 남자가 숨어봐야 숨길곳이 어딴다고 저러는지..인형은 다른데 정신이 나간듯 해서 모르는 듯 했다.

택시를 탈때 슬쩍보니 아예 뛰어나와 허겁지겁 택시를 잡는 두 남자를 보니 빛나리는 한심해졌다.

빛나리가 둘레둘레 살펴보니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두 남자가 보였다.

빛나리는 피식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아주 고생하셨겠어요.. 둘이서..잠복근무하느라.."

머쓱해하는 지훈과 정우였다.

"흠.흠..여자 둘이서 위험할까봐,, 그런거지..어떻게 알았어?"

지훈은 창피하기도 하여, 변명을 하며 물었다.

"투명망포라도 쓰고 다니는줄 아세요? 그렇게 큰 두 남자가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몰라요?"

빛나리는 한심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인형이도 알아?"

정우도 머쓱한 듯이 물었다.

"인형이는 지금 정신이 판데 나가서 모르는 것 같아..암튼 이정우..너도 생각보다 깡다."

빛나리는 정우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빛나리도 두 사람 옆에 털썩 앉았다.

"근데 왜 넌 같이 안갔어? 근데 누가 저기 계신거래?"

지훈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몰라요. 저도.. 그냥 혼자 가고 싶대요."

빛나리도 무척 궁금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형의 얼굴이 더 이상 같이 가겠다고 말 할 얼굴이 아니었다.

세명은 각자 생각에 잠겨 인형을 기다렸다.

한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인형이 내려올 생각을 안하자 지훈이 몸을 일으켰다.

"어딘지 알아? 가보자,, "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 "

빛나리도 걱정이 되었지만, 인형의 말이 생각나 머뭇거렸다.

"근처에서 그냥 보기만 하지 뭐. 너무 늦잖아."

정우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말에 빛나리는 앞장을 섰다.

납골당이라 해서 그렇치 여긴 공원같은 분위기였다. 넓긴 어찌나 넓은지.걱정이 되긴 다들 마찬가지였다.

멀리서 인형의 모습이 보였다. 인형은 묘옆에 붙어앉아 뭐라뭐라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켜보다가 빛나리가 먼저 인형에게 다가갔다.

"인형아~ "

빛나리가 조심히 인형을 불렀다.

"아~ 내가 너무 안내려가서 걱정되서 왔구나.. 이리와.. "

인형이 빛나리를 보자 살짝 웃으며 손짓을 했다. 그러다 빛나리 뒤에 약간 떨어져 오는 지훈과 정우를 발견했다.

"어... 아까부터 따라왔나 보더라구... 둘다 스토키 기질이 있나봐"

놀란 듯한 인형을 보자, 빛나리가 어쩔수 없다는 듯이 인형에게 말했다.

"나참... 내가 말을 말아야지.. 다 이리와"

인형은 어이가 없었지만, 내심 주눅거리는 두 사람이 귀엽기도 했다.

생각보다 다정히 말을 건내는 인형의 말투에 세사람은 인형의 곁에 다가왔다.

가까이에서 본 인형의 눈은 텅텅부어 있었다. 코와 눈이 빨간것이 한참을 운 듯해 보였는데, 그래도 살짝 웃어보이는 인형의 표

정에 왠지 더 잔해 보이는 인형이었다.

"인사해. 이분은...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분이셔.. 그냥 편하게 우리엄마라고 생각하면 돼"

인형은 솔직히 말하지 못한게 안타까웠지만, 비슷하게 설명을 하였다.

절을 하고 네사람은 바닥에 앉았다.

"답에 올땐 술을 사올까봐.. 아까도 생각은 했었는데.. 미성년잔 이게 불편해... 소주 좋아하시는데.."

인형이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지금 사올까? "

지훈이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됐어. 오늘만 날인가. 또 올텐데.. 답에 올때 사오지 뭐"

"여기 가게 있을텐데 기다려 사올께"

"아냐, 진짜 됐어. 이제 가야지.. 답에 술 사온다고 약속해야지. 아마 그래야 좋아하실꺼야.. 또 오겠구나 하고.."

인형은 지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인형과 지훈을 쳐다보던 빛나리와 정우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언제 두 사람이 저렇게 친해졌는지 궁금한 빛나리와, 어쩐지 가까

워진 두사람이 못마땅하고, 불안해진 정우였다. 게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놓고, 듣고있는 두사람이 수상했다.

"인형아 언제부터 너 지훈오빠한테 말놀기로 했어? 어째 둘이 굉장히 친해보인다?"

빛나리가 궁금해서 물었다.

"아... 어제부터.. 어쩌다 보니깐.. 그냥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

약간 얼굴을 붉히며 인형이 이마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어.맞아. 어제부터 마음을 나누는 절친한 오빠 동생하기로 했어"

지훈이 인형의 얼굴을 내려다 보며 활짝 웃으며 덧붙여 대답해줬다.

정우의 표정은 아무변화는 없었지만, 순간 온 몸이 굳는 것 같았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 금방 저녁되겠다."

인형은 활짝웃는 지훈의 얼굴을 보자 두근거리기도 하고 부끄러워져 얼른 일어났다.

인형은 엄마묘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다시 오겠다란 말을 남기고 다함께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이 가파르다."

내려가는 길에 지훈이 인형의 손을 잡았다.

"됐어..내가 무슨 걸음마하는 앤줄 아나봐..놓고 가"

인형은 손을 빼려했으나 지훈은 더 짹 잡고 놓치 않았다.

티격태격하며 가는 두사람을 뒤에서 지켜보던 정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이런 정우의 얼굴을 보던 빛나리의 마음도 착잡해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택시안에 앞자리는 정우가 앉았고, 인형에게 떨어지지 않는 지훈때문에 뒷자리에는 빛나리,인형, 지훈이 앉았다

.

"나리아 뭐 먹고 싶어? 저녁은 니가 먹고 싶은걸로 먹자"

인형이 빛나리에게 물었다.

"음... 글썄.. 특별히 먹고 싶은건 없는데.. 너는 뭐 먹고 싶어?"

생각해보던 빛나리가 도리어 인형에게 물었다.

"나?...난 아침부터 계속 빵만 먹어서 그런지..밥먹고 싶긴 해"

"나도 한식.. 그리고 보니 나도 계속 빵 먹었네.."

인형의 대답에 지훈이 거들었다.

"정우야 너두 한식 쿨?"

빛나리가 정우에게 물었다.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결국 네사람은 한식으로 정하고 지훈이 잘 아는 한식집으로 향했다.

역시 지훈이 안내한 곳은 굉장히 맛있었다. 네사람 모두 배가 고팠던 참이라 맛있게 먹었다.

"인형아 우리 가방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정말 귀찮긴 하다"

후식으로 나온 식혜를 마시며 빛나리가 정말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네.. 귀찮긴하다..널 찾으러 갈까?"

생각해보니 귀찮기도 한 인형이 대답했다.

"그럼 내일 찾으러 나오면서 우리집에 와"

거의 말이 없던 정우가 인형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

"응. 내일 점심먹으로 와. 엄마랑 하늘이가 기다려."

정우가 엄마와 하늘이란 말에 힘을 주며, 인형을 쳐다보며 말했다.

"하긴.. 나도 보고싶긴 하네.. 좋아 내일 가지뭐. 근데 빛나리도 같이 가도 되지?"

인형이 고개를 끄덕이다 빛나리의 궁금한 얼굴을 보자 정우에게 물었다.

"너도 괜찮다면 와도 돼"

정우가 빛나리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정말..나도 가도 돼?"

빛나리는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간다"

지훈이 불쑥 통보했다.

"왜요?"

정우가 시큰둥하게 되물었다.

"니가 입고 있는 옷 누구돈으로 샀지? 그냥 니네 집에서 밥 먹는 걸로 대신 할란다."

지훈이 정우의 옷을 쳐다보며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절대로 자신없이 인형이 정우집에 가는 꼴을 볼 수 없는 지훈이었다.

"맘대로 하세요"

정우는 순순히 허락했다.

저녁을 먹고 가는 방향이 다른 정우와 빛나리, 인형과 지훈, 이렇게 각자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안에서 지훈은 은근슬쩍 인형의 손을 잡았다.

인형은 기사아저씨의 눈치를 힐끗보고는 지훈의 손등을 꼬집었다.

움찔한 지훈이었지만, 손을 놓치 않았다.

"손잡는게 어때서?"

지훈의 눈은 더욱 장난끼 있게 반짝였다. 그리곤 더욱 손에 힘을 주고 짹잡았다.

그러면서 인형에 바짝 가까이 대면서 웃음을 지었다. 지훈의 얼굴이 까맣고 깊은 다정한 두 눈이 인형을 쳐다보자 인형은 얼굴

이 붉어지고 숨이 막혀왔다. 정말 매력적인 지훈이었다. 정말 이러다가 인형은 지훈에게 모든것을 휘둘릴 것만 같았다.인형은 숨을 가다듬었다.

"장난하지 마. 이런식 정말 싫어"

인형은 차분히 냉정히 말하고 손을 빼내려 했다.

"장난? 누가? 난 너한테 장난안해.. 장난하려고 이렇게 미친놈 같이 쫓아다니는줄 알아?"

여전히 손을 놓치 않고 지훈은 화가나 소리쳤다.

인형은 무슨 말을 하려다 택시안이란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택시가 멈추고 내린 인형은 먼저 앞서 걸어갔다.

뒤를 따르던 지훈은 화가났다. 손을 잡는게 뭐 어땠단 말인가. 꼭 자신이 치한 취급을 받는 듯 하여 지훈은 참을 수가 없었다.

"잠깐 이야기 해"

지훈이 인형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나중에..난 집에 갈래"

인형은 차갑게 뿌리치며 뒤도 보지 않고 걸어갔다.

지훈은 인형의 태도에 가슴이 덜컥했다. 다시 뛰어가 인형을 막아섰다.

인형은 지훈의 몸을 살짝 피해 또 걸어갔다. 지훈은 인형의 등을 바라보았다. 인형의 등에 끝이란 말이 써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지훈은 다급히 인형의 뒤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았다.

"미안해.. 제발 나한테 등돌리고 가지마, 꼭 다신 안볼꺼처럼 이러지마..이젠 절대로 맘대로 안할께...인형아.. 제발"

흠칫놀란 인형이 지훈을 뿌리치려 했으나 지훈의 몸에서 떨림이 전해졌고, 지훈의 목소리도 떨려와 인형은 가만히 있었다.

"화가 조금 났긴 했지만, 안볼 생각까진 안했어"

인형의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안심한 듯 인형을 놔줬다.

"정말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는지... 손잡는 것도 허락 말고 잡게 생겼으니..젠장"

나란히 인형과 같이 걷던 지훈이 중얼거렸다.

사실 인형의 마음도 좋지 않았다. 아깐 지훈에게 화가 났다가 보단 자신에게 화가 났었다.

자꾸 지훈에게 무섭게 흔들리는 것 같아 겁이 났던 것은 인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손잡은 것 때문에 화가 난 줄 아는 인형에게 지훈이 용서를 빌면서 말하던 것이 생각이 나자 인형은 지훈의 어릴 적 상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정말 어떻게야 될지 인형은 막막했다.

하지만, 무장적 밀고 들어오는 지훈을 받아주기엔 인형은 자신이 없었다.

"장난하는거 정말 아냐.. 그만 들어가...전화해도 되지?"

어느덧 인형의 집에 도착한 지훈은 머뭇거리듯 말했다.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지훈이 불쌍해 보이는 인형이었다.

"응.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영상통화로.혹시 다른데로 새는지 감시해야지.그리고 내일 정우집에 같이가자. 오빠"

인형은 일부러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무슨 말인가 하던 지훈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오케이~ 집에 가자마자 전화할께."

지훈의 미소에 인형도 피식 웃었다.

인형이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지훈이 망설이듯 입을 열었다.

"근데...정말 손 잡는 거 허락말아야 돼? 정말 내가 한심해서.."

허탈한 듯 진지하게 묻는 지훈을 쳐다보자 인형은 웃음이 터져나올까 같았다.

하긴..한번도 여자애들 눈치를 본 적이 없는 지훈으로써는 처음 경험하고, 자신이 처지가 불쌍해 보일것이었다.

입을 열면 웃음이 터질까 같아 인형은 대문이 열리자 대답하지 않고 급히 집안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온 인형은 참았던 웃음을 마음껏 웃었다.

조금 후 정말로 지훈의 화상통화가 걸려왔다.

어느새 마음이 풀렸는지 자신의 방이라며 여기저기를 보여주며 지훈은 인형에게도 방구경을 시켜달라고 애교를 피워댔다.

도도한 인형은 침대를 제외한(왠지 부끄러웠다) 다른 부분을 보여줬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정우네 집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조금있으니 또 전화가 걸려왔다.

빛나리였다.

"아니 무슨 전화가 계속 통화중이야~~누구랑 통화한거야? "

정우의 집을 모르는 빛나리와도 내일 정우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인형은 전화를 끊었다.

잠자리에 든 인형의 꿈에 엄마가 찾아왔다.

엄마는 인형에게 환하게 웃어주었다.

지훈은 손에 핸드폰을 꼭 쥐채 침대에 털썩 드러누웠다.

인형이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지훈이었다.

조금전 헤어지고, 방금 화상통화까지 마친 인형이었지만, 내일이면 또 다시 볼 인형이었지만, 보고싶었다.

"아~ 보고싶다."

열에 들뜬 사람처럼 지훈은 몸을 뒤척였다.

인형을 생각하다 지훈은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근데, 정말 손잡는 것도 허락말고 잡아야 되는거야?.키스하자는 것도 아니고....젠장..그냥 몇대 맞더라도 그냥 확 저질러?"

그러나, 인형의 돌아서던 모습이 떠오르자 지훈은 기운이 빠졌다.

"진짜..한심하다 한지훈"

지훈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다 인형의 웃는 모습이 떠오르자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지훈이었다.

"엄마같은 사람은 누구지? 유모인가?"

인형이가 울었던 낮에 본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지훈은 문득 궁금해졌다.

지훈의 머리속은 온통 인형의 생각뿐이었다.

.
.

빛나리와 지훈은 인형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지훈은 난생 처음 마트란 곳에 왔다. 또한 카트도 처음 끌어보았다.

과일을 고르는게 쉬운일이 아니란걸 지훈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꼼꼼히 살피며 냄새까지 맡아가며 신중히 고르는 인형의 표정

은 사뭇 진지했다. 빛나리 역시 고르는 과일을 인형에게 꼼꼼히 검사를 맡았다.

그냥 과일 바구니로 사가면 될걸 왜 저렇게 발품을 팔아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되었지만, 신중한 두여자를 보고 있으려니..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것이 최선이란 판단이 선 지훈이었다.

웬만큼 과일을 고르고 난뒤, 인형은 유아용품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기옷과 장난감을 고르는 인형이 어리둥절한 빛나리와 지훈이었다.

"아기옷은 왜?"

빛나리가 인형에게 물었다.

"아~ 너흰 모르는 구나.. 뭐 아차피 정우집에 가면 알테지만, 어제 말한 하늘이가 정우동생이야..이제 백일쯤 되갈걸?"

인형이 정우의 사정을 대충 설명을 해줬다.

정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보이는 인형이 부러운 빛나리와, 약간은 심통과 질투가 나는 지훈이었다.

드디어 정우집에 도착한 세사람은 정우 엄마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

굉장히 활발한 성격을 가진 정우엄마를 보자, 어떻게 과묵한 정우를 낳았는지 놀랄 지경이었다.

"어머나~ 무슨 과일까지 사왔니? 그냥 와도 되는데.. 암튼 고맙다. 어서 들어와~"

걱정과는 달리 정우엄마는 건강해 보였다, 그리고 시원한 생김은 정우를 연상시키는 외모였다.

"어머나~ 어쩔 이렇게 잘생겼을까? 우리 아들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호호 정말 잘생겼네.. 너무 반가워~"

지훈을 보자 굉장히 좋아하시는 정우엄마였다.

"어머나~ 어쩔 이렇게 예쁜 여학생 두명이나 방문을 해주고~ 너무 기쁘네.. 어서 들어와~ 근데 누가 인형이니?"

빛나리와 인형을 보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정우엄마였다.

인형이 살며시 손을 들었다.

"제가 최인형입니다."

"어머나~ 반가워~ 정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하늘이도 봐주고, 정우도 많이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 진심으로 고마워"

인형의 손을 잡으며 정우엄마는 인형을 잔잔히 살펴보았다.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리 어려보이고, 가냘팠지만, 생긋생긋 잘 웃는 얼굴이 꽤 예쁘장했다.

결모습으로는 정말 이 여학생이 똑 소리나게 하늘이와 정우를 보살폈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수호와 흥기도 와 있었다. 인형의 일행까지 보태지자 집안이 꽤 찬것 같았다.

정우가 말을 하지 않았는지, 수호와 흥기는 지훈이 오는 것 까진 몰랐는지 놀라는 것 같았다.

인형은 집안을 살펴보고 솔직히 놀랐다.. 집이 약간 어수선했기 때문이었다.

인형이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자 정우는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몇번 겪어본 인형으로서는 아마도 참기 힘든 상황이란걸 알기 때문이었다.

다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음료수를 내어주곤 정우엄마가 음식을 마저해야 된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굉장히 활발하신 미인이시구나. 근데 하늘이는?"

인형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자를 보자 신기해하며 하늘이를 물었다.

"조금 전에 잠들었어.."

정우는 지훈과 눈인사와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며 인형에게 대답해줬다.

"그래..."

인형은 자꾸 어수선했던 주위가 신경이 쓰였지만, 무시하려고 애썼다.

"우리엄마가 좀 털털해.."

정우가 싱긋웃으며 인형에게 말했다.

"많이 털털하시지.."

마찬가지로 인형을 아는 수호도 거들었다.

지훈은 신기한 듯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지훈은 정우집이 정말 사람사는 집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격의없이 웃고 다정히 맞아주는 정우엄마가 솔직히 부러웠다.

"아들~ 여기 와서 간 좀 봐줄래?"

주방에서 정우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우가 아무말 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인형은 슬며시 일어났다. 주방쪽을 힐끗 한번 쳐다보곤 주섬주섬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도 도와줄까?"

어색하게 앉아있던 빛나리가 인형을 보고 물었다.

빛나리는 정우집에 온 것도 긴장되는데, 정우의 엄마를 보자 더욱 긴장이 되었던 터라, 인형이 몸을 움직이자 같이 몸을 일으켰다.

"그럴래? 정우어머니가 혼자 하실려니 많이 바빴던 모양이야.."

인형은 빛나리와 함께 대충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말.. 재도 병이다.. 아무리봐도 재벌집 딸이란거 구란거 같어"

홍기는 오늘도 여김없이 치우고 다니는 인형을 보자 고개를 저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인형을 바라봤다. 익숙한 듯이 여기저기 치우는 인형을 보자 기분은 썩 좋지가 않았다.

인형과 빛나리는 거실을 깨끗이 치우고 욕실에서 손까지 깨끗이 씻고 나왔다.

얼굴이 찌진 인형이었다. 기분이 한결 나아진 인형은 수호와 홍기를 데리고 수다를 떨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빛나리도 인형이 덕분에 긴장이 어느정도 풀리고 지훈만 그냥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런 지훈이 신경이 쓰이는 인형이었다.

방에서 하늘이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듣자마자 인형은 벌떡 일어나 하늘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하늘이의 방에서 조금 있다 인형이 하늘이를 안아 데리고 나왔다.

"예쁘지? 정우랑 굉장히 닮지 않았니?"

빛나리와 지훈에게 하늘이를 보여주며 인형이 활짝웃었다.

"어머나, 귀여워라. 그러고보니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빛나리는 예쁜 아기를 보자 굉장히 신기해 했다.

지훈도 아기를 실제로 가까이서 보긴 처음이라.. 신기하게 구경을 했다. 그리고, 인형이가 아기를 워낙 능숙하게 안고 있는것도

신기한 일이었다.

"이자식, 지가 사고친 건 아니지?"

지훈이 봐도 정우랑 닮은 듯 보이는 하늘이인지라 머리를 가웃거리며 중얼거렸다.

"나도 처음엔 그런줄 알았다니깐"

인형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쳐주었다.

"나 한번 안아봐도 돼?"

빛나리가 하늘이를 안아보고 싶은 모양이었다.

인형이는 서툴러 하는 빛나리에게 아기 안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하늘이를 건내주었다.

조금 안겨 있던 하늘이가 칭얼거리자 빛나리는 어쩔줄 몰라했다.

"어떻게.. 내가 불편한가봐.."

하늘이 울음소리에 정우가 나왔다.

"이리줘 내가 안고 있을께.."

그나마 경력이 있는 정우는 능숙하게 하늘이를 안고 얼렸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칭얼거렸다.

"배고픈거 아냐?"

인형이 하늘이의 입가를 손가락으로 살짝 두들겼다. 하늘이가 손가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입을 오물거렸다.

"배고픈가보다. 내가 우유타올께."

인형이 일어나 주방쪽으로 들어갔다.

주방에 들어간 인형은 숨을 헉 하고 들이켰다.

폭탄을 맞은 듯한 주방모습에 인형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어머나~ 뭐 필요한거 있니?"

밝은 목소리로 정우엄마가 물었다.

"하늘이가 배가 고픈거 같아서요... 우유를 탈려구요"

"그래? 고맙다지만, 내가 할테니 나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고 있어"

정우엄마가 잡채를 뒤적이던 손을 놓고선 일어서려했다.

"야뇨야뇨~ 제가 할게요. 저번에도 몇번 해봐서 할 수 있어요. 걱정마시고,, 근데..저기 까스불 낮추어야 할꺼 같은데요? 국물이

넘치는데요?"

인형의 말에 정우엄마는 허둥지둥 가스렌지쪽으로 몸을 돌렸다. 인형은 어지러운 가운데 무사히 우유를 타서 나왔다.

"정우야.. 그냥 시켜먹어도 되는데.. 너무 힘드신거 아닐까?"

인형은 정우에게 우유병을 건내주며 주방쪽을 쳐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러자고 했는데...음식은 정성이라나....암튼..엄마가 고집이 좀 써서."

인형의 표정이 심란한 것을 백분 이해한 정우는 하늘이에게 우유를 먹이며 힘없이 대답했다.

인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시계를 쳐다봤다. 벌써 12시가 훌쩍넘어 한시가 다 되어 갔다. 인형은 벌떡 일어났다.

"아무래도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다."

인형이는 정우에게서 하늘이를 뺏어 들었다. 그러더니 하늘이를 지훈에게 안겼다.

"어..왜? 나 아기 한번도 안은적 없어..어어.."

지훈은 몹시도 당황했지만 인형은 꺾어도 하지 않았다. 자세를 잡아주더니 우유병까지 지훈에게 건내주었다.

"이렇게 먹이면 돼. 한참 먹어야 하니깐. 그냥 그렇게 안고 있음 돼.."

아기를 안고 있는 지훈은 몹시도 어색했지만, 땀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귀엽게 보이기도 해 인형은 씩 웃었다. 그런 다음 일사분란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인형은 빛나리는 주방에서 정우어머니를 돕게 하고(다 되었다며 걱정말라는 정우엄마였지만), 정우와 수호,홍기는 거실에 상을 펴고 행주질을 시키고 잡다한 심부름도 시켰다.

인형의 진두지휘하에 얼추 점심준비가 모양을 갖추었다.

"난 어떻게.. 아기가 자꾸 고개를 돌려.."

땀을 빼질흘려가며 지훈이 인형을 애타게 불렀다.

"배부른가봐.. 이리줘. 트럼시키게.."

인형은 어쩔줄 모르는 지훈을 보며 싱긋 웃으며 하늘이를 받아 안았다.

"으휴~~ 팔에 쥐가 날려고 해..세게 안으면 부러질까봐.."

지훈은 팔을 주물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푸핫~ 처음엔 다 그래.. 자 소화시키자.. 꼬옥 하고 트럼합시다.착하지.."

그런 지훈을 쳐다보며 웃으며 인형은 하늘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다정히 아기를 안고 있는 인형의 모습과 나긋히 아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인형의 목소리에 지훈은 묘한 감정을 느끼며 인형을 쳐다보았다.

하늘이를 몹시도 사랑스럽게 안고 쓰다듬는 인형의 모습은 지훈에게 여러가지 생각을 나게 해주었다.

어릴적 자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싸하기도 하고, 언젠가 인형이 아이를 낳는다면 저런 모습이겠거니 생각하니 몹시도 두근거리기도 하였고, 한편으론 너무 다정한 표정으로 하늘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없게도 아기에게 질투마저 느껴졌다.

볼수록 여러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형이었다.

약간은 정신없는 점심이었지만,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딱 들어다 맞는 표현이었다.

다들 몹시도 배가 고팠던 참이라 과히 맛있다고는 하지 못하는 맛이었지만, 그리 나쁘지도 않은 맛이었다.

다들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걸 보자 정우엄마는 몹시도 기뻐했다.

"이렇게 다들 맛있게 먹으니 너무 기쁘네.. 처음 해보는 음식도 있어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담에 또 해줄께. 다들 또와"

어쩐지..란 생각을 속으로 다 했지만, 현명하게도 모두들 너무 맛있다고 입을 모았다. 단 두명을 제외하고,, 정우와 지훈은 침묵했다.

아기때문에 잘 못먹는 정우엄마를 대신해 얼른 먹고 난후 인형은 하늘이를 봐주기도 했다.

"인형이가 음식을 잘한다고 다들 칭찬이 대단하던데 언제 음식하는 걸 배웠대?"

정우엄마가 신기하다는 듯이 인형에게 물었다.

"정말 잘해요. 갈비찜도 하고, 해물탕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솔직히 흥기는 저번에 맛보았던 인형의 음식이 더 좋았던지라 얼른 인형의 음식솜씨에 칭찬을 했다.

"하하...제가 원래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다 보니깐..하하.. "

"관심이 있다고 다 잘하면 난 칠성급 호텔 셰프가 되었을 겠? 만두도 할줄 안다며? 그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정우엄마가 웃으며 기특하다는 듯이 인형에게 물었다.

"그건 수호랑 특히 홍기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혼자선 다 못하죠."

"예술작품이었죠. 그걸 먹어 없애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죠"

인형의 말에 으쓱한 홍기가 안타깝게 대답했다.

"네. 정말 홍기 없었으면 아무일도 못했을 꺼예요.아마 홍기는 사랑받는 남편이 될게예요"

인형은 뒷일을 도모하기 위해 홍기를 한껏 추겨세웠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점심을 먹고 난후 인형은 안된다고 펄쩍 뛰는 정우 엄마를 진정시키고는 정우에겐 뒷정리를 홍기와 수호에게 설거이를 시켰다.

후식으로 빛나리가 조신하게 과일을 깎는 동안 지훈과 인형은 후식 먹을 준비를 같이 했다.

왠지 약간 우울해 보이는 지훈이 신경이 쓰이는 인형이었다.

정우엄마는 자리를 피해주듯 하늘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째 초대해놓고선 일만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다"

정우가 자리에 앉으며 빛나리와 인형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냐~ 뭐 한것도 없는데.."

빛나리가 과일하나 정우에게 건내주며 베시시 웃으며 얼른 대답했다.

"헛~ 내가 젤로 일 많이 한거 같다. 어째 재하고만 있음 일복이 터진다 터져"

홍기가 인형을 가리키며 투털거리며 과일하나 포크로 찍어서 입에 밀어넣었다.

"그런 의미로 후식 설거지도 할래?"

인형이 씩 웃으며 과일하나 찍어 지훈에게 건내주며 홍기에게 말했다.

"야!!되으꺼드은 "

홍기가 입에 든 과일을 뱉어대며 거부했다.

"으...드려.."

"드런자식"

흥기에게 구타가 이어졌다.

원래 말이 없는 정우와, 약간 기분이 저조해 보이는 지훈이 있으니 어쩐지 어색한 분위기가 돌았다.

웬지모를 부담감이 생기는 인형이었다.

"어디 신나는데 가서 놀고 싶다."

인형은 문득 생각나는 데로 말을 꺼냈다.

"신나는데 어디?"

어색하던 차에 빛나리가 얼른 물었다.

"글쎄...분위기 좋은 곳?...신나는 음악과, 목을 축일수 있는 음료..뭐..이정도? 하하~"

생각해보던 인형이 주절주절 말했다.

"나이트? 클럽? 딱 거기잖아? 가고싶어?"

인형의 말을 듣자 수호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장소였다.

"노노~ 얼마전 갔을때 끝이 안좋아서 별로 거긴 가고 싶지 않아"

인형은 지훈을 흘겨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말에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갔다.

"내가 뭘? 뭘 쳐다봐! 잘만 놀더구만.."

찔끔했지만, 지훈은 도리어 인상을 확썸다.

"흥! 잘 놀고 있었지..누구누구 땀에 끝이 안좋았다니깐."

인형은 뭘 잘했냐란 듯이 지훈을 노려보며 누구누구란 말에 힘을 주었다.

솔그머니 외면을 하던 지훈이 생각났다란 듯이 말했다.

"아! 그런데 하나 있다. 분위기 좋고, 신나는 음악과, 음료가 있는곳"

다들 관심있게 지훈의 입을 쳐다봤다.

"오늘 갈까?"

다른이들에겐 관심도 주지 않은 채 지훈은 인형에게 물었다.

"오늘은 좀 그런데... 저녁에 식구들이랑 밥먹는 날이라..근데 거기가 어디야?"

인형은 아쉽다는 듯이 하지만 그런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가보면 알아. 시간될때 같이 가자"

지훈은 자신만만하게 씩 웃으며 인형에게 말했다.

"그때 저도 갈래요"

빛나리가 얼른 인형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오케이~ 너도 같이 가자"

인상을 지푸리는 지훈이 뭐라 하기도 전에 인형이 흔쾌히 허락해버렸다.

"그럼 그때 나랑 시간 맞추자"

정우가 인형에게 말했다.

"이거 웃기는 놈일세. 니가 왜?"

정우를 쳐다보며 어이없는 지훈이 버럭거렸다.

"스토커해서 따라가는 것 보단 낫잖아요?"

정우가 픽 웃으며 대답하자 지훈의 눈길은 사나와 졌지만, 아무말 하지 못했다.

"그럼 나도.."

홍기가 눈치를 보며 슬며시 끼어들었다.

"죽고싶냐?"

지훈이 살벌하게 홍기를 쳐다봤다.

정우놈 까지 끼는 것은 맘에 들진 않았지만, 정우를 좋아하는 빛나리의 맘을 아는지라, 어차피 정우는 빛나리에게 맡기면 될 일

이었지만, 더이상은 곤란했다. 무슨 동네잔치도 아니고.. 지훈은 더이상은 끼어들면 죽여버린단란 오로라를 마구 뿔어대었다.

수호는 가고 싶지도 않았다. 쳐다만 봐도 머리 아픈 관계들이었다.

.

정우집에서 나와 빛나리와 인형은 가방을 찾아 헤어진 후 인형은 지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어쩐지 계속 우울해 보이는 지훈이 신경이 쓰인 인형은 기분이 저조할때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약을 지훈에 손에 들려주었다.

우울한 건 아니었지만, 몸생각이 지극한 인형도 예방차원에서 입에 하나 물었다.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이 그 약을 쳐다보았다. 그 약은 초콜릿맛 아이스크림이었다.

도저히 사람이 오가는 길바닥에서 지훈은 먹을 수 없었다. 너무 쪽팔리는 일이었다.

지훈은 인형이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향했다.

군말없이 인형이도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확실히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지훈은 너무 웃겼다.

담배냄새를 싫어하는 인형이었지만, 어쩐지 지훈은 아이스크림보다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더욱 어울리는 듯한 외모였다.

공원까지 오는 동안 내내 아이스크림을 먹던 인형은 먹지 않고 들고 있는 약간 녹은 지훈의 아이스크림이 무지 아까웠다.

아까운듯이 계속 지훈의 아이스크림을 쳐다보는 인형에게 지훈은 피식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내밀었다.

"먹어..난 단거 싫어해."

"단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데.. 한입이라도 먹어봐. 정말 좋아진다니깐"

인형은 툭툭 떨어지는 아이스크림을 보며 지훈을 설득했다.

"난 니가 날 보고 웃어주면 그게 더 기분이 좋아져. 됐으니깐 너 먹어"

직설적인 지훈의 말에 인형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안먹을꺼 같음 내가 먹지 뭐."

부끄러운 인형은 아이스크림을 빼앗듯이 가져와 먹는데 열중을 하였다.

지훈은 인형의 입속으로 사라지는 아이스크림과 맛있게 먹고 있는 인형을 기분 좋게 쳐다보고 있었다.

"정우네 집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까지 기분이 왜 안 좋았어?"

약을 과용한 탓인지, 지훈의 시선 때문인지 아무튼 인형의 기분이 약간 붕 뜨는 것 같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약간 풀린 듯도 하였

지만,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보이는 지훈이 궁금했던 터라 인형은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내 기분 안 좋은 건 어떻게 알았어? 내 기분 살필 시간은 있었나보네.."

지훈은 약간 신랄하게 되물었다.

"...나한테 화난 거였어?"

지훈의 말투에 인형을 나무라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인형은 약간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몰라. 누구에게 화난 건지.. 내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암튼 나만 이상한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어"

지훈은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는 듯이 대답했다.

"왜 그런 생각해? 무엇 때문?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불쌍하구만.. 그리고 이상한 세계에서 온 건지는 확인해 보면 알겠네?"

지훈의 대답이 웬지 가슴이 아프고, 무엇 때문인지 알 것 같은 인형은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리고선 지훈의 얼굴에 인형은 얼굴을 들이댔다.

"..? 왜?...."

갑자기 얼굴을 들이대자 도리어 흠칫한 지훈이었다.

"아~~~ 해봐? "

"뭐?"

"이 상했나, 이 안상했나 보게."

".....뭐? 헛..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생각하던 지훈이 어이없어져 헛웃음을 지었다.

"아~~~~ 해보라니깐?"

인형은 웃으며 더욱 장난스럽게 재촉했다.

"핏~ 나참.."

지훈은 웃어버렸다.

"와~ 웃었다. 웃을때 살짝 보니 이~상한거 없는데? 이~상한 세계에서 온거 아니네..뭘."

인형이도 마주보며 웃어주었다.

지훈은 얼토당토 않는 말로 위로해주려는 인형이 너무 예뻐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웃고 있는 인형의 얼굴을. 인형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자신을 보며 미소띤 입술을 보자 지훈은 더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지훈은 인형에게 고개숙여 인형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인형에게서 달콤한 냄새가 났다. 그리고 살짝 인형의 입술을 혀로 핥았다.

인형의 입술엔 달콤한 맛이 났다. 아까먹은 초콜릿 아이스크림맛이 지훈의 입안에 묻어났다.

살짝 스미듯 한 키스가 지훈의 가슴을 따듯함으로 가득채웠다. 조금전의 우울한 마음은 이미 저 이상한 세계로 가버렸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인형의 커다래진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번엔 사과하지 않을꺼야. 그리고,, 정말 효과있나봐. 단거 먹으면 기분좋아진다는 말..."

지훈은 인형을 쳐다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인형은 화가 나기커녕 지훈의 행복한 웃음에 덩달아 행복해짐을 느꼈다.

"정말 제멋대로야..한번만 더 멋대로 이러면 담엔 때려줄꺼야. 가자. 집에~"

발그레해진 인형은 폴짝 일어나 뒤돌아서 걸어갔다.

폴짝 거리며 뛰어가는 인형의 뒤를 성큼 쫓아가며 지훈은 기분좋게 웃었다.

12340 171

인형은 버스정류장을 향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인형은 요즘은 지훈과 함께 등교하는 것은 정해진 약속처럼 되어버렸다.

요즘 부쩍 꽤 날씨가 쌀쌀해 졌지만, 인형은 조금 먼 듯한 거리를 운동삼아 걸어가는 이 아침이 도리어 시원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요즘 부쩍 외박이 잦아진 리현을 강현이 어제 주의를 주려다 큰 다툼으로 번졌기 때문이었다.

인형이 보기엔 리현은 굉장히 예민해진 듯 했다. 인형이 붙잡고 이야기를 하려하였지만, 리현은 무섭게 찬바람을 일으키며 집을 나가버렸다.

인형은 리현에게 가족들이 모르는 또 다른 무슨 일이 생긴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었다.

이런 저런 걱정스럼 맘을 가득 안고, 정류장에 다다르자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지훈의 모습이 보이자 방금까지 리현의 걱정으로 지푸려졌던 인형의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긴몸을 정류장 의자에 뺨고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마치 한편의 화보같은 모습에 인형은 잠깐 멈추어 서서 지훈을 뿌듯한 마음으로 감상을 하였다.

지금까지 늘 지훈이 먼저 나와 인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번도 인형을 기다리게 한 적이 없었다.

인형은 지훈의 옆자리에 앉자, 지훈은 그제서야 인형을 돌아보았다.

지훈은 인형은 쳐다보며 늘 그러듯이 반갑게 활짝 웃었다.

"좋은아침. 근데, 오늘 날이 쌀쌀하다. 감기걸리겠다. 조금 더 있으면 더 추워질텐데..버스 계속 타고 다닐거야?"

지훈은 쌀쌀한 날씨에 인형이 혹시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란 생각에 걱정스레 말했다.

"응, 좋은아침. 물론, 계속 버스 타고 다닐꺼야. 내가 보기보단 튼튼하거든..걱정마셔"

인형은 당연하게 걱정말라는는 듯이 대답했다.

"풋~ 하지만 보기엔 비실비실해 보이거든.. 고집피다 감기걸리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나랑 같이 우리집차 타고 등교하면 되니깐"

지훈은 인형의 가느다란 몸을 쳐다보며 피식 웃으며 다짐받듯이 말했다.

"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먹어도 이상태에 크게 못벗어나는 건 신기한 일인거 같아."

인형의 몸은 예전에 비해서는 살도 붙고, 많이 건강해짐을 느꼈지만, 타고나길 이 정도의 키에 가느다란 몸인지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

그래서 결보기엔 여러여러하고 약해 보이고, 거기에도 빈약한 몸매때문에 더욱 어려보이기까지 한 것이 인형은 불만이었다.

자신을 몸을 훑어보며 투털대며 한숨까지 내쉬는 인형을 지훈은 빙긋 웃으며 인형을 쳐다보았다. 인형은 자신의 몸이 맘에 들지 않는 듯이 말했지만, 지훈의 눈엔 사랑스럽게만 보였다. 옛되보이는 얼굴과 몸과는 달리 가끔 깜짝 놀랄정도로 어른스러운 포용력을 보여줬고, 맑고 투명한 얼굴과 눈빛을 쳐다보면 절로 셀레였다.

지훈은 인형을 기다리는 이 아침이 가장 셀레이고, 행복했었다.

등교하는 아침 이 순간만은 인형은 지훈의 것만이었기 때문이었다.

등교후 학교에서부터는 인형이 지훈이 아닌 다른 이와 말을 나누고 웃고, 행동하는 것이 가끔 못견디게 질투가 나고 우울해질때도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이런 소유욕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너무 예뻐서 정말 호주머니에 넣어서 혼자 보고 싶다라는 말을 예전에 들었을때는 웃기고 어이없는 헛소리로 들렸는데, 지훈은 그 심정이 현재의 자신의 심정이 될지 몰랐다.

버스안에서 인형은 자꾸 딴생각을 하는지 가끔 한숨을 쉬는게 지훈은 걸렸다.

"무슨 걱정있어? 왜 자꾸 한숨이야?"

"어? 내가 그랬나? 휴~ 우리 막내오빠가 요즘 힘든 일이 있는지.. 무척 예민해져 있더라구..그래서 걱정이 되네."

걱정스런 지훈의 목소리에 인형은 약간 미안해져 살짝 털어놓았다.

"그래?....그래도 니네 오빠 좋겠다. 이렇게 걱정해주는 동생이 있으니.."

진심으로 부러운 지훈이었다.

그 말에 인형은 지훈을 쳐다봤다.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듯한 지훈을 보자 아릿한 아픔이 느껴지는 인형이었다.

"지훈오빠! 그게 부러워서 혹시라도 날 걱정시키는 짓하면 죽는다."

인형은 잘 쓰지 않는, 아니 만나오는 오빠 소리까지 해가며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에게 엄포를 놓았다.

지훈은 인형을 쳐다보았다. 엄한표정과 달리 인형의 눈은 웃고 있었다. 지훈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인형과 있으면 늘 위로가 되었다. 인형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로 늘 이리저리 날뛰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었다.

지훈은 인형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버스내릴때 까지만 잡고 있을꺼야. 안그러면 걱정시킬꺼야"

움찔하는 인형을 느낀 지훈은 협박을 하였다. 그 귀여운 협박에 인형은 피식 웃으며 넘어가줬다.

"우리 저번에 가기로 한데 갈까?"

자신의 협박이 먹혀들자 신이 난 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번에 기기로 한데?"

"응. 분위기 좋고, 음악이 있고, 다양한 음료가 있는곳~"

"아~ 오늘?"

"난 언제든 상관없는데. 왜? 오늘 안돼?"

"다른 애들 물어봐야지.. 언제가 좋을지.."

생각을 잠깐 해보던 인형이 대답했다.

"다른애들? 진짜 다 데리고 갈려고?"

지훈은 단 둘이 데이트 한번 못해봤는데, 꼭 이렇게 우르르 가야하는지, 인형의 눈치를 보며 불만스럽게 물었다.

"약속했으니 당연히 물어봐야지. 오늘 물어보고 정하지 뭐. 정말 가고싶네. 그런 곳이 어딘지.."

지훈의 불만스러움을 알아채지 못하고, 인형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며, 그런 곳이 어딘지 많이 기대가 되었다.

지훈은 몹시도 불만스러웠지만, 오늘의 아침은 특별히 인형의 손까지 잡고 등교하는 날이 아닌가. 지훈은 더이상 말없이 인형의

조그만 손만 만지작 거리며 마음을 달랬다.

정우는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요즘들어 부쩍 친해진 듯한 지훈과 인형을 쳐다보느라 정우는 난생처음 겪어보는 질투, 상

실감을 느꼈다.

누가봐도 지훈이 인형에게 단단히 꽂힌것은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데 정우가 보기엔 인형이도 지훈을 대하는 품이 여간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 두사람에게 가끔 보이는 알수없는 분위기엔 뭔가 모르는 돌만 아는 공통분모가 있어보였다.

남의 시선따윈 신경조차 쓰지 않고, 맘에 안들면 제멋대로 미친듯이 날뛰던 지훈은 인형의 앞에서만 서면 눈치를 보며 순한 양이 되어 갔다.

예전엔 늘 심드렁하고 비딱하던 지훈의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활기차 보여 훨씬 표정있는 얼굴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원래 잘생겼던 얼굴이 더욱 빛이나 보였다. 신경질적으로 보이던 눈빛도 부드럽게 변하고, 인형과 있을때는 자주 활짝 웃어보이기도 하여 그런 지훈을 쳐다보며 한숨짓는 여자아이들은 더욱 많아져 갔고, 실제로도 지훈에게 대쉬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았지만, 그럴때 마다 지훈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란 듯이 얼굴이 싸늘해 지며 냉정하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정우에게 대하는 인형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것은 인형이 말하는 친구로써 좋아한다란 말을 하루하루 정우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인형을 지훈이 보는 앞에서 초대하고, 지훈까지 초대할 것은 얼마쯤 인형과의 관계가 자신이 더 끈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몰랐다.

당연히 그날 지훈은 의기소침하고, 우울해 보이기까지 해서 정우는 약간의 승리감에 도취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어찌 된 것인지 지훈은 더욱 활기차 보였고, 인형의 곁에 더욱 맴돌았고, 인형 또한 그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정우는 지금 옆에서 하품을 몰래몰래 하며 눈꼬리에 달린 졸음을 뿌리쳐가며 수업에 열중하려 애를쓰고 있는 인형을 쳐다보았다.

처음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을때만 해도 이렇게 자신을 흔들여 놓을 지는 몰랐다.

그땐 피곤해서 귀찮은 바람에 냅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마 운명이었나 보다란 생각이 들었다.

가랑비는 소리없이 내리다 언제 젖는지 모르듯이 모든 것을 젖어버리듯이 정우는 인형에게 젖어들어가 버렸다.

한발짝 한발짝 자신의 영역에 들어와 휘저어 놓을때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은 자신을 알아버렸을때, 그땐 이미 너무 많은 마음이

인형에게 가버렸음을 깨달았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먼저 사랑한 인형이었다. 지훈에게 빼앗길 순 없었다.

이젠 꾸벅꾸벅 졸며 책상에 고개를 자주 떨구고 있는 인형을 보자 예전에 잠꼬대하던 모습이 떠올라 정우는 웃음이 나왔다.

수학선생의 사나운 눈길이 자주 인형을 향하자 정우는 슬며시 인형을 건들었다.

살짝 놀란 인형이 정우를 슬쩍 쳐다봤다. 잠이 덜 깬 몽롱한 눈으로 정우를 쳐다보자 정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흠.흠.. 앞에봐.. 수학이 자주 짜려본다."

정우는 감당이 안되는 자신의 얼굴에 속으로 욕을 하며, 인형에게 나지막하게 알려주며 얼굴을 슬며시 돌려 외면했다.

인형은 어제 리현의 걱정으로 잠을 설친 여파로 지루한 수업시간이 고육이었다.

얼마나 보기 흉하게 흔들며 졸았으면 정우가 외면을 하고 있을까란 생각에 약간은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

"그래? 나도 언제든 콜이지"

인형이 저녁에 지훈이 말하던 그곳에 언제 갈까라고 묻는 말에 은근히 놀기 좋아하는 빛나리의 눈도 반짝 거리며 대답했다.

"은주야 너는 어때?"

인형이 살피듯 은주를 쳐다보며 물었다. 요즘 은주는 힘이 없어보이고, 딴 생각에 잠긴듯 늘 멍을 때리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아..그리고 요즘 집에 일이 있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돼"

은주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집에 무슨일? "

역시 의심스러운 빛나리도 살피듯 캐물었다.

"뭐...그냥 큰일은 아니고.. 애타...못가..당분간.."

인형의 빛나리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모이자 당황한 듯 더듬 거리듯 은주는 대답했다.

뭔가가 많이 이상하고 의심스러웠지만, 더이상 말을 해줄 꺼 같지 않은 은주의 다문 입을 보자 둘은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모든일에 적극적이고, 호기심도 많은 은주가 요즘 많이 기운이 빠진 듯 해서 이번에 지훈이 추천하는 곳에 가면 은주가 제일 신

나할 것이란 생각이었는데, 인형은 머리가 가웃거렸다.

"나..좀 피곤해서 먼저 교실로 갈께"

두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은주는 먼저 교실로 가버렸다.

"뭔가 수상해..."

빛나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은주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많이 수상하지..뭔가 있긴 한데...혹시 뭐 말들은 거 없어?"

인형이 동의하며 빛나리에게 물었다.

"없어.. 재가 은근히 개인주의야. 남의 사생활은 관심도 많고, 알려는 의지가 강한데, 자기 사생활은 거의 노출을 안해...남자문

젠가?"

빛나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추리에 들어갔다.

"남자? 남친 있었어?"

한번도 남친 이야기를 못 들어본 인형이 놀라 되물었다.

"그냥 느낌에 그래.. 가끔 눈치 보며 혼자 비밀전화를 받는거 보면 그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확 잡아다 고문한번 할까?"

빛나리는 반쯤 확신하는 태도로 말하며 주먹을 풀었다.

"세상에...재밌겠다. 언제 고문할까? 난 언제든 콜이야~"

같이 손을 풀며 인형이도 맞장구 쳐주었다.

결국 인형과 빛나리, 망설임 없이 언제든 갈수 있다란 정우와 날짜를 잡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내일 저녁으로 정하고 인형은 지훈에게 날짜를 통보했다.

네명은 각자의 기대에 설레여하며 내일을 기다렸다.

다음날 방과후 각자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약속시간에 다시 네사람은 모였다.

달라진게 있다면 지훈의 친구 명진이 나왔다.

명진은 요즘 얼굴이 펴진 지훈을 보며 인형과의 일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짐작했다.

하지만 너무 암전해진 지훈이 적응이 되진 않았다.

둘이 자주 어울려 다니던 곳에 요즘 지훈을 얼굴을 보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가끔 마지못해 나와선 그냥 술만 살짝 마시곤 공지가 불붙은 마냥 내빼기 일쑤였다.

사실은 저녁마다 자신의 방에서 인형과 화상통화하기 위해서란걸 꿈에도 모르는 명진이었다.

오늘도 그냥 내빼려는 지훈에게 10년 우정은 다 소용없다며 투덜대며 징징거리는 명진을 어쩔수 없이 끌고 나온 지훈이었다.

그래도 혼자 속앓이 하던 지훈과 인형이 발전이 있는 것 같아 신이난 명진이 기분 좋게 저녁을 쏘았다.

늦은 저녁을 먹고 지훈이 데리고 간 곳은 정말 독특한 분위기의 술집이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척 보기에다 굉장히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는 꽤 넓은 실내 가운데는 여러가

지 악기들로 공연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있었고, 주위에는 춤도 출수 있을 공간도 있었다. 둘러보니 2층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말이 2층이지 별로 높지 않는 높이라 1층과 그리 차이는 나 보이지 않아서 2층에서도 공연을 가까이서 보게끔 만들어져 있었다.

다섯명은 2층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익숙한 듯 간단한 주문을 지훈이 하였다.

둘레둘레 신기한 듯이 둘러보는 빛나리와 인형을 쳐다보며 지훈은 싱긋 웃었다.

"여기 라이브도 하나봐요?"

빛나리가 궁금한 듯이 물었다.

"어. 프로는 아니고, 그래도 꽤 실력있는 애들이 많이 해. 여기 사장이 그쪽으로 굉장히 신경쓰거든."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었다.

"장르는?"

인형이 물었다.

"장르는 여러가지 다해. 발라드도 하고, 락공연도하고, 가끔 재즈도 하기도하고,...근데. 뽕짝은 안해"

지훈은 설명하다 인형을 쳐다보며 살짝 윙크를 하며 장난스레 말을 끝냈다.

"이런.. 내가 오늘부터 새 장르를 개척해야겠군."

안타깝다는 듯이 인형이 말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진담같은 농담을 했다.

인형의 말에 인형의 뽕짝 솜씨들을 아는 지라.다들 푸하하 웃었다.

맥주가 자리에 세팅이 되고 다섯명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보니 공연석에서 여러명의 남자들이 악기를 세팅하고 있었다.

"우와~ 공연하려나보다."

인형이 급 관심을 보이며 아래를 내다보았다. 아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꽤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오늘은 락공연하려나 본데?"

인형의 말에 같이 아래를 내다보던 명진이 중얼거렸다.

잠시후 공연을 하려는지 세팅을 끝낸 그 자리에 공연팀이 올라왔다.

마이크를 잡는 보컬이 여자였다.

꽤 화려한 옷차림에 보기에다 꽤 예쁘장한 미모의 여자라 인형은 기대에 찬 눈길로 그 여자보컬을 신기한 듯 살펴보았다.

"우와~ 정말 잘생겼다"

옆에서 빛나리가 탄호성을 터트렸다.

"응? 누구?"

웬만해서 누구 잘생겼다란 말을 잘 하지 않는 빛나리인지라 궁금해서 얼른 물었다.

빛나리의 손가락이 가르키는 데로 눈길을 주다 인형은 눈이 커다래지며 벌떡 일어났다.

한쪽에서 걸어올라오고 있는 잘생긴 남자는 인형이 잘 아는 남자..바로 리현이었다.

빛나리의 손가락에 모두의 시선이 그 남자를 쳐다보았는데, 다들 무언의 동의를 할 만한 외모였다.

인형이 벌떡 일어나 너무 관심을 가지며 몸을 내밀며 그 남자를 쳐다보자 지훈과 정우의 얼굴이 지푸러졌다.

"아,아. 아래로 떨어지겠다. 앉아서 봐~"

빛나리가 슬며시 인형을 잡아당겼다.

인형은 그 말에 자리에 도로 앉았지만, 얼떨떨하고 진짜 리현이 이렇게 공연하러 다니는 구나란 생각에, 또 실제로 그 모습을 보

니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가족들의 반대를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인형의 신경은 완전히 리현에게 쏠려있었다.

그런 인형이 못마땅한 지훈과 정우였고, 과하게 관심을 보이는 인형이 약간 의심스러운 빛나리와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된단 생

각을 하게되는 명진이었다.

잘생긴 지훈과 정우에게 끄떡도 하지 않던 인형이 좋아하는 외모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인가 란 생각을 하는 명진도 그 기타리스트

인 남자에게 시선을 주었다.

공연은 정말 멋있었다. 보컬도 꽤나 노래를 잘불렀지만, 인형의 눈엔 리현밖에 보이지 않았다.

웬지 아들 재롱잔치에 와 있는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혹시나 실수하지나 않을까란 생각에 두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한 심정으

로 리현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리현은 정말 능숙하게 잘 했고, 공연에 집중하며 연주하는 리현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다.

처음엔 걱정스런 얼굴의 인형은 어느새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리현을 바라보았다.

첫번째 노래가 끝나고 모두가 앵콜을 외쳤을때, 인형의 눈가엔 눈물이 맺힐 정도로 뿌듯해졌다.

"우와 대단하다~"

빛나리가 한숨쉬듯 감상평을 내렸다.

"그지?그지? 특히 저 기타치는 사람 너무 멋있지 않냐? 완전 멋있지?"

인형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빛나리의 동의를 구했다.

"어?...어...잘생기고..멋있긴해.."

빛이 번쩍 나는 인형의 동의하라는 듯한 두 눈을 보자, 빛나리도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모습에 인형은 만족한 듯 활짝 웃었다.

다시 시작된 연주에 인형은 또다시 무대에 집중을 하였다.

그러한 인형의 모습에 지훈과 정우의 기분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은 인형은 꿈에도 몰랐다.

12680 176

분위기가 후끈 했다. 세곡을 연주하곤 리현팀은 그만 내려갔다.

인형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내려가는 리현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사실은 일어나서 소리치고 휘파람이라도 불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술집에 온 게 리현에게 걸리는 날엔 뒷감당이 무서운건 사실이
었다.

붉게 상기된 인형은 목이 말라 앞에 놓인 맥주를 원샷을 하였다.

잔을 내려놓는 인형은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굉장히 좋아한다. 안데리고 왔으면 큰일날 뻔 했다. 아주 2층에서 뛰어내릴 기세다"

심사가 뒤틀린 지훈이 비꼬듯이 말했다.

"응. 안데리고 왔음 정말 섭섭할뻔 했어. 너무 고마워."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이 안된 인형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지훈을 쳐다보며 웃었다.

"..기타치던 그런 남자같은 스타일 좋아해?"

정우가 떨떠름하게 물었다.

"응. 잘생겼지? 기타치는 모습 정말 멋있더라. 나중에 우현오빠랑 한번 와 봐야겠다."

인형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이런 모습을 식구들이 본다면 아마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빠져 다음엔 우현이랑 오

리란 생각을 하였다.

"우현오빠는 누구야?"

으르렁 거리 듯 지훈이 물었다.

"어? 우리 둘째오빠.. ...왜그래?"

그제서야 지훈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인형이 어리둥절해 되물었다.

"어머나, 저 밴드 여기에 다시 나왔네?"

아래층이 약간 소란스러움에 빛나리가 내려다 보며 말했다.

"뭐?"

인형은 다시 고개를 꺾싸게 돌리며 아래층을 주시했다.

리현의 일행은 술이라도 한잔 하려는듯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는 모습이 보였다.

인형은 순간 낭패란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자리잡고 있으면 행동의 폭이 좁아짐을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

인형은 이마를 긁어대며 리현의 행동을 주시했다.

지훈은 질투의 화신이 되었다. 자신도 어딜가도 쫓리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인형이 녀를 잃고 빠진 저 남자는 정말 잘생겼었다.

잘생기긴 했지만, 물론 지훈의 기가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형의 모든 신경을 한순간에 가져가 버린 저 남자의 얼굴을

뺏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였다.

잠깐 자신의 화난 목소리에 잠깐 관심을 두더니, 그 남자가 다시 나왔다면 소리에 인형은 또다시 아래층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지훈은 그만 여기에서 나가고 싶었다.

"이제 그만 가지?"

지훈은 몸을 일으켰다.

"뭐? 왜?"

가자란 소리에 인형은 화들짝 놀라며 지훈을 쳐다보고 또 아랫층을 쳐다보았다.

지훈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별수 없구나. 너도. 안그런 척 하더니. 그저 잘난 얼굴만 보면 헬레레 하는 구나"

지훈이 이를 갈듯 인형을 노려보았다.

"뭐?"

무슨소리인지 어리둥절해 하는 인형은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때 아래층에서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인형과 지훈 일행들은 아랫층으로 시선을 돌렸다.

웬 덩치가 큰 남자가 리현의 먹살을 잡고 있었고, 아까 그 보컬 여자가 가운데서 말리고 있었다.

그 남자 뒤로도 여러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살벌했다.

인형의 눈이 번쩍 커졌다.

리현이 발로 그 남자의 배를 킁하니 찼다. 약간 뒤로 밀린듯한 남자가 다시 달려들어 리현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인형의 숨이 잠깐 멈추었다. 그러나 리현은 쩌싸게 뒤로 물러났으나,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 남자에게 턱을 한대 맞고 뒤로 넘어졌다.

리현의 주위의 남자들이 일어났으나, 덩치의 친구들이 막아섰다.

인형은 넘어진 리현에게 발길질을 하는 덩치를 보자 머리속에 줄 하나가 끊어지듯 정신이 나가버렸다.

"저 개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인형이 외쳤다. 그 소리에 지훈과 정우, 명진, 빛나리는 인형에게 눈길을 돌렸다.

인형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이 난다란 생각이 든 순간 인형의 몸은 텅기듯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어어.. 하는 순간에 인형은 리현의 일행이 술 먹던 탁자위로 밟고 올라가 펄쩍 뛰어내렸다.

인형의 발이 그 덩치의 턱을 날렸다.

갑작스런 인형의 등장과 발길질에 덩치는 뒤로 밀렸다.

인형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덩치의 중요부위를 발로 차버렸다.

고꾸라지는 덩치를 정신이 나간 사람 처럼 인형은 발로 마구 밟아버렸다.

뒤에서 덩치의 친구가 인형의 머리를 잡아채 뒤로 잡아당겼다.

인형의 가벼운 몸이 뒤로 떨어져 구석탁자에 쳐박혔다.

그 순간 지훈과 정우의 몸이 동시에 튕겨져 나갔다.

그 뒤론 피가 터지는 싸움이 되었다. 가게는 난장판이 되었다.

그 와중에도 인형은 일어나 그 덩치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몇대 맞던 리현이 일어나서 인형을 봤을때 리현은 처음엔 헛것을 보는 줄 알았다.

그러나 무서운 기세로 덩치를 발로 차고 밟는 조그만 여자애는 인형이었다.

그러나 인형이 방심한 틈에 그 덩치 친구가 인형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던지는 걸 보고 리현은 그 놈에게 달려들었을때 누군가가

먼저 그 놈을 한방 먹였다.

누군가가 리현에게 달려들었고, 리현도 그때부터 정신없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인형이 신경쓰여 그 와중에도 찾아보니 인형은 그 덩치놈 위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
.

경찰서에 인형의 일행과, 리현의 일행, 그 덩치일행들이 줄줄이 앉아있었다.

"세상에. 이 얼굴에 상처난 거봐.. 어쩔해..무식한 새끼들."

인형은 리현의 얼굴을 붙잡고 씩씩거렸다.

리현의 예쁜 얼굴은 이리저리 터져 피도 나고 멍도 여기저기 들어있었다.

인형은 그 덩치일행을 노려보았다.

"뭐? 무식한새끼? 조그만 년이 진짜 죽을려고.."

덩치가 벌떡 일어나 눈을 부라렸다.

"흥~ 조그만년? 그런년한테 터진 년 뭐냐?"

인형이 코웃음을 치며 같이 노려봤다.

"조용히 해요! 뭘 잘했다고 여기서 떠드는 거야!"

경찰이 소리를 버럭질렀다.

"아저씨 우린 병원 가야되거든요.. 왜 우리 오빠 잡아두냐구요.. 우리오빠 먼저 때린 놈들은 저놈들이라고요.. 그것도 개때들 같이 우루루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인형이는 화가 나서 소리질렀다.

"학생. 학생은 좀 조용히 하지! 미성년자가 어딜 술집엘 들락거려? 엉?"

경찰이 인형에게 인상을 썼다.

학생이란 소리에 찔끔한 인형은 입은 다물었지만, 아무래도 불만스러웠다.

경찰서로 오는 동안에 인형과 리현이 남매란 걸 알게된 지훈과 정우,빛나리, 명진이었지만, 그들이 보기엔 아직도 화를 못삼키며 무대뽀로 소리지르는 인형을 말없이 지켜만 봤다.

"제발 조용히 좀 있자. 최인형.. "

리현이 살짝 인상을 쓰며 인형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게 조용히 할 일이야? 어떻게.... 세상에 이 잘생긴 얼굴이 엉망이 됐구만"

인형은 다시 리현의 얼굴을 부여잡고 상처를 들여다 봤다.

"그 얼굴 뭉개버리렸는데 운좋은줄 알아 새끼야"

그 덩치가 이를 갈듯 말을 꺼냈다.

인형이 고개를 핵 돌리며 뭐라 말 하기도 전에 그 덩치가 말을 이었다.

"제비같이 생긴 얼굴로 하는 짓도 완전 바닥이지. 어디서 내 여자친구와 호텔을 들락거려? 그것도 술 먹어서?"

인형은 충격적인 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만해! 너랑 이제 끝났다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여자는 그 덩치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다.

파르르 소리를 지르는 여자는 리현의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 여자보컬이었다.

"난 안끝났거든. 술먹어서 끌려가서 당한 것은 난데 니가 왜 죄의식을 가져..저 새끼 내가 죽여버릴테니 다신 그런말 하지마"

덩치는 그 여자를 달랬다.

인형이 리현을 쳐다보았다.

인형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자 리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리현의 입술이 비틀어지며 살짝 떨렸으나 리현은 아무말 하지 않

고 고집스럽게 인형을 외면했다.

"해! 그래도 동생앞이라 쪽팔린건 아나보지? 너같은 새끼들은 법도 필요없어. 그냥 매가 약이야 새끼야"

덩치는 의기양양해 소리질렀다.

리현은 무섭게 인상을 쓰며 벌떡 일어나 덩치를 노려봤다.

"쳐다보면 어쩔거야? 뻔히 남친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고 싶냐? 니네 부모도 알고 있냐?"

리현의 몸이 움찔하고 덩치를 향해 걸어나가려던 참이었다.

"푸하하하하"

인형이 웃음을 터트렸다.

다들 인형의 웃음을 터트리자 인형에게 시선이 모였다.

"구준엽이 빗질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참.. 옥겨서..눈을 발바닥에 붙여놓고 다니는거 아냐? "

인형은 하도 웃어서 눈에 맺힌 눈물을 훔쳤다.

그리곤 덩치를 뻔히 쳐다봤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지훈과 정우를 가르켰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과 정우로 향했다.

"재네들 보이지? 잘생겼지? 근데 난 재네들 처음보고도 그렇게 잘 생겼다란 생각 못했어. 웬지 알아? "

인형은 리현에게 시선을 돌렸다. 모두의 시선이 이번엔 리현에게 향했다.

"저 얼굴을 17년간 보고 살았더니 웬만한 얼굴들은 들어오지도 않더라. 난 지금도 가끔 깜짝 놀라. 너무 잘생겨서.."

인형은 다시 덩치를 보며 피식 웃었다.

"저 얼굴에 뭐가 아쉬워 너 같은 덩치와 어울리던 여자를 꼬실려고 술먹여서 호텔로 끌고 가겠냐?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알아

서 엮어질 판인데. 나참 어이가 없어서.. 난 또 무슨 소리라구"

인형은 그리곤 그 여자 보컬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너!"

인형과 다른 이들의 시선이 모두 그 여자보컬에게 쏠리자 그 여자는 긴장을 하였다.

"만약 저 덩치 남친을 떼 놓으려고 이런 수작부린거면 내가 그나마..죄금이라도 이해하지.근데, 만약! 혹시라도 우리오빠가 좋아

저서 저 덩치 떼놓으려고 이런 더러운 일에 우리오빠 연관시킨거면 넌 나한테 죽!는!다!. 너 그 머리털 다 뽑아서 빗자루로 만들

어버릴꺼니깐 알아서 정리해라"

인형은 살벌하게 그 여자애를 노려보며 말을 끝냈다.

움찔한 여자애는 인형을 외면했다.

인형은 리현의 곁에 다가가 손을 잡고 앉혔다.

"신경쓰지마. 오빠.. 원래 특출나게 잘생기면 이래저래 구설수에 오르는 거야.. 어디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우리 오빠를 뭘로

보고"

리현은 아무말 없이 인형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인형이 너무 고마웠지만 찢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호텔로 같이 간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수작? 웃기는구만. 근데 호텔로 같이 간거 맞거든. 내 여친 끌고 말이야"

인형의 말을 듣다보니 인형의 말을 모두 수긍하는 듯한 분위기인지라 다급해진 덩치가 소리를 질렀다.

인형은 덩치를 쳐다보며 픽 웃었다. 그리고 그 여자보컬도 한번 힐끗 쳐다봤다.

"그래? 어디 호텔이래? 요즘 cctv 없는 호텔, 모텔없는거 알지? 확인해보면 되겠네..누가 끌고간건지. 만약에 확인해서 너희들

말이 거짓인거 하나라도 나오면 명예훼손, 폭행, 기타등등, 여러가지 줄줄이 엮어서 가만히 안둘꺼야. 말해. 어디야? 거기 호텔이?"

여자보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얼굴을 보고 인형이 마지막 썰기를 박았다.

"그리고, 우리오빠가 까탈스럽고 눈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또 비위도 엄청 악하거든!"

인형은 확신을 했다. 리현의 성격상 억지로 여자를 끌고 호텔로 갈리가 없었다. 아마도 술에 취해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면 모를까..

아무말도 하지 못한 채 여자애는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덩치는 우는 여자친구를 보며 착잡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나저나, 학생, 보호자에겐 연락했어?"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이 인형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잠시후 우현이 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도착했다.

우현과 변호사가 경찰과 이야기 하는 동안에 인형은 지훈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미안해.. 나뻘에 경찰서 와서... 저 덩치가 오빠를 때리는데 그만 정신이 나가서.. 확 도는 바람에.. 미안해 정말.."

인형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했다.

"됐어.. 뭐 폴코스 제대로 뺐은거지.. 경찰서까지."

빛나리는 솔직히 경찰서에 와서도 당당한 인형을 보고 내심 놀람을 금치 못했다.

하긴 빛나리가 처음 인형을 데려와 겁을 주려 했을 때도 인형은 조금도 쫓지 않았었지만, 여긴 경찰서가 아닌가.

하지만, 오빠가 맞는데 가만히 있는 동생이 어디 있겠는가란 생각에 이해 못할 게 없었다.

"나도 괜찮아. 다친데 없어? 아까 너도 뒤로 넘어졌잖아?"

정우도 빛나리와 같은 이유로 놀라긴 마찬가지였지만, 인형이 던져지던 걸 보았던 지라 걱정스럽다는 듯이 인형에게 물었다.

"괜찮아. 몸에 긴장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많이 충격은 없었어. 넌 괜찮아?"

"응. 괜찮아."

"처음 볼 때부터 정상인은 아니란건 알고 있었으나, 정말 너도 꽤나 막가파구나?"

명진은 인형이 2층에서 뛰어내릴 때부터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겁도 없이 미친듯이 덩치에게 달려드는 인형이 놀랍기만 했다.

그리고 곳곳히 자신의 할 말을 다하는 인형의 당찬 성격에 혀를 내둘렀다.

명진의 말에 피식 웃으며 인형은 아무말 없는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훈오빠 어디 다친데 있어?"

"아니 괜찮아..... 미안하다"

뜬금없는 미안하단 말에 인형은 눈을 동그랗게 떠졌다.

"아냐 아냐~ 내가 가고 싶어서 간건데, 내가 사고쳐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내가 미안하지."

인형은 지훈이 거기로 가자고 한것이 미안해서 그러는 건 줄 알고 도리어 당황해 손을 내저었다.

지훈은 정말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인형의 얼굴을 쳐다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정말 너희 오빠들 다들 한 인물 하는구나..둘째 오빠도 잘생겼다."

빛나리가 우현과 리현을 번갈아 보며 감탄을 하였다.

우현은 리현과 이야기 중이었다.

"큰오빠도 있다며? 큰오빠도 잘생겼니?"

빛나리는 인형의 오빠에게 금관심을 보였다.

큰오빠란 말에 인형의 표정은 급하게 어두워져갔다. 지금쯤 강현에게도 이 사실이 들어갔을텐데.. 인형은 강현이 많이 편해졌지

만, 그래도 어쩔수 없이 많이 어려웠다.

"저 둘의 외모를 눌러버리는 카리스마 만땅이시지.. 난 이제..죽었다..아~~신은 죽었다라고 누가 이야기 했더라.. 난 그말에 반

대야 ..신은 게실꺼야.. 아마 이 난관도 헤쳐나갈 힘을 주실꺼라고 믿는다.."

당당한 모습의 인형은 사라지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겁에 질려 인형은 황설수설을 하였다.

잠시후 우현과 리현이 인형의 일행결에 다가왔다.

우현은 인형의 얼굴과 몸을 살펴보았다.

"어디 다친덴 없어? "

우현은 걱정스레 인형에게 물었다.

"없어.. 나보다 리현오빠가 다쳤지..어떻게 됐어?"

"넌 걱정할꺼 없어. 집에 가면 돼."

리현은 다른 사람들에게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인형에게 말하며 손을 잡았다.

"근데 저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 간거야? 다 친구들이야?"

우현은 지훈의 일행을 보며 물었다.

"응.."

"보기보다 우리 인형이가 꽤 잘나가는 구나. 벌써부터 술집엘 다 다니고.."

평균이상의 외모를 가진 지훈과 정우, 명진, 그리고 예쁜 빛나리를 보며 우현은 재밌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친구들이랑 오라고 했어. 공연보고 싶다길래. "

리현이 우현의 말을 자르듯 내뱉었다.

"뭐? 잘하는 짓이다.. 고등학생을 술집으로 부르고.. 최리현 !"

리현이 불렀다는 말에 우현은 리현을 쳐다보며 인상을 지푸렸다.

리현의 말에 당황하여 변명을 하려는 인형의 손을 짹 잡으며 리현은 말을 이었다.

"그러니 애 잡을꺼 없어. 얼른 집으로 가. 나 피곤해"

"휴~ 그래..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 하자."

리현이 초대했다는 말을 믿기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할 문제가 아니었다. 우현은 한숨을 쉬었다.

우현이 지훈의 일행에게 다가가자 다들 고개를 숙이며 우현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래. 고생했다. 어찌되었든. 내 동생들 땀에 일어난 일이니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그렇지만, 술집에 간거 까지 잘했다는건 아

니다."

우현이 살짝 훈계를 하였다.

한편으로 우현도 놀 만큼 놀던 고딩이었던지라, 크게 혼내진 않았지만, 인형이 꺼 있었다는게 솔직히 놀랐다.

게다가 인형이 싸움판에 끼들어 그 덩치가 큰 놈을 쥐어팠다는게 우현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머리까지 한우큼 뺨혔다고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던 그 덩치가 생각나자 우현은 인형은 다시 쳐다보았다.

사실 그 덩치 패거리들은 성한데가 없어 보였다. 인형의 친구들에게 맞기만 했다고 억울해 하는 그들이었다.

우현은 지훈과 정우 명진을 쳐다보니 셋의 얼굴은 멀쩡해 보였다. 보기에다 셋 다 잘생기기도 했지만, 성깔 또한 있어보였다.

우현과 인형의 일행은 무리없이 모두 밖으로 나왔다.

리현은 자신의 일행들과 잠깐 이야기 한다면 잠깐 기다리란 말을 남기곤 사라졌다.

우현은 먼저 빛나리를 변호사의 차에 태워 먼저 보냈다.

지훈과 명진, 정우는 자신들이 알아서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면서 인형과 인사를 하고 먼저 떠났다.

지훈은 잠깐 다시 돌아와 인형과 같이 있는 우현을 쳐다보곤 인형에게 살짝 뭐라고 하곤 우현에게 살짝 인사를 하고 다시 가버렸다.

무슨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인형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인형에게 대하는 품이 예사롭지 않는 지훈을 눈여겨 보는 우현이었다.

"이제 집으로 가."

리현이 말을 마쳤는지 인형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먼저 걸어 우현의 차로 향했다.

어이가 없는 우현은 고개를 저으며 두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13451 191

경찰서에서 나온 지훈과 명진, 정우였다.

각자의 생각에 빠진 이들은 뭔가 기운이 빠지는 듯하고, 이대로 가기엔 섭섭한 세사람이었다.

"휴~ 그냥 이대로 집에 가진 좀..그런데.. 어디서 한잔 더하고 갈까?"

명진이 지훈과 정우를 쳐다보며 슬쩍 물어보았다.

"...오늘은 왠지 술집엔 가고 싶지 않다. 그냥 니네 형 오피스텔에서 먹자"

잠깐 생각하던 지훈이 명진에게 대답했다.

오래전부터 명진은 집을 나와 살던 형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형이 유학을 가며 비어있는 오피스텔을 명진이 차지한 것이었다.

"그러지 뭐. 정우 너도 가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명진은 정우에게도 권했다.

정우 역시 이대로 집에 가고 싶지 않았던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나섰다.

명진의 형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다. 꼭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두지 않는 성격인지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이 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훈은 익숙한 듯이 성큼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정우는 실내를 한번 쓱 둘러보곤 지훈의 맞은편에 앉았다.

명진은 진열장에서 양주와 잔을 꺼내들고 탁자에 내려놓고선 냉장고에서 간단한 안주거리를 챙겨 내려놓고 앉았다.

"진짜 놀랄 노자란 말은 이럴때 쓰나보다. 오늘 뽕짝의 활약을 보고 난 정말 기함하는줄 알았다. 완전 원더우먼이 따로 없더구만 . 세상에.. 끝까지 그 돼지같은 덩치놈 머리털 붙잡고 늘어질땐 내 머리가 욕싹거리는게.. 내가 다 아프더라."

명진은 경찰이 왔을때 까지 덩치의 머리고양이를 잡고 발길질 하던 인형이 떠올리며 몸을 부르르 떨며 머리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훈과 정우, 자신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지훈과 정우는 대답없이 명진이 따워놓은 술을 마시며 각자 오늘 있었던 인형의 생각에 잠겼다.

지훈은 인형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인형이 그 기타리스트에게 한눈에 반한줄 알았다. 거의 났을 놓고 바라보고 시선을 떼지 않는 모습에 얼마나 질투가

났던지.. 그때 밑에서 싸움이 나지 않았다면 질투에 눈이 뒤집어진 지훈은 인형에게 어떤 무슨 말을 어떻게 더 했을지 몰랐다.

싸움이 나서 그 기타리스트가 맞을때 지훈은 솔직히 속으론 후련하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이내 지훈의 귀에 들리는 사나운 음성으로 욕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는데, 그게 인형의 입에서 나온 소리란걸 안 지훈은 어안이 빙빙했다.

매섭게 눈이 번뜩이며 주먹을 움켜진 인형의 표정은 흡사 잔뜩 골이난 이성을 잃은 고양이 같은 모습이었다.

그모습을 보고 놀랄 순간도 없이 눈깜짝 할 사이에 인형은 2층 난간에 기어올라가 펄쩍 뛰어내릴땐 지훈은 순간 숨이 턱 멎는 것 같았다.

뒤에서 헉 하며 숨을 들이키는 명진을 보니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었다.

생각과 달리 사뿐히 내려 앉던 인형은 텅기듯 일어나 싸움이 일던 탁자위를 밟고, 나비처럼 날아 올라 덩치의 턱을 발로 날릴 땐 한편의 무협을 보는 것 같았다.

이어지는 인형의 덩치를 향한 분노섞인 발길질은 거의 광기가 어린 몸짓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에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설마하니 인형이 뛰어내려가서 그 싸움판에 끼어들지는 몰랐던 것인지라. 지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막막해지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인형은 덩치에 신경이 팔려 뒤에서 접근하는 덩치의 친구를 알아채지 못한 듯 했다. 그 덩치 친구놈이 인형의 머리를 잡아채어선 인형을 던져 인형이 구석 탁자에 굴러가자 지훈은 더 이상 생각 할 겨를이 없이 몸이 먼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감히 인형에게 손을 댄 그 놈에게 살의를 느낀 지훈은 인형을 던진 그 놈에게 날듯이 다가가 야구통을 날려버린 후 달려드는 놈들을 손봐주기 시작했다.

동시에 정우랑 뒤이은 명진이가 합세하여 판세는 지훈쪽으로 기울었다.

쓰러진 인형이 신경이 쓰여 지훈은 그 와중에 인형이 넘어진 곳으로 눈길을 돌리니 인형은 그 자리에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한 지훈은 옆에 달려드는 놈을 발로 차버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인형은 어느새 일어나서 그 덩치놈 위에 올라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모습을 보자 지훈은 그 와중에도 안심도 되고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얼마후 경찰이 출동할때에는 지훈일행이 그 덩치 친구놈들을 거의 떡을 만들어 놓은 후였다.

그러나 인형은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처럼 악착같이 그 덩치놈을 두들겨 잡고 있었다.

경찰과 빛나리가 달려들어 떼어놓았을 정도였다.

어느정도 진정이 된 싸움판에 인형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이 씩씩거렸다.

조금 정신차린 듯한 인형은 생각난 듯이 주위를 살폈다. 지훈과 정우쪽을 보는 듯 했으나 이내 다른 곳을 둘러보던 인형은 역시

나 그 기타리스트 놈을 찾는 듯 했다. 인형의 눈에 그 기타리스트가 들어오자 인형은 그쪽으로 급히 다가갔다.

그 모습을 보자 지훈은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하면서 허탈해졌다.

기타리스트 옆에는 그 보컬 여자가 어쩔 줄 모르며 수건으로 피를 닦아주고 있었다. 그 기타리스트는 치를 떨며 짜증스럽고 화가

난 몸짓으로 그 여자의 손을 쳐내고 있었다.

인형은 그 여자를 밀치듯 그 기타리스트에게 다가가더니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 기타리스트의 얼굴이 엉망으로 터져있었다. 인형은 그 얼굴을 덱석 잡고 속상하다는 듯이 투덜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기타리스트의 몸짓에도 거부감이 없었다. 어쩐지 친밀해 보이는 두사람이었다.

그 남자의 얼굴을 살피던 인형이 울컥했는지 다시 그 덩치쪽으로 달려들려고 했다.

옆에 있던 빛나리가 인형을 재빨리 잡지 않았으면 또 다시 덩치와 한판 할 기세였다.

"놔! 저 돼지같은게 우리오빠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말이야! 내가 가만둘지 알아? 넌 죽었어! 이거 놔!"

인형이 빛나리에게 잡혀 덩치에게 소리소리 질렀다.

우리오빠? 지훈의 귀가 번쩍 띄었다.

"오빠? 저 사람이 인형이 오빠가?"

오빠란 소리에 옆에서 정우놈이 중얼거렸다.

경찰이 간단히 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흥분한 인형이 우리오빠가 떼로 몰려드는 남자들에게 맞았다고 떠들어 댔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인형과 그 남자가 남매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근데,, 굉장히 어려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죠? 혹시... 학생 아닌가?"

경찰은 고개를 가웃하며 인형을 쳐다보며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제야 약간 흠칫한 인형은 정신을 약간 차리는 듯 했다.

"젠장, 진짜 었됐다."

뒤에서 명진이 투덜거리며 내뱉었다.

다 같이 경찰서로 끌려와서도 인형의 흥분은 멈출줄을 몰랐다.

계속 덩치를 노려보던 인형에게 덩치는 비웃듯이 인형의 오빠와 자신의 여친과의 일을 떠벌렸다.

술에 취한 덩치의 여친을 끌고 호텔로 갔다란 듣기에도 민망한 이야기에 인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잘생긴 인형의 오빠의 얼굴도 사색이 되듯 굳어지는 모습이었다.

의기양양한 덩치는 마구 비웃었다. 지훈은 혹시나 이번일로 자신의 오빠에게 실망하여 인형이 상처받을 것이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조금있다 인형의 참을 수 없다란 듯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인형은 진심으로 너무 웃기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마구 웃어 댔다.

눈물까지 흘리며 인형은 그럴리 없다란 확신을 가진 얼굴로 자신의 오빠 편을 들었다.

자신의 오빠의 잘생긴 얼굴을 보고 자란 탓에, 지훈과 정우까지 들먹이며 그들을 처음 봤을때 잘생긴 얼굴인줄 몰랐다란 말을 할 때 지훈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처음 자신을 봤을때 녀을 잃고 봐놓구선, 몇번이나 지훈이 잘생겼다고 본인의 입으로 인정을 해놓구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하는 인형이 깜찍하기까지 했다.

인형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덩치의 여친의 말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덩치의 마지막 발악을 마저 코웃음 치며 상황을 정리해 버리는 인형의 모습은 .. (인형의 모습은 정리한다고 했으나 약간 산발된 머리를 한 채로) ..지훈의 눈엔 아름다운 여전사같이 보였다.

인형의 태도는 자신의 오빠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 차 보였다.

지훈은 그러한 인형의 태도에 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은 인형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자신이 한심하고 치졸하게 느껴

졌다.

그리고 자신도 인형에게 저런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인형이 보여주는 흔들림없는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훈은 못할 것이 없을 거 같았다.

인형의 자신의 오빠의 손을 굳게 잡고 웃어주자, 그 남자는 처음으로 살췐이 웃는 것 같기도 했다.

잠시후 인형의 둘째 오빠란 사람과 변호사가 와서 상황을 정리를 하는 동안 인형이 미안한 듯이 사과를 했을때 지훈의 심정은 도리어 인형을 믿지 못한 미안함으로 가득했었다.

그래서 말이 없는 지훈을 걱정스레 쳐다보며 다친곳이 있나란 인형의 물음에 미안하단 말을 해주었다.

무슨 뜻으로 미안하다란 말을 한지 모르는 인형은 오해를 한 듯 했으나 지훈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단 둘이 있을때 사과하고 싶었다.

빛나리의 말대로 인형의 오빠들은 모두 한인물하는 외모를 가졌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 인형이 두번째로 잘생긴 사람이란 말이 떠올랐다.

아마도 첫번째는 인형의 막내오빠를 말하는 듯 했다. 정말 첫눈에도 훑 할 정도로 잘생긴 외모를 가진 인형의 막내오빠였다.

그리고 두 오빠 모두 인형을 아껴주는 듯한 모습에 지훈은 저번에 노가은의 이야기를 듣고 없잖아 걱정했던 집안식구들과의 관계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다.

특히 막내오빠는 지훈의 일행을 맘에 들지 않는 듯 지훈의 기분탓인지.. 약간 적개심마저 보이는 듯하며 인형의 손을 잡고 자신쪽으로 잡아당기며 소유욕을 내보이기까지 했다.

경찰서에 나와서 그냥 인형이와 헤어지기가 아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 다시 되돌아가 인형에게 상황이 대충 정리되면 전화해 달라고 말하였다. 인형이도 이내 고개를 끄덕여 주어 지훈은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그 생각에 이르자 혹시나 몰라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들고 부재중 전화가 있을까 하여 들여다 봤다.

인형에겐 아직 전화가 없었다.

정우 역시 지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우도 처음엔 질투에 사로잡혔으나 상황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 남자가 인형의 오빠란 걸 알게 되자 안심이 되었다.

자신의 사람에겐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인형을 본 것 같아 정우의 마음도 인형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심정은 지훈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적어도 인형과 같이 다니면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겠다란 생각이 들자 정우는 웃음이 나왔다.

"어라? 이자식 웃기도 하는 놈일세? 같이 웃자 자식아~ 혼자 웃지만 말고.. "

정우의 나지막한 웃음에 정우의 웃는 모습을 처음 본 명진은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한편으론 왜만해선 표정이 없는 놈을 웃게하는 그 웃음의 원인이 너무 궁금하였다.

"뭐.. 그냥 인형이랑 다니면 억울한 일은 안당하겠다란 생각이 드네요"

정우는 웃음기 남은 얼굴로 대답해주었다.

"푸핫~ 정말 생각해 보니 그렇지. ㅋㅋ.. 볼수록 대단한 뽕짝이야.. 정말 겉보기완 뽕뽕이야.. 생긴대로 논다란 말을 난 이제부터 믿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이제부터 꺾어봐야 안다란 말에 한표 던질란다."

명진은 ㅋㅋ 웃으며 정우의 말에 동의를 했다.

"뭘 그렇게 전화기만 쳐다보냐? 어디 전화올때 있냐?"

그리고 보니 너무 조용한 지훈을 쳐다보니 핸드폰만 들여다 보는 지훈의 모습에 명진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

아무말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며 술만 마시는 지훈이었다.

누구의 전화를 기다리는지 알것 같은 정우는...그런 지훈을 쳐다보며 가슴이 답답해움을 느끼는 정우 역시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며 술을 마셨다.

둘의 모습을 지켜보는 명진은 한숨과 함께 빈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

리현은 아직도 인형의 손을 꼭 잡고 우현의 차 뒷자석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우현은 밖에서 변호사 통화중이었고, 인형이도 피곤한지 눈을 감고 있었다.

리현은 예전에 인형과 한바탕하고 강원도 별장으로 가버린 박여사를 만나러 간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냉정한 큰형과, 은근히 박여사의 성격을 질려하는 우현. 사이가 좋지않는 아버지를 떠올리니 혼자 있는 자신의 엄마를 생각하니

신경이 쓰인 리현은 충동적으로 박여사가 있는 별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고 싶었다.

도착한 별장에는 생각지도 않게 아버지의 차가 있었다.

리현을 보자 김기사가 차에서 나와 살짝 인사를 나누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언제요?"

"네.. 두시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요?.."

고개를 가웃거리며 리현은 그냥 되돌아 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왕 온김에 잠깐 들여다 봐야겠다란 생각에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들어서자 박여사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웬만해선 목소리마저 높이지 않는 박여사인지라..리현은 인상을 지푸렸다.

두 분이 싸우는 듯 하여, 생각해 보니 차라리 저렇게 싸우는 게 낫다란 생각에 리현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기로 마음을 먹고 몸

을 돌리던 차에 들리던 박여사의 말에 리현의 몸은 그자리에 굳어버렸다.

"당신 딸이 아닌거 알고 있다구요! 내가 바본지 알아요? 차라리 당신의 딸이라면 내가 덜 비참했을꺼야. 그애가 왜 최씨 성을 달

고 이집에 있어야 하나요?"

박여사가 소리질렀다.

"아니...당신.. 대체 무슨소리를..."

놀란 듯한 최회장의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해! 설마 내가 언제까지 모른척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하긴 나도 내입으로 이런 말 까지 할지 몰랐으니..정말 대단한 사랑이

예요.. 최회장님.. 그 여자가 상처받을까봐. 그여자 남편이 저지른 씨앗까지도 끌고 올 정도니깐요.. 하하하..정말 대단한 사랑

이지 않나요?"

박여사는 허탈하게 비웃으며 최회장에게 쏘아붙였다.

"어떻게...당신이 어떻게...언제부터 안거요?"

놀란 최회장이 물었다.

"언제부터 알게 됐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궁금해요? 정말 당신이란 사람은.. 나를 뭘로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난 대체 당신

한테 뭐예요?... 하긴..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란건..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깐.."

""

"그렇게 그 여자 사랑했어요? 그 여자가 상처받는건 중요하고, 내가 상처받는 건 안중에도 없었죠? 당신에게 아들 셋이나 낳아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당신은 정말..이기적이

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후회하고 있소.. 여러번 후회했었소..그땐..그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지 알았소.. 늘 당신에겐 미안했소..죄스럽

고.. 결국 내 가족들에게 상처입힌 꼴 밖에 되지 않는 거란걸 알았지만...저질러 놓은 일은 되돌리기엔 내가 너무 많이 와버렸기

에... 미안하오.."

리현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어 머리속이 하얘지고 속이 울렁거렸다.

인형이 자신들의 피가 한방울도 섞이지 않는 남이란 사실을 알게되었다. 인형은 그럼 누구란 말인가?

리현은 더이상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리현은 조용히 몸을 돌려 별장을 빠져 나왔다.

이내 나오는 리현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김기사에게 리현은 자신이 온 것을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며 신신당부를 하였다.

심상치 않는 리현이었지만, 김기사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했다.

리현은 어떻게 서울로 올라온지 생각이 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벌써 한밤중이었다. 리현은 차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박여사와 최회장의 오가던 말들을 다시금 꼼꼼히 되새겨보았다.

최회장이 결혼전에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다. 그여자의 남편이 외도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때문에 최회장의 사랑하던 여자가 상처를 받을까봐 대신에 최회장이 그 애를 데려왔다. 바로 그 애가 인형이었다..대충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았다.

리현은 허탈함과 아버지에게 대한 분노가 생겼다. 어머니 박여사가 저렇게 된 이유가 있었다. 그건 박여사의 말대로 외도로 아이를 낳아온 것 보다 더 잔인한 일이었다.

또한 인형이는 무슨 죄란 말인가... 리현은 주먹을 짝 쥐었다.

사고후 달라진 인형이 무척이나 리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엉뚱하기도하고 능청맞게 달라붙는 인형이 밍지 않았다.

몹기커녕 도리어 너무 마음이 가서 리현은 스스로도 깜짝 놀랄때가 있었다.

이런 마음이 이제서야 동생을 받아들이는 과정인가 하는 리현이었다.

인형이 맞고 왔을때는 너무 속상하고, 학교에 가서 한번 뒤집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형이 고민에 빠진듯한 모습을 보면 신경이 쓰이고, 즐거워 보이면 덩달아 리현의 마음도 즐거웠다.

밖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듣고 상처입은 인형을 보자 리현의 가슴은 저릿하고 아팠다.

어디 갈때도 없다란 말에 리현은 속도 상하고 자신에게 기대지 않는 인형이 안타깝고, 화가 났다.

그러다가 인형의 사랑한다란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떨림이 얻었다.

그런 사랑스런 인형이 자신의 동생이 아니란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란다. 리현은 자신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었다.

이런 사실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 깊은 곳 한쪽에서 모락모락 자라나는 다행이란 마음에, 이 다행스런 마음의 정체가 뭔지

리현은 불안하기 까지도 하였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리현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2층에 올라와 방으로 들어가려다 인형의 방을 쳐다봤다.

못견디게 인형이 보고싶었다.

충동적으로 인형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캄캄한 방에 인형의 숨소리만 들렸다.

책상의 스텐드를 켜고 의자에 앉아 인형의 자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뒤적이며 자는 인형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다.

그러다 인형이 일어났다. 긴 머리를 언제 잘랐는지..고개를 흔드는 인형을 따라 머리가 찰랑거렸다.

리현을 보고 놀란 듯한 인형이었다. 인형이 일어나 험령한 잠옷차림으로 머리를 가웃 거리며 리현에게 다가왔다.

리현은 가까이 오는 인형을 보자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다. 박여사의 말이 생각났다. 남이란 생각에 리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다.

다가오던 인형이 방의 불을 켜려는 듯 몸을 돌리자 리현은 재빨리 불을 꺼지말라고 말했다.

리현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것 처럼 갈라져 나왔다.

단발로 자른 인형의 머리는 이리저리 뻗쳐 있었지만, 그 모습 또한 애뜻하게 예뻐보였다.

리현의 마음을 들여다 보듯 자른 머리가 예쁘냐고 물어보는 인형에게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 조금 늦게 예쁘다고 대답해줬다.

대답이 늦게 나왔다면 살짝 웃으며 투정부리는 인형이 너무 예뻐 순간 짹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정말 더 이상 예쁘지 않아졌음 좋겠다란 말은 리현의 진심이었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세운 리현은 다음날부터 리현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누가 뭐래도 인형은 동생이었다. 또 다시 인형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상처를 받는 걸 원하지 않았다.

리현이 늘 갈망하고 좋아하는 밴드에 더욱 미친듯이 매달린 것도 이때부터였다.

집엔 일부러라도 늦게 귀가하였다. 어느정도 진정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집에서 마주치는 인형을 잠시라도 본 후엔 자꾸만 혼란스

러워지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럴수록 밴드에 모든것을 쏟아부었다. 아니나 다를까 강현의 호출이 왔다.

14165 207

리현은 강현에게 나오는 뻘한 소리를 듣고 있자니 열불이 났다.

회사따윈 관심도 없었다. 강현과 우현이 말아서 하면 될 일이지 자신에게까지 굴레를 씌우는 것 같아 늘 못마땅했다.

어릴적엔 그나마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리현에게 박여사가 신경을 써주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강현과 우현을 비교해서였다.

어릴적부터 까칠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예민한 성격의 리현에겐 음악이 가장 좋은 친구였다.

음악은 리현에게 외로울때, 화가 날때, 위로해 주기도 하고, 힘들고 답답할때, 리현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분출구와 같은 존재였다.

실제로 강현은 리현에게 아직 강압적으로까진 말하지 않았다. 너무 빠져드는 리현을 약간의 충고를 했을 뿐인데, 요즘 리현의

감정은 스스로도 컨트롤이 안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이 그때였다.

집에 들어왔을때 잠깐 마주친 인형의 얼굴에 떠오른 걱정스런 표정이 지워지지 않아, 자신이 한심스럽단 생각이 자꾸 들어, 강현의 말에 신경질적으로 대꾸해버렸다.

이러한 리현의 태도에 화가 난 강현이 어리석고 어린애처럼 굴지말란 말에 울컥한 리현은 강현에게 자신의 일에 꺼들지 말라며 소리지르며, 방을 나서자마자 문앞에 서성거리던 인형과 눈이 마주쳤다.

리현의 얼굴을 살피는 인형의 걱정스런 얼굴을 또다시 대하자 리현은 알수없는 착잡함에 인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현의 걱정스런 염려의 말을 듣자 리현은 참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자신을 철없는 방황하는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났다.

우현에게 쏘아붙히고 리현은 한시라도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집을 나서는 리현의 뒤를 인형이 뒤쫓아와 리현의 옷깃을 잡고 매달리며 잠시만 이야기 하자며 애원하는 인형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뻘한 위로정도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인형은 리현의 꿈을 인정해주었다.

게다가 리현의 편이라며 힘까지 실어주는 인형의 얼굴은 진심으로 리현을 응원하는 표정이었다.

잠짓 익살을 떨어가며 술을 한번 더 먹고 강현에게 꼬장도 서슴치 않겠다는 발언에 리현은 예전에 인형이 강현의 볼을 잡고 놀이던 광경이 생각나 웃음이 나왔다.

리현을 따라서 살췌이 미소짓는 인형이 못견디게 사랑스러웠다.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다 확인하듯 다시 자신의 편이냐고 물었다. 망설임 없이 오빠편이라는 인형의 대답에 충동적으로 인형의 볼에 입을 살짝 맞추었다.

느닷없는 리현의 행동에 놀라는 인형의 얼굴표정이 귀여웠다.

짜증스런 기분은 일시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현은 기운이 났다.

리현은 진심으로 자신이 하고 싶던 음악을 하고 싶었다. 리현은 더욱 밴드에 매진하였다.

그날은 리현의 밴드에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꽤 실력있는 아마추어들이 공연을 하기로 유명한 라이브 카페에 리현의 밴드도 메인은 아니지만, 가끔 핑크를 때우거나, 이른 시간 오프닝으로 분위기 띄우기 위함이었지만, 늘 무대가 갈망이던 리현의 밴드로써는 신이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축하파티를 한다고 꽤 마셨다. 1차. 2차. 3차...기억이 안날 정도로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멤버들은 한껏 마시고 놀았다.

들뜬 분위기에 취한 리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정도로 취해 버렸다.

늦은 아침에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몸을 일으킨 리현은 낯선 장소라 처음엔 어리둥절했었다.

둘러보니 호텔인것 같았다. 어떻게 호텔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리현이었다.

심한 갈증에 물을 마시려 아픈 머리를 누르고 일어나던 리현의 귀에 인기척이 들렸다.

욕실에서 나오는 보컬여자를 봤을 때 리현은 머리가 더욱 아파지는 듯 했다.

"넌 여기 왜 있어?"

신경질적으로 리현이 물었다.

"네가 끌고 왔으면서 그렇게 물으면 내가 섭섭하지 않겠어?"

신경질적인 리현의 태도에 보컬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리현을 노려보며 되물었다.

끌고 왔단란 소리에 리현은 코웃음을 쳤다. 리현의 멤버로 들어온지 몇달 밖에 안된 여자애였다.

처음부터 과하게 리현에게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여자였다.

귀찮고 짜증이 나는 리현이었지만, 그나마 상대해 주는 것은 멤버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가끔 연습실 앞에 기다리는 남친도 있는 것 같아 더욱 끌려들던 리현이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꺼져, 그나마 같은 멤버라서 상대해준거지 너 같이 엉겨붙는 거 딱 밥맛없거든. 너랑나랑 별일 없은거 아니깐 그만 가봐."

리현으로서는 최대한 성질을 죽이며 이야기를 끝내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어이없다란 리현의 태도에 주춤하던 그 여자는 한동안 리현을 노려보다 입을 열었다.

"인형이 누구야?"

물을 마시던 리현의 동작이 멈추었다.

"뭐?"

리현은 인형이란 소리에 깜짝 놀라 그 여자를 노려봤다.

"인형이 누구냐고.. 나보고 인형이라면서 엉겨붙던 건 최리현 너거든.."

리현의 놀라는 태도에 그 여자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며 의기양양하게 몰아세웠다.

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제 술을 마시며 인형의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저 여자애를 붙들고 인형을 찾았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저 여자 입에서 인형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속쓰리지? 나도 속 쓰려. 어제 우리 꽤 마셨잖아? 여기서 아침 먹고 나가자."

일그러지는 리현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여자는 그곳이 소파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그날 이후로 리현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더욱 더 달라붙으며 친밀한 척 하는 그 여자가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졌다.

남친과는 끝내기로 했으며, 걱정말라는 그 여자의 말에 리현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다른 멤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가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리현을 보자마자 먹살을 잡고 막말을 하는 덩치를 보자 리현은 미칠지경이었다.

순간 욕한 마음에 발로 그 덩치의 배를 차버렸으나, 덩치가 만만하지 않은지 이내 자세를 잡고 리현에게 달려들었다.

사실 몇대 맞아주더라도 그만 끝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애써 피하지 않고 몇대 맞아 주던 리현은 한동안 덩치의 발길질이 멈

추자 도리어 의아한 생각에 고개를 들어보니 덩치가 인형이에게 맞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처음엔 헛것을 보는 줄 알았다. 여기에 왜 인형이가 있단 말인가 했는데 눈을 깜빡여 봐도 인형이었다.

리현이 정신을 차린 것은 인형이 덩치 친구놈에게 머리를 잡혀 뒤로 던져졌을 때였다.

리현의 몸이 튕겨지듯 일어나 그 놈에게 달려들려고 했을때 자신보다 더 빨리 그 놈을 때려 눕히던 남자가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기도 전에 패싸움으로 번져버렸다.

리현에게 달려드는 놈을 상대하면서 눈은 인형을 찾았다. 드디어 리현의 눈에 들어온 인형은....악착같이 그 덩치놈의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경찰이 와서야 사태가 진정되고 인형은 리현의 얼굴만 부여잡고 울상을 짓고 있었다.

어느 정도 창피함도 있었지만, 인형의 안타까운 시선과 따뜻한 손길은 리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그 덩치가 떠들어대던 사건으로 리현은 굳어버렸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실수였지만, 이런 사실이 인형의 앞에서 까발려지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죽고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인형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시종일관 리현을 굳게 믿어주었다.

나중에는 거짓말이 밝혀지면 고소하겠다고, 인형은 그 둘을 협박까지 해댔다.

리현의 손을 꼭 잡아주며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위로해주는 인형을 보자 리현은 벅찬 감정이 올랐다.

리현은 맞잡고 있는 인형의 손에 같이 힘을 주었다. 그러자 인형이 리현을 쳐다보며 씩 웃었다.

그 웃음에 리현의 심장언저리가 뜨거워짐을 느꼈다. 리현의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졌다.

어느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어갔다. 그러고 보니 리현은 인형이 왜 거기에 왔는지 궁금해졌다.

우현과 집안 고문 변호사가 와서 정리를 하는 동안 리현은 틈틈히 인형의 일행을 살펴보았다.

인형을 제외한 남자 세명과 여자애 한명이 있었다.

네명 모두 표준이상으로 잘생기고 예쁘장한 아이들이었다.

게다가 인형과 굉장히 친해 보이는 모습을 보자 리현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다.

그리고 인형을 쳐다보는 차갑게 생긴 놈과 흰칠하게 생긴 놈의 표정이 묘하게 리현의 신경을 긁었다.

그들과 떼놓고 싶은 심정이 드는 리현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인형의 손을 잡아 자신쪽으로 끌어당겼다.

우현과 함께 경찰서에서 나온 리현은 일단 멤버들에게 발길을 돌렸다.

리현은 일단 멤버들에게 짤막하게 사과를 하고, 보컬을 바꾸자며 통보를 했다. 다들 동의하는 눈치였다.

대단한 동생을 두었다며 감탄을 하는 멤버들의 말에 인형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주자 아까 그 흰칠한 놈이랑 속닥거리는게 보였다.

눈에 불이 나는 것 같은 리현은 담에 연락하자란 말을 던지고, 인형의 쪽으로 성큼 발걸음을 빨리하였다.

.
. .
.

리현이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어깨가 무겁해지는 것을 느꼈다.

인형이 줄면서 리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다. 리현은 조심스럽게 인형의 머리를 자신에게 편하게 기대게 하였다.

"천천히 몰아.. 애 피곤한가봐."

리현이 운전하는 우현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백밀러로 뒤를 보던 우현의 운전이 조심스러워졌다.

"갈수록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는 애다."

우현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리현도 말없이 동의했다.

살풋 잠이 든 인형은 집 근처에 오자 벌떡 잠에서 깨었다.

"자면 안고 집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왜 벌써 일어나?"

우현이 화들짝 일어나는 인형은 보더니 싱긋 웃으며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호랑이 굴 근처에 온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토끼처럼 저절로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지 월....."

인형은 강현을 생각하며 양팔을 쓰다듬으며 부르르 떨었다.

"풋~ 걱정마.. 다들 전적들이 화려한 사람들인지라..크게 뭐라 하진 않을꺼다."

리현은 인형의 행동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안심시켜주었다.

"전적들이 다들 화려해? 이런.. 언제 한번 뒷담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겠네."

전적들에 호기심이 생긴 인형의 눈이 반짝거렸다.

인형의 반짝 거리는 눈은 2층 거실에 자리잡고 있는 강현을 보는 순간 빛을 잃었다.

강현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못마땅한 듯이 리현을 노려보더니 엄한 눈길로 인형을 쳐다봤다.

"일단 다들 여기 앉아."

강현의 말에 셋은 자리에 앉았다. 강현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인형이부터 혼을 내기로 맘을 먹었다.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벌써부터 술집에 들락거리다니. 실망이다. 최인형. 게다가 싸움판에 끼들다니, 여자애가 겁도 없이 그

러다가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뻔 했어? 이젠 탈선하기로 맘 먹은거냐?"

"내가 오라고 했어. 스트레스 풀겸 친구들이랑, 놀러 오라고, 사실 형들도 고딩때 다 놀만큼 놀았으면서 뭘 그래?"

리현이 불쑥 끼어들었다.

"최리현. 넌 뭘 잘했다고.. 그리고 어린 여동생을 술집으로 불러들인게 잘한 짓이란 거냐?"

강현은 화를 벌컥 내며 리현을 노려봤다.

"잠깐만요. 큰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리현오빠한테 공연하는거 안보여주면 몰래라도 간다고 자꾸 떼를 썼거든요..그리고

오빠가 쥐어터지는데 가만히 있는 동생이 어디있나요.. 그리고 보다시피 멀쩡하잖아요. 그렇다고 담에도 꺼든다는 건 절대루 아

니구요..그리고, 탈선하려는 맘도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 한번만 봐주세요~~ 헤헤~ 그리고보면 리현오빠도 사실 피해자거든요.."

인형은 두손을 모으며 용서를 빌며 살짝 애교도 떨어주었다.

"취어터지긴 누가 터졌다고...헉!"

인형의 표현이 맘에 들지 않는 리현이 군시렁거리자 인형이 리현의 옆구리를 찔렀다.

눈썹을 찌푸린 리현이 인형을 쳐다보자 인형은 무언의 인상을 썼다.

'지금은 납작 엎드려야 할때거든.. 그냥 조용히 좀 가자~'

인형은 강력한 텔레파시를 보내고 강현을 쳐다보며 다시 베시시 웃으며 용서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광경을 지켜보는 우현은 속으로 마구 웃었고, 강현은 한숨을 쉬었다.

"두번 다신 술집에 들락거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만 들어가 쉬어라. 피곤하겠다."

자꾸 기운이 빠지는 강현은 인형에게 다짐을 받고 그만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노력할게요."

약간 생각하던 인형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노력? 그럼 또 간단 말이나?"

어이없는 대답에 강현은 살짝 놀라 되물었다.

"...네..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솔직히 자신없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할게요."

강현의 커지는 눈에 살짝 주눅이 들었지만, 인형은 솔직히 대답을 했다.

강현은 인형의 대답에 어이는 없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는 인형이 한편으론 맘에 들기도 하였다.

듣고 있던 우현과 리현도 같은 심정이었다.

"..그럼 갈때 나한테 허락말고 가도록 해라"

강현이 절충안을 내어놓았다.

"에이~ 그건 아니죠.. 도둑놈한테 도둑질 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털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무슨 그런 억지를... 정말 최대

한 노력할게요.. 나쁜짓은 안해요.. 약속해요."

강현의 말에 찔쩍 뛰며 정색을 한 인형이 반박을 하며 목소리를 높혔다.

강현은 머리가 아파움을 느꼈다. 날이 갈수록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형을 이젠 감당하기가 힘이 들 지경이었다.

"성적은 왜 그렇게 떨어진거냐?"

강현은 말을 돌렸다.

"...그게.. 아프고 난 뒤에 기억이 오락가락하는게... 생각이 잘 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

성적이란 말에 기가 확 꺾인 인형이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았다.

"일단 노력해서 성적부터 올려놔. 그럼 너가 말하는 그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테니.."

강현은 강력한 말투로 이야기를 끝내버렸다.

입이 쏙 나온 인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일단 인형은 먼저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왔다.

방으로 들어가기전 인형은 강현의 등 뒤에서 리현에게 손짓발짓으로 최대한 납작 엎드리란 시늉을 하며 설득을 하였다.

우현과 리현의 시선이 강현의 등뒤를 향하자 궁금한 강현이 고개를 돌리자 인형은 기지개를 키며 방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키득거리는 우현과 약간 어이없지만 그런 인형이 귀엽기만 한 리현은 피식거렸다.

어째 오늘은 강현의 말이 먹혀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지라 강현은 또 다시 한숨이 나왔다.

강현의 다소 힘이 빠진 설교와 많이 고분고분해진 리현의 면담은 짧게 끝이 났다.

방으로 돌아온 인형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소지품을 꺼내놓다가 핸드폰을 보자 지훈이 생각이 났다.

통화버튼을 누르려던 인형은 너무 늦은 시간인지라 문자를 보내기 위해 손가락을 바빠 움직였다.

- 무사귀환,, 오늘 너무 고맙고, 미안해~ -

인형은 뭔가 허전함에 다시 문자를 보냈다.

- 아침 접선장소에서 기다리겠음..잘자~ -

문자를 보낸지 얼마있지 않아 답장이 왔다.

- 나도 미안해..피곤할텐데 그만 자~ -

답장을 보며 미소짓는 인형에게 또다시 답장이 왔다.

- 보고싶다 -

인형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꼭 껐안으며 중얼거렸다.

"...나도..."

그상태를 잠시 유지하던 인형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문자를 보냈다.

- 오늘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다. 내가 언젠가 꼭 이 원수를 갚으마 -

정우와 빛나리에게 문자를 보내고 인형은 씻기위해 욕실로 향하였다.

명진의 핸드폰 번호는 모르는 인형이었다.

욕실에 있는 인형에게 답장이 들어왔다.

- 알면 갚아 -

- 뭐 별로. 나중에 해물탕 한번 더 해주던가 -

빛나리와 정우의 답장이었다.

14300 208

멀리서 지훈의 모습이 보이자 인형은 미소가 지어졌다.

오늘은 인형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싶어 다른날 보다 일찍 집을 나섰건만, 어김없이 오늘도 지훈은 먼저와 인형을 기다리고 있었

다.

이젠 해가 짧아져 이제서야 환해지려는..아직 어둠의 잔상이 미약하게 남아있는 아침에 정류장에 기대어 서 있는 지훈의 그 모습

이 웬지 뭉클해지는 인형이었다.

잠시 숨을 들이킨 인형은 지훈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인형을 보자 멍하니 딴생각을 하던 지훈의 얼굴이 반가움으로 물들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와 있어? 아침은 먹고 나온거야?"

그런 지훈을 보자 마음이 째해진 인형은 속상한 마음에 야단치듯 말을 꺼냈다.

"일찍 눈이 떠지더라구.. 아침은 그냥 대충 학교에서 먹지 뭐.."

인형의 걱정스런 말투가 싫지않은 지훈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휴~ 하루 세끼 중에 아침이 가장 중요한 건데.. 널 부터 늦게 나와도 되니깐 아침은 꼭 먹고 나와.. 되도록 밥이랑 국으로..한

국사람은 밥힘으로 사는건데....."

유난히 먹는것에 민감한 인형은 한참을 종알종알 잔소리에 신신당부를 했다.

한참을 떠들던 인형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웃고만 있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왜 웃고만 있어?"

"풋~ 난 누가 나한테 잔소리 하는거 정말 질색이었는데, 네가 하는 잔소리는 듣기좋은 노래처럼 들리니..이정도면 나도 중증이란

생각이 들어서...."

지훈의 대답에 인형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다.

"흠..흠.. 내가 워낙 잔소리를 맛깔스럽게 하긴 해.."

인형은 괜시리 버스가 오는지 보는 척 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젠 지훈은 인형이 머쓱하거나 부끄러울때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는 척 하는 버릇을 알아버린 후라 인형의 행동에 지훈은 나지막

히 웃었다.

"어젠 집에 많이 혼나지 않았어?"

지훈은 인형의 표정을 보니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여 물어보았다.

"별로...휴~~~"

인형은 한숨을 쉬었다.

"별로라면서 웬 한숨?"

"대신에 성적을 좀 더 올려야 할꺼 같아서... 어디 학원이라도 알아봐야 되나... 쯤.."

인형은 강현의 성격상 성적을 올리지 않으면 다음부터 국물도 없을 것이란 것을 예감했다.

그러다 생각난 듯 지훈을 뺨히 쳐다보았다.

"..왜?.."

웬지 꼬투리를 잡는 인형의 눈길에 지훈은 불안해졌다.

"오빠는 공부잘해? 몇등 정도해?"

"....."

이번엔 지훈이 버스가 오는지 확인을 했다.

"으흐흐..알만하네.."

지훈의 태도에 인형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알만하단 표정으로 쳐다봤다.

"뭘? 뭘알아?...쳇!"

인형의 야릇한 표정과 눈길에 자존심이 상한 지훈은 성질을 부렸다.

"역시 완벽한 인간은 없구나.. 짝찬 외모에 텅빈 머리를 주셨군.."

"...!...."

인형의 직선적인 말에 지훈은 입이 떡 벌어지고 얼굴이 굳었다.

여지껏 지훈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충격을 받은 지훈이었다.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인형은 계속 말을 이었다.

"이제 2학년 말이고, 내년이면 3학년인데.. 대학도 가야되고, 뭐 어쨌든 가업도 물려받아야 될꺼 같구.. 그걸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되지 않나? 아님 그냥 대충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피성 유학이라도 하고 대충 외국에서 졸업장 받아 올 요량인건가? 너무 뻔한 스토리다. 돈많은 집안의 약간 떨어지는 아이들의 정해진 수순 아닌가? 너무 개성이 없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더 이상 듣고 있자니 스물스물 열이 뻗치려는 지훈이 낮고 화가난 목소리로 인형의 말을 잘랐다.

인형은 지훈을 쳐다보며 씩 웃었다.

"내 잔소리는 듣기좋은 노래라고 한지가 10분도 지나지 않은것 같은데? 아직 일절도 하지 않았구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심지어 가 굳지 못하게 시리..에이~ 실망이야~"

인형의 약올리는 듯한 말투에 찔끔한 지훈은 진심으로 아까 한 말을 물리고 싶었다.

인형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자존심 강한 지훈을 더 건들이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았다.

버스안에서 굳어진 얼굴로 생각에 잠긴 지훈이었다.

그런 지훈의 모습에 인형은 슬쩍 미소를 띄우며 내코가 석자인 자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고민에 돌입했다.

학교에 도착한 약간은 뻗뻗한 지훈과 전혀 개의치 않는 인형은 각자의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유달리 살벌한 기운이 뻗쳐 나오는 지훈때문에 지훈의 반 아이들은 어찌나 움추려 들던지 어깨가 결릴 정도였다.

게다가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서도 수업을 한시간도 빼먹지 않는 지훈에게 더욱 치가 떨리는 급우들이었다.

정우는 인형을 보자마자 얼굴부터 살폈다. 그러나 평상시와 다른없는 인형을 보자 안심이 되었다.

빛나리 역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들락거리며 인형의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인형의 오빠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처음엔 혹시나 오빠에게 반한게 아닌가 싶은 인형이었지만, 빛나리의 그저 잘생긴 사람에 대한 호기심뿐이었다.

마음을 다잡은 인형은 간만에 열공모드로 들어갔다. 시험이 또 다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인형과 빛나리는 요즘들어 심드렁해지고 기운빠진 듯한 은주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지훈이 인형에게 대하는 다정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지만, 요 근래들어 말수가 적어지고 대신에 인형에게 뭔가를 답을 찾으려는

듯한 집요하게 쳐다보는 눈길이 많이짐을 느끼는 인형이었다.

다소 당황될때도 있었지만, 인형은 모른척 넘겨버렸다.

각자의 이유로 한동안 조용히 학교생활에 충실히 생활을 해갔다.

방과후 학교앞을 나서는 인형은 학교앞이 약간 소란스러움을 느꼈다.

인형의 핸드폰이 울렸다.

액정을 보니 리현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

"어디야?"

말을 꺼내기 무섭게 어디냐고 묻는 리현이었다.

"학교"

"빨리나와. 나 지금 너희 학교 앞이야"

"뭐? 왜?"

뚜~~

원일때문인지 묻고 있는 인형의 전화는 벌써 끊어져 있었다.

어이가 없는 인형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 전화길래 그래?"

빛나리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요즘 횡 하니 사라지는 은주때문에 하교길엔 빛나리가 인형의 곁에 더욱 붙어 다녔다.

"막내오빠가 학교앞에 와 있대"

"그래? 우후후~ 잘생긴 얼굴 또 한번 보겠군. "

눈에 빛을 내는 빛나리였다.

학교앞 소란의 원인은 리현때문이었다. 하교길에 학교앞에 떡하니 서있는 빛이 나는 리현의 외모와 배경화면으로 멋진 외제스포

초카까지 받쳐주고 있으니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주위에는 연예인이 아닐까라는 조심성 없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다.

주위의 시선이 못마땅한 듯이 지푸리고 서있는 리현을 보자 인형은 한숨이 나오면서 학교앞까지 찾아온 이유가 너무 궁금해졌다.

학교 교문쪽을 쳐다보던 리현이 빛나리와 인형을 발견하자 성큼성큼 걸어 인형의 곁에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

빛나리가 다가온 리현을 보며 인사를 했다.

리현의 시선이 빛나리로 향했다. 그러다 관심없다는 듯이 인형쪽으로 얼굴을 획 돌려버렸다.

"갈때가 있으니 빨리 가자"

인형의 손목을 덩석 잡고는 리현이 인형을 끌어당겼다.

"응? 어딜? 그리고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내 친구야. 저번에 한번 봤잖아..경찰서에서(여기선 조금말게 이야기 했다) .."

그제서야 어디서 본 듯한 생각이 든 리현은 빛나리에게 눈길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빛나리 라고 해요."

"그래. 지금은 바빠서.. 빨리 따라와"

마지 못해 대답을 하던 리현은 먼저 차 쪽으로 몸을 돌려 가버렸다.

"요즘에 들어서 내가 나의 존재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빛나리는 리현의 뒷모습을 보며 심각하게 말을 꺼냈다.

"처음본 사람 한테 원래 저래.. 그러려니 해. 성격이야..낯 가리는.. 이크. 얼른 가야겠다. 째려본다. 널 보자 나리아~"

빛나리의 고민스런 표정을 보니 웃음이 나와 위로해 주던 인형은 리현이 이쪽을 보며 인상을 쓰자 급히 인사를 하며 급히 리현의

차에 발걸음을 옮겼다.

인형이 차에 타자마자 급히 떠나는 차 꼬무니를 쳐다만 보는 빛나리였다.

"특이해.. 특이해.. 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특이한 거 같애.."

"뭘 혼자서 중얼거려? 인형이는?"

어느새 곁에 다가왔는지 인형을 찾는 지훈이었다. 빛나리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부룩으로 명진이 지훈옆에 붙어 있었다.

"방금 잘생긴 남자가 납치해 갔어요"

빛나리는 약간 심술이 나서 말하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뭐? 무슨 이야기야? 남자? 납치?"

인형이 보이지 않고, 남자가 납치했다란 알수 없는 소리에 짜증스러운 지훈의 목소리였다.

"걱정되면 전화해보시던가요. 제가 무슨 인형이 메니저줄 아세요?"

자신은 계속 무시되는 듯한 태도들에 오늘따라 울컥한 빛나리가 지훈에게 쏘아붙였다.

"내가 요즘 많이 만만해 보이는 모양이구나..많이 기어오른다?"

빛나리의 짜증스런 대답에 지훈의 얼굴이 싸하게 변했다. 인형과 엮힌 사이만 아니면 지훈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빛나리였다.

순간 빛나리는 움찔했다. 한동안 너무 말랑한 지훈을 보다보니 예전의 지훈을 잠시 잊고 있었다.

지금의 지훈의 표정은 한번 돌면 앞뒤 안가리고 뒤집어버리기 전의 얼굴 표정과 눈빛이었다.

"인형이 막내오빠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어디 갈때가 있다고..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그건 말 안해줬어요"

빛나리는 고분고분하게 아는 것을 몽땅 털어놓았다.

빛나리를 다시 한번 노려보던 지훈은 냉기를 폴폴 풍기며 빛나리를 지나쳤다.

가슴이 덜컹하던 빛나리였다.

지훈의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빛나리에게 정우일행이 다가왔다.

"왜 혼자냐? 인형이는?"

혼자서있는 빛나리를 보자 수호가 아무생각없이 물었다.

빛나리의 표정이 사납게 변했다. 아무말 없이 수호를 노려보았다.

영문을 모르는 멍청하는 수호였다.

"인형이 어디 갔어?"

주위에 인형이를 찾던 정우는 미처 빛나리의 표정을 보지 못하고 궁금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빛나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빛나리의 발이 수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정우의 배에 주먹을 꽂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수호가 맞는 것을 보고 빛나리의 주먹이 자신에게로 다가오

자 운동신경이 남다른 정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버렸다.

허공을 가른 주먹과 함께 휘청거리는 빛나리였다.

비틀거리던 빛나리는 매섭게 정우를 노려보았다. 눈엔 눈물이 그렁한 채로..

왠지 자신이 잘못된 것 같은 정우였다. 한참 노려보던 빛나리가 몸을 돌려 학교를 빠져나갔다.

어리둥절한 수호와 정우, 원지 모르게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흥기였다.

"한대 맞아줄걸 그랬나?"

뭔가 찝찝한 정우가 중얼거렸다.

"내 생각도 그런거 같은데?"

지켜보던 흥기의 생각도 정우와 다르지 않았다.

.
. .
.

리현이 인형을 데리고 온 곳은 척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의상실이었다.

여기에 왜 온건지도 궁금했지만, 예쁜옷들과 소품들이 신기한 인형은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머나, 어서오세요? 정말 오랫동안 오셨네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새련된 옷차림에 고상하게 생긴 여자가 리현을 보며 반색을 하였다.

"애 입을 만한 걸로 그냥 안전한 것으로 골라주세요"

전혀 반가운 얼굴이 아닌 리현은 인형을 가르키며 말했다.

"아. 저 아가씨요? 학생인가보다. 교복입으셨네?"

그 여자는 교복을 입은 인형을 훑어보았다.

"근데 어떤 자리인지?"

인형의 몸을 매의 눈으로 훑어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리현에게 물었다.

"그냥 밥먹을 꺼예요"

시큰둥하게 리현이 대답했다.

"호호~ 네.. 아가씨 이쪽으로 오세요"

재밌다듯이 미소짓던 그 여잔 이내 표정을 숨기고 인형에게 깍듯이 행동했다.

인형은 그 여자의 웃음에 같이 웃어주곤 리현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여기 어디야? 내가 왜 옷을 사야되는거야? 어디갈려고?"

"밥먹으로 갈꺼야. 교복입고 먹는거 보다 차려입고 먹으면 더 맛이 나는 데야."

속삭이는 인형의 수고를 간단히 무시하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고 소파에 털썩 앉아버리는 리현이었다.

인형은 그 여자에게 끌려가 이웃 저웃을 골라주었다.

"어떤 게 맘에 드세요?"

인형은 그 옷들 중에 가장 무난해 보이는 옷으로 대충 찍었다.

헵번스타일의 인디핑크 원피스였다.

"얼굴도 작고 몸도 가름해서 잘 어울릴꺼예요. 잘고르셨어요."

인형이 옷과 함께 어울리는 여러가지 구두부터 시작하여 머리핀까지 여러가지 소품들까지 고르고 나자 힘이 빠졌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사람은 꾸미기 나름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주 만족스러운 인형이었다.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란 것은 리현의 표정에도 나왔다.

리현은 한참 기다리던 지루함을 한방에 씻어주는 생각했던 이상으로 예쁜 인형을 보자 미소가 지어졌다.

시니컬한 리현의 표정에 떠오른 미소를 보자 제일 기쁜 것은 의상실 실장이었다.

리현은 카드를 건네 계산을 하고 인형과 함께 의상실을 나왔다.

"무척 비싼 집 같은데.."

인형은 옷은 무지 맘에 들지만, 범상치 않는 옷들과 소품을 보자 살짝 걱정이 되었다.

"꼬맹이가 별 걱정을 다하네..엄마가 자주 가는 곳이니깐 믿을 만한 곳이야. 예쁘다."

리현은 걱정하는 인형을 보며 피식 웃으며 한쪽 손으로 인형의 이마를 살짝 툇겼다.

리현의 예쁘단 소리에 어쩔수 없이 기분이 좋은 인형이었다.

리현과 함께 도착한 곳은 인형은 몰랐지만 회원제 식당이었다.

입구에서 부터 고급스런 인테리어와 은은한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에 들어서자 인형은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리현과 인형은 강현과 우현을 만났다.

강현과 우현은 인형을 보고 다소 놀라는 듯 했다. 놀라긴 인형도 마찬가지였다.

"어~ 여기서 다 만나네? 아항~ 여기서 만나서 저녁먹기로 했구나. 난 또 말도 안해주고 데리고 오길래. 무슨 큰 비밀인가 했네"

인형은 세형제들과 저녁을 먹기로 한 줄 알고 반갑고 즐겁게 말을 건넸다.

강현과 우현은 다소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고 리현을 쳐다봤으나 리현의 표정은 도리어 도전적으로 강현과 우현을 쳐다봤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네사람의 시선을 끄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금 많이 떨어진 비상구 문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후다닥 뛰어 나왔다.

"거기안서~ 어디서 양다리야~ 넌 죽었어. 거기 안서~"

뒤이어 여자가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며 뒤 쫓아 나왔다.

허겁지겁 뛰어오는 남자는 30대 초반쯤 되어보였다.

양다리를 걸치다 아마 이 식당에서 걸린 모양이었다.

인형이 보니 저 상태라면 여자가 남자를 놓칠 게 뻔해 보였다.

인형은 옆에 조각상을 살피는 척 하며 남자가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를 옮겼다.

남자가 지나가는 찰나 인형은 발을 슬쩍 걸었다.

남자가 퍽 하고 넘어졌다. 그러나 다급했던지 넘어지는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듯이 벌떡 일어나 도망갈 준비를 하였다.

인형은 이왕 도와줄꺼 끝까지 도와주자란 생각에 도망가려고 일어나는 남자의 뒷덜미를 재빨리 잡으며 말을 걸었다.

"어머나 죄송해요. 저때문에 사과는 받으시고...으허억~"

분명히 인형이 잡았는데 남자의 몸이 숙하고 도망가버렸다. 그럼..인형의 손에 잡혀있는 건 무엇이란 말인가?

인형의 손에는 시꺼먼 털뭉치가 있었다. 도망가는 남자의 머리가 반짝거렸다.

뒤쫓던 여자는 인형의 앞에 멈춰서서 인형의 손에 든 털뭉치를 입을 벌리며 쳐다보았다.

"세상에... 이건 또 뭐야..내가 저 사기꾼 같은 인간을..."

여자는 비틀거리며 다시 그 남자의 뒤를 따라 나갔다.

인형은 어쩔줄을 몰랐다. 손에 들고 있는 이 가발은 어쩌란 말인가...

인형은 강현과 우현, 리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세사람 다 병진 표정이었다.

인형이 슬금 슬금 저쪽으로 몸을 옮길때 부터 조짐이 이상하더니 세상에... 도망치던 남자의 다리를 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형은 머쓱한 표정으로 세형제에게로 다가와 조심스레 의견을 물었다.

"이거 어떻게?"

가발을 내밀며 인형은 세명의 얼굴을 살폈다.

아까부터 내려와 있던 엘리베이터에 강현이 먼저 몸을 실었다. 뒤따라 모두 엘리베이터에 탔다.

"ㅋㅋㅋㅋ~~ 푸하하하하~~"

강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까 그 상황이 생각할 수록 웃겼다. 반짝이던 머리로 도망치는 남자의 모습과 어리둥절하게

가발을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의 표정이 떠오르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강현의 웃음을 시작으로 우현과 리현도 웃음이 터졌다.

세형제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 나중에는 눈물이 고일 지경이었다.

인형이도 머쓱했지만, 생각해보니 그 남자와 여자에게 미안한 감이 있었다. 그래서 살짝 웃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서도 피식피식 거리던 세형제였다.

"정말..최인형 널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현은 눈물을 닦으며 너무 귀엽다는 듯이 인형의 머리를 꺼안았다.

"머리한거 망가져"

리현이 재빨리 우현의 팔을 걷어내며 인형을 떼어 놓았다.

"잠깐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가자."

강현은 겨우 웃음을 정리하고 인형을 쳐다봤다.

강현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형의 두 눈을 보자, 말문이 막히는 듯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14371 209

강현의 이야기론 오늘이 박여사의 생일이란 것이었다.

해마다 박여사의 생일은 인형을 빼놓고 바깥에서 먹었던 모양이었다.

하긴 예전의 인형을 생각하자니 같이 모이는 것 자체부터가 인형에겐 고역이었을 것이었다.

인형은 마음이 아프지 않은것은 아니었지만, 이내 털어내 버리기로 마음 먹었다.

자익든 타익든 여기까지 온 이상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저 땀에 분위기만 살벌해 지지 않길 바랄뿐이네요 ..뭐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싶은 건 진심이니깐.. 들어가죠.."

인형은 맘을 굳힌 듯 살짝 웃어보이며 어정쩡한 세형제들에게 도리어 제촉했다.

갈수록 맘에 드는 인형에게 살짝 웃음띤 얼굴로 강현이 손을 내밀었다.

"언제까지 그거 들고 있을꺼냐? 이리줘"

강현은 인형에게서 그 가발을 받아들고 강현을 보고 다가오는 지배인에게 뭐라 이야기 하며 그 가발을 건내주었다.

인형은 리현과 눈이 마주쳤다. 인형은 리현에게 웃어보였다. 리현의 마음이 고마웠다.

룸에 들어가자 최희장과 박여사는 미리 와 있었다.

인형을 먼저 발견한 최희장은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었다.

박여사 역시 인형을 쳐다보곤 놀란듯 했지만, 같이 들어오는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묘한 배신감을 더 느껴졌다.

자리를 박차고 나갈줄 알았던 박여사는 생각보다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인형은 조용히 식사에 임했다. 웬지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박여사가 힘이 빠진 듯 해보여 인형의 마음은 도리어 편하지 않았다.

식사가 계속되고 주로 최희장과 강현이 가끔 주고 받는 대화가 대부분이었다.

대충 식사가 끝나가자 인형이 잠깐 손을 씻고 오겠다며 자리를 일어났다.

인형은 한참을 있어야 돌아왔다.

인형의 나뭇 박여사에게 생일선물을 준비하였다.

생각보다 떨리는 인형은 리현과 눈이 마주쳤다. 인형은 와인잔을 내밀었다.

어째 알콜 기운을 빌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리현은 아무말 없이 와인을 인형에게 따르어주었다.

인형은 와인을 원샷하듯이 한번에 꿀꺽 다 먹어버렸다.

한잔을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원샷을 하는 인형에게 가족들의 시선이 몰려 인형은 아쉬운 마음을 접었다.

룸에 살짝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타를 든 남자가 들어왔다.

인형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그 남자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인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인형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인형은 약간 긴장이 되었지만,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꺼냈다.

"음..생신이신데.. 전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 한곡 불러드릴려구요.."

뜻밖의 상황에 모두 인형만 쳐다보았다. 시선에 긴장이 된 인형이 다시 식탁으로 다가왔다.

리현앞에 놓인 와인잔에 담긴 와인을 들고 단숨에 다시 마셔버리고 힘을 냈다.

인형은 기타를 치시는 아저씨에게 눈짓을 했다.

박여사는 이 상황이 맘에 들지 않았다. 노래는 무슨 노래란 말인가. 듣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박여사는 그냥 일어나 버리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들때 인형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몸을 일으키려던 박여사는 약간 떨리고 가날프지만 꽤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귀에 들어오는 가사에,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우라는 진실한 사랑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림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 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주는 비처럼 홀연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림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젠 모두가 떠날 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내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 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림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림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

노래를 부르면서 인형은 점차 긴장이 풀려갔다. 이노래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예전에 자신이 불러주면 제일 좋아하던 노래가 이노래였다.

아프실때도 가끔 이 노래를 불러달라던 엄마 생각이 났다. 자꾸 눈물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끝무렵에는 목소리가 떨려왔다.

노래가 끝나고 인형은 준비해 둔 장미꽃 한송이를 들고 박여사에게 건내주었다.

다들 아무말이 없었다. 인형의 노래를 처음 듣는 가족들은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부르는 인형에게 놀랐다가 가사가 전해주는 애

절함과 더불어 갈수록 울먹이며 부르는 인형의 목소리에 다들 가슴이 저릿함을 느꼈다.

정말로 인형이 꿈꾸는 그림고 아름다운 자신의 별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듯한 간절함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기타치시는 분이 나간 뒤에도 한참을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되자 인형은 다소 당황이 되었다.

"학교에서 노래 불렀을때는 앵콜을 무지 받았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나봐요.."

인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니야.. 이렇게까지 잘 부르는 지는 몰랐는데..정말 잘 부르는구나. 언제 이 오빠랑 노래방 한번 가야되겠는데?"

여운에 잠겨있던 우현이 얼른 인형에게 진심으로 감탄어린 어조로 말을 건넸다.

"지금 가지 뭘. 나중에 갈꺼 뭐 있어?"

리현이 불쑥 제안을 했다.

"하긴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오늘이면 나도 괜찮아"

강현마저 긍정적인 태도로 나왔다.

"그럼 오늘 우리 형제들끼리 한번 뭉칠까?"

눈치빠른 우현이 얼른 바람을 잡았다.

노래가 끝난 뒤의 박여사의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에 이들은 자리를 피해주고 싶었다.

"너희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시고 들어갈테니.. 너희들끼리 놀다가 들어오너라"

최희장 역시 박여사와 저번에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네명은 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디로 갈까? 인형이는 어디 가고 싶니?"

우현이 인형에게 물어보았다.

"글쎄...나 땀에 어디 쉽게 갈만한 데가 있나? "

생각해보던 인형은 역시 미성년자는 힘들다란 생각이 들었다.

"거기로 가면 되겠다. 보호자가 딱하니 세명이나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마땅한 장소가 생각났는지, 우현의 얼굴이 펴지면서 딱 하고 손가락을 튕겼다.

달이가고 해가가고

블로그 달이가고 해가가고 <http://blog.daum.net/jmj3178>

저자 클로로

발행일 2011.08.07 09:05:32

 블로그